

제19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소금꽃>외 58편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무궁무진
공예
대전

수상작품집

2016 제19회

공무원 문예대전

2016년 5월 인쇄

2016년 5월 발행

발행처 인사혁신처

발행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Tel : 044) 201-8422 / Fax : 044) 201-8428

펴낸곳 디자인크레파스 / 02)2267-0663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9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소금꽃>외 58편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문학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올해로 열아홉번째를 맞이한 공무원문예대전을 빛나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열정과 재능이 가득한 소중한 작품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그동안 문학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온 공무원문예대전에 금년에는 역대 최다인 2,404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4,003편에 달하는 많은 작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가 많아질뿐더러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져 우리 공무원들의 문학적 재능에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쁜 업무 와중에도 문학을 가까이 하며 창작활동을 이어온 그 열정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중 하나는 일자리 걱정, 경제 걱정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일 겁니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가 돈만 많은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고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나라 또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치열하게 일하는 와중에도 취미활동을 가지고, 예술도 가까이 하며, 때로는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화 활동으로 인해 얻은 삶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다가갈 때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주침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또한, 창조적인 창작활동을 하며 가꾸어진 소양이 창의적인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도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잠시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문학을 사랑하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 작품집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문학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문학은 우리의 희망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열광하고 기뻐해야 할 일에는 냉담하고 오히려 별 의미도 없는, 중요치 않는 일에 열광하고 기뻐한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기계 중심의 사고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치의 판단 기준이 영혼, 영원, 사랑 등의 관점이 아니라 기능, 물질, 표피적 자극 등의 관점에서 설정되어가고 있다.

어정정한 삶의 좌표, 흔들리고 있는 가치관, 사막화 되어가는 정서의 고갈 등이 현대인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갈등과 아픔이 많고, 편익적 환경 속에서 오히려 위태로우며, 다중의 집회나 조직 속에서 오히려 고립감을 느낀다.

현대인의 삶은 총체적으로 예측과 상식의 불통 속에서 미로 같은 역정을 헤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양태 속에서 문학은 무엇인가. 문학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중심의 이기적 사고에서 타인의 인생을 내 경험처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세상의 내면 모습을 진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문학을 통해 ‘나’밖의 외계와 갈등이 아닌 화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첩경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세상과 친화하고 세상의 떳떳한 일원으로써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말들이 있다. 정말 걱정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 공무원문예대전을 심사하면서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공무원(전직 공무원 포함)이라는 한정된 직업군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2,404명이 4,003편의 많은 작품을 응모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년 대비 17%가 증가한 수치다.

부분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도 대체로 우수한 작품이 많았다는 소감을 말하고 있다. 특히 선발된 수상작품들은 주제, 소재 등의 내용면이나 표현기법이 뛰어난 작품들이어서 읽는 이에게 감동을 안겨 줄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수상인원의 제한 때문에 입장에서 탈락한 작품들 중에도 아까운 작품들이 꽤 많았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나아가 국민들의 문학적 소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학을 우리 생활 속에서 놓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글을 쓸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뜻 깊고 아름다운 글을 써 펼칠 수 있는 ‘공무원문예대전’의 마당을 마련해 주신 인사혁신처에 심심한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2016년 5월

시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문 효 치

- 004 발간사 인사혁신처 | 이근면
006 심사총평 심사위원장 | 문효치



- 014 대상 수상작 심사평
015 대상 소금꽃

진주유치원 | 김민규



- | | | | |
|-----|----|-----------------|-------------------|
| 020 | 은상 | 고드름 | 경기도 시곡중학교 채규근 |
| 020 | | 옥자 | 수원소방서 선희석 |
| 026 | | 광대 | 인천광역시 김동현 |
| 028 | | 몽들 | 서울 구로구 서해웅 |
| 030 | 동상 | 풍장(風葬) - 매미 탈피각 | 경남 밀양시 이호중 |
| 032 | | 아버지의 배 | 동해어업관리단 박수찬 |
| 035 | | 타카시마(高島)로 가는 길 |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박기준 |
| 038 | | 폐경(閉經) | 전)영암군농업기술센터 김형만 |
| 040 | | 산정모지 | 영천신녕초등학교 정기원 |
| 042 | | 겨울 갯벌의 저녁 | 울산지방검찰청 김두길 |
| 045 | | 저녁의 산책 | 서울시흥초등학교 신현숙 |
| 048 | | 자반고등어 | 서울시 성북구 박정훈 |
| 050 | | 전당포(典當舖) | 부산지방병무청 이희복 |
| 052 | | 로드킬 | 강원도 정선군 심진경 |
| 054 | | 항구의 아침 | 경남 고성군 이규준 |
| 057 | | 편의점 24시 | 서울 금천구 김희숙 |

060	입선	천장(天葬)	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 이정철
063		냉이 꽃	외교부 배선희
065		진객	전)전남 고흥군 조진수

소설

070	금상	마태수난곡	울산여자중학교 심은신
096	은상	이너 차일드	전)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권재록
120	동상	지극히 사적인 통화방식	미래창조과학부 이태승
142		타인의 거리	수원 매현중학교 한경애
160		목성으로 간 여자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김주태
198	입선	장학퀴즈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이경희

수필

250	금상	도꼬마리	전남교육정책연구소 박혜경
257	은상	어머님의 전기장판	제천 의림여자중학교 안태영
263		몽당연필	전)전주초등학교 최근옥
269		경찰관이 사는 집	경남지방경찰청 이경식
277	동상	새 가슴에 든 멍은 오래도 간다	전)부산 개금고등학교 서미자
284		아버지의 유언	파주소방서 김기호
290		멈춤의 미학	전)국가정보원 강현택
295		다산초당에서 - 흔적과 상처의 메타포	강원도 태백시 남궁 중
302		작은 공유, 큰 기쁨	미래창조과학부 김수정
307		유년의 장소, 나의 유토피아	부산시 부산진구 노진숙
314		보이지 않던 삶의 모습들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전한별
320	입선	안일함	포항이동중학교 손달호
325		아버지의 손	경상남도 변경록



334	금 상	새(鳥)	조달청 김훈희
336	은 상	먹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이승은
338	동 상	승부 역에서	전)부천세무서 이홍균
340		바래길을 읽다	남해군보건소 김향숙
342		노거수가 쓴 문장	전)포항남부초등학교 심금섭



346	금 상	자전거 바퀴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송태엽
348	은 상	화각	한국교원대학교 김상한
350		칭기즈 칸	완주 동상초등학교 하 송
352	동 상	돌고래무늬 커튼	경기도 평택시 김경태
354		눈	철원 내대초등학교 김지수
356		어디로 가니	울산시 울주군 김봉대
358	입 선	카톡해요	청주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 이기락





동화

- | | | | |
|-----|-----|------------------|------------------|
| 362 | 금 상 | 똥단지 | 전)진안 정천중학교 이용호 |
| 372 | 은 상 |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 | 이천 설봉초등학교 임민수 |
| 383 | 동 상 | 느루네 집 | 경기도 남양주시 박경리 |
| 392 | | 내 이름은, □▲○ | 오산 고현초등학교 양현애 |
| 405 | 입 선 | 못난이 양파 | 양주 칠봉초등학교 윤상인 |
| 415 | | 블랙홀에 빠진 핸드폰 | 대구교육청 김칠구 |

학곡

- | | | | |
|-----|-----|--------------|-----------------|
| 432 | 금 상 | 당신이 남겨두고 간 딸 | 밀양시 보건소 김현희 |
| 442 | 은 상 | 파김치 | 의정부 민락중학교 김영완 |

485 부문별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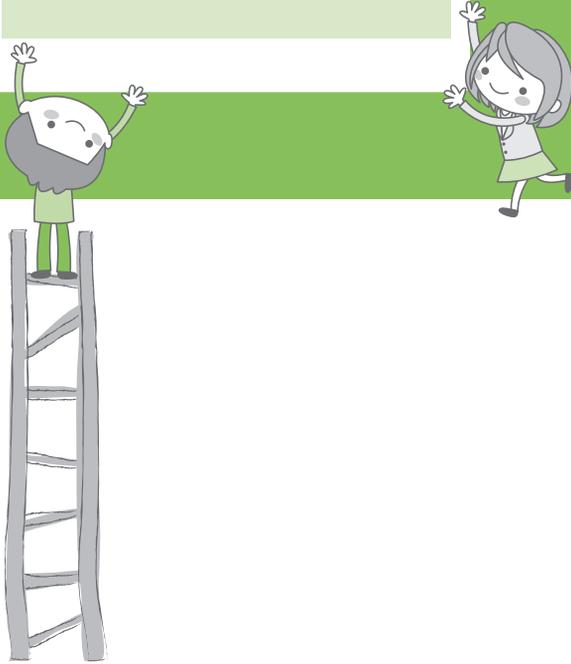


제19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소금꽃>외 58편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대상수상작



심사평

『소금꽃』은 염전에서 수차를 돌리며 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강한 메타포로 표현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읽게 하는 작품이다.

<땀별을 한 줍씩 퍼 올리는 여자/ 거친 숨소리가 바닥을 메워 나간다>로 첫줄을 연 시에서 <태양을 등에 업고 자벌레처럼 움직여/ 소금 한 뒷박 긁어모았던 그녀/ 소금을 녹여내던 땀 별이/ 몸속으로 들어왔던 것일까/땀샘에서 흘러지던 물방울이/ 마른 소금으로 터져 나왔다>라는 표현은 읽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심사위원: 문호치, 신달자, 이길원



진주유치원
김민규



수상소감

잘 지내고 있나요? 여수행 기차에 함께 올랐던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대가 전해주었던 손 편지, 열어보지 못 한 그날을 많이 자책했습니다.
'바람처럼 살고 싶다' 했던 그대의 소식, 놓쳐버린 순간들의 아련함이 더욱 깊어갑니다.
희미함이 습관처럼 육신거리는 오늘, 그 때의 자책을 이 수상소감으로 덮어봅니다.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심사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수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소금꽃

맹벌을 한 줍씩 퍼 올리는 여자
거친 숨소리가 바닥을 메워나간다
한 계단씩 밟아 오르는 그녀
공중부양 해 있는 자세가 제법 안정적이다
간혹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그녀는 위태롭게 흔들린다
정지 시키려는 비틀거림과
진행하려는 힘이 맞물려 돌아가는 수차
소금냄새를 움켜잡았던 바람이
덩달아 휘청거린다
더 늘어질 것 없는 여자의 몸뻐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으려 이를 악다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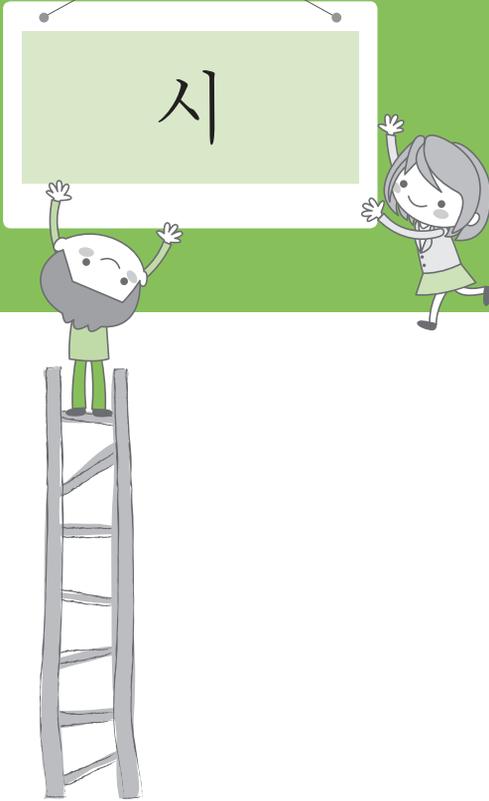
그녀가 허공에 다시 올라선다
아슬아슬했던 세상이, 순간
중심을 잡는다

여자는 물결무늬 바다를 온 몸에 가두어 놓았다
태양을 등에 업고 자벌레처럼 움직여
소금 한 뒷박 긁어모았던 그녀
소금을 녹여내던 평별이
몸속으로 들어왔던 것일까
땀샘에서 흘러지던 물방울이
마른소금으로 터져 나왔다
바닷물 표면에 반쯤 걸린 여자는
제 몸 녹여 천일염 고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머문 자리마다 소금꽃이 피어올랐다



제19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심사평

많은 작품 중에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작품이 있었다. 바로 『소금꽃』이다.

염전에서 수차를 돌리며 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강한 메타포로 표현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읽게 하는 작품이었다. 이 정도의 작품이면 대상으로도 손색이 없는 좋은 작품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은 공감했다.

그 외에 『고드름』 『옥자』 『광대』 『몽돌』 『풍장』 등 시 공부를 열심히 한 수준급의 작품들도 볼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소금꽃』을 시 부문 금상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심사위원: 문효치, 신달자, 이길원

은상 ● 고드름

경기도 시곡중학교 채규근

옥자

수원소방서 선희석

광 대

인천광역시 김동현

몽돌

서울 구로구 서해웅

동상 ● 풍장(風葬) - 매미 탈피각

경남 밀양시 이호종

아버지의 배

동해어업관리단 박수찬

타카시마(高島)로 가는 길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박기준

폐경(閉經)

전)영암군농업기술센터 김형만

산정묘지

영천신녕초등학교 정기원

겨울 갯벌의 저녁

울산지방검찰청 김두길

저녁의 산책

서울시흥초등학교 신현숙

자반고등어

서울시 성북구 박정훈

전당포(典當舖)

부산지방병무청 이희복

로드킬

강원도 정선군 심진경

항구의 아침

경남 고성군 이규준

편의점 24시

서울 금천구 김화숙

입선 ● 천장(天葬)

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 이정철

냉이 꽃

외교부 배선희

진객

전)전남 고흥군 조진수





경기도 시곡중학교
채규근



수상소감

낮은 다리이다.

삐걱거리던 소리와 등성등성 빠져있는 나무 발판 몇 개. 두 줄로 겨우 버티고 있는 언제 끊어질지 모를 생명선이다. 첫 발을 내딛자 거센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휘청거린다. 한발 뒤로 물러선다. 다시 발을 내딛자 이젠 구멍이다. 밑으로 끝없는 추락이다. 악몽이다. 깨어나도 생사의 경계선이 구별되지 않는 아침이다. 몽롱한 아침 햇살이 나의 등을 떠밀어 다시 일상의 늪에 집어 던진다.

시란 녀석이 나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려 한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그의 허락 아래 그와 함께 하도록 강요한다. 그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가 내가 그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탈출구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우선 부족한 시를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원한 친구이며 여행 동반자인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항상 든든한 기동처럼 잘 자라준 상연 윤석 두 아들 고맙다. 삶이 곧 시가 되는 진정한 소리꾼이 되길 다짐해 본다.

고드름

흐르는 것이
흐르지 못하고
그대로 창이 되어버렸다

공단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
하늘 향해 포신을 드리우고
어깨 기대선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사람들의
밤새워 주고받던 소곤소곤 내려앉은 눈물방울들이
줄줄이 투명한 결빙
맑은 얼굴로 하늘에 매달린다.

온 힘을 다해 매달려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가파른 절벽을 오르듯
새벽 공기 가르며 일터로 향하는 원곡동 언덕길
어느새 양지바른 공터에 모인
맞벌이 부부의 품을 떠난 고만 고만한 아이들
안간힘을 쓰며 매달린
부끄러울 것 없는 순백의 땀방울들이
언젠가 무기가 되어 자신의 가슴을 겨눌지도 모를

저 위태로운 창 끝 아래
해맑은 웃음으로 다가선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넋지시 밧 가닥의 웃음을 집어 던지자
아이들은
입김을 불며
언 손을 녹여 가며
일렬로 줄 선 가난을
하나 둘 떼어내고 있었다.





수원소방서
선희석



수상소감

옥자!

제게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 친구의 어릴 적 모습으로 되돌아가 본 시간여행!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며 하나 둘 떠나간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80 노모의 애잔한 눈물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사별이라는 아픔을 겪은 뒤 운명 같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서로의 가슴에 오롯이 남는 별이 되어 영원한 깨복쟁이 친구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담아 봤습니다.

서툰고 부족한 제 글에 시어로써의 가능성을 타진 할 수 있는 행복한 동기를 부여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옥자를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전남 보성 옥평리 두솔부락에 홀로 살고 계신 어머님께도 감사드리며,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빌어 봅니다.

옥자

옥평리 두슬부락 시냇가
별거벗고 뛰놀던 깨복쟁이 껌장피부
유년의 내 여자 친구는
서울 댁이 되어 돌아왔다

스러져 가는 담장마다 무성한 잡초는
장승처럼
소리 없는 세월을 견디며
누구도 지키지 못한 서울 댁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떠난 길
이젠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쉬이 사랑한다 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너를 지켜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 일게다

옥자

칠혹 같은 밤

별이 하얗게 쏟아지는 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던 유년의 네가

별빛처럼 총총히 걷고 있다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인천광역시
김 동 현



수상소감

먼저 공무원이라는 직장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사혁신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복이라는 업무와 조직이라는 사회특성 속에서 많은 동료 선·후배들에게 이런 기회(응모 자체)는 습관화된 시간의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사람과 어울려 살아 가며 느껴야 하는 고민 속에서 커다란 해방구를 만들어 주었으며 동시에 행복의 창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미천하고 못난 글에 후한 점수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업무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하라는 귀한 점수이자, 시민과 직장 동료, 그리고 제 자신의 생활에 더욱 많은 활기와 에너지를 나누라는 깊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제 시간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주최 기관 및 부서, 그리고 제 주변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멋지고 뜻깊은 문예대전으로 발전하여 많은 동료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 하며, 또 다른 자신을 찾아보는 기회의 연속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 대

오늘 장에 저놈이 또 왔구나.
찌그러진 탈을 쓰고 덩실거린다.

넘어져도 웃고 물벼락을 맞아도 웃고
욕을 먹어도 웃고 마는구나.

어찌 그리 못생겨서 웃기만 하는 거냐.
탈이 못난게냐, 탈이 웃는게냐.

자빠진 탈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자
이놈 저놈 떠나기 시작한다.

어린 놈이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줍기 시작한다.

헐떡거리는 탈 턱주개로 흐르는 게 무엇이나.
어린 놈만 아는지 웃지 못하는구나.



서울 구로구
서해웅



수상소감

어린 시절 여수 몽돌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다. 맨발로 돌 위를 걸으며 느꼈던 딱딱하면 서도 매끌매끌한 감촉과 발목을 적시던 물결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해안선 저 멀리 섬이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때 본 영상이 시가 되기까지 길게는 20여년이 넘게 걸렸다. 시각장애인으로서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곁에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일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 역할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직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고 동료들도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아직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나 자신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야생초라고 여기기로 했다. 깊은 산 속 어느 계곡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야생초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약초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풀꽃으로 이름을 얻듯 언젠가 나도 나만의 역할을 찾을 날이 오리라 믿고 있다. 한 편의 시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서 한 발짝 내딛었을 뿐이다. 공직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이번 수상은 단순히 수상의 기쁨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나를 믿어 주고 나 또한 곳곳에 공직생활을 이어 나간다면 분명 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 줄 기회가 올 것이라 믿고 있다.

먼저 모자란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뽑아 주신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것이다. 또 늘 옆에서 도움 주시는 우리 구청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 모든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한 뼉의 햇빛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앞을 틈워 올리겠다는 다짐으로 당선소감을 마무리한다.

몽돌

해안선을 따라 길게 펼쳐진 여수 몽돌 바닷가
밭가락 사이로 물이 스미듯
돌과 돌 사이사이로 파도가 들이치고 있다
바위섬과 물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바다 위 넘실대는 운슬
햇볕에 달구어진 돌 위에 앉아
몽글몽글한 살결을 어루만져 본다
파도도 보드라운지 자꾸만 밀려와
꽉 움켜쥐고는 이내 다시 부서지고 만다
얼마나 견뎌야만 이토록 매끈해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꺾이고
거친 바람에 저네들끼리 부대끼며
모난 얼굴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안으로 안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까만 돌 위 점점이 박힌 하얀 무늬들
아픈 시간의 반짝이는 기록들
징검다리처럼 한발 한발 따라가다 보면
거기, 커다란 손 넘실대는 검푸른 바다가 있다



경남 밀양시
이호종



수상소감

오래전, 기차가 지나면 함께 덜컹거리던 자취방에서 밤새 시를 읽었다. 수업을 마치면 식량처럼 시집 한권을 사 들고 방에서 꾸역꾸역 시를 읽었다. 시가 세상을 보는 눈이었다.

10년 만에 시를 썼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물을 담아내기에 시는 항상 모자랐다. 이 상이 모자라는 것들을 열심히 찾고, 채워나가라는 뜻이라 믿는다.

저리도 어린 살을 거친 세상의 접면에 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강한 것에는 더욱 굳세고, 약한 것에는 한없이 어린 시를 쓰고 싶다.

비가 잦은 봄날, 순하게 깃든 초록 아래로 바람이 편편히 눕는다. 이제 뿌리 한 가닥 내린 기분이다.

풍장(風葬) - 매미 탈피각

아침이면 안개가 몸을 채우고 짙은 치자꽃 냄새가 났다. 수북이 쌓였던 바람은 쓸모없는 기억을 거두러 몰려 나갔다. 남도 어느 섬마을 초분(草墳)을 누르고 있는 돌처럼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어, 그러다간 내 상처가 손닿지 않는 곳의 간지러움 쯤 돼버릴까 두렵기도 했다.

뒤집어 쓴 외투 안에서 숨기 뱀 신음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기어오르다 발톱을 짝 짝은 자리 등 가르고 호흡을 빼앗아 가 버렸을 때도, 퇴화 된 두 눈에 달빛이 일렁거려 잠 못 이룬 겨울밤에도, 머리맡에 맴돌던 울음들이 먼저 삭은 바람으로 흩어져 갔을 때도, 한마디 건네지 않는 수도승의 헤진 옷자락처럼 껍질을 겹겹이 껴입은 늙은 나무는 닳아빠진 뿔조각만 줍고 있었다.

정맥(靜脈)같은 퍼런 달빛이 흐르던 밤, 하얀 치자꽃 조각이 소름처럼 돌아났다. 그 무리에 섞여 어느새 나도 딱딱한 외투를 말랑하게 부풀리고 있었다. 비로소 발목엔 물이 차오르고, 내 욕망은 향기에 간혀 편안히 썩기 시작했다. 벌거숭이가 되어서야 험겨워진 내 발톱은 나무의 체온을 만질 수 있었다.

공터에 머물던 바람이 머지않아 내 이마에 부딪혀, 남루한 기억마저 모두 쏟아버릴 것이다. 흑- 덩이 채 지는 저 치자꽃처럼.



동해어업관리단
박수찬



수상소감

봄인듯하더니 여름의 길목에 들어섰다.

공직생활 25년 동안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름 틈틈이 갈고 닦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에게, 또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동료들과 여러 지인들에게 입증하는 날이다.

얼마나 갈구해 왔던 내 삶의 한 흔적이던가? 햇별이 들지 않는 음습한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는 듯한 나만의 길이였다. 이제 당당히 내 삶의 흔적을 나타내 보련다.

이 순간 진실로 기쁘다. 말로 형용 할 수 없는 뿌듯함이, 즐거움이 봄바람처럼 내 오장육부를 훑고 지나간다.

졸작을 수상의 반열에 올려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묵묵히 습작하는 모습을 지켜 봐 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할 말이 많아 정녕 할 말이 많지 않은 하루다, 이 순간이 꿈만 같다.

아버지의 배

선창에 목줄을 매고 온종일 빼격이는
 아버지의 작은 목선은 경전이고 서당이다
 이물에도, 고물에도
 독해 할 수 없는 글들이 가득하다
 오늘도 소금기 가득 머금어 독 오른 해풍이
 어깨동무를 곱겹이 하고 몰려와
 긴 헛바닥 날름거리며
 아버지의 팔순 주름을
 갑판에 서각을 하고 돌아간다
 새롭게 새겨진 글자들을 볼 때 마다
 아버지의 눈은 회한의 글을 쓴다
 너도 이제 다 늙어 가네
 한 세상 산다고 고생 참 많았데이.

한국전쟁 때
 포탄에 다리를 잃은 아버지
 곰삭아 살이 떨어져 나간 견현*에
 송판을 덧대고 못질을 하신다

* 물에 잠기지 않는 뱃전

바람이 말벌소리를 내며
갑판에 벗어 놓은 의족 안을 기웃거리려도
신경은 온통 뱃삼에 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시라 해도
9607028-6408852
연안자망 허가판을 주소처럼 달고
바다가 되어 가신다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박기준



수상소감

부끄럽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 하얀 뼈들과 대면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 그 것은 뼈들에 달라붙어 있을 슬픔들을 가만히 어루만져야하는 일이었으며, 문득 나의 뼈마디가 만져지는 일이기도 하였다.

송구하다. 나는 아직 시(詩)를 모른다. 덜컥, 호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걸 늦바람이라고 해야 하나. 언제부턴가 이마에 미열이 짙인다.

타카시마(高島)로 가는 길

조선인 징용 탄광노동자를 찾아가는 날
아침 호텔뷔페에서 삶은 달걀을 깬다.
하얀 뼈를 발라내자 드러나는 생살
고운 가루소금을 뿌리며
뼈와 살이 뒤집힌 생을 생각한다.

관람선이 파도 한 장 길을 낼 때마다
끼이익 신음을 토하는 선체의 철골들
바다 밑 막장에서 길을 뚫던 몸들도
뼈격거렸을까, 어둠 한 뼘을 위해
뼈와 살이 뒤집혀야 했을까
강풍에 흰 이빨을 번뜩이는 바다
“뼈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검은 파도가 다가와 속삭인다.
바다보다 깊이 파 내려가던 사람들
뼈 하나씩 내주며 깊었을까
탄가루가 폐 속에서 출렁이면
탄가루가 되어 물으로 실려 나가고 싶었을까

아득한 해상 길에 승승 바람 들던 뼈마디
 “아저씨 곱게 빵아주세요!”
 멀리 흘러가고 싶다던, 금강 물결 위로 떠가던
 분가루 같던 어머니, 어디쯤 계실까

군함도 벼랑에서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
 그들도 흘러가고 싶었을까
 길은 차디찬 물속 그늘뿐이던 목숨
 물고기 밥이 되서라도 건너고 싶던 지옥
 객실 유리창에 한 점 눈물로 번지는, 타카시마
 해풍이 할퀴는 산비탈에 아스라한 금송사
 주지가 91구의 무연고 유골안치실로 안내한다.
 분통 크기의 분골함 하나를 열자
 몇 개를 내주고 남은 걸까
 한 줌의 뼈, 백설기 빛이 시리다.



전)영암군농업기술센터
김형만



수상소감

푸른 오월 하늘이 그림다.
젓빛 먼지와 황사가 앓아간 푸른 하늘이 보고 싶다.
살아온 날들 화선지에 그린다면 세 뽕이리라. 말과 글 배우며 한 뽕을 재고 새벽을 열어 황소같이 목정밭 갈며 두 뽕을 재고 나니 세 뽕 노을에 물이 든다.
남은 한 뽕 고운 물들이고 싶어서 선택한 퇴직 후 국제협력단(KOICA) 필리핀 해외 봉사활동은 발자국이 깊이 남는 의미 있는 삶이었다.
늦깎이로 시작한 시와 수필을 공부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삶에 감사한다.
삶에 성찰을 담아 소통하는 글을 써보라고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직도 젓빛 하늘처럼 가슴이 먹먹한 세월호의 아픔을 여미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폐경(閉經)

해창만 물길 따라 개막은 둔치에
 옆구리 터지고 코 부러진 거룻배 한 척
 갈밭에 아랫도리 처박고 한숨을 토한다
 뱃길 물 가르면 메밀꽃 물띠 따라
 끼룩끼룩 갈매기 따르던 옛 생각에
 상한 몸뚱이 사리고 갈밭에 기억을 줌고 있다

들물 날물 출렁이며 주름진 개펄 적시면
 차오른 갯물에 따개비 멍게 자글자글
 묵정밭 드나들고 모시조개 맛 조개
 빨 속에서 숨을 고른다
 해찰하던 밀물이 갈밭 젖 물리고 돌아서면
 희번덕이던 갯바닥이 물방귀로 콧숨을 돌린다

고래실 같은 빨밭 등허리
 널 배로 북질 하던 하얀 이빨 아낙들 간데없다
 망둥어 껍떼기 드나들던 젖은 음부陰部
 그 질퍽한 갯펄에 황토 자갈 질러 박고
 뚝방 길 마른 빠다귀에 트랙타가 거친 숨을 깔고 간다

바람맞은 나락 모가지 누런 상복을 입고
 들판에 허수아비 만장기輓葬旗 들고 섰다.



영천신녕초등학교
정기원



수상소감

어떤이 에게는
꿈이고
희망이고,

또
어떤이 에게는
한숨이고
그리움이다.

저
높고
푸른 하늘이

하늘이
내 품속으로 들어왔다
오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산정모지

망초가

제키 자랑하듯

까치발을 하며 이방인을 맞이할 뿐

풀무치도 새벽잠에 깨지 않았다.

간밤

죽은 자를 놓지 못한

어느 혼령이 남기고 갔는지

풀잎에 맺힌 눈물방울만이

정적을 품고 있을 뿐이다.

아

한줌의 흙이라더니

그대도

나도

피해갈 수 없는 길

흰 구름 하나

산마루를 넘어와

대답 없는 고요를 흔들어 댈 뿐이다



울산지방검찰청
김 두 길



수상소감

황량함을 찾아 헤맨 적이 있다. 황량하다는 것은 무언가 다시 시작하는 최적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문예대전 입상을 통하여 내가 시를 쓴다는 황당한 사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런 상황이 '몰카'에 당하는 사람을 보는만큼 재미있다. 더하여 내 안에서 혼자 너무 오래 살아버린 내가 나의 바깥에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으로부터 평가받았다는 사실이 신비롭고 뿌듯하다.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

겨울 갯벌의 저녁

지퍼가 열린 해안선
 질척한 갯벌의 내장이 쏟아진다

언제인가, 말이 통하지 않는 침묵으로부터
 귀를 테러당한 적이 있는 거기,
 몇 봉지 탈수가 덜 된 파도의 물집이 남아 있고
 온몸에 울음의 면적이 퍼져 있는 갯바람의
 희미한 궤도가 떠돌고 있을 뿐

쓰러지는 방법을 배운 겨울 갯벌은 이제
 다시는 지상에서 직립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걸어온 길을 뺏어내고 있는 평면
 생각하면, 끝은 시작의 후유증에 불과할 뿐
 반드시 세상의 어딘가에
 끝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평면은
 왜 우리의 생애처럼 항상 끝을 향해 가고 싶을까

천정이 없는 북반구 위로
대규모의 날이 저무는 시간
죽음처럼 식어버린 방파제 위에 서서 나는
어쩌면 시작보다 더 필사적인 끝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 나였음이 밝혀질 그대
어느 반대편의 저녁 속에서
내 등에 기대어 쓸쓸이 저물고 있을
그대의 빈 몸 속으로

셀 수 없으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새떼를 날려보낸다





서울시흥초등학교
신현숙



수상소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버려진 화분 하나가 학교 화단에서 추적추적 비를 맞고 있는 것, 아이들이 가버린 빈 운동장 담벼락에 웅크리고 앉은 고양이의 검은 눈동자, 철 지난 겨울코트 주머니에서 나온 낡은 영화표 두 장, 놓쳐버린 버스의 꿈무늬를 바라보는 당신의 구부정한 뒷모습. 하얀 라인이 그어진 달리기 로드를 기우뚱기우뚱 달려 나가는 꼬맹이들의 아슬아슬한 질주 같은 것 내 모든 마지막 선택과 결정은 계획과 목표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소한 순간에 무언가 반짝하고 불이 켜진거거든요.

이런 하잘 것 없는 것들에 발목 잡혀 그저 앉아 구경하고 쉬더라도 이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나온 길은 먼지 속에 아득하나 오지 않은 앞날 저만치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것 같은데 나는 이 길로 가도 되는 걸까요.

나의 부끄러운 글에 마음을 같이 하여 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 하나로도 온 몸이 뜨듯해 지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봄이 가고 있습니다.

저녁의 산책

사거리 독일식 카페의 철문은
차갑지 않은 반전의 매력이 있죠
지구를 돌아 온 경선과 위선이 만나는 까만탁자
월드와이드웹의 거미줄을 타고
천정에 부딪친 sns 별빛이 내립니다
건너편 카레공장 옥상에 걸터앉은 노을 한 줄기
커피 콩자루 성긴 틈을 더듬을 때
레카차 콩무니에 매달려 겨울이 지나갑니다
십자가 빛줄기에 정류장 벤치가 붉어지면
빈 산소통을 맨 도시인들이 무거워진 발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이 오네요.

사람들이 사라진 골목길은 깊고 푸른 우물이 되어
어제의 밤하늘도 돌아옵니다
셔터를 내린 오래된 철물점 기둥에 매달려
풍경이 되고 만 모종삽 두어 개
나처럼 저녁바람에 녹이 스미네요
어느 날 바람에 날리는 미립자 신세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나무로 만나고 싶죠
혹시 저기 나의 대문앞이 술렁인다면
당신에게서 노랑 엽서가 도착한 것이죠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둥근 세상이 싫었던 건가요
감추어진 불안한 폐허를 보이고 말았나요
나의 기다림은 언제나 네모냥쫄
밋밋하게 닳아빠진 눈물방울과
채색하려다 뭉개고 만 그림자까지
서늘하고 신날하게 각도를 갖게 해 줄
그대를 기다리는 저녁은





서울시 성북구
박정훈



수상소감

詩는 말로 집을 짓는다. 라고 하네요. 말과 소통을 통해 집을 짓는 심정으로 소통하며 마음으로 다가가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위에 뽀꼼하게 머리를 내민 소박한 노란 민들레가 오월 비바람 내리친 다음날 햇살과 어울려 너무도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못한 자식들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같이 해준 직장 동료 및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리며, 항상 사랑하며 행복해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글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반고등어

갈길 잃은 흠어짐으로 아직 남은 늦더위가
오후 두시 골목시장 좌판을 훑고 간다

비린내 가득한 좌판위로 자반고등어가
지친 늑골의 육신을 내려놓고 외마디 외침으로
공양의 길을 가고 있다

검은 빛 감도는 허파 사이로
오대양 심해 온갖 세월을 유명하던 움직임들이
이젠 숨죽여 발가벗은 몸으로
미소같은
그윽한 편안함이 묻어 있다.

소금에 염장(鹽藏)되어
자신의 마지막 한 점 살점까지도
몸 보시(布施) 하는 인자한 황금빛 웃음에는

한여름 그 길고 험한 물길질 대신,
이젠 모든 생리작용을 마치고
세월의 빗장을 열어둔 채
죽음의 정원을 짓는
늙은 누에의 거룩한 영혼의 입놀림같이
자식들의 굶은 배를 위해
물배 채우시는 늙은 어매의 얼굴이 있다.



부산지방병무청
이희복



수상소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진짜는 그대로 두고 온 느낌이다. 진리가 비진리에 흔들리는 세상이다. 황금이라 여겼던 집착이 화장실의 배설물이란 걸 알았을 땐 이미 불혹을 지나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서였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 오물이 아닌 거름으로 살고 싶다. 20년간 함께 했던 아들이 지난 1월 강원도 철원으로 입대했다. 남들은 신혼이라 좋겠다며 위로인지, 격려인지를 하지만 아들의 빈방을 보면 아내의 눈물이 빈방 가득 고여 있음을 안다. 죽음을 넘어선 고통의 세월을 옆에서 보았기에..... 참 가볍게 걸으려 했는데도 발자국은 깊게 패여 사람들에게 무거움을 준 지난날이 죄스럽다. 무거워도 가벼운 자국을 남겨야 함을 배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향을 지녔다. 약취로 살았던 욕심을 내려놓고 섬김의 향으로 거듭나고 싶다.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꿈이다. 자신보다 더 날 사랑해준, 사랑하는 아내 엄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전당포(典當舖)

값아야 할 죄 값

빛 때문에 영혼의 반을 팔았다.

오른팔을 올리면 교회 탑 뽀족한 지붕이 서고

왼쪽 눈을 뜨면 私娼街 울음을 훔아내는 입술이 열렸다.

나는 젊음을 담보로 삶을 팔며 술로 살았다.

하나 둘 늘어나는 빈병의 공간 속에

정신적 치유를 위한 고뇌를 담으나

깊어가는 상실은 막을 길 없고...

살기 위해 살찌우는 빛 덩이,

짙은 화장으로 잠이 든 아내,

들락거리는 폰돈은 아내의 취기에 가난만 입힐 뿐

오늘 쪽 어깨의 통증엔 아무런 보탬이 없다.

뜰 때마다 쌓이는 눈썹에 가려지던

나날이 무디어지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높이와는 아랑 곳 없이

육신을 쪼고 있는 典當舖의 팻말은 지금도

부엉이 눈처럼 꺾뻗거린다.



강원도 정선군
심진경



수상소감

부족한 실력에 노력도 부족하여 다시 봐도 부끄러운 글임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더 노력해 보라는 뜻이겠지요.

유난히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봄이었습니다. 글쟁이는 아프고 상처 나고 피가 나도, 딱지가 앉아 딱딱해지면 안 되는 것을, 말랑말랑한 심장을 고스란히 내놓아야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칭찬을 아끼지 않는 주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띄엄띄엄이지만 글이라는 것을 써내고 있으니깐요.

로드킬

그 길로 가라고 해
그 길로만 가야 한대
(따르지 않으면 죽기도 한가지)
그들이 만들어주었지
묻지도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한 길이라더군)
뱀도 개구리도 고라니도 멧돼지도
그 길로 가야 한대
그들을 피해서
착한 동물들이 열심히 오간다더라
길 옆 누운 생명은
뱀인가 개구리인가 고라니인가 멧돼지인가
그 길
그 한가운데서
죽은 생명의 붉은 피를 위해 기도하고
남 몰래 피 냄새를 허파에 채운다
그들은 몰라도
나의 길은 죽은 이들이 가고자 하던 길
그들이 알아도 막을 수 없을 나의 길



경남 고성군
이규준



수상소감

우리는 살기위해 주어진 일상을 결코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각박한 현실, 잡초 한포기 보듬지 못하는 메마른 세상에 마음 붙일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연륜이 쌓여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을 고운 것으로 승화시켜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사색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값진 감춰져 있던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성숙함과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항구의 아침

아침마다 항구에는 비늘이 날을 세운다

오가는 파도에 몸을 신지 못하고
 그물에 갇혀 쪽잠을 잔 물고기들
 밤새 접혀있던 비늘이
 아침 햇살에 기지개를 켜다

사십년 전, 칩같이 질긴 보릿고개에
 모진 입하나 털고자
 자갈밭 두 마지기 덩으로 안겨 주면서
 부초처럼 떠 밀려온 시집살이
 그저께 물때 보고 돛을 올린 김 영감
 떠난 날이 제삿날인가, 돌아 올 날 기약 없어
 곱게 모은 두 손, 밤새 사발에 넘치는 기도
 그 염원 결코 헛되지 않아
 만선의 깃발 올린 낮익은 돛단배 하나
 아낙의 아침 숨결이 길다

수평선을 허무는 아침 해가
항구의 어둠을 둘둘 말아가자
하나 둘 무게를 버리는 배들
비었던 좌판은 뜨거운 호흡으로 열이 오른다
마지막 비린내마저
싹쓸이 해가는 경매사의 값싼 흥정
아침 항구의 좌판이 식어가고 있다





서울 금천구
김 화 속



수상소감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걸어온 시간 속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연이 많은지요.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를 겪어야 했고 가난과 결핍 속에서 한 시간, 두 시간을 보낸 날들이 스크린 없이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들춰낼 수는 없겠지만 일부뿐이나마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졸작을 뽑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의점 24시

그녀는 마네킹처럼 유리창에 진열된다
마지막 버스가 떠나자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빛나는 순간,
열한시에 구석에서 컵라면 먹던 남자가
열두시에 급히 와서 생리대를 챙겨 갔다
그의 다급한 발소리 너머
고양이가 밤하늘을 홀리고 있다
창 쪽에 두개 남은 사발면
붉은 눈의 노인은 올 때마다 같은 면을 선택한다
허겁지겁 건더기만 썰어서 넣고 소주는 따로 붓는다
그는 마트에서 세끼를 산다

거울 속에 인스턴트 그림이 부유한다
계산기 앞에 서 있는 그녀도 인스턴트식품이다
하루와 하루가 물려있는 시간은
마법에 걸려 영원으로 간다

하루가 어떻게 끝나는지 몰랐던 날들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랐던 날들은
기억 속에서 걸어 나와 유리창을 서성이고
시간을 세고 있는 그녀는
눈동자가 뿌영게 닳고 있다

생활이 품목으로 떠 있는 공간에서
그녀의 시간이 박제되고 있다

정거장이 깨어 날 때까지 한 세기가 왔다간다





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
이정철



수상소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대학교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그 해 11월 난 우리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학 문학상 시부분에 당선되었다.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졸업 후 어디도 갈 곳이 없는 28살 가난한 청년일 뿐이었다. 보일러 기름을 살 돈이 없어 두꺼운 이불을 둘둘 말아 잠을 자야했던 자취방에서 직장을 포기하고 글을 계속 써야할지 고민했다. 그 이후로 여태껏 시를 쓰지 못했다.

공무원 문예대전 입선이라는 큰 선물이 세삼 옛날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밤이다. 글을 포기한 대가로 지금의 나는 행복한 가정과 건실한 직장을 가진 가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슴 한 쪽에서는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면 시를 썼던 가난한 자취방의 향수를 지울 수 없었다.

너무 오랜만에 쓴 터라 투고한 것으로 만족하려 했는데 상금까지 주시니 한 없이 행복하다. 이제 다시 시작하여야겠다.

천장(天葬)*

검은 개를 따라 간다
 망자의 마지막 길은 높고 가파른 산이다
 끝없는 협곡 사이를 숨차게 빠져나온 바람이
 더 가벼워질 것 없는 몸을 떠민다
 지쳐 늘어진 개의 혀가
 황사로 가득 찬 산 정상에 적멸을 훑고
 늙은 독수리의 허기가 빠르게
 그의 생애를 더듬는다
 어기쳤던 삶의 기억이 어울어지는
 순간 풀썩 황량한 초원에
 흙먼지가 잠시 일었다 가라앉는다
 오직 바람만이 살과 뼈를 바르는 시간
 비로소 영혼도 씻기고 있다
 잘 버린 칼로 베어 던져진 살점들은
 영혼을 하늘로 인도 할 독수리의 몫이다
 새의 깃털보다 가벼워진 영혼은
 초원을 떠도는 바람의 순례자가 될 것이다
 겨울이면 세찬 눈보라를 훑날리고
 봄이면 흩씨 되어 꽃을 피우고 지우면서

* 시체 처리를 조류에게 맡기는 티베트의 전통 장례식법 조장(鳥葬)이라고도 함.

초원이 바다가 되는 긴 시간을 지날 것이다
뼈를 태운 연기가 영혼을 배웅한다
바람만 남았을 뿐 순례자에게 길을 안내하던
별자리마저 우주의 먼지가 되었을 어느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될 인연 하나.





외교부
배 선 희



수상소감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의 투박한 시가 입선이 되었습니다. 한 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가끔은 하늘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시들이 하늘로 날아가 별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펼쳐진 밤하늘은 한 권의 시집입니다.
별을 보며 꺼져가는 시심을 살려냈습니다. 감히 용기를 내어 봤는데 이런 영광이 올 줄
이야..

이리저리 공무에 쫓기다 보면 시집 한 편 머리맡에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변명입니다. 이제 변명하지 않고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젠 바람 하나 예사로이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꽃이 피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 볼 작정입니다.
내 삶의 이런 변화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냉이 꽃

웃어다오.

오늘은 오직 나를 위해 웃어다오, 아가야
양증맞은 네 눈웃음으로 세상 시름 다 잊고픈 날도 있단다.
이건,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 듯
주춤주춤 하면서도 못이기는 척, 척척 계절이 바뀌듯
억 년의 억 년 전에 이미 약속 없이 만들어진 자연의 순리란다.

괜찮다.

오늘은 네 가녀린 어깨 위에서 춤추듯 쉬어가는 햇살이어도
가끔은 간들거리는 목덜미에 앉아 짓궂게 간지럼 태우는 바람이어도
괜찮다, 눈이 작다고 네 웃음까지 작은 건 아니지?
아가야, 오늘은 목젓까지 열어놓고 까르르 까르르 웃어다오.
무중력보다 더 가벼운 네 등에 기대면
우주보다 큰 근심들도 이내 데칼코마니 마술처럼 너를 닮는구나!

아가야

네 웃음에 내 눈물을 포개 그린 그림 한
그 속엔 바라보기에 차마 눈부신 네 미소가 살고
내일도 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웃음을 찾아
봄 들판을 헤매고 있단다.



전전남 고흥군
조진수



수상소감

질병처럼 나를 끌고 다닌 시상, 그럴 때 마다 글을 쓰지 않고는 도무지 배길 수가 없는 풀단지 같은 「시마」오직 당선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때로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는 자신이 왜 그리 민망하고 가증스럽기만 하였는지..

이번 한해로 끝이야, 딱 금년 한해만 더 해보는 거야, 그렇게 도리깨질해가며 버텨온 날들이 모여 벌써 몇 해 이런가

공무원문예대전과 인연을 맺은 지 어언 십어년 그동안 즐기치게 낙선만 해온 터라 금년의 입선도 '저 멀리 구름속이나 살고 있을거야. 그럴거야' 하며 무심코 지내오고 있는데 당선 소감을 써 내라는 물길같은 전화를 받았다.

와 입선이라니 반백의 머리털이 경련을 일으키고 검게 탄 얼굴이 좌우상하로 엷혀 눈물 고랑을 냈다.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은 저승에 가서라도 그 한을 풀어야 영혼이 편하다는 그 마력이 끝시마라고 했던가.

변변치 못한 작품을 뽑아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혹독한 시작의 혹독한 훈련을 지도하여 주신故 송수권 시인님, 최한선 교수님, 그리고 소리꾼 아내, 또 눈으로만 말하는 나의 멘토 이보연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시를 써서 공무원문예대전의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하리라 다짐하며 내 생애 첫 작품 운대가마터를 큰 소리로 낭송해 본다.

진객

1.

석양에 물든 군무
깃 끝에서 터지는 은빛 방울꽃
반짝반짝 쪽빛 물결을 낳는다

꾸욱 꾸욱
프드득 프드득 프-드-득
우렛소리를 달고 휩싸여 솟구친다
T자로 날다 S로 날고 O인가 싶더니
한바탕 질풍같은 굿판을 펼친다

점이 모여 빗어낸 둥 둥 춤
상생의 오묘함을
금강에 흠뻑린다

금강의 진객珍客
바이칼호의 저녁을 연주하듯
도란도란 오선五線 물살을 가르며
강을 누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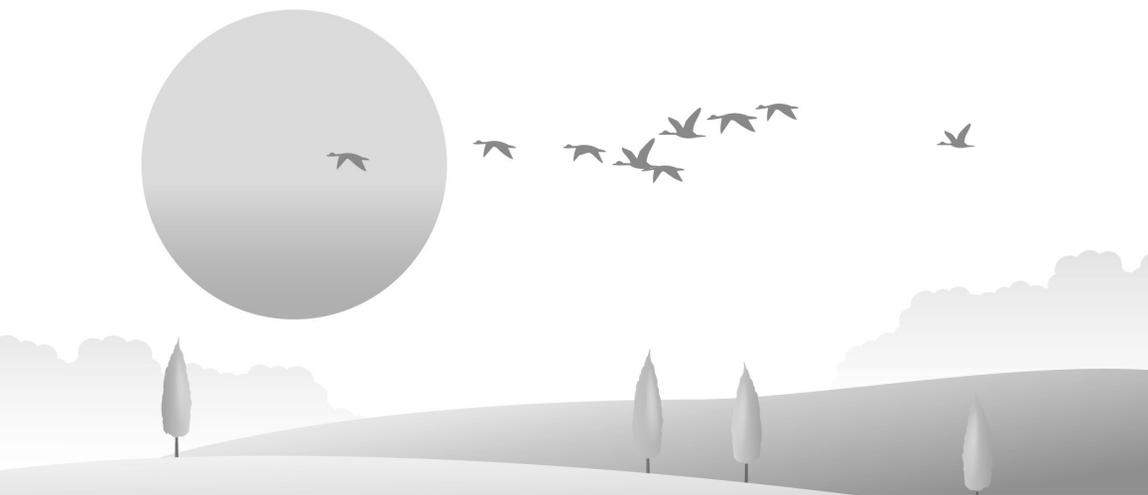
선으로 갈려 선에 갇힌 우리

우리도

진객 누비듯

피불이들끼리 오래도록 누비고 누렸으면

꼭, 그랬으면...





심사평

풍부하고 우수한 작품을 앞에 놓고 수상작을 골라내기 위해 우리 심사위원들은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작품을 검토했다.

문학적 참신성이 있는가, 소설적 구성은 긴장미가 있는가, 문장은 안정되어 있는가, 주제를 구현하는 형식은 상합하는가 하는 것 등이 심사기준이었다.

금상으로 결정한 작품 <마태 수난곡>은 단연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마태 수난곡’이라는 예술작품과 연관지어 형상화한 솜씨가 돋보인다.

심사위원: 김지연, 김호운, 우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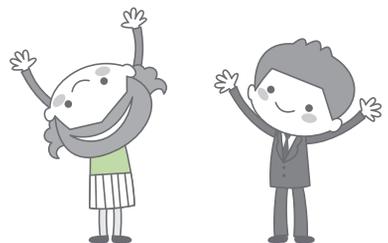


금상 ● 마태수난곡
울산여자중학교 심은신

은상 ● 이너 차일드
전)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권재록

동상 ● 지극히 사적인 통화방식
미래창조과학부 이태승
타인의 거리
수원 매현중학교 한경애
목성으로 간 여자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김주태

입선 ● 장학퀴즈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이경희





울산여자중학교
심은신



수상소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현실의 고난 중에도 묵묵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글을 천착한다는 것은 곧 소망을 천착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글을 쓰려 합니다.

제 작품에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과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태수난곡

1

삼십 분 뒤면 곧 라이프치히 공항에 도착한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이어폰 밖으로 들려온다. 독일항공사의 게르만 식 억양과 발음이 뒤섞인 영어 안내는 내가 날고 있는 곳이 독일 땅임을 새삼 상기시켜준다. 여고시절 제2외국어로 배우던 독일어 수업에서 필요 이상으로 혀를 강하게 움직여 발음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살짝 웃음이 난다. 미남인 독일어선생님 눈에 띄려고 하이네 시에 멘델스존이 곡을 붙인 ‘노래의 날개 위에’를 유창하게 외워 즐겨 부르던 나는 얼마나 맹목적으로 가슴이 설레었던가. 평안과 사랑을 노래한 시구도 서정적인 멜로디도 인생을 알지 못하는 열일곱의 소녀에겐 그저 아름답기만 했었다. 미션스쿨인 여고 교정 꼭대기, 하얀 십자가가 서있는 언덕에 마구 쏟아지던 봄 햇살. 현기증이 날만큼 풍성히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 누리며 장차 독문과에 진학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비밀을 가슴에 품은 듯했다. 독일어 선생님도, 하이네도, 멘델스존도, 독일에 대한 환상도 가슴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벅찬 행복이었다. 그 시절, 미래는 막연하고 달콤한 미감으로 다가왔었다. 그로부터 삼십여 년, 지금 정확히 마흔 일곱이 된 소녀의 미래는 아주 사실적인 현실이 되어있다. 지나치게 사실성이 명징한 현재는 무척이나 건조하다. 언제나 쓸쓸한 현실 뒤에서 미래는

달콤함의 옷을 입어야만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겠지. 문득 꿈같이 지나온 세월이 아득하기만 하다. 어제인 듯 혹은 아주 먼 기억인 듯.

하이네 시는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텅 빈 멜로디만 희미하게 귓가에 맴돌 뿐. 다만 독일어 교과서 내용 중 오직 한 문장만이 이상하게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 ‘Sie kocht Kaffee und bringt das Zucker’(그녀는 커피를 끓이고 설탕을 가져온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내용이 확실하다. 교과서에는 그 문장 아래로 칼(Karl)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식탁에 앉아있고 로즈마리(Rosmarie)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커피를 끓이는 삽화도 그려져 있었다. 왜 하필 여고시절 배운 독일어의 수많은 문장 가운데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형식적 아름다움도 없는 일상적인 문장 하나만 지금껏 기억하게 된 걸까. 어쩌면 삶이란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무심한 파편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 계슈탈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창공이 유리처럼 차갑게 보이지만, 비행기 아래로 떠 있는 부드러운 구름들을 보자 열 시간이 넘는 비행에도 불구하고 지친 심신이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대지로부터 피어 올라 대기에 순응하여 움직여가다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이 삶도 바로 그런 거라고 나직이 말해주는 듯하다. 사람도 저렇게 피어올라 잠깐 운명에 따라 움직이다가 흩으로 흩어지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일까. 그리고 영혼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 하늘을 넘어 우주 밖 어딘가에 있을 신이 마련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일까. 오십 년 가까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 지금 자꾸 확인하고 싶어진다.

언제나 하늘 위를 날 때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인생이 아주 작아

보이곤 했다. 모든 아픔도, 불행도, 그것을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인생마저도 영원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잠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으로 느껴지곤 했다.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한계 너머의 우주 시간 속에서 한 인생이 살다가는 시간의 개념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쉽게 와 닿지 않았다. 인생을 향해 ‘인간의 천 년이 그에겐 하루 같다’던 신의 관점도 그런 생각의 궁극이었을까. 하이네도 멘델스존도 사라지고, 그들이 찬양하던 사랑과 평안의 의미도 사라지고, 오직 그녀가 커피를 끓이고 설탕을 가져오는 무미건조한 일상만 남아있는 세계란 우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천 년이 하루 같고 인생의 모든 족적이 무의미하다는 신의 메시지가 옳음을 확인해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구름을 유심히 바라보면서도, 곧 흩어져버릴 순간의 구름에도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아이러니 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구름도 혹시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을 것인가. 기억에 남아서 어느 날 문득 아버지를 추억하는 날이면 언제라도 무의미한 ‘Sie kocht Kaffee und bringt das Zucker’처럼 뇌리에 연상적으로 떠올라 줄 것인가.

지금도 아버지는 곧 소멸될 구름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흩어지고 있다. 한 눈 없는 어머니의 슬픈 자궁으로부터 피어올라 지금껏 팔십 년을 버거운 운명에 순응하여 움직여오다 이제 곧 흩으로 흩어지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암과 투병 중인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매일매일 암에 먹혀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가슴을 누르는 듯 묵직한 통증이 일었다. 아버지를 특별히 가슴 저리도록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한번 상실의 감정에 몰입될 때면 예리한 아픔이 한참 심장을 훑고 지나갔다. 그럴 때면 천 년이 하루 같았던 신의 관점으로 하늘 위에서 아버지의 삶을 바라봐야만 아주 잠깐 위안을 얻을 수 있겠다 싶었다. 모든 아픔도 불행도

아니, 그것을 태생적으로 내포한 전 인생마저도 영원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잠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으로 여겨질 때에만, 혈관을 타고 빠르게 퍼지는 진정제처럼 일시적인 평안이 나를 감싸주곤 했다.

2

육중한 기체가 독일 땅에 착륙하자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바흐의 마태수난곡은 절정을 향해 흐르고 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노래한 아리아와 합창을 지나 드디어 예수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평안을 노래하는 마지막 합창이 귀를 가득 채운다. 모든 세상의 잡음을 벗겨버린 순수한 인간의 소리들이 하나가 된 합창은 귀를 넘어, 온몸의 세포들을 깨운 뒤,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의 영혼까지 울려온다. 완전한 화음과 순결한 선율로 정제된 노래. 어찌면 세 시간 전부터 기나긴 오라토리오를 들어온 이유가 이 마지막 합창을 듣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라토리오 속의 수많은 아리아와 합창 중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다. 이 마지막 곡만을 떼어내서 들으면 아름답긴 했지만 감동이 없었다. 어찌면 고난의 여정이 없는 갑작스런 최후는 있을 수 없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칠십칠 곡 전곡을 다 듣고 난 후 마지막으로 듣는 칠십팔 곡 대 합창, 그건 고난의 절정에서 인생의 결말을 예감하는 어떤 지점을 느끼게 했다. 그 지점이라면 지나온 고난의 의미도 조금은 알 듯했다. 일부러 비행기 착륙 세 시간 전에 맞춰서 휴대폰에 저장된 오라토리오를 듣기 시작한 건 바흐의 음악으로 영혼을 가득 채운 채 독일 땅 라이프치히에 내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바흐를 만나기 위해 이 먼 곳 라이프치히까지 온 거니까.

일평생 독일을 떠나보지 않았던 바흐는 생의 후반기 이십칠 년을 이곳

라이프치히에서 살았다. 성토마스교회에서 칸토르로 봉직하며 합창단을 지휘하고, 오르간을 연주하며, 예배에 봉헌할 곡을 작곡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로 매일을 살았다. 평일엔 작곡을 하고, 토요일엔 예배에서의 연주를 위해 오르간을 연습하고, 주일엔 전심으로 신 앞에서 예배했던 바흐. 동시대의 작곡가 헨델이 명예와 출세를 위해 영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황제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비발디가 사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의 성공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바흐는 이곳 라이프치히 안에서 토마스교회와 아홉 명의 자식들이 기다리는 소박한 집을 오가며 삼십 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화려한 날도 놀랄만한 영광도 없이, 음악가들의 낭만으로 치부되는 여자들과의 흔한 로맨스도 한 번 없이, 심혈을 쏟아낸 곡을 보존하여 남기겠다는 소박한 욕심조차 없이 자신의 음악적 직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바흐의 음악을 들을 때면 그의 성정과 삶의 방식이 선율에 그대로 체현되어 있는 듯했다. 엄격한 화성과 장엄한 질서, 소박하고 맑은 울림,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작품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그의 일상도 담겨있었다. 조화롭고 통일된 패턴을 가진 음을 듣기만 해도 바흐임을 가슴으로 느꼈던 건, 음 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삶을 관통하는 그의 신앙이 내포되었기 때문이리라.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언젠가 성토마스교회에서 그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그 경건한 소리의 기도 속으로 스며들어 보고 싶었다.

한 달 전, 아버지의 생명이 석 달 혹은 진행이 빠르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후 절망 같은 아픔 속에서 바흐를 향한 이 소망은 이상하게 더욱 간절해졌다. 낭만을 추구한 적도 없고 감정의 과잉소

비에 영혼을 맡긴 적도 없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음의 아름다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그 남자를 만나고 싶었다. 고독한듯하나 쓸쓸하지 않고, 무거운듯하나 침잠되지 않고, 엄정한듯하나 차갑지 않은 음악의 실제이자 근원인 바로 그 남자의 자취를 하루 빨리 나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싶었다. 아버지가 언제 위독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독하게 독일로 오고 싶었던 마음에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다. 혹여 여행 중에 아버지가 위독해지거나 소천 소식을 듣게 될까봐 두려우면서도 차분히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곤 했다.

‘아버진 여기 계신데 넌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찾고 싶은 거니.’

딱 하루, 바흐를 만나고 다시 열 시간 넘는 긴 비행을 하며 돌아와야 할 비상식적인 여행이었다. 대책 없이 약국문도 닫은 채, 생의 끝자락에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이곳 유럽까지 떠났을 걸 알면 고모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 것이다. 나의 입장이 되어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남편조차 조심스레 여행을 만류했으니까. 여행 짐을 꾸리다 서랍 속에 얌전히 넣어둔 아버지의 흰 셔츠를 발견하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에 아버지에게 입혀 드리려고 사서 다려놓은 셔츠였다. 매년 부활절이면 순백의 와이셔츠를 입고 예매하기 위해 손수 다림질하여 준비해두던 아버지였다. 이번 부활절에는 요양병원에 누워계셔서 손수 준비하지 못하는 대신 내가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었다. 부활절에 교회엔 가지 못하겠지만 흰 셔츠를 입혀드리고 병실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었다. 아버지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부활절...

아버지는 지난 해 연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밤에 주무실 때 간혹 약간 찌릿한 감각이 있었을 뿐인데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암은 아버지

의 장기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위장의 아랫부분에선 피가 흐르고 있음을 X선은 강조하듯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재작년 내시경검사에서도 결과가 좋았고 평소 소화도 잘 되는데다 사드리는 특별한 음식도 매번 아주 맛있게 드셨기에 그 누구도 위암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마음이 유약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혼자 지내게 되신 이후로는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셨다. 매일 아침식사 후에 간단히 식탁을 정리하고 정확히 아홉 시에 집을 나서서 바로 앞에 있는 역을 일부러 지나쳐 다음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탑골공원으로 가셔서, 오래도록 근처를 거닐다 다음 역까지 다시 걸어가서 그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홀로 거처하는 원룸으로 되돌아오시곤 했다. 수요일에는 정오 노인무료급식 시간에 맞춰 영락교회까지 걸어가서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는, 돌아오시는 길에 시장에 들러 필요한 반찬과 과일을 사셨다. 일요일엔 4km 떨어진 교회까지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셨다.

“건고 있으면 잡념이 없어져서 좋은데 가끔은 눈물이 날 때도 있다”

아련한 눈으로 불특정 어딘가에 시선을 쫓은 채 스치듯 말한 적이 있다. 그렇게 건고 또 걸었기에 파킨슨병을 앓던 다리는 건강해졌지만, 그렇게 울고 또 울었기에 속은 피를 흘리며 무너져 간 건 아니었을까. 탑골공원 근처의 산책 동선의 그 어느 한 지점에서, 사람들로 들끓는 시장의 어느 한켠에서 홀로 울고 있었을 아버지의 삽화를 떠올리면 가슴이 멍멍해졌다. 그 삽화는 심장을 훑고 지나가는 통증과 함께 나의 귀에 바흐의 무반주 첼로모음곡의 소리를 들려주곤 했다. 무반주첼로모음곡을 들으면 항상 예외 없이 쓸쓸한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 남자는 때론 바흐인 듯도 하고 아버지인 듯도 하고 때론 걸러낸 슬픔인 듯도 하고 내 마음의 모습인 듯도 했다. 아버지의 삽화를 떠올리며 눈과 심장과 귀가 한꺼

번에 슬픔을 지각하면 나는 도무지 한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3

아버지는 젊어서도 강박적일 만큼 시간에 철저했다. 친구를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사십 년 가까이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회사의 만년 계장으로 일하면서 잡다한 일들을 다 처리하느라 퇴근이 늦곤 했지만 언제나 시간이 정확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온 날은 평생에 딱 하루,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그날뿐이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끝없이 할머니를 부르다 잠들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 한 번뿐이다. 그리고 단 한 번 술을 마셨던 그 주간의 주일 아침,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난 아버지는 마치 큰 의식을 치르듯 양복에 흰 셔츠를 꺼내 입으며 밀랍 같은 얼굴로 오전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흐르던 눈물은 흐느낌이 되고 급기야 목멘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옆에 앉아있던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성도들이 하나 둘 쳐다보는데 아버지는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끼이끼이 울어댔다. 할머니를 보낸 슬픔 때문이었는지 평생 입에 대지 않던 술을 마셨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만 무뚝뚝하고 진중하기만 해서 어린 내게 많이도 어려웠던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우는 걸 보면서 어찌면 아버지도 굉장히 여리고 연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영화에선 항상 비명 섞인 흐느낌의 한 장면이 인물의 강한 슬픔을 표

현하고는 바로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곤 한다. 인물이 겪어내야 할 기나긴 슬픔의 시간은 축약되고 생략되기 일쑤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주인공의 기나긴 슬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붙들려 있곤 했다. 바뀌어버린 다음 장면에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의 주인공이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지만 나는 줄곧 앞 장면에서 그가 보여준 슬픔을 놓아주지 못해 다음 스토리에 집중하지 못했다. 비명 섞인 흐느낌의 장면과 전혀 다른 다음 장면 사이에 숨겨진 기나긴 슬픔의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견뎠을지 그 생각에 줄곧 몰입되어 있곤 했다. 내가 읽은 거의 모든 클래식 관련 책에는 으레 이렇게 적혀 있었다.

‘궁정 악사 요한 암브로지우스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9세에 양친을 잃었다. 바흐는 큰형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와 함께 살게 되면서 형으로부터 본격적인 작곡 기초를 배웠다’

나의 마음은 앞 문장과 뒤 문장 사이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팔남매의 막내로 자라면서 바흐가 느꼈을 비애는 어떤 것이었을까. 표현하지 못한 그 깊은 상실감을 어디에 숨겨두고 살았을까. 숨겨진 아픔의 긴 세월을 생각하느라 책의 다음 구절로 쉽게 넘어가지 못했다. 그때도 역시 그의 상실감을 이해하는 건 오로지 나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시공간과 멀어질수록 대상의 슬픔에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 그런데 삼백 년도 넘는 이전의 시간에 지구 반대편 유럽의 독일에서 일어난 바흐의 슬픔이 왜 그렇게 나를 지극히 백과사전적인 문장 언저리에서 서성이게 했을까.

“너 아버지한테 잘 혀. 느그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여. 이 할미 때문에 기도 한번 못 펴고 가슴엔 풀지 못한 불이 꼭 들어있어”

가끔 아들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한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 대대로 시골 농사꾼으로 살아온 집안에서 아버지는 한 눈 없는 어머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입에 풀칠도 못할 만큼 가난한 할아버지가 옆 마을 부농에서 논 서마지기와 함께 데려온 한 눈 없는 처녀, 그녀가 바로 아버지의 엄마였다. 어릴 때 남동생과 놀다 쇠꼬챙이에 찢려 외눈박이가 된 그녀는 시집 온 그 순간부터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다혈질인 남편 앞에서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덕분에 절체절명을 모면하고 산다는 걸 쉽사리 잊어버리고 학대하듯 함부로 대하는 남편에게 그녀는 한 마디의 변명도 저항도 없이 세상의 모든 모멸이 원래 자신의 것인 양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런 그녀의 자궁에 처음으로 품은 아기, 그래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한 여자임을 증명해주는 존재,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았던 첫 아기가 아버지였다.

“느 아버지를 뺐을 적에 내가 침으로 사람 구실 허나 싶었다. 그렇게 떳떳할 수가 없드라”

그녀를 사람으로 세워준 소중한 아기, 그 아기는 지금 팔순의 노구로 누워 그의 어머니가 떠나간 그 길을 뒤이어 가려고 하고 있다. 시골 민초였기에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믿으며 한 번도 할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학대받는 할머니를 가슴으로 품으며 살았던 아버지였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 살이 되자 도시로 나와 살면서도 외눈박이 어머니를 한 번도 가슴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품었던 한을 함께 떠나보내지 못해 아버지는 그렇게 아파하며 술을 마셨던 것일까. 일평생 딱 한번 술에 취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아파도 되는 거냐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게 살았는데 아무 것도 못해드리

고 허망하게 보내도 되는 거냐고 신 앞에 풀어놓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저항이었을까.

신형 건물인 라이프치히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깊은 심호흡을 한다. 이곳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 세 시간 내내 마태수난곡을 들으며 왔기 때문일까. 흐린 봄 풍경 속에 비장감과 형언할 수 없는 진중함이 이곳 라이프치히의 첫인상으로 다가온다. 인천공항에서 미리 독일시간으로 맞춰놓은 손목시계는 오후 여섯 시를 가리키고 있다. 삼월 하순인데도 곧 밤이 찾아올 듯 어둑어둑하고 서늘한 냉기가 몸을 파고든다. 홀로 처음 찾아온 도시에 곧 내리려는 어둠 앞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진한 외로움. 죽음을 코앞에 둔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것일까. 평생 신을 믿고 의지해왔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보지 못한 땅이고 그곳으로 홀로 처음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결국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과정, 죽음.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닿아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삼십 년 뒤엔 나도 아버지처럼 죽음 바로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고통을 내 것으로 완전히 느낄 순 없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병든 아버지는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곤 했다. 아파트 화단 나무에 피어난 목련만 보아도, 약국 유리문 밖으로 지나가는 노인만 보아도, 유난히 좋은 봄 햇살만 보아도 아버지는 연상의 이름으로 떠올려지고, 몰두의 이름으로 생각나고, 그리고 집착의 이름으로 나를 붙들리게 했다.

“아버지, 저 내일 다시 올게요. 맘을 편히 가지시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많이 힘들면 기도하시구요. 편찮으셔도 아름다운 이 봄을 느끼셔야 해요.”

‘신이 아버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니까요’라는 말은 차마 덧붙이지 못했다. 병실을 나오며 누워계신 아버지를 돌아볼 때면 언제나 거기 홀로 생의 마지막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무거운 생애가 놓여있었다. 아무도 대신 할 수 없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털어줄 수 없는 고통으로 웅크린 팔십 년이 거기에 있었다. 아! 아버지….

차분하고 조용히 밤을 맞이하는 유럽의 분위기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 집에 깃들어 웅크린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나약한 한 인간이 다음 날 비바람 치는 세상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으려면 퇴행의 시간이 꼭 필요하리라. 예약해둔 호텔로 데려다줄 택시가 다가온다. 내일은 바흐가 아홉 명의 아이들과 함께 저녁이면 웅크려 퇴행의 시간을 보냈던 그의 집터를 꼭 찾아보리라. 나도 현실의 슬픈 아버지가 버거워 스스로 퇴행하여 찾아온 이곳에서 바흐를 만나고 나면, 현실의 아버지에게로 다시 힘 있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

4

호텔에서 십분 정도 걸려 걸어오는 내내 모든 건물이 옅은 안개로 인해 흐릿하게 보인다. 중부독일의 봄 안개가 낮선 땅에 와 있다는 이국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분명 바람 없이 비를 살짝 머금은 안개일 뿐인데 서늘한 기운이 얇은 점퍼 안으로 스며든다. 아직 활짝 피지 못한 거리의 꽃들조차 숨죽여 웅크리고 있는 듯하다. 길 건너 흐릿하게 보이는 성자, 바흐일 것이 분명한 동상이 이제 토마스 교회에 가까이 왔음을 말해준다.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이미지. 성당의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는 토마스 교회의 옆모습이 정갈하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화강암 건물이 단단한 무게감으로 서 있고 회색의 지붕도 깔끔하다. 호텔 조식을 먹은 후

바로 출발해서인지 아직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관광객들로 들끓는 곳이지만 이른 아침은 한산하기만 하다. 교회의 문이 열리는 아홉 시까지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바흐의 숨결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다. 한 발 한 발 동상 앞으로 다가가는데, 바흐가 오직 나를 맞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설렌다. 아픈 아버지를 두고 이틀이 걸려 이역만리 먼 곳까지 찾아와 준 동양의 딸을 위로하기 위해 그가 차가운 공기 속에 오래도록 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높이 솟은 교회의 격자창을 배경으로 흑색에 가까운 청동으로 서 있는 바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그가 그대로 내려와 교회로 들어가서는 어제일 인 듯 오늘도 오르간을 연주할 것만 같다.

“안녕... 하세요.”

새벽기도처럼 낮은 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입술을 조금 열어 인사한다.

‘왜 그토록 간절하게 당신이 보고 싶었을까요.’

바흐의 무뚝뚝하고 진지한 얼굴에 슬픈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진다. 아버지... 칸토르의 복장으로 오른손엔 악보를 맡아 쥐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의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셈여림이나 알레그로나 아다지오가 없는 그의 악보처럼 그의 인생에도 넘치는 기쁨이나 신산한 아픔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바흐는 열 살 때 고아가 된 것만으로 고난의 잔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일까. 서른여섯 살, 네 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첫 아내 마리아 바바라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쿼텐 궁정악장으로 연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장례마저 마친 뒤였다고 했다. 십삼 년 간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동반자를 임종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그의 처절한 절망감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슬픔을 정제하여 그냥

묵묵히 작곡을 하는 것밖엔 없었다. 아홉 살에 부모를 잃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운명의 한계를 어린 나이에 이미 몸으로 받아들였을 그는 분명 겸손하게 살았을 것이다. 매사 조심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신 앞에 한 치의 죄도 짓지 않기 위해 강박적으로 애쓰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조차 모두 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작품의 끝에 〈Sola Deo Gloria〉를 적어 넣었을 것이다. 자신의 의나 능력을 의도적으로 백퍼센트 배제하면서 말이다. 자신이 느끼는 슬픔의 무게조차 신 앞에 죄가 될까봐 그 넘치는 슬픔의 감정을 걸러내고 정제해서 숙명처럼 객관적으로 수용한 자만이 낼 수 있는 음을 그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풀어 내지 않았던가. 그의 음악엔 격한 감정을 토해낸 흔적이 전혀 없었다. 서늘하지만 맑고, 투명하지만 따뜻했다. 가장 큰 슬픔을 만나 자신의 온몸을 적신 후 그것에서 몇 걸음 떨어져 객관성을 확보한 자만이 창조할 수 있는 소리가 바흐의 음악이란 걸 언제부터인가 느끼고 있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두 번째 아내 안나 막달레나를 만난 것은 그의 삶을 덮고 있는 신의 은총이었다. 쾨텐 궁정악단의 소프라노가수였던 그녀가 매일 찾아와 바흐를 위로하면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하고 함께 산책도 한 건 연민 때문이었다. 열여섯 살 연하에 처녀로 자신에게는 과분한 그녀를 바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감사함으로 지켜나갔다. 그녀는 첫 아내의 아이들과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하면서 남편이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내조했다. 바흐의 유명한 곡들을 필사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한 것도 그녀였다. 그녀는 결혼 후 넉넉지 못한 살림을 잘 꾸렸고 따뜻한 시선으로 남편을 지켜줬다. 그녀 곁에서 바흐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쏟아냈고 이곳 토마스 교회로 오게 되었다. 그녀를 위해 바흐가 작곡한 미뉴엣을 들었을 때 그녀를 생각하는 바흐에게 내재했

던 어린아이 같은 평화를 읽을 수 있었다. 신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았던 그 남자, 바흐. 토마스 교회와 집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작곡하고 연주하고 연습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많은 자식들을 길러냈던 그는 음악가이기 전에 성실하고 소박한 아버지요, 남편이요, 소명을 가진 봉직자였다.

정면에서 바라본 교회는 생각보다 소박하고 정갈하다. 작은 나무문의 출입구와 간소한 회색 난간이 천재 작곡가들이 연주하고 활약했던 비엔나의 화려한 고딕식 성당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교회는 더욱 차분하고 조용하다. 루터파 프로테스탄트였던 바흐의 소박함과 검약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소박하기에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가슴으로 젖어온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니 줄지어 선 하얀 색의 기둥들이 긴 회랑을 만들고 있다. 기둥 아래로는 예배석이 겸손하게 놓여 있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 속에서 가느다란 여러 가지들이 천정으로 뻗어 올라 이 기둥에서 저 기둥으로 서로 연결되어 아치를 이루고 있다. 흰 기둥과 붉은 색 가지들이 선명한 색조의 대비를 만들며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도록 교회를 밝혀준다. 입구에 서서 오래도록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교회에서 천국으로 상징되는 천정. 마치 이 땅에서의 고난의 무게를 인내하며 견디면 그 영혼이 부활하여 하늘에 닿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바흐가 연주했던 오르간의 화음이 저 천장의 붉은 가지들을 타고 천상의 소리가 되어 신 앞으로 올라갔을까. 설교단의 오른쪽 측면에 오르간이 있고 오르간 뒤쪽으로 거대한 파이프들이 엄숙하게 줄지어 서 있다. 오르간이 나를 내려다보며 생명을 가진 성자처럼 숨 쉬는 듯하다. 눈을 감은 나의 귀로 클라비어연습곡 1번의 깨끗한 음이 들려온다. 바흐 내면의 아픔을 통과하여 응축된 음들이 신앙고백

처럼 맑게 이곳에 올려 퍼졌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인 오늘, 신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들 위로 더욱 정결한 천상의 소리들이 흐르겠지.

아버지가 첫 아내를 잃었을 때는 서른 네 살이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고생하며 살다보니 아내가 폐병이란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다. 처음부터 병약했던 아내는 십년이 다 되도록 자식도 낳지 못했다. 뒤늦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병을 앓던 아내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일까. 아버지는 늘 조심스러워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넘치게 즐거운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고 슬퍼도 애써 그것을 삼키려 했다. 넘치게 즐거워하는 감정은 신 앞에 교만으로 여김 받을까봐, 넘치게 슬퍼하는 모습은 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봐 그랬을 것이다.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 은총으로 그의 가솔들을 덮어주시길 제일 먼저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한결같은 아침을 맞으며 사십 육년을 살아왔다. 처녀로 시집 와 함께 해준 두 번째 아내와 그녀 사이에 태어난 딸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건사해왔다. 아내와 딸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그의 생애 가장 큰 소명이었다. 구로공단에서 만년계장으로 그는 열심히 일했다. 사무도 보고 현장일도 하면서 뭐든 열심히 했다. 이틀 연속 일하는 연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다. 이십사 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퇴근할 때는 어지럽기도 했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자란 늦둥이 외동딸이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로 일하면서 야무지게 사는 것이 그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다. 딸이 약국을 개업하고 이제 그의 소명을 다한 줄 알고 심신이 편안해질 무렵, 그즈음 두 번째 아내마저 너무도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너희 엄마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

다.” 아버지와 같은 교회를 다녔던 엄마는 믿음이 깊고 따뜻한 여자였다. 그녀는 목사님의 딸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십구 세에 자신의 엄마를 잃고 목회하는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혼기를 넘긴 처녀였다. 아버지가 첫 아내를 보내고 망연자실하여 있던 즈음, 교회에서 풍금으로 반주하던 그녀와 얼마 후에 결혼하게 됐다. 원래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일처럼 아버지와 그녀가 큰 어려움 없이 결혼하게 된 건 그의 상실감을 보면서 그녀가 자신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느꼈던 상실감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두 상실감이 하나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열아홉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동생들을 키우고 목사인 아버지를 뒷바라지 해온 그녀였다. 아버지가 그녀와 교회에서 혼인예식을 하던 날, 유월의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비로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해 장마의 시작이었다.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온 친지와 성도들은 모두 할아버에게 시집가는 딸을 향한 돌아가신 신부 어머니의 눈물이라고들 했다. 그런 곳에 시집보내는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 속 눈물이라고도 했다. 그녀는 학력도 살아온 배경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남편을 따뜻하게 내조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정성어린 밥상을 항상 준비해주었다. 평생 정시에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더운밥과 국을 지어냈다. 새벽이면 조개를 넣고 뽕안 무국을 끓여내고 저녁이면 시원한 배추를 넣어 맑은 된장국을 갖가지 반찬과 함께 상에 올렸다. 마치 상심한 그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천사처럼 그렇게 그녀는 그에게 왔다. 그리고 늦둥이 외동딸도 낳아주었다. 꿈같은 삼십 년의 세월. 그의 겸손의 분량이 부족했던 것일까. 더 낮게 더 낮게 신 앞에 웅크려 엎드려야 했던 것일까. 그녀를 보내준 신 앞에서 일상의 작은 불평과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 불만도 죄가 됐던 것일까. 안일하게도 감정을 정제하지 못

하고 지나치게 흘려버린 것일까. 불꽃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지켜보는 신의 존재를 순간순간 놓쳤던 것일까. 주일 교회에서 나란히 앉아 오전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뇌출혈로 정말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의 허망한 죽음 앞에 그는 짐승같이 울고 또 울었다. 이 세상에서 흘릴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다 흘려버리고 다시는 울지 않을 것처럼. 그녀, 나의 엄마와 살았던 삼십 년의 세월이 꿈엔 듯 아련하여 아버지는 자주 눈물을 흘리곤 했다. 엄마를 묻고 한 달여 뒤 아버지와 함께 산소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 눈으로 허허로운 공동묘지의 언덕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다”

5

교회에 들어서서 정면을 바라보자 깊숙한 안쪽으로 설교단이 아닌 제단이 있다. 예배석보다 훨씬 좁아진 아치 때문에 제단은 굉장히 신비스러워 보인다. 그곳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밀한 세계,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영적인 비밀이 감추어져 있을 것만 같다. 혼인예배에 입장하는 신부처럼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앞으로 걸음을 옮겨보니 제단에는… 제단에는… 바흐의 무덤이 있다.

JOHANN SEBASTIAN BACH,

검은 색의 청동 위로 바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아래로 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이곳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두루마리에 새겨 세상을 향해 선포하던 선지자의 신령한 거처였던가. 하늘 문이 열리고 신이 내려주는 천상의 소리를 바흐는 그의 영성을 통해 흘려들으며 오선지에 그려 넣고는 세상을 향해 퍼져가게 했던 것일까. 제단 아래

음악가 바흐가 유해가 아닌 신령한 기운으로 존재할 것만 같다.

그 위로 펼쳐진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한가운데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따뜻하거나 평안한 모습이 아니다. 힘들고 고통스런 표정의 결코 아름답지 않은 얼굴, 못 박힌 팔과 다리, 허허로운 눈빛, 겨우 아랫도리만 가려진 채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몸체가 새겨져 있다. 마치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요양병원에 누워계신 아버지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주사에 의지해 호흡하고 있다. 지난 주말 문안 갔을 때 주무시고 계셨는데 바지가 벗겨져 있고 기저귀마저 풀어져 있었다. 아주 약간의 대변을 보신 상태로 여러 겹으로 둘러싼 기저귀가 답답했는지 자면서 자신도 모르게 풀어놓은 듯했다. 침대에 소변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둘러싼 맨 안쪽 기저귀만이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도 나의 심정도 처절했다.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난 고개를 돌렸고 남편이 새 것으로 갈아 주었다. 아버지의 앙상한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워 누워만 있었던 등을 만져주니 아기처럼 순하게 가만히 앉아있었다. 남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자 눈도 감고 아멘도 하셨다. 순한 흡에서 왔던 존재가 다시 순하게 흡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어린 아이로 퇴행하는 것일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텅 비어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의 뇌 속 어느 한 지점에서 기억의 회로가 이어졌다 끊어지기를 반복하는 듯했다. 팔십 년 세월 고난에 맞서다 닳아버린 기억의 회로가 아무렇게나 연결해주는 인생 어느 지점에든 불가항력으로 닿았다가 불현듯 현재로 돌아오는 듯도 했다. 꿈꾸는 시선을 거둔 후에 어느 순간 기억의 회로가 다시 현실로 내려다준 듯 아버지는 우리 부부를 보며 말했다.

“둘 다 바쁘고 피곤한데 어서 가서 쉬어야지. 그래야 내일 또 일하지”

그리곤 이내 아무 것도 모르는 무념의 눈빛. 아버지의 눈에 내가 세상 단 하나의 혈육으로 보이는지 그냥 사람으로 보일 뿐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왜 그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수없이 봐오면서 한 번도 처절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마냥 숭고하고 아름답다고만 여기며 낭만성이 가미된 눈으로 바라보았을까. 왜 신의 사랑을 그냥 객체로만 받아들인 걸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주간의 금요일인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은 뚜렷한 사실성으로 다가온다. 처절한 그리스도의 모습 위에 자꾸 겹쳐지는 아버지의 모습. 한 겹 기저귀만 두르고 생의 온갖 고통이 활취고 지나간 너털너털한 아버지의 모습에도 숭고함이나 아름다움은 없었다. 낭만성이 스며들 여지도 없었다. 처절하고 부끄러울 뿐이었다. 아버지를 소멸시켜 가는 건 암세포가 아니라 멈출 줄 모르고 가해지던 생의 고난이 아닐까.

딸마저 시집보내고 난 뒤 한사코 빈 등지에서 홀로 사셨던 아버지는 여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내외가 모시려했지만 여전히 홀로 지내길 원하셨다. 오히려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마저 처분하여 교회 선교헌금으로 내어주고 약간의 현금이 든 통장을 들고 원룸에서 사셨다. 작은 침대와 간이 옷장 그리고 소형 TV가 세간의 전부였고 달려있는 주방과 화장실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설 수도 없는 공간이었다. 남편과 내가 돌아가며 매일 들여다보긴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일상을 살기에 바빴다. 아버지가 완강히 혼자 살겠다고 하셨지만 끝까지 함께 살자고 맹목적으로 조르지 않은 것은 암묵적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전적인 동의를 한 셈이었다. 말로만 듣던 힘없는 독거노인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생경했다. 일상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마음이 불편했다. 우

리 내외는 아버지의 외로움 보다는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를 그냥 보고 있다는 자신의 불편한 양심 때문에 힘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무뎠고 기부장적인 아버지를 모시기는 쉽지 않다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자식과 사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하실 거라고 자위했지만 진정한 위안은 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으로 바흐의 얼굴이 있다. 바흐가 성경 속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그려져 있다. 바흐의 얼굴 건너엔 마르틴 루터와 멘델스존의 얼굴도 있다. 마르틴 루터는 사제나 신부가 아닌 한낱 촌부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신 앞에 과감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세상에 선포한 사람. 스테인드글라스 속 진지한 얼굴 표정과 굳게 다문 입술이 그의 외침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만 같다. 마르틴 루터의 외침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듯 바흐는 사제가 아니었지만 그의 음악을 듣고 직접 신 앞에 나아간 사람이 되었나보다. 멘델스존은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발굴하고 연주하여 세상에 다시 알려진 사람. 매일 십자가 앞에 씻어서 맑게 건져 올린 음악으로 신을 만난 바흐를 멘델스존은 깊이 존경하지 않았던가.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이곳에서 신을 찬양했고 자신의 소명대로 최상의 것을 드렸을 것이다. 나의 시선이 시대를 뛰어넘어 세 사람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소명의 세계를 천착했던 세 남자는 소명의 분야가 달랐지만, 묘하게 하나가 되는 신비가 그들의 얼굴 속에 보인다. 아주 다르고 아주 닮은 세 사람. 숨겨졌던 바흐의 삶과 신앙을 음악에 실어 세상에 표현해준 멘델스존으로 인해 백 년 만에 바흐는 다시 살아났다. 바흐는 한 번도 스스로 유명해지려는 욕망을 품지 않았지만 멘델스존을 통해 아주 오래도록 우리 곁에 사는 사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흐는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 속 마태복음

이십육 장과 이십칠 장을 마태수난곡으로 창조했고 1729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토마스교회 예배당에서 초연되었다. 그리곤 곧 사람들에게서 잊혔지만 1829년 게반트하우스의 지휘자였던 멘델스존으로 인해 다시 연주되었다. 바흐의 음악은 낭만주의 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고 바흐는 재평가 되었다.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일까. 겸손하게 엎드려 신을 경외했던 대가일까. 바흐가 생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신은 지금도 그를 위해 이 땅위에 펼쳐나가고 있다.

6

이제 나를 아버지에게로 데려다줄 밤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둘러 바흐를 만나고 스물여섯시간 만에 다시 라이프치히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 셈이다.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머리와 마음은 맑다. 높다란 공항의 창밖으로 어둠을 틈타 오후 내내 흩어졌던 구름들이 봄비가 되어 소리 없이 내리고 있다. 녹녹하지 않고 맑은 공기의 향이 코끝을 건드리는 걸 보면 봄의 나른함과 푸석이는 건조한 공기를 비가 촉촉하게 적셔주는 듯하다. 지금 내리는 비는 이곳으로 올 때 비행기에서 보았던 그 구름들이 흩어져 부활한 것일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는 꽤 오래 내릴 것 같다. 이곳 라이프치히로 올 때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비행기 창밖으로도 무수한 구름이 피었다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흩어진 그 구름들도 언젠가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고 또 새로운 봄꽃들을 피워줄 것이다. 구름은 흩어져서 오히려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별빛처럼 빛나보이던 바흐가 생활고에 힘들어하던 아버지였고 아내를 잃은 남편이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음악을 생산해야했던 직장인

이었음을 나의 눈으로 확인하고 서둘러 돌아가는 공항의 밤이 조금은 따뜻하다. 바흐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았던 일상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에게조차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도 소망을 준다. 그의 성실한 일상이 영원으로 부활하여 여기 내 귀에 흐르고 있지 않은가. 'Sie kocht Kaffee und bringt das Zucker'가 나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된 것처럼.

지금도 이어폰을 통해 여전히 마태수난곡이 흐른다. 창밖의 어둠과 봄비를 배경으로 마태복음 이십육 장의 광경이 희미하게 그려진다. 이별을 앞두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축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왔던 우주로 돌아가기 전,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난에 순응하여 그것을 묵묵히 짊어지기 위해... 고난은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 그의 숙명이었다.

고난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조우한다. 고난은 모든 인간의 숙명이지만 고난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해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바흐는 고난을 통과해 천상의 음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고난을 지나면서 나에게 다함없는 소망을 주고 있다. 마태수난곡은 바흐가 모든 인생에게 바치는 노래일지도 모른다. 기나긴 오라토리오의 호흡이 다한 후 부르는 마지막 합창은 그리스도를 노래할 뿐 아니라 바흐를 노래하고 아버지를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난을 숙명처럼 감싸 안은 모든 인생과, 낯선 고난 앞에서 묵묵히 인내한 그들의 걸음과, 그 빛나는 열매들을.

1977년 9월 5일 지구를 출발한 무인우주선 보이저 1호는 현재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거쳐 태양계를 벗어난 어느 별과 별

사이에 있다고 한다. 인류가 만든 우주선 가운데 가장 먼 곳에 도달한 보이저 1호에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음악이 담긴 황금레코드를 싣고 있는데 클래식 열일곱 곡 중 세 곡이 바흐의 것이라고 한다. 서정적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평균율 클라비어곡을 싣고 지금도 보이저는 영원의 공간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바흐의 삶이자 신앙고백인 음악들이 불멸의 우주에서 신을 찬양하는 광경을 눈을 감고 그려본다. 순간을 영원으로 나아가게 한 그의 삶, 그의 신앙, 그의 음악.

광대한 우주, 인간의 천 년이 하루 같은 신의 눈이 지배하는 곳에서 바라본 그의 육십오 년 인생은 순간일 뿐이다. 그러나 독일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십오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았던 바흐의 삶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영원히 열려진 공간과 시간으로 확장되고 또 확장된다. 인간의 하루가 신의 마음에 천 년 같이 여겨지는 세상 속으로 끝없이, 끝없이...

보이저1호에 실려 먼 우주로 간 바흐의 음악처럼 아버지의 일생도 우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신의 삶이 불멸의 음악이 되어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 밖으로 곧 떠날 것이다. 한 눈 없는 그의 어머니처럼, 폐결핵으로 눈을 감은 그의 첫 아내처럼, 그리고 삶도 죽음도 꿈만 같았던 그의 천사아내처럼. 이 땅에서의 그의 알 수 없는 고난에도 묵묵히 지켜봤던 신의 사랑이 아버지가 우주로 떠나는 순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젊어서는 집과 공장을 오가며 기계를 닦고, 늙어서는 집과 교회와 공원과 시장을 오가며 외로움을 달래던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아버지의 하루하루를 신은 천 년처럼 바라봐 줄 것이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며 가난하고 비루했던 아버지

의 생애를 천 년 역사의 무게로 인정해 줄 것이다. 아버지의 삶을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불멸의 음악으로 들어줄 것이다.

보이지 1호에 음악을 선별하여 담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말했다고 한다. 우주의 바다에 이 병을 띄워 보내는 것은 지구라는 행성에게 주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나는 돌아가서 부활절인 내일, 우주로 떠나기 위해 세상의 소리로부터 희미해져가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구에 남은 딸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한, 신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소박한 삶은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전)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권재록



수상소감

흘날리던 비바람이 멎었습니다.
거짓말처럼 햇살이 구름을 헤치고 나옵니다.
며칠 동안 답답했던 황사가 걷히고
말간 산야가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날은 신선한 공기를 맘껏 마셔야 할 거 같아요.
흐흠~!

감사합니다.
더 큰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이너 차일드

병원냄새는 언제나 별로였다. 입구에서부터 쉼없이 다가온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나의 예민한 신경세포를 마구 긁어댔다. 그 냄새는 여러 약품이 섞여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상한 치즈냄새 같기도 했다. 나는 코를 움켜쥐었다. 남편이 내 등을 토닥였다. 나는 애원하듯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병원냄새 정말 싫어.”

남편이 걱정스런 얼굴로 나의 눈길을 받았다. 아랫배에서부터 뒤흔어지는 느낌이 양발바닥과 양손 끝으로 번졌다. 손끝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이 싫어 남편의 손을 꼭 잡자, 다시 잇몸 새가 간질거렸다. 어금니를 꼭 깨물었다. 하악골에 힘이 들어갔다. 분명 남편이 싫어하는 투사 같은 얼굴이리라. 남편이 바싹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며 나직하게 말했다.

“걱정 마.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의 눈빛은 약간의 피로를 담고 있었다.

“요즘 정신과 상담은 일반화된 현상이야. 무슨 정신병이 있어야 정신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피로한 사람은 누구나 가서 상담 받을 수 있어. 마치 감기 걸린 사람이 내과를 찾는 것과 같은 거야.”

병원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끊임없이 나를 위로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이런 아내를 둔 자신을 위로하는 건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소동이 결정적이었다.

그날은 직위해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무른 날이었다. 마침 남편도 비번이라 집에 있었다. 커튼사이로 밀려드는 아침햇살이 눈부시게 밝았다. 나는 그 밝은 빛이 부담스러워 잠시 고개를 돌렸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김없이 먼지들이 바글거리고 있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빨랫감들, 신문이며 책가지가 몹시 눈에 거슬렀다. 오랫동안 청소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청소를 시작하기에는 내 몸이 너무 지쳐 있었다.

흘쭉해진 배를 쓰다듬어 보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소멸된 것으로 보였던 슬픔 같은 것이 다시금 훅 뻗쳐 올라왔다.

나는 욕조에 누워 물을 채웠다. 따뜻한 물에 몸이라도 담그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내 차를 들이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살의를 느꼈다. 그 후로 시도 때도 없는 분노가 나를 지배했다. 나는 그 분노에 대항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밤에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중국에 가서는 수면제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의사의 경고가 있자, 남편은 모든 수면제를 변기에 쏟아버렸다.

변기 물을 내리며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정신 좀 차리자. 제발 나도 좀 살자. 이제 정말 나까지 미치겠다.”

나는 남편의 눈에 그렇그렁한 눈물을 보며 다시는 수면제를 먹지 않겠

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내 바람과는 달리 더욱 기승을 부렸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보낸 나는 다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전전했다. 참담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뭔가 타개책이 필요한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따뜻한 물에 담겨 있는 나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흘쭉했다. 그 앞으로 뻐뻐마른 허벅지가 비스듬히 놓여있었다. 파란 실핏줄이 얇은 피부막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오랫동안 제모를 하지 않은 탓인지 노르스름한 솜털이 파란 실핏줄위에서 흔들거렸다. 나는 다리털이 보통여자보다 많은 탓에 정기적으로 제모를 해야 했다.

습관적으로 남편의 일회용 면도기를 집어 들었다. 남편의 충고대로 먼저 비누칠을 한 다음 다리의 굴곡을 따라 면도기를 밀었다. 결혼 초기 남편은 나의 다리털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우리 사이가 좋았을 때 남편은 내 다리에 비누칠을 한 다음 제모 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그날따라 다리의 털을 다 밀었는데도 내 안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겨드랑이의 몇 가닥 없는 털도 밀었다. 음모도 모조리 밀었다. 따끔한 느낌이 지나고 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맨살이 드러났다. 더 이상 밀 털이 없자 나는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위로 그다음에는 면도기로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김없이 밀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다. 반들반들한 머리와 바싹 마른 몸이 보기에 도슬펄다. 저토록 슬프고 초라한 여자라면 차라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였다. 나는 면도기를 손목에 대고 힘껏 그었다. 따끔한 아픔이 온몸으로 번져 나갔다. 때맞춰 붉은 선혈이 욕조 위로 몽실몽실 피어올랐다. 볼품없는 육신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피가 들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순식간에 욕조가 빨갱게 물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몸에서 피가 빠져

나가는 느낌이 새벽 종소리 같이 은은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다. 소리를 지르고 119를 부르고 난리를 치고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다.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내게 정신과 상담을 받자고 주장했다.

“현대인은 정신병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 필요하면 나도 같이 상담 받을게. 그리고 얼마간이라도 아버님께 가서 지내는게 좋겠어. 불안해서 당신 혼자 집에 두고 못 나가겠어.”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지내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말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게. 그러니 아버지에게 가 있을 필요는 없어.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할 거야. 이번에 보니 당신이 나를 끔찍이 생각하더라. 그걸 알았으니 그런 짓 절대 안 해.”

그러나 남편은 급기야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달려온 노인네는 몇 번이나 괜찮겠냐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애써 즐겁고 명랑한 얼굴로 말했다.

“학교 일 때문에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마시고 집에 가 계세요. 제가 필요하면 그땐 전화 드릴게요.”

나는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남편을 따라 이 병원을 찾았던 것이다.

“김소윤님! 들어오세요.”

의사는 나보다 약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여자였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미국 박사로 최근에는 여러 방송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의사의 질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근 일 년 사이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 교통사고 와 유산, 제자의 고소, 거기다가 직위해제까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군요.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겐 세상의 어떤 불행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치유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지요. 하지만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따뜻했다. 의사로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언니가 동생을 대하듯이 나를 대했다. 나는 웬지 이 여자라면 나의 문제들을 해소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로 사람을 괜히 정신병자 취급이나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일순 사라졌다.

“먼저 교통사고와 유산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간 아이를 생각했다. 결혼 4년만의 첫 임신인데다 노산이라 의사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태세였다.

“남편은 아기의 태명을 ‘동방삭의 스승’으로 지었어요. 남편은 동방삭이 삼천갑자를 산 신선이라고 하더군요. 삼천갑자는 요즈음 계산으로 십팔만 년인가 되는 긴 세월이래요. 아마 아이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나 봐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아기는 임신 4개월째 돌연히 사라졌어요. 퇴근길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주운전차가 내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 사고로 나는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아기는 이미 우리를 떠난 뒤였어요.”

아이의 유산 사실을 알았을 때도 나는 울지 않았었다. 슬프기는 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었다. 오히려 깃스를 한 뿔뿔한 내 목 상태가 더 직접적

으로 걱정되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진정한 슬픔은 시간을 돌고 돌아 한참을 곰삭은 후에야 드러난다는 것을. 나는 퇴원을 하고서도 한참이 지난 후, 어느 날 급하게 출근한 남편의 흔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나는 배를 만지면서 울고 또 울었다. 대부분의 슬픔은 실컷 울고 나면 해소되는데, 이번 슬픔은 울면 울수록 더욱 멎치고 다져졌다. 그 후부터는 수면제 없이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나는 견딜 수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병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학교에 출근을 한 것이다.

나의 말이 끝날 즈음 의사의 눈에 어린 물기가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주체 못할 설움 같은 것이 확 치밀었다. 나는 복받쳐 오르는 설움에 끼이끼이 소리를 내며 한참을 울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포근히 감싸 잡았다. 얼마 후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그녀가 물었다.

“제자에게 고소는 왜 당했습니까?”

“우리 반에 하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을 하곤 했어요. 하영이는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문제아이기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저를 고소한 것처럼 되었지만 아마 그 아이 뜻은 아닐 거예요. 약간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가 두서없이 흐를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으니 편하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영에게서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영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하영이가 첫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애와 상담을 했어요. 하영이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

머니와 자기를 너무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영이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대들다 맞았고 환검에 가출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끊고 하영이 일을 이곳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고민에 빠졌다. 의사는 마치 나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했다.

“괜찮아요. 어떤 이야기라도 하세요. 죄책감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김 선생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이야기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하영이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 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하영이는 왜 선생님을 고소했어요?”

“그건 아마 다른 친구의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학생회가 무슨 문제로 학교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검찰에 학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정을 했는데, 거기에 하영이 문제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영이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학교측에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담임인 저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의사는 나의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이 몹시 따뜻하게 느껴졌다. 역시 남편 말대로 이 의사를 찾은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부터 심한 모욕이나 손찌검을 당한 적이 있나요? 하영이처럼.”

나는 갑자기 가슴이 뜨끔했다. 의사는 당황하는 나를 놓치지 않았다.

“김 선생님,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자라다만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생겨납니다. 이너 차일드(inner child) 즉 내면아이라고도 하지요. 이 아이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꼭꼭 숨어 있다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도 하지요.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아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끓아 터져 우리에게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고 맙니다. 각종 우울증, 정신병질, 강박관념 같은 심리적 문제에 이런 내면아이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오히려 그 아이를 끄집어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입니다.”

나는 급소를 물린 사슴처럼 꼼짝도 못한 채 의사를 쳐다보았다. 의사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투명한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애초에 거기까지 꺼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데 한번 말문이 트이자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나왔다. 그렇게 이끌려나온 나의 내면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단발머리에 카키색 스웨터를 입은 내가 혼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시장엘 갔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숙제를 막 끝낼 즈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척 재미있는 채팅방이 있는데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화상채팅이 유행할 때였다. 방의 이름이 ‘엔젤의 꿈’이었다.

나는 그 예쁜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방장인 엔젤은 예상과 달리 잘생

긴 남자였다. 엔젤은 자신을 대학생이라 소개했는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가 다니는 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간다는 곳이었다. 엔젤은 잘생기고 멋진데다 공부까지 잘하는 거였다. 나는 엔젤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몇 마디 말이 채팅창을 통해 오갔을 때 엔젤이 우리에게 퀴즈게임을 제안했다.

“이 게임에는 규칙이 있어. 답을 못 맞히면 벌칙을 받아야 해. 알았지?”

나는 친구를 따라 동의했다. 먼저 친구가 당시 유행하던 무슨 퀴즈를 냈다. 엔젤은 맞추지 못했다. 친구는 엔젤에게 노래를 시켰다. 엔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증맞은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냈다. 아마도 당시 유행하던 무슨 개그였던 것 같다. 이번에도 엔젤은 맞추지 못했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엔젤이 이런 것도 모르나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벌칙으로 그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시켰다. 엔젤은 시키는 대로 잘도 따라했다. 엔젤의 뒷옷이 아래로 흐르자 그의 배꼽이 흰하게 드러났다. 엔젤의 배꼽 주변에는 시키면 털이 무성했다. 나는 생소한 그 모습이 약간 징그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친구는 무엇이 재미있는지 ㅋㅋ 웃어댔다.

이번에는 엔젤이 문제를 냈다.

“말 한 쌍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암말이 죽고 말았어. 그때 수말이 한 말은?”

우리는 그가 낸 문제의 답을 맞추지 못했다.

“정답을 모르네. 수말이 뭐랬냐 하면 ‘히히히 할 말 없네’라고 했어. ㅋㅋ 웃기지?”

나와 친구는 엔젤이 낸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엔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천사 같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ㅋㅋ, 이제 님들이 틀렸으니 벌칙을 받아야지. 자 이제 우리는 태초의 가장 순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모두 옷을 벗으삼.”

이러길 몇 번 결국 우리는 발가벗어야 했다. 엔젤 역시 공평한 게임을 한다면 스스로 발가벗었다. 나는 어른 남자의 벗은 몸을 처음 보았다. 웬지 부끄럽고 창피했다. 엔젤은 더욱더 신이 나는지 일어서서 자신의 몸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언제 왔는지 아버지가 경악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눈에 푸른빛이 돌았다. 아버지는 나의 얼굴, 머리, 등짝 등 닥치는 대로 때렸다. 나중에는 나의 머리채를 잡고 마루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는 나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버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날 아버지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후 머리카락이 다 자랄 때까지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아버지의 집중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했다. 내게는 고통스런 시간들이었다.

아버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나서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섭고 어려웠다. 그 후로도 간혹 아버지의 화난 얼굴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다.

의사는 며칠사이에 나의 심리상태가 많이 안정되어 간다고 했다. 딸이 걱정이 되었는지 아버지는 나 몰래 몇 번이나 병원을 다녀간 모양이

었다. 의사가 던지시 던진 말투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어쨌든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족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꺼냈다. 어떤 때는 마치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혼을 했으며 현재 중2년생인 딸과는 냉전 상태라고 했다. 그 때문에 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를 매일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 카페의 성향이 너무 염세적인 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마치 오래된 지기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어느새 그녀에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기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셨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는 좋았나요?”

“좋긴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크게 소리 내어 다투지는 않았지만 두 분 사이에 정다운 대화가 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안됐군요.”

의사는 나의 눈치를 살피는 듯 다소 주춤하더니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소운 씨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혹시 못한 것이 있나요?”

“네, 인도여행이요.”

“왜 못 갔어요?”

“제가 인도에 간다고 하자 아버지께서 엄청 화를 내며 막았거든요.”

“인도는 무엇 때문에 가려 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공부는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참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문득 어디선가 인도 여행기를 보았어요. 그 순간 저도 갑자기 인도에 가고 싶어지더군요.”

“혹시 아버지에게 꼭 묻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게 있나요?”

“중학교 땀가 제 생일날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저의 교복치마를 가위로 자른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다시 아기를 갖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기회가 되면 저는 꼭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잘 키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젊으니까 꼭 그렇게 될 겁니다.”

….

의사에게 마음을 털어놓은 것만으로 나는 많이 편해져 있었다. 전철을 기다리는 여학생들을 보자 갑자기 하영이 생각이 났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아빠와의 관계는 좋아졌는지 몹시 궁금했다. 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하영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흑흑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기 때문에 내가 직위해제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영아,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네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그건 그렇고 요즈음은 어떻게 지내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나는 하영이가 진심으로 걱정되었다.

“선생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좀 어떠셔? 요즈음도 자주 혼내고 그러시니?”

“아뇨, 요즈음은 웬일인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하영이가 처음으로 가출을 하였을 때 나는 할 수없이 하영이 집을 찾았다. 하영이 아버지는 반갑지 않은 눈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는 자식의 담임이라는 내가 무척 거북한 듯 한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후우, 선생님은 딸아이 키워보셨습니까? 글썄 우리 하영이가 말입니다. 그렇게 착하던 애였는데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는 말하는 도중에도 목이 메는지 말을 더듬거렸다.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बारबार 대들더군요.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웬 간섭이냐는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크흑…”

하영이는 그 후 집을 나갔다고 했다. 물론 그전에도 종종 그런 일로 혼내긴 했으나 이번에는 좀 심했던 모양이었다.

“일단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하영이 아버지에게서 나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한평생 꼬장꼬장한 교사로서 살아왔던 나의 아버지. 당신을 떠올릴 때는 언제나 엄격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먼저였다. 나는 그런 당신이 너무 싫었다.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다정다감하지 못하실까. 당신께서도 딸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보기엔 어딘가 기형이었다.

하영이가 첫 가출 후 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하영이를 따로 조용히 불렀다. 하영이는 돌아가신 엄마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리

고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서 어린 나를 보았다. 그의 팔다리에 언뜻 보이는 시퍼런 멍 자국은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았다. 내가 멍 자국을 가리키며 묻자 하영이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이거 아빠한테 맞은 거예요.”

옷을 들추자 멍 자국은 생각보다 깊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치밀었다. 나는 새로 생긴 특별법을 떠올렸다. 이 특별법은 교사에게 아동학대의 경우 의심만 들어도 고소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었다. 법규대로라면 나는 하영이 아버지를 고소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망설였다. 지난번에 만나 본 하영이 아버지는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가정에 법이 들어가는 순간 가족관계는 끝장날 것이다. 법은 가장 최악의 경우, 즉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생각해볼 일이다. 나는 하영이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영이네 집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하영이 문제를 어딘가 상의하고 싶은데 마땅히 털어놓을 데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하영이가 가출을 했을 때 그는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딸의 친구로부터 소식을 얻어, 마침내 부산의 변두리 다방에서 딸을 찾아냈다. 그는 딸을 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한 끝에 겨우 집으로 데리고 왔다. 하지만 딸아이는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딸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야, 이것아!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하지만 하영이는 아이새도를 시키렇게 칠한 실눈을 치뜨며 강하게 되 받았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아빠가 웬 지랄이야?”

순간 그는 다시 폭발하고 말았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다짐을 했지만 ‘지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간 것이다.

그는 잠기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딸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애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이상하게 되어 가네요.”

나는 그를 비난할 수가 없었다. 정답과는 거리가 있는 원론적인 말을 해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님, 이제 하영이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무작정 후려잡으려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 뺨나가거든요. 이제는 하영이 생각도 조금 존중해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의 집을 나오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피멍이 들 정도의 폭력은 용납하기 힘들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좋은 부모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를 고소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나 몰래 몇 번이나 병원을 더 찾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의사가 작은 메모리 하나를 내 앞에 내놓았다.

“여기에 아버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님이 따님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더군요.”

나는 풍뎡이만한 작은 메모리를 한참동안 들여다보았다. 이처럼 작은 물건 속에 아버지의 진심이 들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에 메모리를 꽂았다. 의사의 낭랑한 목소리와 귀에 익은 아버지 목소리가 차례로 들려왔다. 의사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아주 권위적인 편입니다. 자식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매까지 들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폭력은 미흡하면 강화로 작용하고, 과도하면 상처를 남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따님 역시 어릴 때 아버님께 혼난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선생님, 제가 딸애의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따님이 아버님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따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녹음기에다 맘껏 하세요. 변명이라도 좋고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말이라도 좋습니다. 필요하면 호통을 치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드릴 테니 아버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단 아버님의 진심이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잠시 치직거리는 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몇 번의 헛기침을 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 흐음, 음 … 소윤아,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 그래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날 일부러 이야기 해보자. 네가 열 살 남짓 되었을 때였구나. 그날은 학교 시험기간이라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을 했었지. 마침 네 엄마는 시장을 가고 집

에는 너 혼자 있더구나. 나는 네가 낮잠을 자는 줄 알고 조심조심 네 방문을 열어보았어. 그런데, 오 하느님… 맏소사….

… 넌 발가벗은 채로 누군가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 아직 초등학교 3학년엔 불과한 네가 말이야. 나는 얼핏 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는 기가 막혔단다. 그곳에는 커다란 성기를 드러낸 어떤 사내가 깔깔대고 있었지. 너에게 온갖 형태의 포즈를 강요하면서. 순간 나는 눈이 뒤집혔단다. 그 다음에는 너도 기억하듯이 아주 심하게 너를 때렸지. 그날 저녁 너의 머리카락을 바리칸으로 싹싹 밀어버리기도 했을 거야.

… 소운아,

난 당시 내가 본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단다. 네 엄마에게조차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가 없었어. 소운아, 그때 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였어. 그런데 그런 네가 어떤 놈의 분탕질 대상이었다니, 나에게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던단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 녹음기는 한동안 치직거리는 기계음만 이어졌다. 간간이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이어 몇 번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고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흐음, 소운아,

그때 내가 느낀 좌절감 절망감 황망함을 너는 알지 못할 거야. 너무도 소중해서 바라보고 숨도 크게 쉬지 않았던 너인데. 그런 너를, 그런 너를… 만약에 그놈이 내 앞에 있었다면 나는 그놈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차돌에 바람이 들면 백리는 더 날아가는 법이란다. 그날 이 애비의 심정이 그랬단다. 그날 이 아버지는 죽음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면 믿겠니? 맞다 맞아. 애야 지금 이 애비는 변명을 하고 있단다. 그래 변명이라도 하고 싶어. 애야 내가 잘못했다. 이 아빠가 무조건 잘못했다. 크음….

아버지는 결국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꺾꺾 울어댔다. 나는 녹음기를 통해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눈물어린 고백을 가슴조이며 듣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백은 계속 되었다.

… 그래 소운아,

교복치마, 나도 그 일이 기억난다. 네가 중학생 때였지. 당시는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대부분 짚짚이 치마를 입고 다녔어. 엉덩이 부분이 바짝 조여지고 단이 짧은 치마 말이다. 그런데 그날 집에 퇴근했을 때 네가 그 짚짚이를 입고 있더구나. 그때 학생주임이던 나는 아침마다 교문에서 짚짚이를 골라내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었어….

… 당연히 내 딸이 입고 있는 짚짚이가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단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의 짚짚이 치마를 가위로 자를 생각은 없었어. 내가 너의 치마를 보며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네가 눈을 파랗게 치뜨며 상소리를 마구 내뱉더구나 ….

… 그 순간 나는 몹시 화가 났단다. 내가 소리를 지르며 너의 치마를 가위로 잘랐었지. 그날이 너의 생일이었다는 것은 그 직후에 알았다. 내가 그 일을 얼마나 후회하고 슬퍼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가슴에 멍멍한 통증 때문에 일주일간이나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던단다. 그래 이것도 구린 변명이야.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

컴퓨터는 다시 얼마간의 침묵 속으로 빠져 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잠시 후 다시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좀 더 힘이 들어간 소리였다.

… 소운아,

나와 네 엄마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인정할게. 네 엄마와 나는 종교부터 취미까지 모든 게 맞지 않았어. 그래 그것을 탓한다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 하지만 네 엄마의 죽음 말인데, 너는 그것마저도 이 아빠의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말하마. 그때 네 엄마는 무슨 이유에선지 나에게 행선지도 밝히지 않고 집을 나갔어. 나중에 알았는데 네 엄마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간거야. 한참 후에 어느 산골의 기도원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단다. 나는 어린 너에게 그 황당한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더구나. 네가 충격을 받을 것이 두려웠어. 당시 너는 고3으로 입시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거든. 너에게 지금까지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 내 잘못이구나….

… 소윤아,

그리고 인도 말인데 한참 입시에 매진해야 할 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인도에 가겠다고 하더구나. 나는 당연히 반대했었다. 당시 내가 아는 인도는 아주 위험한 나라였거든. 버스 안에서 여성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보도되던 때였어. 그 즈음 우리나라 여대생이 여행 도중 실종되는 사건도 일어났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널 홀로 보낼 수가 있었겠니? … 크흐… 흑!

아버지의 고백은 결국 울음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다. 아버지는 그동안 나에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좋은 부모가 되려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저도 제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무진 노력했는데 결국 잘 안되더군요.”

의사는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체념조로 내뱉었다. 어찌면 의사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못마땅했는지도 모른다.

간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화창한 날씨 탓인지 북한산 언저리가 선명하게 보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투거나 화가 나면 북한산으로 산행을 가셨다. 북한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자주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나에게는 먼 곳이었다. 그런데 불현듯 북한산에는 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북한산을 꼭 한번 다녀오리라 생각했다.

집안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어지러운 광경이 나의 눈에 거슬렸다. 나는 오랜만에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낸 후 걸레질을 시작했다. 걸레는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했다. 걸레가 지나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가 선명하게 구분되었다. 나는 그 선명한 선의 테두리를 점점 더 확장시키며 묘한 희열을 느꼈다. 무릎이 까지고 쓰라렸지만 나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온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내고 나자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며 오랜만에 나도 모르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때 나를 상담했던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원장님이세요?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수화기 저 편에 그녀답지 않은 다급한 목소리다.

“김 선생님, 혹시 선생님을 고소한 그 아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아, 하영이 말인가요? 예, 며칠 전에 한번 통화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일전에 이야기한 인터넷 카페 있잖아요. 그곳에 좀 이상한 글이 뒀는데, 글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선생님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한 아이가 그걸 자책하며 쓴 글인데, 그 내용이 김 선생이 당한 상황과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자신은 살고 싶지 않다는 식의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래도 자살을 암시하는 글 같아요. 혹시 김 선생을 고소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전화 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의사의 뜬금없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의사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나는 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 몸을 타고 흘렀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다가, 하영이 단짝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하영이가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만난 친구 몇 명이랑 죽는다면서 한강으로 갔어요. 마포대교 쪽이에요.”

“뭐라고?”

나는 처음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다. 뒤이어 나도 모르게 온 몸이 덜덜 떨려왔다. 옷을 대충 걸친 채 허둥허둥 택시를 잡아타고 마포대교를 향했다. 나의 마음은 날을 뺏듯 콩닥거렸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부르며 기도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뛰어내리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포기했다. 마포대교가 가까워지자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을 해대고 있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하영아. 제발...’

나는 마음속으로 미친 듯이 외쳐댔다. 저 멀리서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나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고개를 빼어 아이들을 찾아보았다. 다리 중간지점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 틈에 하영이도 있었다. 멀리서 본다면 그들은 그저 한강 구경을 나온 평범한 학생들 같았다. 몇몇은 다리 난간에 기댄 채 사진을 찍기도 하고, 몇몇은 킁킁대며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조바심을 내며 택시에서 내렸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그들은 나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영이에게로 달려갔다.

“하영아!”

하영이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하영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고마워. 하영아, 진심으로 고마워. 지금까지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하영이를 더욱 힘주어 안았다. 머리로 만져보고 등짝도 쓰다듬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이내 하영이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를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승용차 한 대가 쏜 살같이 달려와 멈추는가싶더니 한 여자가

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 나왔다. 그리고는 저만치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잡아채며 외쳤다.

“야! 서우야!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여자는 서우라는 아이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꼭 끌어안았다. 순간적으로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바로 나의 상담의사였던 것이다. 흰 가운 대신에 외출복을 입은 탓에 첫눈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서우를 꼭 안은 채 등짝이며 머리를 끊임없이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서우가 살아 있음을 확인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이태승



수상소감

제게 글을 쓰는 일은 타의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 점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낍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저 없이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통화방식

사거리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버렸다. 시동을 걸 때부터 숨넘어가는 소리를 냈기에 미영은 조만간 사달이 나겠다고 예감했지만, 이런 식의 봉변을 당할 줄은 몰랐다. 중고차 업체에서 구매한 지 일 년이 조금 안 된 차였다. 이동시간을 줄여보자는 생각에 약간의 빚까지 내서 구입한 것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수리비를 합치면 새 차를 사는 게 나을 뻔 했다. 차는 꿈쩍도 안했다. 미영과 통화 중이던 직장 동료는 아이들 등교 때문에 늦을 거 같으니 출근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계속 지껄였고, 뒤의 차들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마구 경적을 울려댔다. 최신 팝송이 흘러나오는 스포츠카 한 대가 무심하게 지나칠 땐, 냉수를 벌컥 들이켜고 싶을 정도로 그녀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몸도 육신거렸다. 곧 장애물로 변해버린 차 옆으로 샛길이 났고, 미영은 근처 카센터에 연락한 후 가까운 정류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일 똑바로 해, 쌍년아!

지각 때문은 아니었다. 한 시간이나 출근시간을 넘겼음에도 미영에게 전화 한 통 거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수화기를 들고 정신없이 통화중이었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영세 콜센터, 언뜻 보면 이곳은 구치소 면회실 같다. 네모난 칸막이에서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 게 업무의 전부였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몇몇 기업의 일을 위탁받았으나, 불경기엔 대포

폰으로 불법적인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미영은 요즘 서울시 민원 업무 전화를 대신 받는 일을 하는 중이다. 말이 좋아 민원이지, 대부분 불만과 하소연이었고, 심심찮게 욕설이 섞였다. 욕에도 내성이 붙어 이제 쌍년, 따위는 식상한 정도였지만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는 일은 불편했다.

그녀 옆 자리에 신입사원이 와 앉았다. 한 달 만에 또 교체된 것이었다. 그녀는 대학 신입생처럼 상기된 얼굴로 짧은 스커트를 입고 출근했다. 벌써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그녀가 수화기를 들었다. 훈련받은 구관 조처럼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깎듯한 인사로 상대방을 대한다. 첫 통화를 나름 잘 마쳤는지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미영을 향해 씩 미소 지었다. 미영은 입사 당일, 정오를 채 넘기지 않고 들었던 첫 욕을 떠올렸다. 씨발이었든가, 지랄이었든가. 중년의 남자로부터였지만 무슨 까닭이었는데 기억나진 않았다.

신입이 들고 있던 수화기가 떨리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통화였다. 의자 위로 엉덩이를 들어 올린 그녀는 구부러진 몸으로 주위를 살폈다. 진동이 입술에까지 옮겨가자, 그녀는 수화기를 온전히 놓지도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 뒤로 스무 명의 직원들이 구겨진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미영은 그녀의 책상 위에 단정하게 포개진 손수건 하나를 올려둔다. 제대로 신고식을 치른 그녀는 혼이 난 만큼 더 강해질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상담원 김미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필 이름이 같아서, 미영은 전 국민을 상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는 정체불명의 '김미영 팀장'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면 입술을 작게 모아 목소리를 줄였다. 그래도 '그녀'는 팀장이 아닌가,

계약직인 미영은 뭔가 억울한 기분마저 든다. 미영이 이 일에 뛰어들어 이 유는 게이름 솔 높이에 해당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타고난 것도 있었지만, 학력 무관, 경력 무관이라는 이 직종의 모집요건 때문이 컸다. 전문대학을 중퇴한 뒤, 그녀가 전화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벌써 수차례의 계절이 바뀌어 있었다.

보통 여자가 생리할 적에 며칠 정도 합니까?

속 썩이는 여자친구때문에 고민이라던 남자는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던 남자들이나 가질 법한 질문을 해댔다. 벌써 이 통화로만 오 분을 까먹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상담이 불가한 내용이라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내, 남자는 조용해진다.

다른 문의사항 없으십니까?

너한테는 없다. 씨발년아!

미영은 오 분 만에 씨발년이 된다. 이틀에 한 번 꼴이었다.

다음부터 내 전화 받지 마라!

여자의 생리주기가 궁금한 그가 다시 이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미영은 면봉에 물을 적서 귓속을 닦는다. 귀지와 먼지가 달라붙은 면봉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불쾌한 전화를 받고 난 후, 다음 전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자 치루는 미영만의 방법이었다. 언젠가부터 면봉은 다이소에 들를 때마다 장바구니에 담는 필수품이 되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미영은 별의별 질문에 다 응답해야 했다. 지난 주말에 방영된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 전해주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퀴즈를 함께 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최대한 점잖게, 큰 소리 나지 않고 전화를 마치는 것이 미영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송 실장이 순찰을 돈다. 그의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있다. 그는 통화 수, 통화시간, 지각 여부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했다. 실적은 곧 그 달의 급여로 이어졌기에 모두가 실장의 눈치를 봤다. 낮과 밤 이교대로 운영되는 방식이라 실장도 두 명이었다. 직원들은 그 둘을 잘생긴 실장과 못생긴 실장으로 구분했다. 송 실장은 전자였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모두 더 짹 짹한 목소리로, 더 친절히 고객에게 응대했다. 미영은 송 실장의 팔뚝 위에 그려진 용 문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꿈틀거리는 용은 어느새 미영에게 다가와 가슴 사이를 파고들었고, 배꼽 아래까지 비비다 돌아간다.

미영이 그에게 애뜻한 마음을 품은 건 시말서 탓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상담원에게는 간혹 친절함보다 박식함이 더 요구되는데, 특히 정확한 정보를 물어볼 때 그러했다. 미영의 잘못된 설명 탓에 여권 발급 시기가 늦어진 한 이용자는 기어코 회사 게시판에 항의 글을 남겼다. 미영은 처음으로 시말서를 써 제출해야 했다. 시말서를 반성문쯤으로 이해한 미영은 공식적인 양식이 따로 있는 줄도 모르고, 앞으로 더 꼼꼼하고 똑똑해지겠다는 다짐을 자필로 써갔다. 송 실장은 그런 미영이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간 그녀는 강아지가 된 기분이었다. 꼬리가 달렸다면 마구 흔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미영이 글에 소질이 있다고 추켜세웠고, 다른 것도 써보는 게 어떠냐며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켰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기 공모'라는 글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송 실장이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고 지나간다. 단단히 조인 브래지어 끈이 잠시 들리자, 전신에 파동이 일었다. 미영은 송 실장의 뒷모습을 보며, 옷에 가려진 그의 등을 상상한다. 용의 비늘로 뒤덮여있을 넓은 등

작을, 엉덩이까지 날렵하게 이어져있을 용의 꼬리를. 미영은 용과 한 몸이 되는 불경한 상상을 하다가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다시 수화기를 든다.

대략 이백통의 전화를 마친 미영은 집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해 유니폼을 두른다. 언덕 어귀에 자리 잡은 카페로 테이블이 열 개 정도 놓인 아담한 곳이었다. 차가 고장 난 탓에 평소보다 지각한 그녀는 사장으로부터 작은 타박을 듣는다. 그리곤 숨 실 틈도 없이 곧바로 손님의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 교복을 입은 커플은 서로의 음료를 골라주며,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주문을 마친 이들은 통로 구석의 가장자리 의자에 책가방을 놔두고 앉는다. 멀리서 중절모를 쓴 남자가 돋보기안경을 매만지며 천천히 다가온다.

아가씨! 나, 저걸로 줘.

반말이다. 그의 손끝은 메뉴판의 애매한 지점에 닿아있다.

아메리카노요?

아니, 그 아래!

에스프레소요?

아니, 더 밑에!

까페라떼요?

응, 그거 줘.

스무고개가 끝나자,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며 커피 값에 대해 투덜댄다.

열 시가 가까워지면, 문 닫을 준비를 한다. 저녁 내내 카페에 죽치고 앉아있던 커플에게도 영업이 끝났음을 알린다. 여기저기 너부러진 의자들

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설거지통에 쌓인 머그컵을 차례로 씻는다. 고무장갑을 벗자 손톱 아래 껍질들이 잔뜩 일어났다. 손바닥 위 진통제, 아스피린, 비타민을 물과 함께 삼킨다. 가방에는 언제나 약이 구비되어 있다. 약을 먹지 않고는 두통에 시달려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은 정돈되지 않은 방처럼 어지러웠다. 약은 머릿속을 깨끗하게 치워주기보다, 통증을 잊고 외면하도록 도와주었다. 가게 불을 끈 뒤, 미영은 집으로 가는 언덕길에 오른다.

미영은 곧장 욕실로 들어간다. 방과 비슷한 크기의 욕실엔 쓸데없이 큰 욕조가 놓여있어 방을 처음 보러 왔을 때부터 미영은 의아했지만, 가장 맘에 들었던 공간이기도 했다. 물론 수도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욕조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 온수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싶었다. 미영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 들어가 몸을 매만진다. 피부에 내려앉은 먼지들, 그리고 욕지거리와 반말들이 귓가에서 떨어져 머리카락들과 함께 수챗구멍으로 빨려 들어간다. 모두 다 떼어내려는 듯 그녀는 콩콩 뛰었다. 뿌연 수증기가 차오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다. 바싹 마른 식물처럼 몸이 야위었다. 문득 머리를 감았는지 기억이 안 나, 미영은 또 한 번 머리를 행군다. 찬 물이 쏟아진다.

머리를 말리는데 마른기침이 나왔다. 감기에 걸리는 건 손해고, 사치다. 그녀는 잊지 않고 서랍에서 감기약을 꺼내 마저 삼킨 후 자리에 눕는다. 고요한 밤이었다. 우우웅, 하고 귀가 멍해진다. 이명 현상은 점점 심해졌다.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낮에 들었던 욕도 들린다. 모두 환청임을 알지만, 미영은 몇 번이나 자리를 뒤척이다, 비로소 잠든다. 그녀가 밤새도록 심하게 코를 고는 사실은, 정작 모른다.

차가 수리되는 동안, 미영의 기상시간은 더 당겨진다. 목 위로만 간단히 씻은 뒤 밥에 물을 말아 몇 숟갈 떠먹고, 어제와 동일한 옷차림에서 블라우스만 갈아입고 밖으로 나선다. 버스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능숙하게 자리를 지탱하며 누군가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통화도 한다. 버스가 급정차할 때면 진열이 흐트러지지만, 곧 다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원상태를 회복했다. 미영은 이 징글맞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속이 교통 체증처럼 더부룩해졌다.

첫 통화는 낙성대 근처에 사는 주부로 홈쇼핑 불만 민원이었다. 주문한 김치가 맛이 없어 반품 신청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규정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항의였다. 여자는 나직이 두 포기정도 먹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미영은 소비자보호센터의 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본인인 것처럼 맛있는 김치를 담근 당사자인양 여자에게 사과를 한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옆에서 신입의 통화 내용이 들린다. 연신 고개까지 숙여가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걸 보니, 그녀는 제대로 일을 익히고 있다. 제법 노련하게 통화의 마무리를 이끌어내는 부분에서는 작은 환호라도 보내고 싶었다. 출근하자마자, 직접 만들었다며 신입은 미영에게 하트 모양의 쿠키를 건넸다. 끝나고 데이트가 있는지, 그녀의 치마 길이는 첫 출근 때보다 더 짧아져 있었다.

점심시간에 못생긴 실장이 휴게실로 들어왔다. 권 실장은 종이컵으로 커피를 훌쩍이며, 갑작스런 감원 공지를 했다. 공지보단 경고에 가까웠다. 방금 트렁크에 골프채를 신는 데, 사장이 회사 사정을 꺼내며 조만간 십 프로 정도 인원을 줄여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직원들은 도시락 반찬을 서둘러 입에 넣었다. 권 실장 앞에서 미

영은 쥐며느리처럼 몸을 동그랗게 웅크렸다. 그녀는 두통약과 소화제를 물과 함께 털어 넣고, 휴게실을 빠져나온다.

퇴근이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미영이 책상을 정리하고 일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누군가가 당겨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영은 감원 공지를 떠올리며,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감원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공손히, 통화해야 했다.

사는 게 힘드네요.

엠티 여자의 음성이었다. 우울증에 걸린 환자와 다짜고짜 우는 사람은 진상고객 중에서도 진상으로 통했다. 이들은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 전화를 걸곤 했다. 미영은 먼저 나서지 않기로 판단하고,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기로 맘먹었다.

오늘 죽으려고요.

단호한 말투에 미영은 그런 생각 말라고, 지금 어디냐고 침착하게 물었다.

왜요? 신고하게요?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미영은 당황스럽다.

알았어, 죽을게, 끊어!

막무가내로 통화가 끊어진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것은 미영 본인이 직접 증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미영은 삶의 연장과 유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다, 곧 일어섰다.

커피숍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장은 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티스푼, 빨대, 냅킨이 수십 개씩 사라졌다고 광분했다. 그는 미영을 구석으

로 몰아세우며 추궁하듯 물었다.

미영 씨가 가져간 건 아니지?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커피를 만들어 파는 일 외에, 이제부터 줌도둑으로부터 물건을 사수하는 일도 업무에 추가된다. 그러나 시급은 달라지지 않는다. 양복 차림에 파란 넥타이가 눈에 띄는 남자가 재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아무 자리나 툭 앉고 노트북을 꺼냈다. 그는 주문 없이 삼십분을 그렇게 작업에 몰두했다. 한 커플이 들어와선 마땅한 자리가 없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미영은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하지만 주문을 하셔야 매장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남자는 도리어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말한다.

오전에 와서 시켜먹었는데, 기억 안나요? 저 여기 단골이에요.

미영은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규정상 안 된다고, 겨우 타이르듯 남자를 일으킨다. 그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며, 툭툭대며 나가버린다. 손님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미영을 쳐다본다. 그녀는 불친절한 점원처럼 보인다.

아홉시를 넘기자, 카페는 다소 한산하다. 동네 어귀를 돌다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아주머니 둘이 벌써 날씨가 쌀쌀해졌다면서 자리에 앉는다. 파마모양까지 똑같아 둘은 꼭 쌍둥이처럼 보인다. 그 중 한명이 홀에 와 에스프레소를 주문한다.

많이 줘! 컵은 하나 더 주고.

여자는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잔을 받아 자리로 간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텀블러를 꺼내 머그컵에 따른다. 에스프레소 한 잔은 아메리카노 두 잔이 된다. 둘은 곧 그들만의 담소에 빠져든다. 미영

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만 근질거릴 뿐. 그럼에도, 미영은 목격하고 만다. 빨대 한 움큼을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재빠르게 지퍼를 잠그는 아주머니의 손을.

그저 가져가시면 안돼요.

미영은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여자는 금세 귀가 빨개지며 소리쳤다.

내가 뭘?

미영은 망설이며, 가방 안에 넣으신 거요, 라고 작게 말한다.

아가씨가 사장이야? 내가 여기 김 사장이랑 얼마나 잘 아는데, 어디서 건방을 떨어? 새파랗게 어린년이!

미영은 사장의 성씨가 김이었던가 생각하는 동시에, 본능적으로 일이 꼬여감을 느꼈다. 여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흠친 빨대를 가방에서 꺼내 미영의 얼굴에 냅다 뿌린다.

이 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유세야!

손님들이 또 다시 미영을 본다. 자신들은 몰상식한 아줌마와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안도와 함께 저런 무례한 사람이 되진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섞인 눈빛들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기꺼이 미영을 위해 나서 줄 사람은 없다.

고단한 하루였다. 대걸레로 가게 바닥을 닦으며, 미영은 전화를 건 여자가 정말 자살이라도 했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했고, 그냥 모른 척 넘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한 실랑이를 벌인 걸 후회했다. 상담원 주제에,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끼어들 문제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자책한다.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은 주제파악을 하라는 말이었다. 낮에도, 밤에도 사과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그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송구스러운 일 같다. 커피와 함께 두통약을 삼킨 미영은 그저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싶었다.

다. 그 뿐이었다.

모서리가 닳아 부서진 계단을 오르는 중이었다. 사방이 캄캄했고 주머니 안에서 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라면 이골이 날 정도로 받은 하루의 막바지였기에 미영은 무시하고 싶었지만, 결국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차 좀 빼요!

남자는 잔뜩 화가 난 말투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 차 없는데요.

미영의 차라면 지금쯤 카센터에서 개조에 가까운 수리를 받고 있을 터였다.

거짓말하지 말고 차 빼요. 당장!

미영은 어처구니가 없어 전화를 그냥 끊고 싶었다.

거기 전화번호가 공일공 육삼이칠 삼공사사 아니야?

미영은 매일매일 수십 명이 묻는 전화번호를 손수 찾아 불러주었지만, 정작 본인의 전화번호는 갑작스레 떠오르지 않아 난처했다.

아가씨, 장난하지 말고 빨리 차 좀 빼라고, 얼른! 짜증나 죽겠으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미영에게 차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짜증이 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항변하고 싶은 욕구가 미영의 목젓 밖으로 튀어나올 땐 뜻밖의 언어로 변모한 상태였다.

씨발, 차 없다고!

그렇게 미영은 영겁결에 전화상으로 욕설을 뱉고, 전원 버튼을 꼭 눌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걸음이 빨라졌다. 몇 계단을 더 오르자, 미영은 목구멍에 쌓였던 가래가 사라진 듯, 목에서 상쾌한 바

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할 무렵엔 몸 속에 오래 묵힌 찌꺼기를 막 배설한 후의 쾌감까지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회사 서랍 안의 대포폰을 떠올렸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영은 씻기로 한다. 욕설들이 몸에서 각질처럼 떨어져나간다. 그럼에도 미영의 입에서 나온 씨발, 이라는 낱말이 그녀의 입술 주변을 맴돈다. 수치스러워 부인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쏟아지는 물줄기 안에서 그녀가 분명 웃었다는 것이었다. 이불을 펴면서도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신했다. 미영은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는 어느 때와 같이 알람에 깨고, 언덕 아래까지 잼싸게 뛰었으며, 버스 안을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제시간에 출근하여 수화기를 들기까지 길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나 미영은 분명 자신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것은 미영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그녀는 중얼대기 시작했다.

시청에 민원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었다.

네,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정책과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 멍청한 새끼야!)

미영은 발설해선 안 되는 말들을 입모양으로 웅알거렸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게으른 새끼,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지 병신아!)

첫 통화가 그렇게 끝이 났다. 두 번째도 다르지 않았다.

언니, 사당역 근처인데요. 음식점 좀 추천해주세요.

한식, 중식, 양식 중에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언제 봤다고 언니야, 그만 좀 쳐 먹어라!)

오후에도 통화는 계속되었다. 황당한 사연을 가진 진상고객들이 사이 사이 끼었다. 그 중에는 아내가 도박에 빠져 괴롭다는 남자도 있었다.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길 바란다고 말하자, 그는 미영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다.

일 똑바로 해, 쌍년아!

툭 끊긴 수신음을 향해 미영이 말했다. 물론 속으로만.

(너나 똑바로 해, 개새끼야!)

미영은 거침없었다. 욕을 할 때마다 속이 땡 뚫리는 것 같았다. 같은 욕이 반복되는 경우도 잘 없었다. 사용하는 욕의 범위가 넓고 다양했다. 그것은 그동안의 듣기 학습을 통한 놀라운 결과였다. 결코 입 밖에까지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행위만으로도 통쾌하고 짜릿했다. 왜 진작 물랐을까, 억울할 정도였다. 미영은 면봉이 담긴 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 구석으로 쪽 밀어 넣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송 실장이 그녀 뒤에서 히죽대며 물었다. 미영은 공공장소에서 맨살을 노출한 것처럼 화끈거렸다.

결국 그녀는 회사규정을 어기고, 대포폰을 몰래 꺼내들고 나왔다. 카페 문을 닫은 뒤, 귀가하는 시간이면 이제 온전히 그녀만의 통화 방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녀는 외계인에게 걸 듯 아무렇게나 번호를 눌

렸고, 곧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와 연락이 닿았다. 카페에서도 줄곧 흘러나오던 팝송의 후렴구가 통화연결음으로 들린다. 미영은 고개를 까딱대며 리듬을 탔다. 동시에 그녀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자다 깬 듯한 남자의 나른한 음성이 들린다.

야이미친새끼야, 민원을넣으려면담당공무원한테직접하든가쪄잔하게콜센터에다전화하지마라.그딴일로전화받으면짜증나겠냐,안나겠냐?

여, 여보세요?

깜짝 놀란 남자가 되묻지만, 미영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끝나지 않았다.

야이년아,아무거나쳐먹을것이지무슨맛집을찾아달래?사당역에음식점이한두개냐,그리고알려준데로갈것도아니잖아.돼지같은년아.

당신, 뭐야? 미쳤어?

남자는 이제야 전화가 조금 잘못되었음을 알아챈다.

인간아, 니가그따위로행동하니까아내가도박을하고다니지.이혼을하든지때려죽이든지네맘대로해라.풀리는대로하라고, 씨발!

미영은 전화를 세차게 끊었다. 전화를 마친 그녀는 까치발 상태로 반쯤 허공에 몸이 들려있다. 온몸을 부르르 떤다. 수류탄을 쏘듯 사정없이 뺨은 날말들이 그녀 주위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다. 처음에는 욕과 막말만 하고 부라부라 전화를 끊었지만, 조금 익숙해지자 그녀는 콩트처럼 상황에 맞게 연기하는 대범함도 보인다. 자신의 연기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본인이었다. 통화가 끝나면, 다신 이렇지 말자고 결심하면서도 다음날 같은 시간에 대포폰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그녀는 그렇게 하루에 한 통 이상, 장난전화를 걸고 집으로 돌아갔다. 도착하면 곧장 욕실로 들어가 깨끗이 몸을 씻으며 회개했다. 낮부

끄러운 일의 연속이었지만,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다음날 출근 후 스무 번째 통화를 할 무렵이었다. 미영은 뜻밖의 연락을 받는다. 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부상으로 삼십 만원이 곧 계좌에 입금될 거라고 했다. 미영은 송 실장이 떠올랐다. 그의 칭찬과 제안이 아니었다면, 공모에 글을 보낼 까닭도 없던 일이었다. ‘미영 씨는 글씨도 예쁘고, 생각도 깊어요.’ 그녀는 실장이 오래전 자신에게 건넨 말을 기억 속에서 꺼냈다.

미영은 실장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노크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살며시 문을 밀자, 방엔 가습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비상문을 열고, 옥상으로 뻗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간다. 그가 자주 담배를 피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영은 그를 만나면 고백할 것이었다. 당신 때문에 이런 행운이 찾아왔다고, 당신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이렇게 수줍게 말하면, 그의 손이 다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거라고 믿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리카락을 코에 가져가 냄새도 맡아보았다. 칭찬받고 싶은 아이처럼 미영의 마음이 바빠진다.

옥상에 올라, 미영은 주위를 둘러봤다. 굴뚝 밑에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만 보고도 그의 것인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림자가 옆에 하나 더 있다. 허리까지 내려올 만큼 긴 머리카락, 짧은치마 아래로 뻗은 얇은 둘레의 다리, 그것은 신입의 것이었다. 두 사람이 발소리에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당황한 기색이었다. 눈이 마주친 미영은 실장님, 이라 부르고는 주춤거리며 다가갔다. 찰나의 순간에도 미영의 머릿속에선 낮 뜨거운 상상이 펼쳐진다. 대낮의 옥상, 뜨거운 햇빛 아래서 송 실장의

손이 어린 신입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속 허벅지를 쓰다듬는 모습이 그려진다. 미영은 주먹을 꼭 쥐며, 준비한 말을 주섬주섬 꺼낸다.

실장님…, 그러니까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정규직 수기… 말예요. 제가 잘 쓸 거 같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게 뽐혔다고 연락이 와서요.

두 사람이 멍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듣는다.

우와, 언니 축하해요!

신입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부자연스럽게 축하를 해주었다. 엄지가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이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였다. 그제야 송 실장은 미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고, 손뼉박수를 치며 웃었다.

아, 그거요? 그거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었는데, 무튼 잘됐네요. 미영 씨!

장난이라니, 미영은 별안간 감전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중심을 잃고 뒤로 자빠질 뻔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고개를 돌려 도시의 광경을 꽤 오랫동안 감상한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발로 밟으면 뭉개질 것처럼 조그맣다. 근무시간 중 옥상에 올라온 세 남녀 사이로 어색한 공기가 흘렀고, 정신을 차린 미영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 봐야겠다고 말한다. 그 와중에 그녀의 시선이 그의 팔뚝 문신에 꽂힌다. 용은 이제 보니, 꼭 뱀 같다. 뱀 같은 새끼, 미영은 중얼거렸다. 신입이 짧은 치마의 매무새를 고친다. 방금 그 안으로 무언가 들어갔다 나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자, 미영은 어디선가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헛구역질을 했다. 그래도 그녀는 태연한 척 돌아선다. 입이 근질거렸다. 햇바닥 위로 침이 고였다. 그녀는 밤 열시가 기다려졌다.

일에 집중을 못하고 이마에 땀까지 송골송골 맺힌 미영은 오후에 반차를 썼다. 흔치 않은 일이었다. 생리가 심할 때나 한 번씩 쓸 정도로 아껴 쓰던 월차였다. 그녀는 병원 대신 지하철역 근처, 한 타투 가게에 들어선다. 가게 안은 밀거래가 오가는 곳처럼 어둡고 칙칙했으며, 피범벅이 된 듯 벽이 온통 붉었다.

반영구로 하실 건가요?

네, ... 아, 아뇨! 지워지는 걸로요.

어떤 모양으로 해드릴까요?

미영은 시술자의 왼쪽 팔뚝 위로 새겨진 금붕어의 비늘을 응시한다.

그걸로 해주세요.

그녀의 발목에 금붕어 한 마리가 형태를 드러낸다. 타투 비늘이 그녀의 살갓을 찢을 때마다 그녀는 낮은 신음을 뱉었다. 완성된 금붕어는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어항이 없어서일까, 불안해보였다. 일어서자 통증이 쏟아져와 미영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 했다. 그녀의 계좌에서 삼십 만원이 사라진다. 삶은 원래부터 이상한 거라고, 더러운 기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옳다고 미영은 생각했다. 그러나 카페에서도 이상한 방식으로 정리될 줄은 몰랐다. 카센터에서 수리한 차를 끌고 한 시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한 후의 일이었다.

미영 씨, 미안한데 말이야.

사장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낸 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었다.

그 손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미영은 사장이 지칭하는 '손님'이 파렴치한 아주머니를 말하는 건지, 뻔뻔한 파란 넥타이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오후에 그 사람이 다녀갔다고 했다. 사장이 그녀의 눈을 바로 보지 않고 말한

데는 더 예쁘고, 젊고, 저렴한 아르바이트생을 벌써 구한 것일 거라고 미영은 생각했다.

그래도 이번 달 월급까지는 꼭 채워줄게.

인심 쓰듯 제 할 말만 하고, 사장이 떠났다. 가게에는 미영 홀로 남겨졌다. 개새끼, 라고 그 자리에서 말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문신한 발목이 따끔거렸다. 반말로 진행되는 스무고개 주문을 받고, 입술 흔적이 남은 머그잔을 수세미로 닦으며 미영은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어차피 곧 관둘 일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밀린 월세와 차 수리비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영업 종료를 몇 분 남기고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들 탓에 가게 문을 조금 늦게 닫아야 했다. 평소와 달리 의자 정리는 사장에게 미루며, 얼른 소등해버렸다. 카페 옆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미영은 대포폰을 꺼내든다. 그녀의 표정이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이글거렸다. 마치 이 짓을 위해 하루 종일 견디고 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공일공을 누른 뒤, 내키는 대로 번호를 누른다. 수신음이 길게 반복되었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번호를 누른다.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자동음성만 들려온다. 또 다른 번호를 누르자, 이번엔 통화중이다. 미영은 잔뜩 약이 오른다. 그녀는 어금니가 간지러워 이를 갈았다.

뚜우..., 뚜우...

다섯 번째 시도 만에 누군가 걸려든다. 미영은 속사포의 랩을 쏟아내는 힙합전사처럼 거침없다.

야이미친새끼야, 사장이면 아무렇게나 직원짤라고되냐?미안하면애초부터미안할짓을하질말든가. 즐라짜증나네씨발.

.....

상대방은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미영은 다급해졌다.

이천하의양아치같은새끼야, 어린년이 좋으면 처음부터 나는 건드리질 말든가. 글을 왜 써보라고 하고 머리는 왜 쓰다듬는 건데, 성희롱으로 확고 소해버릴 까보다.

글은 왜 써보라고 했나는 말을 꺼냈을 때, 미영은 울컥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와 달리 실컷 토해내고도 뭔가 꺼림직한 게 남은 기분이었다. 그 때, 상대방이 답답히 물었다. 전혀 놀라지 않은 기색이었다.

여보쇼. 나 종로구 파출소 경찰인데, 장난전화 한 거지? 당신, 이거 범죄인거 몰라? 감방 가고 싶어? 위치 조회하면 당신 잡는 거 시간문제야!

미영은 경찰이라는 말에 흠칫 놀란다. 아무런 응답도 못하고 머뭇거렸다.

너, 쫓았지? 병신 같은 년! 아주 지랄 염병을 하고 있네. 야 이년아, 이딴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또 이런 장난하면 그때 진짜 죽는다!

전화가 신경질적으로 툭 끊긴다. 미영은 어리둥절했고, 이내 분했다. 도리어 속다니, 어리석은 자신에게 화가 났다. 다시 걸고 싶어도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대포폰의 특성상 발신번호도, 수신번호도 남지 않았다. 차 안이 후덥지근했다. 미영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웅크려 있다가, 자동차 핸들을 힘차게 내려쳤다. 그리고 다시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침묵한 채 길게 이어지는 수신음을 듣는다.

통화가 연결되었다. 그러나 한동안 상대의 응답이 없었다.

여보세요? ... 여보세요?

통신이 잘 안 터지는 공간에 있는지 연결이 됐다, 안됐다, 끊어짐을

반복했다. 허탈하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밖으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미영은 똑똑히 들었다. 한 여자의 외침을.

사, 사, 살려 주세요!

미영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수화기 너머로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고, 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전화 속의 여자는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정신이 나간 사람마냥 흥분하고 있었다.

여,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깨보니깐 여기였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제발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미영은 여전히 듣고만 있다가,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날카로운 둔기가 귀를 때리는 듯한, 이명 증상이 나타났다. 귀가 멍멍해졌다. 미영은 차 안에서 짹짹 비명을 질렀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돌이킬 순 없었다. 그녀는 곧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건다. 일일이도, 일일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회사번호였다.

정성을 다하는 상담원 나영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영은 다짜고짜 울기 시작했다.

제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흐흑, 흐흑흑…

딸꾹질까지 나왔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상담이 불가한 내용이라 끊겠습니다.

나영희 상담원은 우는 진상고객을 단번에 털어낸다.

뚝, 통화가 끊긴다.

야! 야!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미영은 수신음에 대고 계속 말했다.

파충류가 벗어놓은 허물처럼 미영의 옷이 방바닥에 버려져있다. 욕실의 욕조에는 물이 채워지고 있다. 사치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물이 쌓이는 동안 미영은 양치질을 한다. 수증기가 올라와 거울은 불투명해지고, 그녀의 낮빛이 알아볼 수 없게 희미해진다. 헛바닥에 칫솔이 닿자 구역질이 몰려온다. 변기에 토사물을 두어 번 쏟아낸다. 욕조에 손을 넣어 본다. 온도가 알맞다. 그녀는 욕조 속에 왼발부터 서서히 몸을 집어넣는다. 미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욕조의 물이 가벼이 넘쳐 바닥에 흐른다. 나은 자세로 앉아 미영은 웃었다. 울고 싶었는데, 어째서 웃음이 나왔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문득, 욕조 끝에 닿은 발목을 보았다. 타투로 그려 넣은 금붕어가 사라졌다. 어디로 헤엄쳐 간 걸까? 미영은 욕조의 수면 아래로 고개를 넣은 후, 숨이 막힐 때까지 참았다가 물 밖으로 나온다. 흰 거품이 가래처럼 몸에 잔뜩 묻어있다. 미영은 거울을 직접 손으로 닦아 자신을 보았다. 표정이 기괴하고 낯설다. 웃는 걸까, 우는 걸까, 아니면 무표정일까. 코와 턱에도 거품이 덕지덕지 묻어있다. 미영은 샤워기를 집어 들었다. 가만 보니 샤워기는 수화기를 닮았다. 수화기처럼 생긴 샤워기의 구멍들 사이로 일제히 물이 쏟아졌다. 물줄기가 그녀의 몸과 욕실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는 마치 겁먹은 소녀의 비명소리 같다. 아니, 누군가를 향한 욕설 같게도 들렸다.



수원 매현중학교
한경애



수상소감

끊임없이 타자와 소통하고자 인간. 하지만 인간은 언어로 완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없으며 타인에 대하여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절망이 저를 소설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수상의 영광을 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옆에서 격려해주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타인의 거리

나는 도둑을 잡으러 간다. 도둑을 잡지 않으면 내가 도둑으로 몰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도둑을 내 손으로 잡아야 한다.

휴, 벌써 몇 번째인가. 가슴 속에서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입 안은 바싹바싹 타들어간다.

누가 알겠는가, 도둑으로 몰리는 억울한 심경을 말이다.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벌떡벌떡 일어난 적이 여러 번이다.

“통장이 없어졌구나. 지난 주말에 에미 니가 다녀간 뒤로 아무도 집에 다녀간 사람이 없는데…”

말끝을 흐린다. 그 말인즉슨 필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녀간 적도 없으니 내가 훔쳐갔다는 소리다. 늘 이런 식이다. 고상한 척 하면서 사람 속을 휘저어 놓는다. 다녀간 사람이 나 말고 없다고 해서 내가 훔쳐갔다는 것은 한편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외에도 무수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에 찬 가정은 무엇인가.

통장이라, 도대체 통장에는 얼마만한 액수가 있는지 구경조차 한 일이 없다. 남편에게 들어본 적도 없다. 애시당초 통장이 있거나 한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K동으로 향했다. 성급한 마음에 큰 길

을 두고 지름길인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접어들었다. 그런데 흰 색 승용차 한 대가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싶어 상황을 확인하려고 두리번거렸지만 잘 보이지는 않았다. 사고라도 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차에서 내렸다. 마주 선 차량의 가운데에 서서 확인해보니 사고는 아니었다. 앞의 흰 승용차에는 나이가 예순은 족히 넘어 보이는 초로의 신사와 부인이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차와 마주 선 검은 승합차는 길을 막아선 채 아예 시동까지 꺼져 있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나 싶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 차에도 예순은 넘어 보이는 남자가 차에 탄 채 양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혼잣말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양 쪽 차량의 노인들은 어리둥절해서 서있는 내가 마치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내가 서 있는 창문 쪽은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두 노인이 실랑이를 벌이는데 공연히 얽히는 것이 싫어서 아무 말 없이 차를 후진하여 다른 길로 돌아서 가기로 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차를 후진한 뒤 오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 나가는 데 이번에는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한 대 들어서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도로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2차선 도로에 한 쪽 편에는 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어 들어오는 차량에게 길을 비켜주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앞의 남자의 얼굴을 보니 얼핏 보아도 백발이 성성해 보이는 것이 나이가 일흔은 되어 보였다.

일전에 좁은 차로에서 지금처럼 차를 맞닥뜨린 적이 있었다. 차를 빼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길래 무조건 길을 비켜주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다. 그랬더니 다행히 상대방 차가 후진을 시작하였다. 나는 안도하면서

그 차량 속도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차가 오른쪽으로 차량의 후미를 돌리려는 순간, 그만 담벼락에 차를 살짝 부딪치면서 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다. 괜스레 마음이 불편했다.

그 뒤로 가급적이면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나면 후진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어렵게 한참을 후진하여 회색 담장이 길게 이어진 커다란 집의 현관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그리로 살짝 피해주었다. 나의 배려심에도 아랑곳없이 상대방은 손 한번 흔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가던 방향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괜스레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 차량이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얼굴을 유심히 보니 노인이 아니라 은색으로 염색을 한 젊은이였다. 헛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나의 판단력이란 늘 한 박자 늦는다.

그집 앞에 주차를 하고 나는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가슴을 세 번 쓸어내린다. 이것은 그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나의 오래된 습관이다. 오늘은 별 효과가 없다. 어차피 도둑 누명까지 썼는데 내가 그집을 다시 들락거리며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질 것만 같다. 도무지 그녀를 이해하고 좋아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없이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과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으로 알며 예쁘게 키우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효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

아무튼 나는 내 도둑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 집의 장롱이며, 화장대, 침대 매트리스 아래까지 모두 뒤집어서라도 통장을 찾아내야 한다. 통장을 찾아내지 못하면 꿈쩍없이 또 누명을 써야 한다.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만일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시어머니의 잘못된 기억 속

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누가 내 억울함과 결백을 증명해줄 것인가? 이제와 돌이켜 생각하니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난 주말, 별 좋은 가을 하늘을 보다가 문득 좋은 일이 하고 싶어졌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생각을 하니 마구 즐거워졌다. 그런데, 그 순간 왜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다. 그토록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라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그 순간, 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정리했다. 인간이란 언제나 의외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결국 나는 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먹기 편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미역국과 소고기장조림, 메추리알 장조림, 두부조림을 만들었다. 마치 사랑스런 아이의 도시락을 싸는 듯 음식을 만드는 내내 즐거웠다. 하루 꼬박 걸려서 만들어간 반찬을 건네면서 시어머니의 표정을 흘깃 보았다. 의아스러운 눈빛 속에 담긴 그녀의 표정은 도대체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해온 반찬을 바라보며 그저 묘하게 얼굴 아래 근육이 위로 조금 움직였을 뿐이다. 고맙구나, 한마디를 빈 공간에 툭 내뱉고는 입을 다물었다. 얼핏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남편이 명문대를 나온 것과 달리 내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것도 그랬고, 집안도 마땅치 않았고, 더 마음에 안드는 것은 40kg이 채 안 나가는 내 몸무게였다. 내 몸은 여자로서 볼품없이 말라있었다. 아니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여자가 튼튼해야 아이도 잘 낳고 집안 일도 잘 하는 법이다.’

어머니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늘 그렇게 눈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볼살이 통통하고 몸집이 좋은 만며느리인 형님은 특별히 어머니에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도 늘 귀여움을 받는 것 같았다. 그에 비해 직장을 다녀 바쁜 와중에도 나름 시댁에 잘 보이려고 용돈도 자주 드리고 틈나는 대로 시댁에 들러 얼굴을 내밀었지만 나는 언제나 부족한 며느리다. 은근히 내 친정까지도 업신여기는 듯했다.

통장을 찾지 못해 침울해서 혹은 통장을 훔쳐갔다고 믿는 며느리가 어서 와서 해명하기만을 기다릴 시어머니를 생각하자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하였다. 시어머니가 혼자 되신지는 십수년째 접어들었다. 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치과에서 거액을 들여 틀니를 해드렸지만 불편하고 아프다며 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이 사이가 더 벌어져서 맞춰놓은 틀니를 낄 수조차 없다. 틀니를 했을 때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찌걱 찌걱’ 틀니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저절로 눈살이 찌푸러지곤 했다. 저 놈의 틀니 소리, 하면서 속으로 치를 떨었는데, 틀니를 빼고 나서 주름 자글자글한 얼굴에 잇몸을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나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음식물을 앞 쪽으로 모아서 입을 내밀고 오물거리며 씹는 모습은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은 벌써 십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식사와 빨래 같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은 아직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서 그나마 자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하여 뇌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며, 혼자 사는 노인들이 대개 그렇다고 몸집 좋은 형님에게 들은 듯하다. 자식들이 노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치매를 늦추는데 좋다고 말한 것도 같다. 같이 살면서 말도 걸어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애정을 쏟으라고 말이다. 하지만, 걸핏하면 며느리를 도둑년으로 몰아세우며 친정어머니에게 돈이라도 줄까봐 의심하는 눈초

리로 나를 볼때면 정나미가 떨어지는 것이다. 사실 시어머니를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간적은 없다. 그녀의 병명이나 상태 따위는 정확히 모른다. 그저 나이 들면 으레 적당히 치매 증상을 보이는가보다 짐작할 뿐이다. 맏며느리인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은 하지만 이것 또한 정확하지 않다. 치매 증상 때문에 병원을 간 것인지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간 것인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간혹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 건강을 물을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연배에 늘 있음직한 증상을 보인다고 적당히 둘러댄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병명이나 알아둘까 싶어서 언젠가 한번은 형님에게 어머니 증상이 어떤 것이며 병원에서는 병명이 뭐라고 하는지 물으니 그녀 역시 허둥대며 기억하지 못했다. 병원을 다녀온 것은 맞는지 모르겠다.

온종일 사무실에서 상사의 눈치보랴, 젊은 친구들 비위 마치랴 고객관리하랴 이래저래 피곤한 몸인데 그 집 살림을 뒤적거리며 휘저어놓은 살림을 정리할 생각에 또 다시 한숨이 나온다.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무엇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실생활에 그다지 소용없는 것들로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었다. 가령, 망치, 삽, 호미, 때로는 새로 사 놓았던 주방용 잡화들이다. 삽과 호미 같은 연장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용하던 것이다. 시아버지는 집 앞 너른 마당 한편에 상추, 고추, 호박, 가지 등 채소를 집에서 먹을 만큼 조금씩 심었다. 그는 부지런해서 퇴근하면 툴툴이 화단을 잘 가꾸어 담장에는 넝쿨장미를, 채소 옆으로는 봉숭화, 옥잠화, 맥문동, 꽃잔디 등을 심어 마당은 빈틈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손이 가지 않는 감나무만 제 구실을 할 뿐 다른 꽃들은 풀과 제멋대로 어울려 우거져서 야생 숲처럼 보인다. 그러니, 허리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가 채소를 심을 것도 아니요, 화단을 가꾸는 것도 취미가

없는 양반이 웬 욕심은 그리 많은지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하나라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필요하지도 않는 연장이며 녹슨 못 한조각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신다.

지난 봄 아버님 기제사때였던가, 설거지를 하다가 사은품으로 받은 듯한 오래되고 기름때 앉은 그릇과 뚜껑 손잡이가 부러져 사용하지 않는 냄비를 마당 앞 분리수거대에 내놓았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가보니 내가 버린 물건이 제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집에 막 들어서려는 데 둘째에게서 전화가 온다. 숙제를 다했으니 이제 자전거 타러 가도 되겠냐고 묻는다. 30분만 타고 집에 와서 시리얼을 먹고 있어라, 엄마는 할머니집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갈 것이다, 라고 달래둔다.

‘자전거’를 떠올리니 **흐뭇해진다**. 아이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맞벌이로 집에 어른도 없는데 아이 혼자 자전거를 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위험할 것 같아서 사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킁킁한 밤에 자전거를 끌고 왔다. “김대리가 쫓아, 벌써 애들이 다 커서 자전거가 필요없다네” 남편은 늘 그렇듯이 할 말만 짧게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아이는 좋아서 소리지르며 박수까지 치고 난리다. 신이 난 아이와 자전거를 사무실에서부터 가져오느라 고생한 남편을 봐서라도 더 이상 자전거 타기를 반대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자전거는 꽤 좋은 브랜드 제품으로 전혀 낡지 않았으며 상태도 깨끗하여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이 언제 자전거타기를 반대했냐는 듯이 마음도 너그러워진다.

남자아이라 그런지 제 아빠가 며칠 자전거 타는 요령을 가르쳐 주자 쉽게 배우는 것이 신통하기 이룰데 없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도 화를 내는 법이 없다. 내가 첫째 딸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면

버럭하며 큰소리부터 나오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남편은 안구진탕증이 있다. 그것은 특이 안과질환의 일종인데 안구가 좌우로 실재없이 흔들리는 증상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눈동자로 인하여 남편은 늘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렸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눈을 깜빡거리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시선이 집중될까봐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 하지 않아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아주 과묵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나와 단 둘이 있을 때만 그는 가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남편이 중학교 시절, 교실에서 친구의 지갑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실 전체가 술렁였다. 방금 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도 서로가 서로를 도둑이라고 의심하였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한 아이는 바로 '도둑' 용의 선상에 놓였다.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자신의 흔들리는 눈동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을까 두려웠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눈을 치켜뜯 수조차 없었다.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톡' 치기만 하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날은 수업시간에도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다. 계속하여 자신의 눈동자가 얼마나 흔들리는지에만 집중하였다, 그는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태연한 척 하려 온 힘을 다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열이 오르고 복통까지 겹쳐 밤새 끙끙 앓았다. 남편은 전교에서 1,2등을 다투는 수재였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모범생 이미지였기에 아무도 의심의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누군가가 “바로 너지? 니가 범인이지? 난 너를 알아” 하고 눈동자를 또렷이 쳐다볼 것만 같은 불안에 시달렸다.

남편의 안구진탕증은 대여섯 살 무렵 발병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현

재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다행히 남편의 증상은 경미한 상태여서 어지간한 사람은 잘 알아보지 못했다. 안경이 시선을 좀 가려주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바로 피하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 오래 말을 걸어오거나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었기에 가족과 친척, 어릴적부터 알던 만나지 않는 동네 친구 몇 명 외에는 주변에서는 그의 증상을 알아보는 이가 거의 없었다. 물론, 부인인 나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연애시절 남편이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면 그 모습이 더욱 순수해보여서 좋았다. 비록 소규모회사에 다니지만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잘난척하는 법이 없었다. 아니 잘난 척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였다. 그의 자신감 없는 태도는 대기업 면접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시게 했다. 의기소침하고 말없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애에서 결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남편의 증상은 우연히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첫째를 낳은 뒤 몸조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내집을 들락거리며 첫째 아이의 목욕이며, 기저귀 갈아주기, 우유병 삶기를 척척 해주셨다. 그리고도 남은 시간에는 고부간에 마주앉아 할 이야기도 없으니 남편의 어릴적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때 그만 어머니는 남편의 눈동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당연히 내가 알고 결혼했으리라 생각하신 듯 했다. 나는 남편에 대하여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태연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보다 남편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집으로 간 뒤 나는 알 수 없는 서글픔과 여러 갈래의 감정이 뒤섞여서 눈이 붓도록 한참을 울었다.

몇해 전 고등학교 친구들 동창모임에서였다. 대부분은 남편과 시댁 흥을 보느라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내용이 주요 화제였다. 남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나에게 한 친구가 물었다.

“넌 니 남편을 믿냐?”

“애, 재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데, 요즘에 저런 남편도 없어”

내가 대답할 새도 없이 옆에서 끼어들며 한 친구가 말한다.

“너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니”

나는 남편을 믿는다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웃었다. 판단이 서툰 나에게도 유일하게 확신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남편이다. 남편은 그런 일을 저지를 위인이 못되었다. 남편은 그런 큰 일을 저지를 배짱도 없었고,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하여 집안 대소사부터 모든 일은 내가 나서야만 했다. 나는 남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예상 범위에 있었다. 친구들은 모른다. 그의 은밀한 비밀을... , 남편의 핸디캡은 나의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되었다.

그집 안에 들어섰다.

“왔냐...?”

좀 냉랭하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이상하네. 분명 너 다녀가기 전 일주일 전이었던가, 내 분명히 통장이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생각보다 한풀 꺾인 목소리다. 예전 같으면 독을 품은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대신하여 문을 꽁 닫고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몇 달 전이었다. 시어머니는 현금 오십만원이 없어졌다며 ‘우리 집안에 도둑년이 있다. 저희 친정엄마 주려고 내 돈을 훔친 게 틀림없어. 내 살림살이도 저년이 하나씩 하나씩 빼돌리는게 틀림없다니까.’ 눈에는 독이 가득했다. 어디서 저런 기운이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다. 도둑이 들은 흔적은 전혀 없고 도둑이 들었으면 다른 귀금속은 두고 현금 오십만원만 들고 갔으리도 만무하여 남편과 함께 한 시간 넘게 온 집안을 헤집은 끝에 오십만원을 찾았다. 현금봉투는 시어머니가 두었다는 장소에서도 한 참이나 떨어진 창고로 쓰는 빈 방에 책을 쌓아 담아둔 상자 안 밑바닥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곳에 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하는지도 몰랐다.

돈봉투를 찾고 나서 제일 먼저 남편이 한 일은 시어머니를 나무란 일이다.

“어머니! 이젠 그만 좀 하세요. 물건 없어지면 집사람 의심하는 버릇 좀 고치시라구요, 정신도 예전같지 않으면서 왜 걸핏하면 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거예요,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집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집안이 찌렁 찌렁 울리도록 큰소리를 쳤다. 어머니는 자신이 돈을 찾은 기쁨보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오물거리던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큰소리치는 모습은 시집 온 이후 처음 보는 일이었다. 내 편을 들어주니 고맙기는 한데 그 때만큼은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마 남편도 나처럼 회사에서 도둑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더 화가 난 듯하다. 어머니에게 큰 소리 치는 일이 벌어지기 한 달 전이었던가. 그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웃으면서 들어왔다. 기분 좋은 일이 있나보다 생각하며 양복을 벗기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

아 울기 시작했다. 덩치 큰 남자가 우는 모습은 처음이라 여간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남편은 소파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소리쳤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긴거예요?”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울음을 멈춘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다.

“나보러 돈을 훔쳤다는 거야, 회사 직원들끼리 걷은 회비 오십만원을 김대리 서랍에 두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그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거지, 돈이 없어지기 전 날에 나만 야근을 했으니까 내가 범인이라는 거지. 내가 평소에도 좀 이상하다는 거야, 자꾸 시선을 피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ㅋㅋㅋ”

갑자기 남편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웃어댔다. 그리고는 또 독백을 하듯이 말을 이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난 알아,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도둑으로 보고 있었다고. 분명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말이야. 하하하, 다 소용없어, 하하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무섭다고. 나도 이제 정말 편안해지고 싶어, 그냥 편안해지고 싶다고, 하하하, 하하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허탈한 듯 크게 웃다가는 지쳐서 잠들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 억울함을 달래 줄 수 없음을 안다. 그저 스스로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질 수 없다면 그저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이다.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며 말이다. 그들이 나를 놔줄 때까지.

남편이 큰소리 친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물건이 없어졌다고 말은 해도

조심스레 자식들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쓸모없거나 아니면 한참 후에 보면 다른 장소에 둔 것을 시어머니가 착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나타나지 않는 물건도 더러 있었으나 남편이나 나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시어머니 혼자서만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통장은 제가 잘 찾아볼게요. 이거 드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퇴근 무렵, 사무실에 앞에서 사온 죽을 건넨다. 가급적이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말한다.

“너도 같이 먹지 그러냐.”

나는 빠르게 시선을 피한다.

“아니에요, 저는 퇴근하기 전에 간단히 좀 먹었어요. 그리고 얼른 통장을 찾아드리고 현수 저녁 먹이러 가야죠.”

“주말에 와도 되는데… 당장 오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내가 쳐다 보자 시어머니도 시선을 피한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죽을 받아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길게 대화하는 것이 피곤하다. 어서 통장을 찾아 누명을 벗고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다. 아니 그녀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다. 통장을 찾으면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말할 것이다.

“도둑은 내가 아니에요, 도둑은 바로 어머니 당신입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바로 도둑이에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어머니가 범인이라고요, 죄 없는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판단을 믿지 말아요, 번번이 틀리기만 하는 당신의 정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이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생각한 이 말을 오늘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비장하게 다짐한다.

나는 서둘러 시어머니의 장롱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장롱에는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다 들어 있었다.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생각 하면서부터 어지간한 물건은 장롱 안에 모아두는 버릇이 생겼다. 당신이 거주하는 방에 가급적 모든 물건을 가져다두고 지키려는 것이었다. 나는 장롱서랍이며, 옷걸이에 걸어둔 옷의 주머니며, 이불 사이사이, 옷바구니 까지 싹 뒤졌다. 그리고 침대바닥이며, 화장대, 거실에 있는 장식장, 화장실 서랍장, 창고로 쓰는 방에 있는 상자며, 책장에 있는 책의 갈피마다 모두 뒤져봤지만 통장은 나오지 않았다. 보통은 이정도 뒤지면 없어진 물건이 나오기 마련이었다. 이제는 그녀의 물건 숨기는 패턴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통장을 찾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도통 나오지 않는다.

정말로 통장이 있거나 한 걸까? 어머니를 한 번 흘깃 본다.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들었으니 나를 두고두고 괴롭히려는 걸까? 나의 의식이 원망스럽다. 그 날 하필 어머니가 떠오른 것은 나의 무의식 어딘가를 그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터. 파아란 가을 하늘과 좋은 일과 왜 시어머니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날 어머니 집에 반찬을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남편이 목욕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 보니 요즘 들어 남편은 매주 가던 목욕봉사에 시큰둥한 눈치다. 남편이 종교 생활을 하듯 자신은 일요일이면 요양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했었다. 근래에는 나에게 대한 애정 표현도 달라졌다. 전에 없이 말수도 늘었고 이벤트로 목걸이 선물까지 했다. 나는 그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를 알아낸 만큼 그는 또 저만치 달아났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더욱 아름다운 인간 세계의 이치대로.

휴대폰 전화가 울려댄다. 모르는 번호다. 받지 않는다. 전화가 끊어지는 듯싶더니 또다시 맹렬히 울린다.

“전화 안 받니?”

나는 못들은 척 한다.

“좀 받아보지 그러냐.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르는데.”

할 수없이 휴대폰을 꺼내 든다.

“여보세요? 이 만수씨 부인인가요?”

“네, 그런데요.”

“아. 여긴 S경찰서입니다, 남편 분이 지금 절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잠깐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남편분이 자전거에 있는 가방을 훔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구요. 근데 남편 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회수한 소지품 중에 있는 휴대폰번호를 보고 부인한테 전화한 겁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빠르게 말해서인지 다른 말은 들리지 않는다. 다만, ‘현행범’이라는 단어만 나의 머리에 박힌다. 남편이 불안해하던 그 일이 드디어 벌어졌나보다. 아마도 그 눈동자 때문에 또 의심을 받는 것이리라. 남편의 무고는 쉽게 밝혀질 것이다. 현행범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내 남편 아니던가. 그런데 가방을 훔쳤다고? 현행범으로? 현행범이란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갑자기 헛갈리면서 정신이 아득해진다.

“아 근데 거 혹시 부인 성함이 신금자씨 되나요?”

“아니요. 신금자씨는 저희 시어머니 성함인데… 왜 … ?

놀란 가슴을 진정할 사이도 없이 남자는 또 빠르게 말한다.

“흠친 가방 말고도 남편 분 소지품에 통장이 있길래 혹시나 해서요.”

“저기 방금 뭐라고요? 통… 장이요?”

나는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숨죽이며 물었다.

“네. 신금자씨 명의로 된 통장이 있네요, 뭐 절도 전과도 있고 해서 이 통장도 흠친 줄 알고… 이걸 아닌가 보네. 알았으니까 얼른 오세요”

남자는 전화를 끊으려는 듯 말꼬리를 길게 내린다. 나는 다급하게 소리 쳤다.

“잠시만요, 그게 무슨소리죠? 전과라니요?”

“모르셨어요? 남편분 완전 상습범 같던데요. 이 S동 부근에서 요 몇달 새 절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서 표적수사를 한 겁니다. 자전거에 가방, 상황버섯, 목걸이 뭐 그냥 닥치는대로 자꾸 없어진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말끔한 신사양반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이 양반 자꾸 헛소리도 해요 이제 편안해졌다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대고, 뭐 암튼 남편 분 상태가 좀 이상하니까 일단 부인이 빨리 경찰서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참 나, 이런 양반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나 몰라. 저렇게 잔뜩 겁을 먹어서 눈동자까지 흔들리는구만”

전화를 끊으며 남자는 내가 들으라는 듯 혼잣말 같은 소리를 계속 지껄여댄다.

“무슨일이냐? 아범한테 무슨 일 있냐?”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물으신다. 그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다. 아들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눈동자다. 나도 저런 눈빛일까? 나는 어떤 시선으로 남편을 어머니를, 그리고 타인을 바라본 것인가. 내가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동자는 한없이 낮설다. 매일 밤 나를 고통에 몰아넣은 그 여

인의 눈빛이 맞는 건가? 나와 어머니의 거리는 한발치 떨어져 있을 뿐인데 영원히 닿지 않을 것만 같다.

“아니요. 아범 회사예요. 좀 늦는대네요.”

나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대답한다. 그 어느 때보다 내 목소리가 다정하게 집안에 울려 퍼진다. 내 목소리가 낮설다. 목소리가 뚝뚝 허공에 떠다니는 것만 같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한 알 입 안에 털어놓고 물을 마신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당분간 약을 끊지 못할 것 같다.

“어머니, 통장은 다음에 와서 찾아드릴게요. 현수 밥이 늦어서요…”

나는 해집어 놓은 짐을 정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어머니 집에서 나왔다. 며칠 동안 어머니는 사라진 통장을 찾으랴 방마다 뒤지고 또 뒤질 것이다. 그리고 또 혼자 방정리를 하실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기억을 원망하면서.

경찰서에 있을 남편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눈동자는 불안한 듯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내가 알던 남편은 거기에 없다. 타인이 있을 뿐이다. 그도 나와 같은 지옥에 있었던 것일까. 남편은 그동안 어느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 나와 가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너무 멀리 있었다. 그와 나의 거리는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까.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 확신에 찬 순간 이미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이제 판단은 유보한다.

깜깜하게 어둠이 내리고 드문드문 나트륨 등이 빛을 뿜어 대는 골목길에 다시 접어들었다. 무의식 중에 아까와 같이 지름길로 오고야 말았다. 인적 드문 길에 여전히 흰 색 승용차와 검은 승합차가 마주보며 대치중이었다.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김 주 태



수상소감

해마다 찬바람이 불 때면 가슴 설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는 꿈만 꾸고 살아왔습니다.

"요즘도 글 쓰고 있나?"

몇 년 전 팔공산 자락에서 제게 물었던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가 가슴 한구석에서 여윈 잠을 자고 있던 내 꿈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족한 글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은 선생님. 스승의 날 선물로 기꺼이 받아주실 거지요?

신화 속의 그 남자처럼 날마다 산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리고 살면서, 바위 돌 하나를 허리춤에 덧달겠습니다.

목성으로 간 여자

뜬금없이 별이 보고 싶어진다. 웬지 이유는 모른다. 베란다로 다가가 창문을 연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새벽안개가 스멀스멀 아파트 건물 언저리에 내려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해 질 녘부터 도시를 온통 집어삼키려고 발버둥 치던 어둠이 이제 그 힘을 다한 듯하다. 앞마당 가장자리에 선 느티나무의 앙상한 가지가 가볍게 하느작거린다. 동짓달 냉기가 제법 위세를 부리고 있는 모양이다. 상체를 베란다 난간에 기대며 암막이 걸려질 채비를 하고 있는 하늘가로 눈길을 돌린다. 채 반달이 되지 못한 상현달과 오리온자리의 허리띠별 세 개가 서쪽하늘로 비껴있다. 한동안 멍하니 하늘바라기를 하던 내 머릿속에서 별 하나가 떠오른다. 둥근 적반이 무수히 많은 그곳은 아마도 나비들의 고향일 것이다. 문득 그 별에 가서 나비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진다. 순간 창밖 허공으로 몸이 떠오른다. 아파트 옥상이 발아래로 저만치 멀어진다. 하늘에는 잘게 부서진 하얀 조개껍질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못 별들이 촘촘하다. 방향을 가늠해 볼 요량으로 닷별의 큰 별 중 다섯 번째 별과, 북두칠성의 국자 끝 별을 연결하여 북극성을 찾는다. 그 행성은 황도를 따라다닌다고 했지. 나는 언제 어디서 듣고 보았는지 기억조차 없는 알팍한 지식을 떠올리며, 동쪽 하늘에서부터 비스듬히 선을 그어 서쪽하늘로 찬찬히 눈 걸음을 걸어간다. 그 행성은 퇴색한 빛으로 하늘 중천과 서쪽하늘로 비껴간 오리온 별자리

사이에 수줍은 처녀의 몸짓을 하며 끼어 있었다. 달을 지나치면서 세 발 달린 금두꺼비가 보일까 봐 두리번거려 봤지만 어디론가 숨은 듯하다.

끝 모를 심연도 아니다. 피부에 와 닿는 바람결도 명지바람이다. 아마도 어미 나비와 새끼 나비가 나를 반기려고 일시에 날갯짓 하여 보내는 환영인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까지 좋아진다. 저 멀리 큰 적반을 허리춤에 두른 그곳이 보인다. 층층이 반대 방향으로 홍수같이 꿈틀거리는 구름의 흐름이 현란하다. 조금 더 가까워진다. 작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어릴 적 초등학교 담벼락 밑에서 가지고 놀던 작은 유리구슬에서부터 당구공 크기의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어미별을 돌고 있다. 그들 중에 갈릴레이가 발견했다는 칼리스토·가니메데·유로파·이오도 보인다. 그런데 그 별에 다가갈수록 가슴속에서부터 점점 더 무거운 진동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미지의 세계에서 보내오는 아주 낮은 음파 같았던 그 울림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쁘게 하는 리듬을 타고 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고 숨이 막혀 오기 시작한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구름 속에 가려진 나비의 몸통도 보고, 부드러운 곡선의 더듬이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급기야 가슴까지 저려온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소방차와 구급차 소리가 앞마당 어둠에서 멎었다. 닫힌 창문 밖이 몹시 부산스러운 것 같았다. 나는 잠이 채 달아나지 않은 눈을 비비며 싱크대 쪽을 빠르게 휘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어젯밤 잠들기 전 그대로다. 그런데 까닭 모를 메케한 연기는 어젯밤에 분명히 없었다. 순간 눈결에 보이지 않은 것이 있어 화들짝 몸을 일으켰다. 아이는 작은 포대기를 둘둘 말고 머리맡에 등을 보인 채 자고 있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이에 아이가 콜록대며 주위를 살피다가 나와 눈

이 마주쳤다. 어느새 메케한 연기가 천정의 형광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하게 실내에 들어차 있었다. 나는 아이를 포대기 채로 품에 안고 앉은걸음으로 베란다 쪽으로 갔다. 공제선을 방금 벗어난 태양이 검은 연기에 가려져 붉은색으로 보이다가 사라졌다. 먹빛 어둠이 연기의 흐름에 따라 좁은 실내를 바쁘게 오락가락했다. 육층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초단위로 점점 더 부산스러워지고 있었다. 나는 현관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기에도 이미 연체동물의 먹물 같은 연기가 문틈으로 소리 없이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수란스럽다. 아이가 자지러 진 기침을 하며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작은 심장의 콩닥거림이 흡사 대북 소리같이 느껴졌다. 욕실 입구 벽을 더듬어 전등불을 켜고 문을 닫았다. 미약하게나마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직까지 단전이 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세면기에 물을 받아 아이를 감고 있던 포대기를 적셨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냥 새까만 눈동자로 나와 눈 맞춤하다가 조막손으로 매운 눈을 이따금 훑치고 있었다. ‘곧 괜찮아질 거야. 휘가 좋아하는 119아저씨들이 구하러 올 테니까’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입을 벌리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대신 한쪽 눈을 찡긋하며 어설피게 아이를 보며 웃어 주었다. 아이도 양쪽 눈을 슴벅이며 헤벌쭙하게 웃다가 이내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의 눈가에 물기가 묻어났다. 나는 손등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욕실 천정을 바라보았다. 전등불 밝기로 보아 거실보다 연기가 덜 들어찬 듯했다.

에드바르트 몽크. 조금 전 황망히 욕실로 들어오면서 설핏 보인 그것이 문득 떠올랐다. 반쯤 녹아내린 눈사람같이 생긴 그것은 가지·사과모형과 함께 냉장고 옆구리에 매미처럼 붙어있었다. 그가 두고 간 것이다.

보육원을 나온 후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원룸에 불쑥 찾아온 그는 한참 동안 여짓거리다가 말문을 열었다.

“외로웠다”

“누가. 오빠가?”

“아니, 몽크.에·드·바·르·트·몽·크.”

그는 엄지손가락만 한 그것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느린 박자에 맞춰 또박또박 말했다. 그때 그의 공허한 시선은 노란색 셀로판지로 바깥세상과 차단된 작은 창문을 보고 있었다.

한순간 어둠이 몰려왔다. 매운 눈으로 올려다 본 천정에는 조금 전까지 보름달같이 불을 밝히고 있던 전등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다. 나는 평소에도 사람멀미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어둠 또한 몸서리치게 싫어했다. 섬찍지근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아왔다. 손을 더듬어 젖은 포대기로 아이를 감싸 안고 욕실 문을 열었다. 후끈한 열기가 매운 연기와 함께 밀어닥쳤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청맹과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욕실 안이나 매한가지다. 게다가 숨까지 쉴 수 없는 고통이 덧붙여졌다. 나는 울음보가 터진 아이를 침팬지가 새끼를 품에 안 듯이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사우나실 안에 들어앉아 있는 듯한 열기가 등을 덮어왔다.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 멀리서 유리조각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 집인가. 그렇다면 누군가는 배상해야 된다. 나는 아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수중에 창문을 갈아 끼울만한 여윌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인을 꼭 잡고 말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어둠 속에서 반딧불 같은 한줄기 빛이 더듬거리며 다가오는 것 같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힘껏 껴안고 있는 내 팔에 역센 손길이 느껴졌다. 순간 몽크의 그림이 떠오른다.

그가 떠난 후 선문답처럼 던져놓은 에드바르트 뭉크를 알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했었다. 강열한 색채가 주는 암울함과 그 속에 파묻혀 있는 영혼을 잃어버린 듯한 사람 하나. 그가 만지작거리던 그것은 절규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림 속에 있었다. 나는 여백 없는 그림을 찬찬히 살펴 보았다. 그림 속의 그는 귀를 틀어막은 채 극도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고, 심지어 몸까지 S자로 비틀려져 있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떨고 서 있지. 붉은 하늘. 아니면 검은 망토를 몸에 걸치고 유령처럼 따라오고 있는 두 사람 때문일까. 내가 보기에는 핏빛 하늘이 저녁노을이면 아름답기 그지없는 풍경이고, 뒤에 따라오는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느끼고 있는 공포의 근원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물며 절규라는 이름이 붙여진 주인공은 성별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만, 휘감아 도는 균청색은 안쪽에 쪽배 두 척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호수이거나 바닷물을 그려 놓았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했었다.

눈을 떴다. 아니다. 그보다 온몸을 파고드는 쓰라림에 저절로 눈이 떠졌던 것 같다. 구급 침대에 누워있는 내 주위로 차량 소음과 무수한 사람들의 고함소리, 그리고 그들이 분주하게 돌아치는 살결음이 어렴풋이 느껴진다. 해는 동쪽 산등성이에서 한 뼘쯤 벗어나 있었고, 지상에서부터 벽을 타고 올라간 불 머리가 옥상 가장자리에서 붉은 햇바닥을 날름거리고 있다. 그런데 품 안이 허전하다. 분명히 젖은 포대기로 말아 품에 안고 있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의미 없이 방치해 둔 적이 없었던 아이다. 모골이 송연해졌다. 화들짝 몸을 일으켰다. 등줄기에서부터 저려오는 고통에 다시 드러누웠다.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휘적거리는 팔이 아려온다. ‘휘

야. 휘야. 어디 있어'그렇게 고향치고 싶다. 그러나 연기에 수레 목 져는 지 목소리는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눈물이 꺾등으로 떨어진다. 아이에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이를 홀로 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그때 땀에 젖은 얼굴 하나가 희끄무레한 하늘을 등에 지고 불쑥 끼어들어왔다. 누런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내 어깨쑤에 떨어진다. 휘는. 다불다불 늘어진 뒷머리를 보이며 그의 품에 안겨있었다. 마치 아빠 품처럼 포근한지 울고 있지도 않았다. 소방관의 표정으로 보아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말소리는 한 단어도 들리지 않는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때야 한쪽 뺨을 소방관의 가슴에 붙이고 있던 아이가 눈길을 준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울지도 찾지도 않은데 대한 까닭 모를 서운함이 구름결처럼 지나간다. 뒤이어 저도 많이 놀라서 미쳐 울 경황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따라갔다. 휘의 조막손이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잠을 몰고 온다.

아이 아빠가 아슴푸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내 기억 속에 제일 먼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콘라트 로렌츠라는 사람이 동물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각인 현상이 있다고 했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나를 낳아준 그 사람은 당연히 있을 자리에 보란 듯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과 각인이라는 머릿속 서재를 뒤적거려 봐도, 어느 한 귀퉁이에도 그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내게는 오직 원장과 너댓 명의 스쳐간 이모들. 그리고 그 남자만이 뇌리 속에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철들기 전부터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그와의 만남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른다. 언제부터라는 것은 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보육원에서 왔다고 동급생들이 놀리거나 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나를 위해 먼 우주에서 날아온 정의의 사도 배트맨이었고, 원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그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었다. 돌이켜보면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이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배 아파 가며 놓아 준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존재 또한 지금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 집에 갔을 때 예쁜 짓 많이 하지 그랬어.”

중학교를 갓 입학했을 무렵, 동급생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낸 일이 있었다. 원장을 대신해서 학교에 다녀온 성주 이모가 질책은 하지 않고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나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나는 그게 언제 적 일 이냐고 눈치 없이 물었다가 무탈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양수거지를 하고 서서 한 시간도 넘게 꾸중을 들었다.

나는 아지랑이 낀 것 같이 아물거리는 의식을 애써 끌어모았다. 여기가 어디지. 시간은. 휘는. 목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하얀 천정과 늘어뜨린 여러 개의 카테타가 흐릿하게 보인다. 팔을 움직이려고 팔뚝에 힘을 넣었다. 겨드랑이 사이로 쓰라림이 밀려온다.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진다. 그런데 눈썹 사이 피부도 두터운 보 곳을 휘감고 있는 고목처럼 미동도 없다. 아무래도 미라 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스친다. 휘는. 휘를 봐야 한다. 그런데 또 잠이 몰려온다. 오빠가 왔다. 그는 나보다 이 세상에서 이태를 더 살았다. 그래서 보육원을 이 년 먼저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와 나에게 이 도시는 고향이었다. 마땅한 취직자리도 잡지 못한 것 같

았다. 차마 이 도시를 떠날 용기가 없는 걸까. 어쩌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상상도 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그의 원룸에 찾아갔었다.

“왜 떠나지 않은 거야?”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아있어.”

보육원을 나선지 두해가 지나갔으면 적지 않은 시간이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할 만큼 크나큰 일이 과연 무엇이지. 아주 간단한 그의 말이 복잡하게 얽어놓은 난수표같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풀어가던 와중에 성주 이모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알고 있을까. 지금 알아서 뭐 하게. 마음이 갈가리 흩어졌다. 그러나 궁금했다. 벽에 베개를 세워놓고 잤바دم하게 누워있는 그에게 다짜고짜 보육원을 떠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자기는 없다고 했다. 그럼 나는. 그의 표정이 난해해졌다.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그의 겨드랑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가 간질 밥에 몹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터였다. 그가 기겁을 하며 허리를 곧추세우고 앉았다.

“네가 아주 어릴 적 일인데 어떻게 알았어?”

“...”

“잠시 입양된 적이 있었어.”

그가 기억 저편에 웅크리고 있던 것을 반추동물이 되새김질하듯 끄집어내해 준 말을 정리해 보면, 내가 두 해 조금 넘게 보육원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며, 파악된 이유는 데려갔던 그 사람들이 어찌어찌하여 친자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도 쌍둥이로. 자기도 대여섯 살 때라 잘 몰랐는데 성주 이모의 말에 의하면 돌아온 나를 보고 친자매처럼 눈물 콧물 흘려가며 반겼으며, 그 뒤로는 성능 좋은 자석같이 어린 것들이 꼭

붙어 다닌다고 성주 이모가 많이 놀려댔던 것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가끔씩 성주 이모가 내게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알나리갈나리 하며 엉덩이를 툭툭 치다가 살쩍살쩍 꼬집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후에는 들어서 나중에 결혼할 거냐며 질퓌지 빈정거림인지 모를 농을 하기도 했던 것도 같았다. 참 많이도 붙어 있었지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다시 벽에 기대고 반쯤 누운 그를 바라보았다. 그와 함께 봄바람 가을비를 같이 맞으며 지나온 나날들이 어느 햇살 좋은 봄날, 보육원 들머리에서 피어오르던 아지랑이같이 나타났다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내가 그렇게 좋았어?”

내 말에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가 내 손을 자기 가슴으로 가져갔다. 그의 심장박동이 팔을 타고 건너와서 내 심장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를 쳐다봤다. 역실역실한 얼굴에 언제쯤에 생겼는지 모를 눈물반이가 왼쪽 눈 두덩이 밑에 자리하고 있었다.

“눈 감아 봐.”

그의 눈 속에는 방금 전 서산을 넘어 간 엷은 노을이 담겨있었다. 눈을 감자 그가 다가왔다. 내 가슴속에서 가부좌를 점잖게 하고 앉은 고수가 중중모리장단에 맞춰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첫 입맞춤이었다. 나는 그의 심장에 고정되어 있던 손을 풀고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그를 안았다. 양가슴에 그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가 듣고 있을 내 가슴속 울림을 머릿속으로 세었다. 사랑이었나, 그런 것이. 그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왔던 오랜 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에서 뜬구름처럼 똥똥 떠다녔다. 그의 머릿내와 함께 엷은 재스민 향의 샴푸 냄새가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정수리에 얇전하게 파리를 틀고 있는 가마를 내려 보다가 한 손으로 머리

카락을 손빛으로 빗어 넘기며 그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내 가슴팍에 안겨 눈을 감고 있는 그의 눈꺼풀이 사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오빠는 알고 있어? 오빠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준 사람들 말이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움찔거리며 나를 밀쳐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적잖이 당황했다. 나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나비 눈을 뜬 채 양손 엄지손톱의 넓은 부위를 번갈아가며 만지작거렸다.

“서리병아리같이 살다가 저세상으로 갔어. 나도 너와 비슷한 나이에 거기 들어 간 것 같아.”

한참 동안 천정 바라기를 하던 그가 마른 바람에 갈잎 굴러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어느새 그의 눈 속에는 조금 전 그 얽은 노을 빛의 아늑함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읽어 낼 수 없는 무한대의 공간으로 변해있었다.

이제는 눈 뜰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내내 꿈만 이어지고 있었다. 몽크의 그림 속에 나오는 기괴한 얼굴이 자꾸 나타났다 사라지곤 한다. 몽크의 불안과 공포, 그의 외로움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혼자라는 것, 철들고 느꼈었을 배신감. 그럼 나는..., 보육원 한 지붕 아래에서 살 비비며 살았던 그들과, 보육원에서 왔다고 깔보고 괴롭혔던 아이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무시로 드나드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휘가 보이면 움찔거렸고, 그가 다가오면 웃다가 등을 보이면 구두떨거렸다.

“혼자서 어떻게 살면 되지?”

보육원을 나오기 전, 시내를 걸으며 혼자 서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그

에게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피붙이 하나 없는 외톨이
임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죽살이치게 돈을 모으려고 버
둥거렸다. 그러나 고등학생 신분으로,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
히 제한되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세 방 한 칸 구할 정도의 돈을
모아놓았고,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내 말을 들은 듯
만 듯 신발 뒤꿈치 끄는 소리를 내며 한참 동안 걷기만 했다. 검은 장막이
드리워진 허공에서 냉기를 잔뜩 품은 한줄기 바람이 전깃줄을 울리며 지
나갔다.

“같이 살래?”

보육원 건물이 저만치서 보일 때쯤 그가 입을 열었다. 마치 그의 입에
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새어 나
왔다. 뒤이어 원장의 얼굴이 떠오르고 성주 이모의 빈정거림이 귓가에 맴
돌았다.

“안돼. 보육원 사람들한테 잘근잘근 씹혀”

“젠장. 우리가 언제 남들 눈치 보며 살았나? 독하게 맘먹으면 돼”

그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단세포 같은 자신감 뒤에 웅크리고 있는 집요한 꺾어냄을 끝
내 떨쳐내지 못 했다. 문치적거리며 보육원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며 한
바퀴 휘둘러보았다.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다섯 식구가 올챙이 머리 맞대듯 꼬물거리다가 잠들어 있었다. 희미한 외
등 불빛에 반사된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내려 보았다. 그가 말했던 서리
병아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들도 세월이 가면 그와 나처럼 험난한 세
상에 홀로 던져질 운명들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 곳이 저러왔다.

건밤을 지새운 탓에 거울에 비친 눈동자에 실고추 같은 핏발이 서있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나는 사무실 방으로 들어갔다.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던 원장이 내게 짧은 눈길을 보내더니 이내 집게손가락에 침을 묻힌 뒤 고개를 숙였다. 미용실을 다녀온 지 한참 지난 듯 반쯤 풀린 머리카락 사이로 엔굽이치고 있는 흰머리카락이 간간히 섞여있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머리 정리가 되지 않아 우두커니 서서 그녀를 내려 보았다. 잠시 후 서류에 붙잡혀 있던 원장이 시선을 내게로 보냈다.

“이제 여기서 나갈 때가 됐는데…, 어쩔래?”

내가 들어설 때부터 그녀는 서류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래.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취직도 해야지?”

“오빠하고 같이 살까 하는데요.”

나는 그녀가 눈치채지 않게 작은 한숨을 내쉬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오빠라니? 누가. 혹시 민호?”

눈을 내리깐 채 애꿎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나를 동그란 눈으로 올려보던 원장이 의자 등받이에 상체를 털썩 기댔다. 팔짱을 낀 그녀의 팔뚝에 ‘안돼’라는 문신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예상했던 일이 아니던가. 나는 밤새 떨쳐내지 못 했던 결끄러움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결발부부가 되겠다는 건데…, 방 얻을 돈이 없는 거냐?”

“돈도 돈이지만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이십여 명이 한 공간에서 부대끼고 살아오면서 혼자이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설핏설핏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애면글면 살다 보면 사소한 가재도구와 생활용품 하나까지도 나 혼자서 사용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했었다. 그런데도 나는 혼자서 못 산다고 원장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말해 놓고도 오죽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원장은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괴발디덤으로 사무실 방을 나온 나는 탱자 크기의 열매가 올망졸망 매달린 버즘나무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저 열매들도 어미나무의 허락을 받고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일방적인 통보일지라도 그냥 이제까지 키워주고 재워준데 대한 예의와 통과의례는 거쳤다고 스스로 마음을 추슬렀다.

주택가 골목 입구에 자리한 편의점은 담배를 사러 오는 손님만 가끔 있을 뿐 한산했다. 나는 의미 없는 시선으로 가게 앞을 드물게 오가는 사람들의 허상을 따라가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그들 가운데 어디서 낫술을 마셨는지 비틀거리며, 하수구 덮개 손잡이 구멍으로 소변 줄기를 박아 넣으려 애쓰다 바짓부리를 적셨던 오십 대 남자가 있었고, 짧은 치마에 구두 뒤 굽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아기작거리며 걸어가던 나와 같은 또래의 여자가 잔영으로 남아있었다. 간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을 치르는 사이에 어둠이 골목 구석진 곳에서부터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전봇대 두어 개 너머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눈에 익은 몸짓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십 대 중반에 접어들었음에도 나잇살이 전혀 없는 몸피에 중간 길이의 너울진

생머리. 그리고 팔을 왜죽왜죽 흔들며 걸어오고 있는 여자. 성주 이모였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며 숨이 가빠 왔다. 그녀가 편의점 문을 밀치며 들어섰다. 베토벤이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며 작곡했다던 엘리제를 위하여 벨 소리가 편의점 안을 잠시 술렁이게 했다가 사그라졌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그녀에게 들킬까 봐 애써 선웃음을 흘리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녀는 그런 내게 일언반구도 없이 편의점 안을 한 바퀴 휘둘러보았다. 지극히 사람 냄새가 나지 않은 그녀다운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의 존재 유무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행위임이 분명했다. 계산대 깔판을 들추고 나오는 내게 그녀가 다짜고짜 제법 두툼한 봉투를 불쑥 내밀었다.

“이 정도면 집은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나직한 말과 눈빛에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원장실에서의 일로 하루 종일 하얗게 비어있던 내 머릿속에 먹빛 물감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엉겁결에 봉투를 받아 든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녀 또한 다른 군말도 없이 행하니 발길을 돌렸다. 엘리제를 위하여 연주곡 한 소절이 또다시 울리다 찾아들었다. 나는 그녀가 차마 뱉어내지 않고 삼키고 갔을 말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았다. 그동안 서로 부대끼며 살았던 측은지심 같은 것을 그녀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렇다면 나보다 세상을 더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나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 또는 배려인가. 나는 저절로 고개가 가로 저어졌다.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평소 얼음장 같은 가슴을 가진 여자라고 내게 각인된 그녀와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은 어울리지가 않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린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원룸을 구하고 사소한 가재도구까지 장만할 수

있는 돈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으며 왜 내게 주는 거지. 보육원 꾸러나가기도 빠듯한 원장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가능성 또한 추호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서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뱅뱅 돌더니 어느덧 살풀이춤까지 추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는 아무래도 남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은 곤란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말을 들은 그가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애당초부터 나와 동거를 염두에 둔 적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도 쉽게 수긍했다. 차라리 진짜 나하고 동거하려고 생각했었냐 하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나는 혼자 몇 날을 끙끙댄 것에 대한 억울함과 허망함에 그의 외투 자락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꼬집었다. 내 조그만 엄지와 집게손가락에 그의 상체가 비틀어졌다. 보육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룸을 구해 이사를 했다. 옹운 취직자리는 살아가면서 차츰 알아볼 심사로 편의점 근무시간을 여덟 시간에서 열 시간으로 늘렸다. 삼시 세 끼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하루짜리 음식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자유란 고독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이 있을 때는 싫었던 보육원 식구들의 부대낌과 그들의 부산함이 무시로 그리워졌다. 그 무렵, 그가 성주 이모가 왔던 그길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걸어왔다.

“술 한 잔 하고 싶다.”

창문 옆 간이의자에 걸터앉으면서 날짜지근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의 어깨에 삶의 고단함이 한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교대자인 사장에게

편의점을 넘겨준 뒤 캔 맥주와 마른안주를 챙겨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만의 등지를 틀어놓은 원룸으로 그를 데려갔다. 냉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방을 들어서면서 외출에 불이 켜진 보일러를 난방으로 바꿨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묻어났다. 내가 커피포트에 물을 받는 사이에 그는 좁은 방안을 빠르게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직사각형 공간 안에 한 칸짜리 싱크대와 간이 옷장만 보였을 것이다. 그와 나란히 벽에 기대고 앉아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을 허리춤까지 끌어당겼다. 방바닥에서 온기가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 나는 허벅지 위의 이불을 손바닥으로 고른 후 마른안주를 올려놓고, 비닐봉지에 든 맥주 캔 하나를 따서 그에게 건넸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컥벌컥 소리를 내며 들이마셨다. 나도 맥주 캔을 훌쩍이며 그의 옆모습을 힐끔거렸다. 한차례 바쁘게 오르내리던 그의 목올대가 한숨과 함께 잦아들었다.

“뭘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그냥 술 생각이 났을 뿐이야.”

“어. 여자의 직감을 무시하네. 좋을 것이 없을 텐데…”

나는 농 섞인 말투로 그에게 말했다. 그는 피식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런 그를 나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술기운이 온몸을 헤집고 다니고 있는 탓인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빠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나는 이불속 발끝을 쳐다보고 있는 그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맥주 캔을 방바닥에 내려놓은 그가 황급히 내 입술을 찾았다. 뒤이어 그의 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주 가끔씩 온전한 그의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아니, 소유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느새 그의 손길이 다리살을 지나갔다. 먼 훗날 오늘 밤이 추억으로 남았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회한에 가득 찬 얼굴은 절대 안 된다. 웃어야지. 그래. 크게 함박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사람들을 떠올렸다. 어떻게 만났으며 서로 사랑했을까. 하룻밤 스쳐가는 인연은 아니었을 거야. 이왕이면 나는, 영화 '매디슨카운티의 다리' 주인공 로버트 키키와 프란체스카의 가슴 시린 사랑의 결과물이었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편의점 근무시간도 열 시간에서 두 시간을 더 늘렸다. 무엇보다 돈을 약착같이 모으고 싶었다. 그래야만 그와 같이 살 전셋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고, 남들같이 휴대폰도 들고 다니고, 대학교도 가고 싶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해졌다. 달마다 치르는 행사를 거르느라 싫더니 어느 날 부터인가 음식 냄새가 역겨워졌다. 혹시나 싶어 출근길에 짬을 내서 병원을 들렀다.

“8주차네요.”

사십 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의사가 표정 없는 얼굴로 나를 힐끗 쳐다본 후 진찰실을 나갔다. 머릿속이 텅하니 비어졌다. 병원을 나오면서 내 존재를 처음으로 알고 난 뒤에 지었을 그녀의 표정을 상상했다.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온 나는 방바닥에 누워 천정의 하트 무늬 벽지를 눈 굴음으로 쪼개기 시작했다. 무늬 하나를 치즈피자 자르듯이 가로세로 선을 긋고 또다시 대각선으로 쪼갰다. 여덟 조각이 났다. 천정에 있는 하트 무늬 개수를 세었다. 가로 스무 개, 세로 열여덟 개. 그러니까 삼백육십 개의 하트 무늬를 여덟 개로 쪼갰으니 이천팔백팔십 개다. 이에 삼백육십 오일을 다시 나누면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된다. 계산을 끝내고 머릿속에 빈 공간이 생기자 방금 전 내가 한 숫자놀음에 실없는 웃음이

저절로 입가로 빠져나왔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병원에 다녀온 며칠 뒤 원룸으로 찾아온 그에게 말했다. 그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 몸의 작은 변화를 그는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병원에서 준 임신부용 작은 책자 속에 끼워 둔 아이의 사진을 그에게 내밀었다. 검은 바탕에 흰색 무늬. 아무것도 분별이 되지 않는 조그만 사진을 받아 든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낳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노란 셀로판지로 바깥세상과 차단된 창문 쪽으로 눈길을 돌려 고정시킨 채 미동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청소년 상담실을 찾아갔다. 그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린 후 며칠 지나서였다. 어쩔 거냐고 묻는 상담사에게도 그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다. 상담사는 이 도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인접한 P 시에 가면 출산 후 최소한 육 개월까지 보호해 주는 미혼모 쉼터가 있다고 했다. 나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모아 두려고 복대로 불러오는 배를 조이고 험렁한 옷으로 나날이 변해가는 몸매를 가렸다. 그는 내 배속에 그의 분신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발길을 끊었다. 미혼모 쉼터에 입소하기 전날, 두어 번 들른 적이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집은 똑같은 모양의 양옥 세 채가 줄지어 있는 집들 중 맨 안쪽에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옥탑방 창문으로 형광등 불빛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골목 한 귀퉁이의 그만이 출입하는 쪽문은 잠겨있었다. 벽에 붙은 벨을 서너 차례 눌렀다. 인기척이 없었다. 그가 잠시 외출했을 것으로 지레짐작 한 나는 골목 입구를 서

성거리면서 그에게 구형 휴대폰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건들바람이 주책없이 나를 따라 골목 안을 들랑날랑 거렸다. 몸이 무거운 탓인지 종아리가 빠근해져왔다. 나는 전봇대에 몸을 기대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오지 않으면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옥탑 방문이 열렸다. 먼저 성주 이모가 머리칼을 양손으로 목에서부터 정수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나오고 그가 따라 나왔다. 골목 입구에서 시계추처럼 오가던 나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에 오랜만에 보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엄습해왔다. 이대로 돌아가랴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내일이면 그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한동안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차마 발길이 돌려지지 않았다. 나는 가슴속의 울림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 중간쯤에서 그들과 마주쳤다. 나를 본 그녀의 메밀 눈이 왕사탕 같이 동그아졌다. 나만큼 그녀도 적잖이 놀란 것 같았다. 그러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그녀가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내 배를 쓰윽 훑어보더니 뒤 돌아서며 양손을 허리에 올렸다.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골백번도 더 보아 온 그녀의 몸짓에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도 그녀의 눈에 익은 행동에 움찔거리며 반쯤 돌아섰다.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에 칼날을 품은 그녀의 눈길이 동덩산 같은 내 배와 그를 몇 차례 바쁘게 오갔다. 그녀의 다그침을 애써 외면한 나는 발치의 보도블록 개수를 세었다. 그는 아마도 반쯤 돌아선 채로 가로등 불빛을 보고 날아든 하루살이의 날갯짓 횟수를 세는 듯했다.

“기어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어.”

처음 마주쳤을 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녀의 눈빛이 어느새 분을 참지 못한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보육원 군기반장에게 호령바람 맞을 언

턱거리를 준 잘못으로 변명 한마디 못하고 허망하게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연이어 떠오르는 물음표에 답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었다. 이 시간에 왜 그녀가 그의 방에 있었지? 그는 왜 내게 눈인사도 하지 않으며, 벨 소리는..., 고장 났을까.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중간 집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나를 지나쳤다.

“지금 나가는 길이야.”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혼자 말처럼 내뱉더니 잔달음질 치며 그녀를 따라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미혼모 쉼터 안내실에서 입소 수속을 마친 후 사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상담사와 같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맞은편 방에서 십여 명의 임산부들이 각자 의자와 테이블을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꽃꽂이를 배우고 있는 듯했다. 입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라고 상담사가 귀뜸을 해주었다. 방안에 들어서자 침대 네 개가 가지런히 누워 있는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한쪽 벽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문으로 무르익은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미색의 벽지도 마음에 들었다. 어제까지 살았던 곰팡내 나는 원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늑했다. 상담사가 내게 창문에서 제일 먼 출입구 쪽 침대를 쓰라고 말하더니 이내 돌아서갔다. 맞은편 벽에 붙은 개인용 사물함에 가져온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다른 침대의 주인들이 들어왔다. 우려와 달리 그들은 먼저 들어온 티를 내지 않았다. 그저 간단하게 이름과 나이 정도만 물었다. 만삭의 창가 침대 주인이 내게 막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배크기로 따지면 두 번째인데 내가 제일 어린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도 개인적인 물음은 한 번도 없었다. 아마도 그들만의 불문율인 것 같았다. 입

소 후 사흘째 되던 날 밤 잠자리에 들 시간부터 창가 침대 주인의 산통이 시작되었다. 간호사가 그녀를 데리고 갔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불빛이 엷은 구름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처럼 사물의 윤곽을 흐릿하게 보이게 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 중앙에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 누군가 훌쩍거렸다. 들려오는 소리로 보아 창가에서 두 번째 침대 주인이 분명했다.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출산 예정일을 손가락으로 세어보았다. 이십 여일 남아있었다. 꿩이잠으로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마추친 간호사가 창가 침대 주인이 딸을 순산했다고 알려 주었다. 산모는 삼층에 있는 온돌 방으로 옮길 거라고 했다.

저녁식사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하던 때부터 아랫배가 아릿하게 당겨오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기가 점점 빨라졌다. 진땀도 나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입소 후 정기검진받으러 갔던 병원으로 나를 데려갔다. 풍덩한 가운데로 갈아입고 산실로 들어갔다. 먼저 온 두 명의 임산부 중 하나가 본격적으로 산통이 시작되었는지 입을 앙다문 채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눈을 질끈 감고 일그러진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 상태를 확인한 여의사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더니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는 임산부 쪽으로 가버렸다. 그 침대 쪽에서 '괜찮아. 조금만 참아.'를 연신 중얼거리는 굵은 목소리가 커튼을 넘어왔다. 아마도 그 산모의 남편인 듯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지. 나는 아이의 아빠를 떠올렸다. 다음날 그의 집을 다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서른 살에 첫사랑을 했던 뭉크에게 유부녀 밀리 탈로가 있었다면, 그에게는 나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내게는 그녀와 같

은 보헤미안 기질도 없어서 그를 애태우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그는 내게 말 한마디 없이 쥐 숨듯이 사라져버렸다. 그렇다고 혹시나 하면서 북통 같은 배를 안고 보육원에 찾아가서 그의 행방을 물어볼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필시 성주 이모의 입방정에 원장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내 스스로 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원룸에 살던 세간도 동생들 중에 제일 입이 무거운 수지를 불러내서 아무도 모르게 창고에 넣어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천방지축으로 내지르던 산모의 메마른 단말마의 비명이 멎었다. 이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커튼 너머에서 ‘축하합니다. 딸이네요’하는 의사의 말과 함께 ‘고생했다’고 말하는 굵은 목소리도 뒤따라 들려왔다.

바람을 잔뜩 불어넣은 것 같은 내 뱃속에서도 요동이 일었다. 때를 맞추어 남은 또 한 사람의 산모도 산통이 몰려오고 있는 듯했다. 입을 앓다물었다. 같이 온 간호사가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참지 말라고 했다. 옆 침대 산모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사오십 대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안쓰러움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말을 연신 중얼거렸다. 나는 나를 낳아 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그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노랗게 채색된 하늘이 나타나고 그 하늘에서 무지개가 두둥실 떠올랐다. 산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닮았지. 내 모습이 부계인지 아니면 모계 유전형질인지 따위의 엉뚱한 상상을 되돌이표 달린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길게 했다.

“딸이네.”

같이 온 간호사가 땀으로 범벅이 된 내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 주며

희미하게 웃었다. 옆 산실에서는 여전히 중년 여자의 중얼거림 사이로 힘 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이중창으로 들려왔다. 간호사가 탯줄 잘린 아이를 내게 보였다. 채 양수도 마르지 않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갓난 아이답지 않게 머리숱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주 소중한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을 잔뜩 오므리고 있었다. 옆 침대가 조용해졌다. ‘축하합니다. 아들이네요’라는 의사의 말에 중년의 여자가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하이고, 의사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아들이다. 아들!’하며 호들갑을 떠는 소리가 커튼을 넘어왔다.

병원에서 주는 미역국 한 그릇으로 후출한 배를 채우고 간호사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 건물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하늘 가장자리에서부터 희뽀하게 새벽빛이 몰려오고 있었다. 나도 침터에 돌아오는 길로 삼층의 온돌 방으로 거처가 옮겨졌다. 그 방에는 식당에서 매일 마주치던 다른 방 산모가 등을 지고 누워있었다. 간호사가 찬바람 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며 아이를 유리 칸막이 너머에 있는 요람에 눕혔다. 펼쳐놓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방안이 훗훗했다. 어렴풋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탓에 속잠이 들었던 것 같았다. 나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아이에게로 갔다. 목젓을 흰히 보이도록 울고 있는 아이의 조그만 입이 양증맞게 보였다. 조심스레 아이를 안고 가슴을 열어 젖을 물렸다. 아직까지 젖이 돌지 않은 빈 젖을 문 아이가 입을 오물거렸다. 너만은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라 가고 있는 탯줄을 드러낸 배냇저고리를 여며 주며 아이의 볼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불현듯 창가 침대 주인과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느껴졌다. 아침밥을 가져온 간호사에게 그들의 행방을 물었다.

“되소했어. 아이는 영아원으로 갔고, 입양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겠지.”

미역국에서 보일 듯 말 듯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얀 국물 위에 동양화속의 점경인물처럼 그녀와 아이의 얼굴이 환영처럼 그려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뜨거운 국물을 조금 떠서 삼키려다 못동을 만난 것처럼 목구멍에 걸리는 바람에 연이은 기침을 했다.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등을 곧추세우고 숨을 깊이 들이켰다 뻗어 내기를 서 너 차례 반복했다. 기침이 멈춰졌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 내 모습을 걸 눈길로 쳐다보던 간호사가 일어서다 말고 다시 바투 앉았다.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름은 지어났어?”

“휘, 빛날 휘가 어때요?”

내가 되받아 물었다. 간호사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일어서서 아이에게로 갔다. 나는 아이의 존재를 알고 난 뒤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땅하게 떠오르는 이름자를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사실‘휘’라는 이름이 떠올랐던 것도 병원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였다. 동살이 잡히기 시작하는 하늘 언저리를 바라보면서, 조금 뒤면 온 대지를 밝혀주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아주 싱겁고 평범한 상상 말미에 내린 결론이었다.

삼칠일이 다가오자 산후 생겼던 부기가 거의 가라앉았다. 아이를 안고 창가로 다가갔다. 꼬리를 물고 오가는 차량들이 보였다. 방에 앉아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바깥세상의 소음이 단힌 이중유리창문을 비집고 들려오는 듯했다. 은행나무 가로수 잎이 지나치는 차량들의 꿈무늬에서 노랑나비 떼처럼 나풀나풀 날아올랐다가 아스팔트 위에 다시 내려앉

았다. 밤새 바람이 세차게 불었던 것 같았다.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오물거리고 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마 한가운데에 위치한 머리카락이 콧날을 향해 모여 있었다. 나는 아이의 몸을 창문 쪽으로 돌리며 목덜미를 쳐다봤다. 제법 또렷하게 제비초리가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릴적 그의 모습이었다. 그는 머리카락이 조금 길어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목덜미의 움푹 패여진 골로 흠치르르 한 머리카락이 창끝처럼 모여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장난삼아 엄지와 집게손가락 지문으로 창날을 갈 듯이 쓸어내리곤 했었다.

휘가 뒤집기를 했다. 또다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처연해졌다. 주민센터에 가기 위하여 외출 허가를 받으려 상담실로 갔다. 마침 상담사도 볼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문을 나섰다. 이른 봄바람이 제법 매서운 냉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혹여 찬바람이라도 새어들세라 두터운 외투로 다시 한 번 더 아이를 매동그렸다. 상담사를 따라 주민센터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민원실이라는 팻말이 은색 체인 두 줄에 매달려 있고, 그 팻말 아래에 두 명의 민원인이 사슴 목같이 높다란 의자에 앉아있었다. 앞서가던 상담사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나를 돌아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말한 뒤, 익숙한 발걸음으로 주민복지라고 쓰인 팻말 아래로 걸어갔다. 벽에 걸린 둥근 시곗바늘이 아홉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도 목이 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프린터의 열기가 채 가지지 않은 서류를 받아 들었다.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쓰인 서류를 무심코 내려 보았다. 내 이름 석자 아래 부모와, 아이 이름 위의 배우자 칸이 비어있었다. 하얀 네모 칸. 그 조그만 직사각형의 빈칸이 퐁퐁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처럼 넓

었다. 가슴속에서 노대바람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뒤이어 나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내력을 알 수 없는 괴 딸 아버라는 사실보다,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칸이 비어있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나는 난잡하게 얽힌 마음을 추스르며 상담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삼십 대 초반의 단발머리 여자가 기초수급자신청서와 한부모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라며 꽤 여러 장의 인쇄된 서식을 내밀었다. 낯선 행정용어 때문에 여러 번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단발머리 여자는 내가 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다시 되돌려 주며 주소지 주민센터에 접수시키라고 말했다. 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빈칸에 정신이 팔려 지나쳐 봤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맨 처음 홀로서기를 했던, 버스를 타고 삼십분 정도 가야 하는 그곳은 내가 자란 보육원이 있는 도시였다. 노란 셀로판지로 가려진 창문 위로 그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선걸음에 마무리 짓고 돌아가겠다며 상담사에게 말하고 주민센터 계단을 내려서던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집이라면 이제는 나와 인연이 다한 곳이며, 지금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얼흔이 빠진 내 모습에 도리머리를 흔들며 단발머리 여자와 상담사의 수다가 진행 중인 자리로 되돌아갔다. 두 사람이 뚱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단발머리 여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소를 옮기면 지금 접수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절해고도에 혼자 유기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새삼스럽게 밀려들었다.

초여름 후끈한 바람이 창문 너머에서부터 밀려들어왔다. 무료함도 달랠 겸 아이를 일으켜 세워 걸음마짜짜를 시키려고 손을 잡고 앞으로

조금 당겨 보았다. 발은 떼지 아니하고 새가슴을 먼저 내밀었다. 젓 살이 올라 제법 통통해 보이는 다리지만 아직까지 힘이 덜 차오른 모양이었다. 나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포대기를 돌렸다. 상담실에는 짧은 커트머리 여자가 등을 보이고 앉아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입소 신청서를 건네주는 걸로 보아 새로 들어오는 임신부인 것 같았다. 나는 상담실 밖을 서성거렸다. 아이를 안고 방을 나오기는 했으나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새로 온 임신부를 방까지 안내하고 돌아오던 상담사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내 등을 밀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다. 상담사가 녹차 티백을 담근 종이컵을 원탁에 내려놓으며 의자를 당겨 앉았다.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가 상큼하게 느껴졌다. 잠깐의 침묵이 몹시 길게 느껴졌다. 상담실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막상 마주 앉고 보니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도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 듯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얼굴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고민이 많지, 또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래? 같은 대답하기 껄끄러운 말이 금방이라도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진땀이 났다. 나는 그녀에게 이 도시는 눈이 선데 어느 쪽으로 가면 집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엉겁결에 나온 말이 너무 마음에 든 나는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흘러 나왔다. 그제야 살포시 미소를 머금은 그녀가 이제 부동산중개사 노릇도 해야 하나며 눈을 흘기더니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딱히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나는 내친김에 취직자리도 알아봐 달라고 농반진반을 섞어 말을 하며, 목소리와 얼굴 표정으로 애써 미안한 마음을 무마시켰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나오면서 목을 한껏 뒤로 꺾어 층수를 세

었다. 팔층 위로 펼쳐진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나는 육층의 한 세대를 반 전세로 계약했다. 엇그제 상담사와 같이 집 구경을 하면서 냉장고와 세탁기가 기본 세간 살림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물론 전세금이 부담되어 주민센터에 가서 단발머리 여자와 의논했다. 지원금으로 모자라는 비용은 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그동안 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있었던 근심이 한갓되이 사라졌다.

햇살이 달아오르기 전에 미혼모 센터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입소할 때 들고 온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후끈한 열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에 달라붙었다. 나를 따라 내려온 상담사가 내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더니 주차장으로 텔레텔레 걸어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차 문을 열고 서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차에 올라앉은 나는 그동안 해산바라지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며,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러는 사이에 차가 아파트에 도착했다. 잠시 들어갔다 가라는 내 말에 이제는 상담사가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열심히 살라는 말과 함께 시간 나면 한번 들르겠다고 말하며, 아이의 볼을 살짝 꼬집는 시늉을 한 뒤 현관에서 가방을 넘겨주고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서 길로 아이를 내려놓고 불박이장부터 열었다. 행하니 비어있는 공간에서 새 가구에서 나는 본드 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다. 싱크대 안에도 수저 하나 없이 말끔했다. 나는 가방에서 수건 한 장을 꺼내 물에 적셔 방바닥과 거실 바닥을 훑쳤다. 노란색 수건이 금세 먹물에 담겼다가 꺼낸 것 같은 걸레로 변했다. 나는 게름 찍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구석구석을 훑쳐냈다. 팔뚝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바닥으로 포르르 굴러떨어졌다. 샤워를 마치고 아이 옆에 잠시 누웠다. 등에서 냉기가 느껴졌다. 나는 오늘 밤에 당장 덮고 자야 할 이불 한 장 없다는 생각이 언뜻 떠올랐다. 가재도구를 새로 장만할까 말까 망설이던 나는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란 셀로판지 창문 집에 살던 세간을 가지러 버스를 타고 보육원으로 갔다. 원장은 땀을 빼질빼질 흘리며 들어서는 나를 슬쩍 흘겨보더니 아이를 받아 안았다.

“씨도독은 못하겠네. 민호는 요즘 뭐 하니?”

“저도 못 본지 오래됐어요.”

내 대답에도 원장은 들은 듯 만 듯 아이를 어르고 있었다. 어느새 동생들이 하나, 둘 몰려들어 아이를 서로 먼저 보겠다고 자기네들끼리 호들갑을 떨어댔다. 나는 창고 한구석에서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박스를 꺼내 들고 세탁실로 갔다. 안에 든 내용물이라고는 보육원을 나와서, 성주 이모의 호의인지 배려인지도 모르는 돈으로 원룸을 구한 후 시장에 가서 샀던 차렵이불과 베개 하나, 그리고 킷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쓰던 커피포트가 전부였다. 나는 박스를 풀고 이불을 꺼내 펼쳤다. 짐작했던 대로 자릿내가 물씬 코끝에 와 닿았다. 세탁기에 이불과 베개 피를 쑤셔 넣고 버튼을 눌렀다. 오늘 같은 햇살이면 집에 갈 때쯤 되면 뽀송뽀송하게 마를 것이다. 세탁기 속에서 즐즐즐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실내를 둘러보았다. 잡다한 가재도구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기억에 남아있는 자리로 정리를 하면서 까담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다.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아무 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탈수가 끝난 이불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을 밟고서야, 지난날 그녀와 함께 빨래를 널었던 여백 많은 그림 한 장이 텅그러니 빨랫줄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식당 방에서 점심을 먹으며 원장에게 성주 이모의 행방을 낚시 물었다. 내가 보육원을 나가고 난 뒤 그녀도 그만됐다고 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놀소리를 하고 배밀이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낚시줄에 조개봉돌을 물리는 일을 하다가 제 혼자 놀고 있는 아이에게 손뼉을 치고 양팔을 벌리면, 서툰 걸음걸이로 다가와 품에 안길 만큼 얼얼아기로 자라있었다. 보살피 줄 피붙이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축복이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늘 내게 붙어 다녔던 허전함이 이 세상을 구경꾼으로 살게 만들었다면, 휘가 있음으로써 당당하게 주인공 자리를 꿰어 찬 배우가 된 것 같았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들도 이런 기분을 맛 본 적이 있었을까. 그들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는 의문 말미에 원장의 말대로 아이 아빠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다. 하나뿐인 예금통장을 펼쳐봤다. 이사 온 후 나는 거의 나라미와 보조금으로 살아왔다. 갓난아이 딸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는 탓도 있었지만, 아이와 잠시라도 떨어져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렇게 미적거리는 사이에 앞뜰에 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겨둔 채 건물 벽을 휘감아 도는 찬바람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궁여지책으로 낚시줄에 조개봉돌을 붙이는 가내 부업으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조만간에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유모차 손잡이에 철 지난 갈꽃 한 묶음을 꽂은 여자가 가게 안을 훑듯 쳐다보고 지나갔고, 소방도로 너머의 모텔 쪽문으로 오십 대 남자와 삼십 대 여자가 들어갔다. 새로 취직한 편의점은 먹자골목 인근의 모텔촌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 연유로 한낮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가 어슬넱부터 편도 일 차선 도로변이 분주해지는 유흥가로 변신했다. 휘는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맡겼다. 처음 며칠은 아이를 선생님 손에 인계하고 바로 돌아서지 못하고 어린이집 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걸음을 걸었으나, 이제는 적응이 된 듯 무덤덤해졌다. 다행인 것은 휘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재미있는지 어린이집 문 앞에 내려놓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위처럼 뒤통거리며 또래 아이들 속으로 사라졌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계산대 아래 종이가방에서 낚싯줄과 조개 봉돌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취직하기 전까지 주업이었던 것이 이제는 한낱 부업거리로 전락했다. 비스듬히 누운 햇살이 소방도로 건너편 건물 유리창을 어슬렁거리며 기어 올라갔다. 나는 손님이 몰려들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며 부업거리를 정리하여 종이가방에 개켜 넣었다. 한참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길 건너편을 걸어가는 낮익은 몸치와 걸음걸이에 눈길이고정되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몰려왔다. 황급히 계산대를 빠져나와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던 나는 유리문을 밀치려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텔 뒷문으로 방금 전에 사라진 남녀의 잔상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짧은 젊은 남자와, 팔을 왜죽왜죽 흔들며 걸어가던 꽃무늬 투피스를 입은 사십 대 초반의 군살 없는 여자. 둘 다 눈에 익은 실루엣이었다. 그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잠적의 실체가 바로 이거였던가. 난

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기억에 남은 영상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았다. 오빠와 그 여자는 보육원생과 보육원 부모의 관계였다는 사실만 떠오를 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막연한 기다림의 종착지치고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휘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출입문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던 나는 가게를 찾는 손님이 문을 밀치는 것이 느껴져, 그들이 사라진 곳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뒷걸음치며 계산대로 돌아갔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바깥을 오가는 사람들의 형체는 네온 불빛의 밝음과 그 빛이 만들어 낸 그림자로 흐릿해졌다. 그에 따라 그들이 사라진 건물의 후문도 보이지 않았다. 언뜻 몽크의 그림이 떠올랐다. 과도하게 놀란 표정을 한 해골 형상의 주인공과, 그의 턱지 앞인지 분간이 가지 않은 곳에서 있는 곡두 같은 두 사람. 그들이 그려진 그림을 배경으로 암청색에 가려진 모텔 후문이 겹쳐졌다.

나는 편의점 근무가 끝나기 무섭게 반달음길 치며 어린이집에 가서 잠든 아이를 들쳐 업고 그들이 들어간 모텔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모르지만 웬지 그래야만 해야 할 것 같았다. 그사이 그들이 돌아갔는지 아직까지 안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밤이 무르익어가는 거리에서 아이를 업고 서있는 내 앞으로 무시로 사람들이 다가오는 듯 멀어져 갔다. 나는 어느 틈에 그들이 다가오는 발걸음을 따라 지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가 멀어져 가는 그들의 신발 밑창을 지우개 삼아 지워내고 있었다. 원장이 내가 보육원을 나간 뒤 성주 이모도 그만두었다고 말하던 광경이 술에 반쯤 취한 중년 남자의 발걸음에 물어왔다가 사라졌고, 간호사와 해산하러 갔던 병원이 또각또각 소리는 내는 하이힐 굽 소리를 따라왔다가 지워졌다. 그러다가 미혼모 쉼터에 입소하기 전날, 그의 집 앞에

서 마주쳤던 그림에서 걸음 따라가기 놀이를 멈추었다. 언제부터 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연관되는 장면은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행 중 다행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골목 맞은편 호프집 벽에 걸린 시계가 밤 열한 시를 가리키기 직전에 그들이 들어갔던 문에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녀가 앞서고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휴대폰의 액정 불빛으로 얼굴 화장을 한 그가 계단을 내려서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네온사인 불빛에 비친 나를 발견한 그들이 뭉크의 그림 속 주인공처럼 변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림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은 혼자였었다.

“낳았구나.”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녀답지 않게 목소리에 가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이 시간에 들어서 여기는 왜 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그녀의 어깨너머로 그를 쳐다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발치를 내려 보고 있던 그가 나를 외면한 채 황급히 대로변으로 사라졌다. 그를 삼켜버린 건물 모퉁이가 난공불락의 성문을 지탱하고 있는 성벽처럼 느껴졌다.

“알아 댜. 재는 영아원에서부터 내가 키웠어. 너보다 나와 인연이 길어.”

“인여~언! 그게 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면죄부라도 되나요?”

나도 모르게 양칼진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내 대거리에 가까이서 지나치던 행인 몇 명이 흘끔흘끔 쳐다보더니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제 갈 길을 갔다. 그녀도 못 타인처럼 나를 지나쳐 몇 발자국 걸어가다 말고 다시 돌아섰다.

“내 친정도 보육원이야.”

“...”

나는 그들이 사라진 건물 모퉁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등에 업혀 잠든 아이의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건물 벽에 어깨를 기대며 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와.”

갑자기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내 눈길 반대편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 피아노 연주곡이 흘러나왔다.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였다. 그는 그 음악을 못 들은 체했다. 한 블록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으로 그는 나를 데려갔다. 나는 의자에 앉으려고 업은 아이를 앞으로 돌려 안았다.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눈을 뜨고 두리번 거렸다. 한동안 쳐다보고만 있던 그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자상봉을 나는 외면했다. 가슴 한쪽에서는 그의 품에 안겨주라는 다그침도 있었다. 나는 끝내 그리하지 않았다. 아이가 멀뚱히 그를 쳐다봤다. 휴대폰이 또 울어댔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전화기를 탁자에 얹어놓았다. 소리가 멎었다.

“성주 이모는 나를 낳아준 그 사람들과 너무 잘 아는 사이였어. 다시 말하자면 내 엄마와 성주 이모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고, 내 아버지는 같은 보육원의 오빠였던 것 같아. 그런데 둘이서 한 남자를 좋아했었나 봐. 내 엄마가 나를 잉태하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주말을 맞아 우리 가족이 바닷가로 여행을 갔었는데, 타고 갔던 승용차가 그만 바다에 들어가 버렸대. 나도 그때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차창을 내리고 품에 안고 있던 나를 밀어냈지만 정작 그들은 탈출을 못했

어. 나는 물에 뜨자마자 구출됐고…”

그는 내가 들은 말은 개의치 않고 쫓기는 사람처럼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대. 그런데 그 당시 경찰에서 고장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아직까지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어. 내가 세 살 때였어. 나를 낳아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는 좀 더 알고 싶어. 차가 왜 바다로 들어갔는지도 …, 그리고 지금 가봐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그의 말 말미에 던져진 물음표가 한없이 드넓은 가상공간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내 의식을 좁은 커피솥으로 화들짝 불러들였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더 이상 날 찾지 마. 그리고 이제 오빠 인생 살아.”

초초한 눈빛으로 나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던 그가 탁자 귀퉁이에 꽂혀있는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빠른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초점 없는 눈길을 출입문에 고정시켜두고 그의 말과 오랜만에 본 그의 잔영을 곱씹었다. 나는 매몰차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그가 부럽다는 생각이 물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남겨둔 메모지를 호주머니에 접어 넣고 아이를 들쳐 업었다. 차도 사람도 드문 길을 터덜터덜 걸었다. 집에 들어오는 길로 새집 냄새가 빠져나가도록 열어둔 베란다 문을 닫으며 버릇처럼 아래를 내려 보았다.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한 불빛들이 점점이 눈에 들어왔다. 앞마당 그늘진 자리에 누군가가 어슬렁거렸다. 어둠에 가려진 그 형체는 어림짐작으로 여자인 것 같았다.

첫돌맞이 행사로 카스텔라 빵에 생일 케이크용 작은 양초를 한

개를 세워 둘만의 행사를 치른 지 달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혼자서 싱크대 손잡이를 잡고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던 아이가 돌아보며 엄마라고 말했다. 조그만 집개로 조개봉돌을 낚시줄에 연결하던 나는 무심결에 엄마라고 따라 했다가 화들짝 놀라며 아이를 쳐다보았다. 침을 턱에 잔뜩 묻히고 있는 아이가 내게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 주듯이 다시 한 번 더 엄마라고 했다. 그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언어로 웅알이를 하던 아이에게서 그 말이 듣고 싶어 수 없이 엄마라는 단어를 아이에게 말했다. 막상 아이에게서 엄마라는 부름을 받고 나자 가슴속에서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손뺌을 두어 번 두드리고 양팔을 벌렸다.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 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비스듬히 안고 턱에 묻은 침을 닦아주던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아빠라고 말을 했다. 아이는 다시 엄마라고 했다.

목성에 가면 몽크도 있고, 그의 첫사랑 여인 밀리 탈로도 있을 것만 같다. 왜냐하면, 절규하는 영혼을 앞서가던 두 그림자 인간의 어깨너머로, 그가 그랬던 대적반이 계란 노른자처럼 박혀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를 낳아 준 그들도 거기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병실 천정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서 머리맡을 맴돈다. 옥빛 날개 양쪽 가장자리에 검붉은 무늬의 적반이 날갯짓을 따라 오르내린다. 손을 뻗어 잡으려 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미라같이 붕대를 감은 몸이 떠오른다. 이곳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내 심장을 뛰게 했던 카테타도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원장이 아이를 안고 문밖에 서성거리고 있다. 나비를 따라가며 아래를 내려다본다. 택시 한 대가 병원 주차장

으로 들어오고 남자가 내린다. 갈고리달을 지나쳐 갈 때쯤부터 봉대가 벗겨진다. 그 빈자리에서 수많은 편린이 돌아나 온몸을 감싼다. 흥측한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우화하는 중인 모양이다. 저만치 거대한 목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회오리치고 있는 크고 작은 적반이 검은 띠와 밝은 대 사이에 무수히 박혀있다. 간혹 적반이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나방도 섞여 있는 것 같다. 나방은 나비와 다르게 날개를 지붕처럼 겹쳐서 앉는다고 했다.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이경희



수상소감

저는 교직 19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마음만은 늘 신규같은 교사입니다.

그동안 아이들, 혹은 선생님,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고민과 관찰을 통해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민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픔을 달고 다니는 사랑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이야기를 장학퀴즈로 역으면서 저의 한계, 그리고 교육현장의 한계에 대해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돈되어지지 않은 글을 뽑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통해 삶에 대해 한층 겸손해지게 되어 기쁩니다.

장학퀴즈

내가 그 사진을 문자로 받은 것은 보스포러스 해협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이스탄불 시가지에서 조금 벗어난 콘야르라는 이름의 카페에서였다. 그곳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반려견 보호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어도 될 만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커피를 마시거나 케밥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주문한 새끼양갈비구이가 나오기 전에 빵과 커피를 먹고 있었는데 그 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뜨거운 햇살에 휴대폰의 액정이 잘 보이지 않아 순간 확인할 것인지를 망설였다. 하지만 그 무렵 나는 모든 사건은(행운이든 불행이든, 혹은 관계이든) 우연히 손님처럼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약간의 설레임으로 손가락개를 하고는 문자를 확인했다. 서울에 있는 룸메이트에게 온 것이었는데 우편물을 찍어 보낸 사진만 덩그러니 액정 위로 떠올랐다. 사진에 찍힌 초대장은 꽃잎 테두리를 금박으로 둘러서 청첩장처럼 보였지만 모자를 쓴 여자가 혼자 하늘을 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서울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북 콘서트 초대장이었다. ‘아무도 잠들지 마라’라는 책의 제목은 베르디의 오페라를 흥내낸 것 같기도 하고 록 그룹의 노래 제목 같기도 했다. 저자 이인숙. 인숙….

나는 그 이름을 여러 번 입에 굴리다가 날짜를 확인했다. 다음날 인천

공항 도착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뒤였다. 수화물을 찾다보면 신나게 달려 간다 해도 한 시간 가까이 늦을 시각이었다. 내가 참석가능한 날이라 룸메이트가 보내준 모양인데 나는 그 작가의 이름을 기억해내기 힘들었다.

혹시 작년 가을쯤에 한국작가협회에서 주최한 ‘현대 문학의 쟁점들’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마주쳤던 작가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 세미나는 시리즈물처럼 소제목을 달고 5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나는 그때 ‘문학의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5분간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여행 작가로서 문학의 주된 사회적 의무를 행할 충분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질문자와 강연보다 긴 질의응답을 가졌었다. 그 질문자의 이름 끝 자가 속, 이지 않았었나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 때 카페에서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노래가 흘러 나왔고 나는 기분 좋게 눈을 감았다. 그 카페가 유명해진 것은 산들거리는 바닷바람을 얼굴 가득히 느끼며 풍미 깊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보다는 로드리게스와 함께 유람선에 타고 출렁대는 물길을 헤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커다랗고 성능 좋은 스피커 때문일 것이다. 나는 3년 전에 포르투갈 여행기를 쓰며 그녀의 노래를 줄곧 들었는데 목소리의 무게와 애잔함이 진솔하고 가식적이지 않은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더구나 로드리게스의 향수에 젖은 목소리는 백석의 시와도 기묘하게 잘 어울렸는데 여행기의 후기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썼었다.

-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이 여행의 절반이다. 그럴 때면 고향이 있는 집에서 살던 백석이 떠오른다. 소박맞은 늙은 고모처럼 송구떡이 옹이에 담겨있는 집, 혼자 고방의 쌀독 뒤에서 숨어 고립과 흥분과 두려움을 느꼈던 시절의 이야기는 별자리처럼 총총 빛나서 얼굴의 마

마자국마저 애뜻하고 예쁘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목마르고 배고픈 이미지가 로드리게스의 노래가 흐르는 리스본의 기차역에 남아있다. -

백석의 시구를 떠올릴 즈음 진갈색 소스가 흐르는 양갈비구이가 그린반을 곁들여 나왔다. 발사믹 식초 냄새와 버터향이 식욕을 자극했다. 부드러운 고기를 씹으며 나는 그 초대장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생각나지 않는 이름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터키에서 두 달간 머물렀고 그동안 여행 잡지에 실을 기삿거리를 찾아 터키 곳곳을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다녔다. 그 중에 가장 정성을 들인 부분은 이즈미르라는 지역의 이야기였다. 이즈미르의 옛 이름은 스미르나인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미르나 공주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허망하고 짧은 인생을 함축한 신화에 매력을 느껴 이즈미르 지역의 분위기와 비교하면서 글을 썼었다. 이즈미르에서는 쟁계 시무르라는 이름의 노인도 만난 일이 있었는데 다른 터키인들처럼 나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손자가 학교에 가는 것을 배웅하러 나왔다가(그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동구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배웅하곤 했다.) 산책을 하러 나온 나에게 “구나이든” 하며 오랜 만에 찾아온 조카를 대하듯 커피를 건넸다. 내가 서툰 터키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영어를 할 줄 아냐고 물었다. 쟁계 노인은 젊어서 UN 연합군에 몸을 두고 있었기에 영어를 조금 구사할 줄 아는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그는 말하는 내내 간지럼을 타기라도 하듯 사뭇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태평하며 따뜻했다. 그 미소에 대해 말해 주자 그는

“오늘이 전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네.”라고 말하며 윈크를 했다. 그는 스

미르나 신화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영어로 천천히 설명 하자,

“아.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야. 한밤의 번개처럼, 새벽의 이슬처럼.”

라고 대답했다. 그는 금세 나와 친구가 된 듯했으며 헤어질 때는 손가락에 끼었던 반지를 빼어 주기도 했다. 나는 배낭을 뒤져 살이 하나 떨어져 나간 부채를 꺼내서 주었는데 그는 부채에 그려진 보름달에 술 생각이 난다고 유쾌하게 웃었다. 조선의 정서를 가졌던 정계 노인이 주었던 반지는 지갑 안에 들어있었다.

양갈비를 먹어치우고 후식으로 나온 돈드르마 아이스크림을 먹을 무렵 내 맞은편에 있던 남자가 손을 흔들어 종업원을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열 손가락도 모자라다는 듯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무성한 턱수염에 빵가루를 흘리면서 먹고 있었는데 그 때 햇살이 그의 새끼손가락에 낀 가장 굵은 반지에 부딪쳐 내게로 쏟아져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초대장을 보낸 작가. 이인숙.

바로 그 아이였던 것이다.

인숙은 십 년 전에 내가 첫 발령을 받은 학교에서 만난 학생이었다.

나는 무려 4년간의 교사 임용고시 재수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합격통지를 받던 날은 4년간 무인도에서 야자수 잎으로 옷을 대신하고 산짐승들과 싸우며 흙 묻은 옥수수 줄기를 씹어 먹다가 구조선을 만난 기분이었다. 4년은 나의 20대를 무채색 아크릴로 덧칠해 놓았다. 나는 일 년의 6개월은 닳치는 대로 일을 했고 6개월은 닳치는 대로 공부를 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은 닳치는 대로 흘러갔고 나는 실패의 연속에 닳치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교직에 대해 엄청난 계획이나 소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만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다. 나의 애인이었던 영선이 말대로 나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 막연하고도 기운 없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어쩐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생각. 그것이 내 연애의 이유였고 공부의 이유였다. 나와 같은 처지인 같은 과 동기 둘은 그 해에 또 낙방을 했다. 면접을 끝내고 그 중 한 친구는 “네 번째는 정말 안 떨어질 줄 알았어.” 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버스는 또 와. 늦을 뿐이지.” 따위의 위로는 건네지 않았다. 그런 어색한 축하의 자리에서는 그저 말 없이 고기를 굽고 소주를 먹는 게 최상책이었다. 결국 삼겹살 3인분과 소주 한 병으로 간단히 저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영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왠지 축하한다는 말은 해 줄 것 같았고 영선이가 그 말을 해 주어야만 합격이 기정사실화 될 것만 같았다. 전화는 두 번째에야 연결되었다.

“나야, 민수.”

“아” 하고 영선이는 말을 끊었다. 영선이는 당황했다기보다 가스블에 라면이라도 끓이고 있다가 국물이 넘칠까봐 걱정하는 듯한 침묵을 지켰다.

“합격했어.”

영선이는 다시 아, 하고 내뱉다가 깜짝 놀란 듯이 말했다.

“내가 설마 그 이유로 떠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말은 마치 내가 설마 그 이유로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로 들렸다. 전화를 끊을 때 축하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바보 같은 나의 행동에 스스로 화가 나서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전깃줄이 지지직 하며 스파클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영

선이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곧 한의원을 개업할 두상이 큰 서른 다섯 살의 남자에게 5분전에 청혼을 받고 들어와 이 사실을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메일로 알리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영선은 대학교 3학년 때 만나 내가 두 번째 교사 임용고시 낙방을 한 직후에 떠나 버렸다. 그녀는 그 해에 나와 같은 시험에 합격했고 인천 서구로 발령이 난 상태였다. 나는 그녀에 대해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위대한 개츠비’의 연인이었던 ‘데이지’의 이미지였다. 영선은 그렇게 언제든지 날아갈 것만 같은 풍선 같은 여자였다. 그 풍선 속에는 얼마간의 순수한 애정이 있었겠지만 그녀를 빛나게 하는 것은 화려함에 대한 동경어린 욕심이었다.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고 순식간에 떠나갈 것을 예감했었지만 그녀의 교태 섞인 아름다움에 나는 감히 거절이라는 어리석은 카드를 내밀지는 않았었다. 그렇기에 그녀가 마치 식당에서 주문을 반복하듯 무심하게 이별을 선언했을 때에도 나는 삶이 온통 무너지거나 하는 고통을 겪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내가 외로워해야 하는 앞으로의 나날들에 비하면 그것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기에 차가워진 나의 태도는 이별을 반복하거나 질질 끌게 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내가 영선이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와 같이 수업을 들었던 많은 남학생들처럼 나 역시 눈에 띄는 미모와 상냥함, 재치를 가진 그녀에게 끌렸고 그녀의 어깨에 내 팔을 두르고 학생회관으로 걸어갈 때에는 우쭐해지는 마음에 공연히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선언한 이별이 내가 그 후 2년을 제대로 공부에 몰두하게 만든 이유 중의 하나였음에도 틀림없었다.

첫 발령을 준비하는 두 달은 가난하지만 빠르게 지나갔다. 싸고도 번듯한 양복과 구두를 구입하고 서울에서 발령지인 충북 옥천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며 하숙집을 구했다. 집은 학교에서 10 키로 쯤 떨어진 마을에 큰 대추나무가 있는 집이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열 달치 하숙비를 선불로 내고 나니 이발소에서 머리 깎을 돈밖에 남지 않았을 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통장으로 오백만원을 보내주셨다. 나는 그 돈으로 7년 된 중고 아반테를 샀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등장하던 첫 날은 진회색의 정장에 낡지만 작은 자동차를 가진 제법 그럴듯한 총각 교사로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흐뭇해지기도 했다.

학교는 3층 건물 한 동에 교실과 특별실이 모두 있는 전형적인 일본식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얇은 유리창이 3월 꽃샘바람에 덜덜 떨렸고 첫 수업을 하게 될 2층 복도 끝으로 걸어가면서 학교 뒷산 까마귀들의 그악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교실에 다가가자 까마귀소리보다 날카롭고 거대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뜻밖의 충격에 당황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표시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처럼 높게 일직선을 그리며 이어갔다.

첫눈에도 다운증후군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교실 뒤편에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교실 앞에 서서 여학생들의 짜증 섞인 표정과 아랑곳 않는 남학생들의 몸짓, 익숙해진 광경에 지루해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장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눈치 챌 수 있었다. 그 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학생 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아이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 아이의 입을 소리 없이, 그러나 강한 힘이 느껴

질 정도로 묵직하게 오른손으로 막았다. 그러자 입뿐만이 아니라 코까지 손바닥에 가려버린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고분고분해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와 털썩 앉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젤리를 꺼내 먹기 시작했다. 학교에 첫 인사를 하러 온 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네 문구점 주인 같은 인상을 주던 교무부장 선생님이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여기 아이들은 많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힘이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고, 단 그것을 이루려니 내 능력을 벗어난 경지까지 노력이 필요하여 고되다는 뜻일 것이다. 그때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교탁 앞에 서고야 말았다.

출석부를 뒤적이며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확인해 나가다가 모자를 쓴 여학생의 이름이 이인숙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아직도 모자를 벗고 있지 않음도 알게 되었다. 나의 지적에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순간 교사의 물음, 혹은 지적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을 반항이라고 여겨야 할지 무관심이라고 여겨야 할지 당황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와 같은 권위적이고 자기방어적인 고민에 빠져버렸다. 그 순간 교실 안에 떠도는 소음들 가운데 아주 고요하지만 힘이 실린 비웃음의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의 주인공이 인숙임을 알아챘다. 누군가가 “여어, 샤크”하고 또 나지막이 키득거렸다.

나는 그들로부터 소외된 어리숙하고 경험없는 신규교사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에 그만 화가 치밀어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첫인사에서 모자를 벗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고 너희는 고2니 그런 예의를 알 만한 열여덟 살이라고 알고 있다.”

다음 순간 인숙은 재빨리 모자를 벗어 허공에서 오른 팔로 빙빙 돌렸고 대여섯 명쯤의 목소리가 다시 “샤크, 샤크”라고 부르는 것에서 비로소 그녀의 별명이 샤크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가 평생을 두고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일이 벌어졌다. 모자가 가리지 못한 샤크의 왼쪽 얼굴을 바라본 순간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두 걸음이나 물러섰던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보다 열한 살이나 더 먹은 어른이 보일 행동이 결코 아니었다.

샤크의 얼굴은 왼쪽이 없었다.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 썼던 왼쪽의 눈이 없었고 콧구멍이 자취를 감추었다. 있어야 할 그것들이 뒤섞이어 짙은 갈색으로 볼 여기저기 자동차가 지나간 흙길처럼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거기다 움푹 패인 볼은 다른 부위보다 진한 갈색이어서 한쪽 뺨이 아예 달아나고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차마 사과할 용기조차 없었고 샤크는 나무줄기라도 뚫고 지나갈 것 같은 비웃음을 흘리곤 모자를 다시 눌러 썼다.

교무실에 돌아와서야 샤크에게 일어난 비극에 대해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나의 왼쪽 책상의 주인인 음악선생님은 내가 의자에 털썩 앉자마자 곁으로 다가와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첫날이라 긴장되지요?”

“이인숙이라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모자를 벗으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모자를 벗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뒷걸음질이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그녀는 양 눈썹을 팔자로 내려뜨리며 연민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인숙이, 작년에 제가 담임을 맡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큰 화재가 났었대요. 아버지는 중증 환자이고 어머니가 어찌어찌해서 살아가는 애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6학년인가 그럴걸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아무튼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숙이가 어둡긴 해도, 착하고 대견한 면이 많아요.”

음악선생님의 선량한 어조는 뽀얀 얼굴이나 애뜻한 눈빛과 잘 어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친구의 입을 막던 행동이 위협이 아니라 보호였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 날 오후까지 보고해야 하는 공문이 도착했다.

— 급 지시사항. 국회의원 김이배 요구사항. 학교 도서관 교과서 재고 물량 조사. 목적은 교육경비 절감을 위함. —

나는 도서 파악을 하기 위해 3층 계단 바로 앞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열린 도서관’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나무틀 미닫이문을 열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은 책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그 냄새에 취할 듯 하여 창문을 열어젖히고는 2차 대전에 폭격 맞은 듯한 서가를 멍하니 둘러보았다. 적은 양의 서가는 아니나 해방직후에 출판되었음직한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서가를 둘러보다가 작년도 학교 문집을 발견하고는 ‘안내의 일기’라는 문집 제목에 그만 피식하고 웃고 말았다. 학교가 속해 있는 마을 이름이 안내면이었던 것이다. 다시 꽃을 생각으로 책을 뒤집었는데 편집인 이름에 이인숙,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책장을 넘기면서 혹시 그 아이가 쓴 글이 있을까, 했는데 중간쯤에 ‘아무도 잠들지 마라’라

는 제목을 단 샤크의 시가 있었다.

아무도 이불을 덮지 마라
 덮을 이불이 없는 자
 이름도 없이, 고향도 없이
 잠들지 못한다.

아무도 불을 켜지 마라
 불을 두려워하는 자
 잠 못 들고
 그대의 추억을 훔쳐갈지 모르니.

잠들면 끝이야, 네 귀에 속삭여라
 그 사이에 넌 잃게 될 거야.
 너의 이불, 이름, 고향.
 그리고 너의 얼굴까지도.

나는 한밤중에 샤크의 집에 번져갔을 불길과 몸부림, 울음과 비명, 시커먼 연기를 상상했지만 그것은 남의 것이었다. 내가 그 일을 겪었을 샤크를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가련한 일은 크든 작든 일어나기 마련이었다. 그 날 퇴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을 때 서른 살을 한 달 앞둔 초보 운전자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푸른색 낡은 아반테는 암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다. 손잡이의 높이로 고르

게 차의 네 면을 동전으로 긁어 놓은 듯한 자국이 나 있었다. 은색의 저주로 차체 곳곳에 떨어져나간 푸른색 페인트 덩어리가 멍쳐 있거나 떨어져 있고 있었다. 만져보니 따듯했다. 누군가 바로 좀 전에 차를 긁어 놓은 것이었다. 아이들이 거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첫날부터 옛 먹이기 작전이라니. 하지만 난 웬지 누군가가 나를 몰래 훑쳐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여주진 싫었다. 나는 태연한 척 뒷좌석을 열어 가방을 던져 놓고는 운전석에 올라탔다. 학교와 도로를 잇는 작은 다리가 매우 좁아서 바퀴 하나가 다리 아래로 끼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길로 나섰고 머릿속은 어질어질했다.

2차선 도로로 2키로 쯤 달렸을 때 사거리가 나왔고 빨간 신호등에 걸려 잠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뒤에 있던 흙을 뒤집어 쓴 덤프 트럭이 뱅뱅 하고 클락손을 울렸다. 순간, 푸른 신호등을 붉은 색으로 착각하고 정지한 줄 알고 나는 급히 기어를 1단으로 올렸다. 하지만 신호등은 여전히 붉은 색이었고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부지런히 앞뒤를 살피기 시작했다. 내가 규정 속도보다 더 천천히 달렸던가. 그것이 트럭의 진로를 방해하고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까. 그 사이 트럭은 계속 뱅뱅거렸고 점점 초조해진 나는 뉴스 보도에서 보았던 갖가지 사건들을 떠올리며 차문을 걸어 잠갔다. 이윽고 트럭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이 사이드미러로 보였다. 운전자는 내 차로 다가오더니 창문을 두드렸고 내가 끝내 버티고 있자 손짓으로 뒷좌석을 계속 가리키더니 다시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나는 줄기찬 노크에 더 이상 그의 성미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본능으로 창문을 오 센티미터 가량 가까스로 내렸다. 트럭 운전사는

“차 뒷문 열렸다고요. 계속 덜렁거리잖아요.”라고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뒷좌석을 바라보니 정말로 뒷문이 비스듬히 열려 의수에 끼운 셔츠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막아볼 새도 없이 양쪽 눈에 눈물이 핑 돌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나는 진실로 죄송했다. 하루를 고되게 일하고 돌아가는 길에 낯선 운전자에게 호의를 베푼 그를 엉뚱하게 오해했던 나의 겁쟁이 같았던 악의를 반성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눈물의 정체는 그게 아니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은 닭장에 갇혀 있는 것 같았던 고시원 생활과 고되었던 아르바이트, 부모님의 감추어지지 않는 실망과 친구의 화려한 결혼식에서 먹던 국수가락, 입술이 참 예쁘던 영선이가 떠나가던 날 부러진 우산살처럼 초라했던 나의 바둑판 무늬가 새겨진 후줄근한 티셔츠였다. 끝내 눈물 방울 하나가 똑, 하고 볼 위로 굴러 떨어졌다. 트럭운전사는 잠시 멍하니 그런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차문을 덜렁거리며 달리다가 멍청이처럼 울고 앉아 있는 젊은 남자의 차를 노련하게 비켜 앞으로 썩 하니 달려 나갔다.

하숙집에 돌아온 나는 녹초가 되어 겉옷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그 날 새벽녘에는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빗소리는 맛을 매를 모두 맞고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리는 편안한 상태를 방해하지 않았다.

다음날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학생부장 선생님이 차문을 잠그다 말고 내 차를 힐끔거렸다.

“어, 이거 뭐예요? 누가 지능적으로 긁어놨네.”

그는 차를 빙빙 돌며 자국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틀림없는 일자 드라이버 자국이라는 것이다. 내가 동전 자국일 것이라고 우겼더니 동전

은 곳다보면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지는데 이렇게 선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면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주차장 천정에 달린 cctv를 가리켰다.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차를 긁어 놓는 것이야말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어떤 놈인지 참.”

나는 그 놈의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cctv 개봉을 하루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첫 수업에서 교과서도 없이 떠들기만 하던 한 남학생을 교실 뒤에 서있게 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지적을 하자 입으로 바람을 불어 앞머리를 날리며 의자를 소리 나게 넘어뜨리고는 교실 뒤에 서서 잡지를 뒤적이면서 온몸으로 불량기를 내뿜던 덩치 큰 아이였다.

나는 커피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 아침 조회 내용을 설명하고는 아이들을 한 번 둘러보았다. 문득 나도 열여덟 살에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8시 40분은 아이들에게 고된 노동을 마친 저녁 8시 40분처럼 보였다.

“오늘 종례는 청소전에 하겠습니다. 청소 검사는 내일 아침에 할 거고.”

첫날부터 생글거리고 잘 웃으며 쉬는 시간에 찾아와 이것저것 캐어묻던, 이름이 민지로 기억되는 긴 생머리의 여학생이 물었다.

“왜요?”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걸어왔을 민지는 바쁜 아침에도 앞머리와 끝머리를 고데기로 돌돌 말아 어깨 위에서 도너츠처럼 찰랑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실은 어제 퇴근하는 길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반 종례시간에 뭘 좀 물어볼까 해.”

나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듯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좋지 않은 일의 정체에 대해 그다지 궁금해 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민지는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다.

“어제 누가 드라이버로 내 차에 손을 좀 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반 아이들과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다.”

순간 아이들이 웅성거렸고 tv쇼의 방청객들처럼 동정어린 탄성이 들렸다.

그 때 샤크가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여전히 모자를 쓴 채 고개는 들고 있지 않았다.

“저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나는 감정의 혼돈을 겪곤 한다.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표출해야 하는 감정은 분노나 자백에 대한 놀라움일 테지만 내 안에서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질 않았다. 나는 5초 정도 지나서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움임을 알게 되었다. 샤크는 어제 모자를 벗으라고 한 나의 말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대리분노를 표출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관심을 끌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나의 뒷걸음질에 심한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나에게 할 말이 있겠네.”

아이들은 내가 화를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샤크는 고개를 흔들었다. 샤크가 온몸으로 뿔어대는 묘한 비아냥거림은 비로소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야 말았다.

“나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건 그냥 예술행위라고 생각해야 하나?”

몇몇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 채고 고개를 숙인 채 굳이 소리를 감추려 하지 않고 웃음을 터트렸다. 샤키는 정색을 하고 고개를 돌린 채 탄성을 피웠다. 학생부에게 이 사건을 넘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나는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아니면 장난인가. 그렇다면 나도 장난 좀 쳐볼까.”

나는 들고 있던 교무수첩을 내려놓고 교탁의 서랍에서 커트칼을 꺼내 칼날을 드르륵 소리 나게 밀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두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나는 마치 폭력배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천천히 칼을 들고 샤키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새까만 샤키의 가방을 집어 올려 위에서 아래로 칼을 죽 내려 그었다. 샤키는 그런 나를 모자 옆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귀여운 악동의 장난을 지켜보는 어른 같은 눈빛으로.

가방은 처음에는 칼의 압력에 못 이겨 윗부분에 작은 생채기를 내었고 밑으로 갈수록 눈에 잘 띄지 않는 희미한 선을 남긴 채 다시 샤키의 책상 걸이에 걸렸다. 아이들은 예상과 달리 가방에 별 흠집이 안 보이자 내가 칼날의 뒷부분으로 그었다고 생각했는지 쉽게 끝난 싸움에 시시해했다.

“장난은 재미로 시작해서 위험하게 끝나는 법이야. 그러니 그만두자고.”

이 말을 끝으로 교실을 나왔고 나는 우리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유치한 응대는 학교 안에 곧 소문이 퍼졌고 음악 선생님은 어제 트럭 운전사와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뒤에 샤키는 나의 수업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줄 그어진 차를 타고 다녔고 샤키도 손톱의 생채기 같은 줄이 그어진 가방을 들고 다녔다. 샤키의 복수로 미안함을 좀 덜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해 공공연히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때에는 마음껏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어쩌면 그것은 가슴에 난 커다란 구멍을 메우고자 누군가 흠뻑려 놓고 간 고독을 정신없이 주워 먹던 청춘을 보낸 나에게 회피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편안한 대응방법이었을 것이다. 때때로 한없이 나를 쓸쓸하게 만들던 것은 바로 그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었다.

샤키와의 자잘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던 4월의 첫 주, 교정에 첫 목련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노랑고 빠죽한 알전구처럼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나무들 틈에서 환하게 빛났다. 다시는 변해버릴 것 같지 않은 기세로 싱싱하게 물먹은 꽃잎 아래에서 나도 이제 무언가를 제대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그 주의 금요일 오후는 학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도서부원들을 불러 모아 도서실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스크와 장갑까지 준비해놓고 도서실 창문을 모두 열고 묵은 책 냄새 대신 봄기운이 낡은 교실에 가득차기를 기다릴 쯤, 방송을 들은 도서부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여섯 번째로 도착한 학생은 샤키였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도서부원인 것도 모르셨죠?”

“도서부원들 모임 때 왜 한 번도 오지 않았지?”

“제가 안 온 것도 모르고 계셨죠?”

샤키의 말은 사실이였다. 3월 내내 나는 밀려드는 업무와 답임 반 아이들 피악에 점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했었다. 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을 피한 채 아이들과 폐기해야 할 책들, 신간들을 분류하고 나머지는

영역별로 나누어 쫓기로 했다. 세시에 시작한 작업은 다섯 시가 되어도 절반도 진척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작업을 하자고 말했다. 다섯 시가 넘으면 마을버스가 몇 대 없으므로 서둘러 집으로 보내려는데 샤크는 우물쭈물 가지 않고 서가에 서서 계속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집에 안 가니? 버스 시간 확인해 보라.”

샤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통명스레 내뱉었다.

“선생님은 굶어 놓은 차라도 있으니 걱정 없겠네요.”

“너 역시 굶어 놓은 가방이 있으니 학생 할인 받겠구나.”

나는 내가 한 말이 열여덟 살처럼 느껴져서 조금 웃었다. 한 달 간 느낀 것이 있다면 교사답다는 것은 일단 잘 참는다는 뜻이었다.

“한심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샤크의 혼잣말은 지난 사건을 비난하며 혀를 차는 노인의 말투였다.

“중용도 몰라요? 무슨 선생님이 아무리 경력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좋은 말로 독특하다고 하지만 나쁜 말로는.”

“미쳤다고?”

그제서야 샤크는 나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짐짓 모르는 체 물었다.

“중용은 누구 의견이야? 그럴 때 베풀라고 미덕이 있는 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은 꼭 미덕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상대적인 거지. 가령 A급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A급의 평정을. B급에는 또 B급에 맞게.”

나는 우거진 나무 말고는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법

책을 읽었을 것 같은 샤크에게 조금 감동을 받긴 했다. 그리고 나의 메말랐던 젊은 시절이 열 살도 더 어린 여자애에게 핀잔을 들을 만큼 각진 것이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다. 나는 도덕적 평정을 잃고 내 안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자존심이라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불리 행동했던 것이다. 그것도 서른 다섯 명의 관객 앞에서 중용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제자에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책도 좋아하고 도서관도 좋아하는 애가 왜 그렇게 폭력적이야,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미워해도 되는 거니? 도대체 어떤 작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야? 틀림없이 히가시노 게이코 같은 일본 추리소설 좋아하겠지.”

샤크가 발끈했다.

“추리소설은 열네 살 전에 집어치웠거든요. 온갖 유치한 장치들로 가득한 글. 상투적인 사건과 증거, 우주처럼 시작했다가 쓰레기통으로 끝나는 결말들. 아, 지겹다. 게다가 일본 추리는 안 읽습니다.”

“여기에 레이먼드 찬들러는 없더라. ‘기나긴 이별’ 읽으면 달라질 걸. 독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글이지. 아, 그래, 움베르토 에코는 좋아하니? 장미의 이름 같은 추리소설은 지구가 몽땅 화성으로 이사를 간다 해도 가지고 가야할 책일걸.”

“선생님도 여기 책갈피에 독을 발라 놓은 건 아니시겠죠?”

샤크는 그렇게 말하더니 혼자 웅얼거렸다.

“무슨 대화가 이러냐.”

나는 역사 전집을 차례로 밀대에 담으며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마치 계집애들처럼 친구랑 수다 떠는 거 같잖아. 너,

그래도 나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어서 안 가는 거 아니야?”

샤크는 서가를 돌아 내 옆에 멀찌감치 서서 책을 만지작거렸다.

늘 교복 치마대신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다 짧은 머리에 모자까지 써서 뒤에서 얼핏 볼 때는 남학생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힐끗 샤크를 쳐다보았다.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 않는 저 상처는 저 아이의 가슴에 얼마나 큰 구멍을 내었을까. 그녀는 청춘이란 것을 가져보거나 할까.

나의 눈길을 의식했는지 샤크는 몸을 홑 돌려서 서가 뒤로 걸어갔다.

“그런데 민지가 들었다는데… , 음악 선생님하고 동갑이사라면서요? 스물 아홉 살이면 도대체 재수를 몇 년이나 한 거예요?”

샤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아, 그래서 첫날 그렇게 피곤해보이셨구나. 생긴 건 멀쩡한데 어디서 한 대 된통 맞고 온 사람처럼. 올해도 담임 운이 없구나, 싶었죠.”

“작년에 너 담임이셨던 선생님은 네 칭찬 많이 하던데?”

샤크는 도서 목록철에 책이름을 써넣기 위해 탁자 쪽으로 걸어왔다.

단정하지만 깨끗해 보이지 않는 교복에 단추 하나가 떨어질 듯 달랑거렸다.

“다들 저에게 착하다고 말해요. 그 속에 동정심이 가득하죠. 저를 가장 망치는 게 동정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 앞으로라도 저한테 그런 감정을 가지신다면 그땐 아반테 바퀴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일자 드라이버만 잘 다루는 줄 알았더니 험박도 제법이네. 그렇게 착한 애가 도대체 나한테는 왜 맨날 시비지?”

나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독서광이신 줄 알았더니 은유는 시집 속에만 있나 보죠? 그걸 아직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나는 허리를 펴고 이쪽을 돌아보고 있는 샤크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똑바로 그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고통이 아로 새긴 얼굴 위로 유난히 새카만 눈동자가 반짝였다. 어둠이 치맛자락처럼 유리창을 덮고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고양이의 눈처럼 민첩하고 영특해 보이는 눈이었다. 그 눈이 감당해왔을 혐오와 동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싸울 사람이 필요했구나. 너.”

나 역시 그 나이 무렵에 싸울 상대가 필요했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만만하지만 서로의 전투력이 비슷한 상대이어야 하고 또 마음에 드는 상대이어야 했다. 스무 살 무렵의 애달픔은 막연하고 빛깔이 없었으니까. 게다가 어떤 잔인한 감정의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지나치게 솔직했던 막무가내인 그 나이.

어쩌면 샤크는 동정 없는 누군가, 즉 상대가 자신을 밑으로 내려다보지 않는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휴대폰이 울린 건 그 때였다.

“촌스럽게 아직도 비틀즈라니.”

샤크가 중얼거렸다. 액정을 보니 영선이였다. 5초안에 끊기지 않으면 그때 받자고 생각했는데 울림음은 점점 더 크게 도서관 안에 울렸다.

“여보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나야, 영선이. 잘 지내?”

“썩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웬일이야?”

나는 반가움을 감추고자 너무 애를 쓴 나머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것

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축하해주려고. 좀 늦긴 했지만 첫 발령, 정말 축하해.”

“고생한 보람이 있다, 라는 말보단 낫네. 넌 어때? 청첩장 날아오지 않은 걸 보면 청혼 받고도 아직 연애중인가.”

나는 멍청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태연하게 높은 톤으로 말했다.

영선이는 좀 망설이는 듯 하더니 거침없이 말했다.

“실은 헤어졌어.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었더라구. 너도 알지 몰라. 우리랑 같은 학년에 가정교육과 대표였던… 그, 키 크고 옷 잘 입던 애.”

“몰라.”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를 떠올리는 건 쉬운 일이었다. 첫눈에 미인은 아니지만 세련된 옷차림이 눈에 띄었고 굉장한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한의원 개업시켜 줄 돈 줄을 잡은 거구나, 그 치사한 놈이.”

말해놓고도 머쓱해져서 이번엔 농담처럼 들리도록 가볍게 말했다.

“설마 나랑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지? 그러면 정말 기분 최악일거야.”

하지만 그녀는 평소답지 않게 주저하더니 한층 낮은 톤으로 말했다.

“언제 밥이나 먹을래? 내가 그리로 갈게. 주말 아무 때나 날짜 잡아봐.”

내가 아무 말이 없자 영선이는 나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추억을 끄집어 내었다.

“너한테 미안한 짓 한 건 맞지만 네 생각 안 한 적은 없어. 기억나? 우리 잘 가던 음악카페, 베네치아에서 즐겨 듣던 핸슨. 우리 같이 들썹거리며 두밥, 밥두, 밥 밥 하다가 웃었잖아.”

그 노래를 기억한다. 경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남성 밴드의 노래였었다.
 “그래, 좋았었지. 그런데 네가 떠났잖아. 영선아,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마라. 나 간신히 기운 차리고 살고 있어. 잘 지내라.”

나는 영선이 돌아온다 해도 나에게 머무르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녀가 내뱉은 깊은 한숨은 나에게 대한 위로가 아니라 침잠되어 있고 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내 옆에 머물러야 한다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나 믿음도 같이 가져가 버린 그녀를 원망하기 보다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기도 했다.

샤크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여자한테 차이거나 하고. 하긴 여자들이 좋아할 타입은 아니지. 부드럽고 매너 좋은 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터프한 멋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조하고 웬지 무거워 보이기까지. 돌 같은 사람? 여기 저기 뼈죽하게 튀어나온 방해석 정도? 쫘쫘.”

“이 바보야. 그 방해석이 나중에 대리석이 되어서 그리스 신전으로 간단다.”

나는 샤크의 건방진 말투가 거슬리지는 않았다. 나의 대화를 들킨 것에 대해 화가 나지도 않았다. 나는 어제 트럭 운전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는 갑자기 모든 것에 관대해진 것일까. 아니면 샤크에 대한 미안함이나 애잔함이 있기 때문일까. 다른 선생님에게라면 하지 못했을 말들을 또래 친구처럼 내뱉는 것이 조금 재미있기도 했다.

“너야말로 모자나 놀러쓰고 폼 재고 다니고. 그리고 너 책 좀 읽었다고 은근히 다른 애들 깔보는 거 내가 다 안다. 몰래 차나 굶고 다니는 주제

에. 뼈뚱하게 보이고 싶지? 그게 바로 네가 아직 애기라는 거야, 임마.”

샤크는 “하이구, 선생님…” 하더니 피식거리며 웃었다.

“짜구려 베스트셀러 같은 소리만 하시네요. 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거 아세요? 선생님 무지 멍… 한 거.”

“그런 인신공격이야말로 가장 짜구려다. 멍하고 조용한 사람이 역사를 발전시켜 온 거야. 떠들썩하고 말 많고 인기도 많은 사람들은 정작 그 멍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발전의 단 맛을 혀로 핥으면서 외쳐대지. 이 맛에 대해 나보다 더 잘 표현할 사람이 있나요? 하고.”

샤크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었지만 실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생각이 깊은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미개한 후손이 순식간에 그 역사를 훼손하고, 다시 위대한 누군가를 겨우 복원시키려고 하고. 이거 꼭 학교 같지 않아요? 아니면, 그렇게 무너지는 게 인생의 운명인가?”

“너 그러다 빨리 늙는다.”

나는 멜로디를 섞어서 외삼촌 같은 얼굴로 말했다.

이미 우리는 책을 분류하던 작업에서 아예 손을 놓고 서가를 이리 저리 산책이라도 하듯이 빙빙 돌면서 말장난에 폭 빠져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 말하던 작가, 캔들러가 이전까지의 추리소설을 뭐라고 했는지 아니? 줄거리만 있는 추리소설은 향기 그윽한 브랜드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기분이래. 추리 소설에 꼭 시체가 등장하고 피를 철철 흘려야 하나. 좀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살인은 없나. 대충 이유를 만들어 죽이지 말고 꼭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해야 하는 거 아냐. 그러면서도 굳더더기 없이 문체 하

나로 섬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지. 그게 바로 챌들러야. 그리고 바로 이런 밤에 그런 소설이 딱이지.”

나는 이제 그만 집에 가자는 뜻으로 밖을 가리켰다. 샤크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판청을 피웠다.

“그런 하드보일드, 괜찮아요. 감정의 무한 발사는 정말 끔찍해요. 사랑을 위한 101가지 방법이니 친구를 얻는 소중한 한마디, 이런 류의 책은… 맞다, 민지한테는 잘 어울리겠네.”

“이젠 나로 모자라 민지까지 모욕하는 거니?”

하지만 샤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도 동시에 민지를 떠올린 것은 사실이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럼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니?”

“외로워지는 거요.”

샤크는 지나치게 솔직했다고 생각했는지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그 때 다소 놀랐다. 열여덟 살의 여고생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했지만 그 대답은 내가 샤크에게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이었다. 나는 샤크와는 다른 배경으로 외로움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나에게 외로움은 과거를 떨쳐내는 일을 뜻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연민과 칭찬에 길들이지 못해 안달인지 답답해요. 저는 학교에서는 콤플렉스를 극복해가는 대견한 학생으로, 집에서는 가난이나 불행, 이런 것들에 주눅 들지 않고 착실하고 부모를 잘 돌보는 딸로 살아가길 요구받아요. 저에겐 혼자 생각하고 정리할 기회가 없어요.”

“장래희망만큼은 우리 둘이 똑같구나.”

나는 샤크를 쳐다보며 웃었다.

“내 걱정은 네가 너무 조속해진 나머지 빨리 늙어버리는 거야. 집에 가자. 일곱 시네.”

나는 다시 재촉했다.

“그 걱정이 제 소망입니다. 빨리 늙어 버리고 혼자가 되는 것.”

“네가 소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순간은 닥칠 거야, 순식간에.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칠 거야.”

나는 서랍에서 비스킷을 꺼내 샤크에게 건넸다. 고소한 양파 맛이 나는 크래커였는데 과자 봉지를 뜯자 샤크는 흉터가 없는 오른손을 내밀어 두 개씩 입에 넣었다. 도서관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샤크가 물었다.

“그래서 그 여자 친구와는 다시 만날 거예요?”

“내 대답 들었잖아. 또 차이긴 싫다.”

“그래도 선생님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쳐다보자 샤크가 또 그 특유의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멍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선생님은. 겉으로는 거절하지만 속마음은 너무 만나고 싶다는 분위기를 푹푹 풍겼잖아요.”

나는 같은 학과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니가 알겠냐, 사랑할.”

샤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1층 현관문을 밀며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 여자한테 반지를 선물해요. 그러면 다시는 안 떠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선물공세로 족쇄를 채우라고?”

“그건 족쇄가 아니라 약속이죠. 반지는 달을 닮았잖아요. 반지를 빼도 하늘에는 반지 같은 달이 있고 강물에는 그런 달이 비치고. 어디서든 생각나잖아요.”

샤크는 나를 바라보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예쁘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나섰을 때는 이미 봄밤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샤크가 태워다 주겠다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초저녁 별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정류장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기로 했다. 어둠은 잘 익은 오렌지처럼 폭신하게 깔려 있었다. 앞에는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눈이 열린 흠뻑새를 풍기고 있었고 20미터마다 세워진 가로등에서는 충혈된 불빛이 따뜻하게 길을 덮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다. 언더그라운드 인디밴드의 신곡이었다.

– 미련이라는 미련하게 생긴 감정을 털어버려. 웃음이라는 우습게 생긴 미소를 지어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고 꽃의 향기가 저마다 다르듯이 하루하루 느낌이 다른 걸 보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으음, 어찌면 보석 같은 지도 몰라. 으음 으음 랄랄라라라. –

보석 같은 것일까, 추억은. 사금파리 같은 보석이라도 될 수 있을까. 나는 대학 구내 식당의 긴 줄에서 있을 때면 뒤에서 내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꿈지락거리기를 좋아하던 영선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추억은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빛난다. 나는 목적지도 모르

고 기차를 탄 사람처럼 아득한 들판을 내다보았다. 황동규가 그랬던가. 인간의 내부는 성과 속이 힘겹게 만나는 장소라고. 추억은 인간을 사람으로 만든다고.

나는 샤크에게 물었다.

“너는 노래나 텔레비전은 안보니? 요즘 아이들처럼 말이야. 너랑 이야기하다보면 나랑 동감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샤크가 무슨 노래인가를 흥얼거렸다.

“장학퀴즈 좋아해요.”

“오호~!! 갑자기 하버드의 공부벌레 뭐 그런 옛날 드라마 생각나는데? 알고 보니 학구파? 그런데 성적과 무관한?”

내가 놀리듯이 말하자 노래를 멈추고 혀를 찼다.

“장학퀴즈 시작할 때만 봐요. 하이든의 협주곡인데 첫 부분의 트럼펫 소리가 좋아서요. 마치 처음 보는 길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 나 같은 늙은이하고 놀지.”

나는 샤크의 어깨를 툭 쳤다. 마른 봄 가지 같은 먼지가 일었다. 아주 잠깐 사이에 스친 그녀의 어깨도 봄 가지 같이 상상했다.

“제가 애늙은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직 어린애인거예요. 징징대면서 결정내리기를 무서워하는. 그리고 선생님은 공부를 못했지만 전 아직 안하는 거구요.”

“네가 공부 시작하면 그 잘난 척을 어떻게 받아줄까. 그런데 트럼펫 소리가 뭐가 좋다는 거니? 나 군대 있을 때 내무반의 기상벨이 트럼펫이었는데. 난 생각만 해도 지겹다.”

“관악기 소리는 뭔가 노곤함이 느껴져요. 저 사람도 힘든 숨을 내뿜는

구나, 싫어서 위안도 되고, 현악기처럼 보여주려는 소리가 아니라 보여지는 소리 같아요. 에잇, 나도 남자나 되어볼까. 내무반에서 실컷 듣게.”

시시한 대화가 잦아들고 버스가 다가오는 불빛이 보일 때쯤 우리가 앉은 맞은 편으로 구름에 가렸던 달이 보였다.

샤크는 불쑥 한마디 내뱉고는 버스에 올라탔다.

“선생님이 키위를 잘라 놓으면 저런 모양이 되겠네요.”

왠지 그 말은 너무도 푸근하게 들려서 나도 모르게 입술을 한껏 옆으로 벌려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더 이상 차에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달은 5일쯤 뒤면 보름이 될 것 같았다. 덜 여문 키위는 씨앗처럼 크레이터를 간직하고 들판 위에 별 하나 달고는 나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둠은 오랜 세월 수많은 비밀을 숨겨 주어서 저리도 어두운가. 하다못해 매일 찾아오는 어둠도 수세월동안 아무리 글로 쓰고 또 써도 그 뜻을 다 전하지 못하여서 이리도 써보고 저리도 써 보는데 살아가는 일이야 어떻게 쓸 수 있겠나.

그렇게 그 해 봄이 갔고, 나는 오후 시간엔 도서관에서 여전히 샤크와 논쟁을 벌이곤 했다. 음악 선생님은 샤크가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묘한 섭섭함을 내비치곤 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영선이에게 두 번 더 전화가 왔었다. 처음과 비슷한 대화가 오갔고 나의 결심과는 달리 두 번 다 신호음이 끊길까봐 헐레벌떡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결국 여름 방학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끼던 애완건을 팔려고 내놓았다가 정작 구매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망설이게 되는 기분과도 비슷했다. 그렇게 어정쩡한 내 태도를 나도 어떻

게 다루어야 할 지 몰랐다.

그러면서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소나기라도 퍼부을 듯이 찌는 듯한 아침에 샤크가 이틀째 결석하는 일이 생겼다. 집전화도 받지 않고 주변 친구들도 아는 바가 없었다. 나는 퇴근하는 길에 직접 샤크의 집에 들러보기로 작정했다. 말로만 듣던 가정방문을 결심한 것이다. 교무수첩에 기재된 주소는 달랑 한 줄이었다. 안내리 367번지.

그 근처 동네에 가면 찾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년부장 선생님에게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했다. 부장 선생님은 가정방문을 신규교사의 열정으로 받아들이고 흔쾌히 우리 반 종례를 맡아주시겠다고 했다. 마을로 가는 길은 좌우가 온통 옥수수밭 뿐이어서 중국의 단동에라도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마을 진입로에 작은 식품점이 하나 있어서 빵과 우유, 과자를 한아름 살 수 있었다. 마을 진입로에는 보기만 해도 서늘하고 풍성한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정자에 노인들이 지팡이로 땅을 툑툑 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모자 쓰고 다니는 인숙이'의 집을 묻자 그 중 백발이 성성해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이나 젊은 시절에는 꽤 영특했을 법한 노인이 좁은 흙길을 따라 가장 높고 가장 먼 집을 찾아가라고 일러 주었다. 나는 주차를 하고는 등을 적시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 내면서 노인의 말대로 가장 멀고도 높은 집을 찾아 골목을 올라갔다. 흙먼지가 가느다랗게 일고 있는 마당에 샤크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상추를 씻고 있다가 자기의 집으로 걸어오는 나를 바라보았다. 샤크의 집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고 지저분한 창고와도 같았다. 얼핏 보이는 부엌은 싸구려 낡은 개수대와 LPG 가스통이 연결된 작은 가스레인지와 플라스틱 수납장이 전부였다. 마루는 한 평도 안될 만큼 좁았고 마루 양옆에 방이 하나씩 있

었다. 화장실은 바로 부엌 옆에 있었는데 아직도 재래식 변소인 듯 보였다. 나는 주벳거리며 과자봉지를 내밀었다.

“인숙이 담임이야. 인숙이 동생이구나?”

여자아이는 고개는 숙였지만 눈동자는 나를 향한 채 봉지를 받아들고 언니, 하고 길게 불렀다. 두 번째 길게 또 다시 언니, 하고 불렀을 때야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오세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샤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차갑게 소리 질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나도 방문을 향해 외쳤다.

“침해 안 당하려면 학교를 나왔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팠다구요. 이제 그만 가세요.”

목소리는 더 이상 무엇이라고 말을 건네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절박하게 들렸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다는 채소밭으로 향했다. 밭의 주인인 듯한 나이가 지긋한 여자가 그 어머니를 소리쳐 불렀다. 얼굴에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어머니는 나의 출현에 매우 놀란 듯이 황급히 호미를 놓고는 밭고랑을 허우적대듯이 걸어 나왔다.

“농약을 뿌려도 잡초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 도와주고 있지요.”

묻지도 않은 말을 변명처럼 중얼거리던 인숙의 어머니는 학교를 빠진 게 본인의 잘못이나 된 양 연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십분 정도 밭머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 샤크는 화상의 후유증으로 가끔씩 흉터가 굵는데 병원도 가지 않고 집에서 항생제와 진통제로 견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동생이나 어머니에게서는 화상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샤크 혼자 그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을 때까지

방안에 갇혀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지역 소방서를 찾아갔다. 경찰서와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불과 2년 전의 사건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소방서 안에는 당직을 서는 대원이 두 명 있었는데 둘 다 제복을 입고 책상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무엇인가를 받아 적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 중 한 명이 고개를 들고 엉거주춤 일어났다. 한 눈에 보기에든 순해 보이는 인상에 제법 골격이 단단해 보여서 소방 호스를 잡기에는 무리가 없겠다 싶으면서도 그 위험한 현장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친 생활이 가져다 주는 고달픔이 몸에 배어 있는 듯 다소 피곤해 보였다. 나의 갑작스런 방문에 의아해하면서도 학교 소속을 밝히니 별 경계심 없이 인스턴트 커피를 종이컵에 따라 주며 사건의 기록을 뒤적였다.

“2년 전 일이지만 제가 그 해에 여기로 발령받아서 사건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지요. 아, 여기 있네요.”

샤크는 평범한 여중생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주로 중학교에서 내놓으라하는 말썹꾸러기들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중 학교에 잘 빠지던 두 명의 여학생은 먼 소재지에 있는 공업 고등학교 남학생들과도 잘 어울렸는데 다 같이 모여 노는 자리가 생기면 샤크를 불렀고 사건이 터지던 날도 바로 그런 날에 속했다는 것이다. 두 명의 여학생과 두 명의 남학생이 안내리 옆 마을의 빈집에서 놀고 있으니 오라는 소식을 받고 샤크가 그 외딴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네 명은 모두 잠들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샤크는 문지방에 어중간하니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뒹구는 부탄 가스병과 담뱃갑을 발견했고 무심코 담배 한 개비를 빼어 들고는 그 옆에 있던 라이터를 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들여 마시고 방안에 고여 있던 부탄 가스가 폭발하면서 샤크는 그 오

두막집 문썩과 동시에 날아갔다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는 폭발의 중심에 있던 샤크이고 가스에 취해 잠들었던 나머지 네 명도 모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샤크는 3도 화염 화상에 호흡기가 훼손되었고 다행히 장기의 손상은 없으나 왼쪽 팔과 손의 근육까지 화염이 파고 들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데가 없었고 오히려 네 명의 학생 부모로부터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시달렸다고 했다. 한 달 간의 치료 끝에 퇴원했을 때에는 형편을 눈치 챈 다른 부모들도 체념하고 돌아간 상태였고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한 상태였다고 했다.

소방대원은 샤크의 중학생 시절의 사진과 엠블런스에 실려가는 장면을 찍은 신문 기사 사본을 보여주었다.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소풍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에서 샤크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고 있었다. 사진을 찍을 무렵 바람이 불었던 모양인지 찰랑거리는 단발머리 몇 가닥이 볼에 붙어 있었는데 해맑은 표정과 진초록색의 티셔츠가 잘 어울렸다.

나의 참담한 표정을 보고는 소방대원이 물었다.

“뭘 더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저 혹시 그 학생을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재수술이나 지속적인 치료나 지원 같은 거요.”

하지만 그는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사고이니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나는 다음날 출근해서 학년 부장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육청 몇 군데 문의 전화를 해보았다. 하지만 학교운영비나 급식비, 교복비 등의 지원은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며 치료와 관련된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

을 들었다.

그 후로 일주일이 더 지나서야 샤크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교실에 모습을 드러냈고 오후 시간이 되어도 도서관에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어떤 표정이라도 읽고 싶었으나 정처 없는 눈빛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여름 방학식을 하던 날 샤크에게 쪽지를 써서 책상 위에 얹드려 있는 그녀의 팔 밑으로 밀어 넣었다.

- 방학동안 읽을 책 몇 권 가져다 놓았어. 도서관 책상에서 가져가.-

사람이 아닌 언어만이 샤크를 달래 줄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웠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열두 시가 다 되었을 무렵에 도서관 미닫이문이 열렸다. 방학 동안 서울에 머무르면서 읽을 책을 고르고 있던 나는 푸른 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들어오는 샤크를 바라보았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열 권의 책을 가리켰다.

“이건 우리 학교 스티커가 안 붙은 책들이야. 물론 내 마음대로 골랐고. 맘껏 낙서하며 읽어도 돼.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 이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지?”

“마음대로 집을 수색하더니 이제 책까지 마음대로 골라놓고 읽으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샤크의 눈길은 책상 위에 쌓인 열 권의 책으로 향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놓인 책은 찬들리의 책이였다.

“너 솔직히 이거 읽고 싶었지?”

샤크는 말이 없었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보다 좋고 나쁜 책은 나쁜 친구보다 나쁘다. 이게 내 지론이야. 내가 너보다 열한 살이나 선배니까 선배로서 좋은 걸 골라 준 거라고 믿고 읽어봐. 그리고 혹시 내키면 독서 일기, 뭐 이런 거라도 써서 보내보든가.”

샤크는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만지작거렸다. 전보다 훨씬 작아진 듯했다. 그제서야 나는 처음으로 샤크의 오른쪽 눈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쌍꺼풀이 없고 가는 눈은 이름 없는 들꽃처럼 애처롭고 깊었다.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일 년 있다가 가실 거죠?”

“음, 만약 가게 된다면 여기가 싫어서 가는 건 아니야. 단지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의 집은 서울에도 없었다. 시골에 있는 것은 부모님의 집이고 서울에서 내가 방학동안 머물게 될 집도 형의 집이었다. 그 어디에도 나의 집은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이 고아라도 된 듯이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헤쳐가야 할 앞으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지느러미까지 그 무게를 달아 나에게로 헤엄쳐왔다.

그 해 여름, 나는 도봉구에 있는 형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낮에는 성동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다. 가끔씩 광릉수목원에 차를 몰고 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돛자리를 펴고 책을 읽기도 했다. 더위가 최절정에 달했을 무렵, 나는 전남대학교에서 5일간 ‘교실혁신’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밤은 모둠별로 토론을 하고 가벼운 맥주를 마시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거기에서 나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라는 화제에 끼어들게 되었고 샤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때 일행 중의 한 명이 한국열린의사회가 의료봉사활동을 하

고 있는데 그 단체의 지방 담당 의사가 남편이라고 했다. 그 여선생님은 40대 후반으로 강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 모듬의 팀장이었는데 교실 혁신의 사례 발표를 할 때 수평적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한 열린 학급 회의의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중국 청도에서 조선족을 가르치는 한국 학교 설립의 초창기 멤버라는 경력 이외에도 헌신적인 연구 사례들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나 하나만 건사하기에도 급급했던 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샤크의 치료에 대해 의사회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으며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필요한 서류와 사고 경위, 치료 기록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겠는가.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자괴감과 세상의 동정심에 좌절하고 있어요. 가정 형편도 매우 어렵구요.”

그렇게 말해 놓고 나자 샤크가 그 아이 만의 독특함은 잃어버린 채 장학생 추천서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 중의 한 명으로 일반화되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웠다. 나는 그녀의 메일 주소를 받아 적고는 뒤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머리로 식힐 겸 휴게실로 가서 메일함을 열어 보았다. 거기에는 일주일 전 샤크에게 온 메일이 한 통 있었다. 너네임도 샤크인 것을 보면 그 별명이 싫지는 않았나 보다.

- 학교 도서관은 방학 내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제 방처럼 쓰고 있어요. 도서관 컴퓨터도 느리긴 하지만 메일 정도 쓰기는 딱 좋구요.

지금은 장맛비가 와요. 버스가 저를 내려주고는 한바탕 흙탕물을 튕기는 바람에 모자를 벗어서 수돗가에서 씻어서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요. 이런 제 모습을 거울로 보니 프랑켄슈타인 같기도 하고 만들다
만 닥종이 인형 같기도 해서 웃음이 나와요. 선생님이 독서일기 한
번 써보라고 해서 써 봤어요. (평가 절대 사절)

아, 참, 책 사이에 보들레르의 책갈피가 꽂혀 있었어요.

‘한적한 사랑을 하다 가라.’ 설마 일부러 넣으신 건 아니시죠?

저도 고2 여학생이랍니다. 그런 건 선생님을 걷어차 버린 여자한테
마흔 살 기념으로나 어울려요. -

아마 책갈피는 서점에서 끼워준 것인가 보다. 나는 피식 웃으며 파일을
열었다.

-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었다.

현악기를 튕길 때 감성 하나하나가 수많은 물보라가 되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아득했다. 그의 문장은 가느다란 외출 위에서 가파르게,
그러나 굳건하게 공간을 지킨다. 그리고 역사를 지킬 수 있도록 의
연하게 숨 쉬고 있다. 서날쇠와 나루는 아직도 풀처럼 힘없이 쓰러
져 있는 사공의 주검 옆에서 건강한 민초의 삶을 살고 있을 것만 같
다. 임금은 칼을 버렸고 칸은 칼을 주워 역사를 갈랐다.

아마 지금쯤 남한산성에는 철쭉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강은 오래
전에 녹았을 것이다. 김상헌이 심양에 간 일을 쓰지 않은 것은 잘 한
일이리라.

당면해야만 하는 일을 당면하게 된 그들의 일은 너무나 모질어서 삶
과 길이 맞닿아 있는 어제와 오늘이 무겁다. 그 무거움이 절제되고
잘라내어진 글이라서 더욱 깊게 파고든다. 하지만 어제의 무거움을

무겁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

나는 숨이 차도록 편지를 읽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장을 썼다.

- 좀 의외였어. 난 네가 챌들리의 글을 제일 먼저 읽을 줄 알았거든.

김훈의 말투를 흉내 낸 너의 글은 재미있었어. 그리고 웬지 나의 말투와도 닮아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내가 준 책에는 없지만 '현의 노래'도 읽어 보렴.

그 책은 얇고 아득한 재첩국처럼 삶과 소리가 주인 없이 맑게 섞여 있다. 그 책에 '물은 흘러서 바람과 같다.'라는 구절이 있어. 그 문장을 읽을 때 나는 내 몸이 흠어드는 느낌을 받았었지.

너는 책을 읽고 있지만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언젠가 너는 네가 절제하고 잘라내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언어로 쏟아놓고 싶어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려면 내 생각에, 최소한 작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은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구나.

그리고 방학동안 도서실 주인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

나는 방학동안 주로 여행기들을 찾아서 읽고 있어. 그럴 때 가장 마음이 편하거든. 아마 어찌면 겨울쯤에는 갈라파고스에서 새똥을 치우고 있을지도 몰라. 다음 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도서실 컴퓨터 비번은 어떻게 알아냈지? 귀신인데. -

하긴 샤크에게 너무나 쉬운 비밀이었는데도 몰랐다. 비번은 '샤크'였다.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메일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편지는 내가 쓴 글이라고 착각할 만큼 정서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날,

나는 비로소 등에 짐처럼 매달고 있던 미련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 영선이에게 문자를 보내 만나지 않겠다는 짧은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한 줄의 문자를 쓸 수 있기까지 2년이 걸린 셈이었다. 영선이는 내가 다시 갖고 싶은 과거였지만 나는 사랑의 추억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지 영선이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었다. 영선이가 과거에 속해 있지 않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을 받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를 잡아 먹고 있던 것은 바로 과거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선이에게 반지를 선물한 적이 없었음에 안도했다.

3일 후 샤크에게서 두 번째 긴 편지가 도착했다.

- 저는 요즘 앉아 있어도 즐기고 먹으면서도 즐기고 자면서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만 즐지 않으니 별 수 없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소쉬르는 언어를 랑그와 빠롤로 나누었는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통용되는 랑그와 달리 개인적인 빠롤을 이해하는 것이 독서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문체에 현혹되는 수상한 취미를 가지셨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은 산사의 '바둑두는 여자'였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버스를 타고 시내 서점까지 가서 '알렉산더의 연인' 까지 읽고 돌아왔습니다.

'아마존들은 죽음을 위해 싸운다. 죽음은 생명의 검은 빛이다. 나는 태양의 황금빛을 원했다. 나는 사랑한 모든 것의 불멸성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고 알레스트리아가 독백할 때 모든 것을 극과 극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표현한 글 솜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연인은 '사랑하는 것은 과거, 비밀들, 불가능한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장렬하게 외치고는 심벌즈

로 다사다난한 악기들에게 마침표를 찍듯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작스럽고도 조용하게 고통들이 벼랑으로 떨어졌음을 느끼고 저 역시 그렇게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진 마세요. 제가 지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또래 아이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신기한 것들을 접하는 친구에게 끌렸던 것도, 외딴 오두막집으로 정체 불명의 불안을 들고서 찾아가던 일도 모두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낙하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고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슬로프에서 솟구쳤다 빨려드는 보드처럼.

생각은 그렇게 풀처럼 제 안에서 스스로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일기를 쓰고 싶었던 책은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의 '바람의 그림자'입니다. 그 글은 읽을수록 동요가 짙어지고 어둡고 의문해서 남의 감정을 빌어서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독자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벽의 책 모지와 불안한 관계들, 등에서 뒤쫓는 시선들의 공포.

하지만 중간에 연애를 돼지 가공육에 비유하거나 정치를 목적과 결과로 나누는 재치 넘치는 대화는 즐거웠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했어요.

상처는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치유한다고. 상처가 상처를 알아보기 때문에 자꾸 스쳐지나가게 하면서 무디게 만들어야 한다고. 상처를 외면하다 보면 그 안에서 끓고 있는 다른 상처를 못 보기 때문이겠죠.

소설 속에 묘사된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나 이념 때문에 피를 주고 받으며 비틀거렸던 그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서로에게

아로 새겼을지.

참, 세상은, 혹은 역사는, 상처투성이네요. -

유치원 안내문구 같은 글씨체로 타이핑된 메일을 보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썼다.

- 오늘은 중중의 무덤가에서 흙냄새를 맡고 돌아왔다. 능 옆에는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천년의 돌무덤 옆에 환관들처럼 작고도 강렬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내가 중생대 사람이라면 너는 고생대 원주민 같구나.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생대 사람들임을 잊지 마. 네가 식당을 차린다면 신생대식 인테리어를 해야 한단 말이지.

나는 무덤가에서 4년간 매우 많은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네 말대로 누구한테라도 징징거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기만을 기다린 거지.

그런데 결국은 나 스스로 땅을 짚고 일어나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너는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잡아 주었다고나 할까.

넌 아마 결국에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네 상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닥치겠지만 또 너는 결국에는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투의 말, 네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따뜻한 연민이나 영혼 없는 위로가 아니라 나의 예언이다. 그리고 너 역시 나에게서 독특한 방식의 위로를 느꼈을 것이라고 확

신해.

거만한 네가 이렇게 꼬박꼬박 숙제를 해서 보내는 것을 보면 말이지. -

우리는 두 차례 더 편지를 주고받으며 여름을 보냈다. 개학은 밀린 고지서처럼 순식간에 다가왔다. 나는 조금은 더 노련한 교사가 되어 가는 중이었고 샤프도 가끔씩 도서관에 들러 새로운 책을 기웃거리며 잡담을 나누다가 늦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곤 했다.

그리고 10월이 시작될 즈음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현직 연수의 자리에서 만난 선생님의 소개로 열린 의사회에서 샤프의 수술을 추천하게 되었고 건강 상태를 보러 충남 대전병원 소속의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의사 둘이 다음 주에 학교를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의료봉사의 제목은 ‘천재 문학소녀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기’였다. 내가 보낸 서류에서 샤프가 독서광이며 문학에 소질이 많다고 언급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듯 했다. 열린 의사회 매거진에 이러한 봉사계획이 기사로 실렸고 의료진의 봉사활동 계획 공문과 더불어 잡지가 배달되었다.

이 일은 작은 시골 학교를 발각 뒤집어 놓았다. 즉시 전교직원 긴급회의가 열렸다. 교장 선생님은 교육청 소식지와 지역 신문에 이 미담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교무실에서 굳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입술이 마이크를 훑고 지나가지 않나 걱정스러울 정도로 마이크 가까이에 대고 큰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고막이 울려 터질 지경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아마 전국 신문에도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장 선생님은 의사들의 내방과 맞추어 전교생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려면 빗자루와 대걸레를 더 주문해야 하는데 학교 예산이 없다고 투덜대었다. 그러자 행정실장이 냉큼 일어나 추경예산에서 빗자루와 대걸레를 사면 되지만 그 이전에 담임선생님들이 교육 물품을 함부로 낭비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다. 교장 선생님은 다시 마이크를 빼앗아 입 속에 넣다시피 하며 이 기회에 학교 건물의 낡은 부분을 손보아서 기자들이 취재를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악 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업 장면이나 조회 장면도 취재할 것이 당연하므로 교가를 다시 가르쳐야겠으니 금요일 6교시에 전교생을 강당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보부장 선생님은 학교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려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나섰다.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은 의사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진로 시간에 강사로 초빙할 수도 있겠다고 관련 예산을 알아보러 행정실장 옆으로 다가갔다.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선생님은 외부 손님이 오는 것이니 간식도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학생부장 선생님은 두발 단속과 교복 정리에 대해 강조하고 담임선생님들이 매일 제대로 지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살은 다시 담임들에게로 돌아왔다. 연구부장 선생님은 이러한 사업을 조용히 추진해 온 나를 다음 학기 교육장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교무부장 선생님은 그날 단축 수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회의 담당 선생님은 학부모회의를 열어 이 일을 홍보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부장 선생님은 그날에 맞추어 방송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2학기 물로켓 발사 행사를 그 날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보진 선생님이 어이없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의료봉사와 로켓 발사가 무슨 상관이나는 것이었다. 이 의견은 찬반이 엇갈렸다. 활발한 교육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은 그럴싸하

게 들렸다. 하지만 보건선생님은 작년에 물로켓을 발사하다가 예상외로 로켓이 멀리 날아가 학교 담장 밑에 있던 염소들이 놀라 유산을 했는데 이번에도 지역주민의 항의를 받게 되면 꼴사나운 광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학교 기사 아저씨가 그 염소는 원래 다른 염소들에 비해 성격이 예민했는데 임신을 하게 만든 수컷 염소가 병약하여 그 전해에도 한 쪽 염통이 없는 염소를 낳게 했으며 염소가 이왕이면 학교 옆에 붙어서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 않냐고 반박했다. 화제가 염소로 넘어가자 교무부장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사태를 수습했다. 그렇게 ‘그날’에 대한 회의가 끝이 나려는데 교감 선생님이 나를 지목했다.

“박민수 선생님 덕분에 이인숙 학생이 새 삶을 얻게 되었네요.”

동시에 나는 얼떨떨해져서 엉거주춤 일어났다.

“아, 그런데 이인숙 학생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 때 학생부장 선생님이 벌떡 일어났다.

“교사로서 학생을 위해 헌신한 일인데 널리 알려야 할 미답이죠. 그리고 학생도 그런 선생님을 존경할 겁니다. 틀림없이.”

아. 이걸 뭔가 꼭짓점에서 한참 잘못 그어진 선분 같았다. 나 역시 샤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물로켓과 염소까지 생각하자니 머리가 아득해왔다. 나는 헌신한 적도 없었으며 존경을 원한 적도 없었다. 전교에 짝 퍼진 이 소문에 샤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만이 걱정이었다.

나의 불길한 예감대로 교실에 들어가자 샤크는 두 눈에 독기를 뿜으며 나를 노려보더니 눈물까지 글썽해지는 것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니

모두 앞에서 눈물을 보이진 않겠지, 하던 기대와 달리 샤프는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껴 울고 말았다.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나와 샤프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나 역시 두 손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바지에 진땀을 닦기만 했다. 그리고 문득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샤프가 교사 임용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의 나와 어쩐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서러움 속 어딘가에 기쁨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 샤프가 훌쩍이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자 나는 샤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음에 초조해졌다. 입양당하는 어린 아이는 고생스러워도 고향에 남고 싶어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어떤 마음이란 말인가. 나와 비밀처럼 나누었던 책에 관한 대화를 공개해 버린 데 해한 배신감, 고마움과 기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한없이 고독해지는 마음, 그러나 결코 혼자 있고 싶지는 않은 마음?

그것은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이 복잡하여 옆에서 쉽사리 말을 건넬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후로 샤프가 나를 그림자 처럼 대하고 도서관에 열선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건 샤프가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었고 나는 그저 그것에 이용되는 분노의 대리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요란하게 준비된 그 날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고 샤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의사를 향해 연신 허리를 굽힐 때 분위기는 그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나와 샤프의 어색함도 절정에 달했다.

그 날은 나의 쏘울 메이트, 굿바이의 날이었다.

수술 날짜는 각종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 해 2월로 결정되었고 나는 다음 해 2월에 전보 희망서를 쓴 서울이 아닌 수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게

우리의 끝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들이나 미묘한 위로들이 그 빛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학교를 떠나기 전에 샤크의 집에 들러 여동생에게 선물 하나를 맡겼다.

그것은 작은 18k 반지였다. 아무 무늬도 없이 그저 동그랗고 가는 반지였다. 나는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하숙집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싸서 트렁크에 담고 장기 여행을 끝내듯이 그 마을을 떠났다. 수원에서 5년을 근무하고 나는 학교를 그만 두었다. 그 무렵 내가 응모한 여행기가 유명 잡지사에서 당선이 되었기도 했지만 그 당시 나는 스타벅스적인 삶, 중심없이 흩어져서 지식을 판매하는 듯한 삶이 감당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형탈모가 생겼고 그 치료 불가능해 보이는 동그라미가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기 전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을 만큼 강해져 있기도 했다. 내 스스로 인생을 결정했다는 자부심으로 여행 작가로 데뷔를 했고 내가 처음 펴낸 '바르셀로나에서 첫사랑 찾기'라는 책은 제법 인기를 끌었다. 그 덕분에 도봉구에 작은 오피스텔을 친구와 같이 얻을 수 있었고 다음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 그 사이 간간이 샤크를 떠올리기는 했지만 나는 새로 시작한 나의 인생에 몰두했고 가끔씩 막연히 그녀의 행운을 빌기도 했다.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12시간 내내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샤크가 작가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의 주소를 알아내었다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었다. 그러한 서사적 사건보다는 나는 그저 샤키가 어서 보고 싶을 따름이었다.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제자가 아니라 작가로서의 그녀가.

초대받은 한남동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행사의 마지막 부분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린 남학생이 일어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작가님께서 쓰신 구절 중에 내가 원했던 것은 외로움뿐이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외로움을 통해 얻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객석 옆의 벽에 기대어 섰다.

멀리서 모자를 쓴 작가가 마이크를 들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은 사회에 길들여지는 동시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외로움은 나의 신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모습을 찾게 해주었지요. 나를 통째로 내 안에서 꺼내어 바깥에 세워놓은 후에 찬찬히 훑어 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에서 희망을 얻는다고 하지만 절망을 가르쳐주는 관계가 더 많지요. 물론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준 관계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비로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왼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2층에서 조종하던 룡편은 천천히 나를 향해 움직였다. 이제 그 좁은 카페에서 불빛을 받고 있는 것은 샤키와 나뿐이었다.

갑자기 질문을 한 남학생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박수는 전염병처럼 번져서 그 자리에 모인 오십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졸지에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푸른 LA모자가 아닌 블루진의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는 멋내기용의 모자는 소녀풍의 린넨 원피스와 너무나 잘 어울렸다. 옅은 화장을 한 그녀에게는 오른쪽 눈과 볼이 꽃처럼 피어나 있었다. 양쪽 얼굴이 비대칭이라 웃는 것인지 조롱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비로소 ‘얼굴’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그 영리해 보이는 눈동자는 그때 그대로 새카맣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오른 쪽 손을 들어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고는 가만히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깨뼈가 가늘었고 새처럼 가볍게 나에게 무게중심을 옮겨왔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속삭였다.

“북 콘서트 맞아? 삼류 영화 촬영소 같잖아.”

내가 그녀를 안았던 팔을 풀자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다.

“궁금하시죠? 이 분. 좀 멍해 보이기는 하지만 투견장으로 향하는 개처럼 늠름해 보이는 이 분이 저에게 싸움을 걸어주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바위가 놓여 있거든 먼저 시비를 걸어 보세요. 싸워야 그 길을 통과합니다. 피하면 영원히 그 길을 갈 수 없지요. 제가 쓴 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직 안 읽어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자 웃음이 터졌다. 나는 나를 향한 멘트라고 생각하고는 머쓱해졌다.

“아무도 잠들지 마라, 는 늘 외로움을 향해 투쟁하고 또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라고 부채질하는 선동적인 책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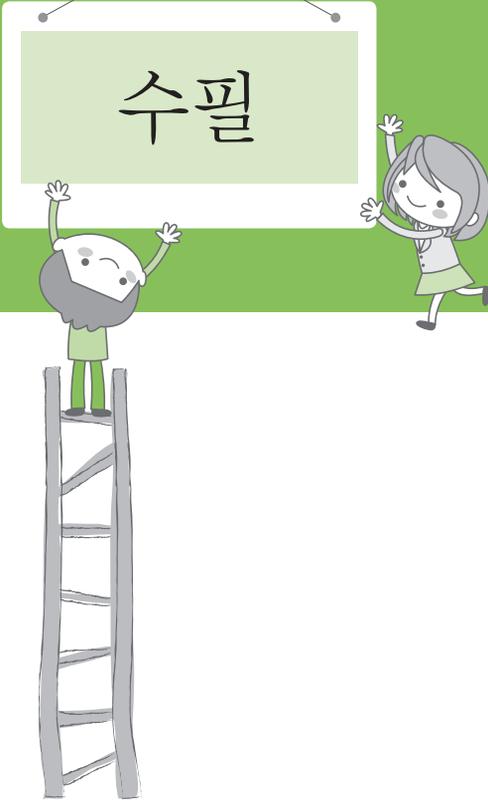
그 순간 나는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를 보았다.

바로 십년 전 여동생에게 맡겼던 그 동그란 반지. 그리고 반지보다 더 빛을 발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하고도 조용한 열정이 달빛처럼 친근하고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 인생을 결정짓는 일은 수년간의 심사숙고와 결정의 번복이 아니라 한순간의 미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마이크를 넘겨받고는 격려사를 했다.

“저는 반신욕을 할 때 옆에 두기 좋은 여행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땀방울 뒤범벅이 되어도 좋을 그 책에는 세상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길은 유연히 시작하지만 운명처럼 끝을 맺지요. 저는 모든 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출구로 향하는 길이 늘 있음을 알게 해 준 이 작가의 영혼도 사랑합니다.”

북 콘서트는 그렇게 끝났고 우리는 관객을 내 보낸 카페에서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커피 잔에 동동 띄워가며 카페 주인에게 장학퀴즈의 OST를 틀어 달라고 부탁했다.



심사평

수필부문 심사는 교원과 비교원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세 명의 심사위원이 1차로 해당부문의 작품을 주제성, 소재성, 체험성, 문장력으로 구분하여 교원은 10편, 비교원은 20편으로 선정한 다음 2차 심사로 등급을 매긴 후 토론을 통하여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였다.

수필부문 금상으로 선정한 「도꼬마리」는 직업적 체험성, 문학적 비유, 삶의 치열한 성찰에서 단연 돋보여서 심사위원들 전원이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도꼬마리」는 문예대전의 취지를 만족시키면서 인생론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점에서 금상으로 손색이 없다.

심사위원: 유혜자, 류인혜, 박양근

금상 ● 도꼬마리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박혜경

은상 ● 어머니의 전기장판

제천 의림여자중학교 안태영

몽당연필

전)전주초등학교 최근옥

경찰관이 사는 집

경남지방경찰청 이경식

동상 ● 새 가슴에 든 명은 오래도

간다

전)부산 개금고등학교 서미자

아버지의 유언

파주소방서 김기호

멈춤의 미학

전)국가정보원 강현택

다산초당에서

- 흔적과 상처의 메타포

강원도 태백시 남궁 증

작은 공유, 큰 기쁨

미래창조과학부 김수정

유년의 장소, 나의 유토피아

부산시 부산진구 노진숙

보이지 않던 삶의 모습들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전한별

입선 ● 안일함

포항이동중학교 손달호

아버지의 손

경상남도 변경록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박혜경



수상소감

달콤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자욱한 오후, 벌처럼 날아온 뜻밖의 수상소식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문여기인(文如其人)이라는 말이 있듯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글을 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웃기를 다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금상의 기쁨보다 이러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꼬마리처럼 한 해를 살더라도 열정적이고 성실한 공직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멀고 낯선 여행이지만 든직한 길동무가 있어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어갑니다.

전남과 대구경북의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꼬마리

또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진다. 빗쟁이처럼 모질게 달려드는 녀석의 대가리 통을 후려쳤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조심한다고 하는 데도 산책을 갔다 와서 보면 어김없이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도꼬마리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엔 살살 다독여보지만 몇 번 꺾고 나면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나도 모르게 냅다 후려치며 한 판 전쟁을 치르게 된다. 신발에 달라붙은 진흙은 물로 닦거나 씻으면 그만인데 도꼬마리는 더 모질고 독한 놈이다. 몇 번을 후려쳐도 꼼짝을 하지 않더니 바다에 꼬꾸라지면서도 바짓가랑이에 갈고리같이 생긴 가시를 박아 자신의 흔적을 남겨둔다.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일자리는 좀처럼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 비싼 등록금 마련한다고 고생한 가족들보기도 눈치 보여 아침이면 출근하는 여느 직장인들처럼 가방을 들쳐 메고 나왔다. 거친 내 인생만큼이나 쓰디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온종일 카페 구석에 틀어박혀 여기 저기 채용사이트를 기웃거린다. 매출이 적다고 사장님께 야단맞은 알바생에게 나의 존재는 바짓가랑이에 달라붙은 도꼬마리 씨앗처럼 귀찮았을 게다. 어수선한 다른 테이블은 제쳐두고 굳이 내 옆 테이블만 박박 문질러댄다. 혹여 화장실에 갔다 오면 알바생이 내 자리를 치워버릴까 몇 번을 참아야 했다. 춥고 배고프고 말 그대로 거지가 따로 없다. 눈치가 보이긴 해도 카페는 따뜻하고 인터넷도 되며 시원한 생수도 배불리 채울 있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물론 알바생의 눈총을 견딜 수 있는 뻔뻔함이 필요하지만, 어떻게든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도꼬마리 씨앗처럼 물고 늘어져야 한다.

매점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샌드위치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캠퍼스를 산책하다가 주차장 귀퉁이 양지바른 곳에서 아무진 새싹 하나를 발견했다. 머리에 이고 있는 씨앗껍질을 보니 모질고 독한 바로 그놈이 틀림없다. 어디에서 또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왔는지 아니면 털복숭이 고양이 등에 업혀 왔는지는 몰라도 한 녀석만 있는 걸 보면 홀로 멀고 긴 여행을 온 게 분명하다.

그리고 보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근처 야산에 등반을 갔다 오는 날에는 이곳에 차를 주차하고 신발과 바짓가랑이를 털었던 기억이 났다. 설마 그때 매달렸던 놈인가. 꼬마병정처럼 머리에 커다란 도꼬마리껍질을 이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다. 그래도 기세는 당당하다. 봄 햇살을 먹은 흙이 바위를 들어 올리듯 도꼬마리 새싹도 아무지고 당돌하게 일어서고 있었다. 빨리 봄비가 내려 충전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멀리 전라도에서 1차 서류심사에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대구에서 살아온 나에게 전라도는 정말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먼 나라이야기다. 직장이 집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려만 그렇게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졸업을 앞두고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전라도와 경기도는 물론 서울도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먼저 전라도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비록 지방임기제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임기동안에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며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직이라 욕심이 났다.

지방임기제 공무원은 지필고사나 시험을 쳐서 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공이나 경력 등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임용한다. 공고문에는 지역이나 연령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건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것 같았다. 심사위원들도 자기 학교나 지역의 선후배들을 뽑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검은 역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전라도 식당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주문하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60년대 배고픈 시절, 대구사람들은 보파리를 이고 전라도까지 비단을 팔러 많이들 다니셨다. 특히, 섬에는 비단이 귀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배를 타고 들어가서 비단을 팔고 그 돈으로 미역이나 젓갈을 사오셨다고 한다. 간혹 섬에 잘못 들어가면 원주민에게 붙잡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살벌한 말씀도 덧붙이셨다. 아마 옛날에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배가 뜰 수 없어 오랫동안 섬에 갇혀 있어야 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배가 크지도 않고 정기선이 있는 경우도 드물어 태풍이 오면 섬에 갇히는 경우도 더러 있었겠지만 사람을 잡아가둬놓는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 전라도에선 대구 사람을 놈이라고 부르지만 대구에서 나고 자란 우리 할머니는 항상 전라도 놈이라고 하셨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는 야심찬 꿈을 안고 전라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원서를 낸 터였다. 갑자기 얼마 전 바짓가랑이를 물어 늘어지던 그 녀석이 생각났다. 도꼬마리도 자기 고향을 떠나 낫설고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는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갈고리를 갈고 날을 세웠을 것이다. 그런 놈의 대가

리 통을 후려쳤으니 내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져 온다.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면접시험을 보러 갔다. 한 명을 임용하는데 면접 대기자가 무려 12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멀고 먼 전라도까지 뭘 얻겠다고 도꼬마리 12개가 날아왔을까. 진행자는 수험번호와 상관없이 제비뽑기를 해서 면접순서를 정한 후 수험생들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복사해서 나눠주었다. 본인들이 작성한 서류지만 무슨 내용으로 써냈는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행자는 미리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면접에 준비하라는 배려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력서의 주소 칸이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워진 채 복사되어 있었다. 동일한 서류가 면접위원에게도 제공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면접위원들은 내가 대구사람인지 서울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된다. 또한 졸업한 학교 이름도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지역과 학력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선입견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이런 경우를 처음 접한 나로서는 약간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정규 학교가 아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물공장을 다니며 학비를 모아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나에게 학력은 매번 콤플렉스가 되어왔다. 모질게 달라붙는 도꼬마리처럼 학력은 내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학교를 졸업한 후 내가 취업을 위해 제출한 이력서는 어림잡아 칠십 번이 넘는다. 그때마다 나의 초라한 학력은 불려나와 몰매를 맞았다. 어디에선 경력이 부족하다고 어디에선 여자라는 이유로 마치 바짓가랑이에 달라붙은 귀찮은 도꼬마리 씨앗처럼 내 대가리 통을 후려쳤다.

사람들은 도꼬마리도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도꼬마리는 무더운 여름날 달팽이 눈알만한 작은 꽃들을 노랑게 토해낸다. 다른 들꽃처

림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꽃인지도 모른 채 지나치게 된다. 도꼬마리가 황금빛 꽃을 피우기 위해 뜨거운 햇살을 어떻게 견뎠는지에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이력서를 내면 인사채용자들은 나를 너무 멀리서 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질고 거친 삶들이 단지 몇 개의 단어로 집약되어 버린 것에 대해 화도 나고 서럽기도 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열정을 보기에 그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멀리 있었다.

그런데 주소와 학력을 모두 지워버린 나의 이력서는 도꼬마리 껍질을 벗어던진 채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온 셈이다. 이 작은 사건 하나로 전라도에 대한 나의 묵은 편견은 깨끗하게 지워져버렸다.

12명의 도꼬마리는 적지 않은 수였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한 끝에 나는 그토록 꿈꿔왔던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물론 2년의 임기가 정해진 지방임기제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이라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있지만 근무여건도 다른 직장보다 깨끗하고 편하다. 무엇보다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빨리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따져 봐도 너무 험값에 행복을 산 기분이 든다.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전라도 놈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자식이 전라도의 녹을 먹고 세금 내는 공무원이라는 것에 내심 자랑스러운 듯 마을회관에 가시는 날도 잦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 가지 어려움이 생겨났다. 임기제공무원은 기존의 공무원 총 정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공채하다보니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당연히 임기도 정해져 있다. 죽어도 진골은 될 수 없는 6두품처럼 그들과 나 사이에는 커다란 유리벽이 놓여있었다. 누구는 내게 무늬만 공무

원, 시한부 공무원, 반쪽 공무원이라고도 불렸다. 또한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고 물고 늘어진다는 식으로 비꼬거나 시샘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임기제공무원은 스마트폰처럼 수시로 임기를 업데이트해서 목숨을 연명해야 한다. 척박한 길가에 뿌리를 쫓는 바람에 행인들 발길에 걷어차이고 밟히는 도꼬마리처럼 간혹 서운하고 속상한게 있어도 꿀꺽 삼켜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보통 2년 임기로 선발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상 5년은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매년 성과평가를 받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하고 끊임없이 성과물을 토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한 해살이 도꼬마리처럼 이듬해 봄을 기약하며 긴 시간동안 까칠까칠한 도꼬마리를 토해내야 한다. 인사기간이 다가오면 수능을 앞둔 수험생처럼 불안하고 괜히 서럽다.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관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인사는 변동의 여지가 생긴다. 말이 공무원이지 이럴 땐 어느 계약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햇살이 좋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뒷산을 올랐다. 산 중턱에 오르자 척박한 돌멩이 사이로 야물게 영글어가는 도꼬마리 씨앗이 보인다. 오랜 시간 바람과 서리를 먹으며 도꼬마리는 보파리를 야물게 동여매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뽀족한 갈고리로 보파리를 단단히 에워싼다.

내일이면 임기가 연장될 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마무리된다. 어느 집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매달려야 할지 부산하게 보파리를 동여매고 갈고리의 날을 세운다. 그리고 바짓가랑이가 보이면 갈고리를 와이어처럼 던져 단단히 물고 늘어질 것이다. 바람아, 세차게 불어라. 청운의 보파리를 품고 모질고 단단하게 어디 한 번 붙어 보자.



제천 의림여자중학교
안 태 영



수상소감

어머님 돌아가신 날(5.4), 수상 소식을 받았습니다.
졸작 시조로써 수상 소감을 대신합니다.

온몸에 전선(電線) 감고 봄날을 꿈꾸었다
산고로 하혈하는 저온의 세월 위를
아슬히 즐타기하는 겨울밤의 속울음

자식들 핏줄 속에 그리움 돌게 하고
뒤집힌 모래시계 가쁜 숨 쌓여가다
등피에 저승꽃 피고 온도계가 꺼졌다

가슴은 비워내고 보공(補空)만 키웠는가
버려진 무덤처럼 무성한 기다림은
'꺼짐'에 닳을 내려도 식을 줄을 모른다

어머님의 전기장판

요즘은 거의 대부분 침대에서 잠을 잔다. 침대의 폭신함과 안락함은 과학이 아니라 단잠이고 숙면이다. 아주 달게 곤히 자는 잠은 건강함과 장수와 직결되어 축복 받은 죽음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침대는 축복이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다. 침대는 내 몸으로 온기를 발산해야 한다. 그런데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자가 발열이 어렵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한다.

전기장판을 침대에 깔고 그 위에 얇은 담요를 덮으면 금방 따스해진다. 게다가 따스함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기가 부착돼 있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전기장판은 7단으로 돼 있다. 슬하에 3남 4녀, 7남매를 두신 어머님의 인생과 닮았다. 어머니는 항상 온도계를 3단에 놓기를 고집하셨다. 구십 세가 넘은 노인이어서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5단에 맞췄더니 너무 덥다며 3단으로 낮추었다. 여름철에 너무 더우면 살이 짓무를 것을 염려해서 며느리가 1단으로 낮추었더니 며느리 몰래 다시 3단으로 올려놓으셨다. 아들 삼형제를 둔 어머님의 무의식은 3에서 고정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유치하다는 걸, 염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으로 깨닫게 되었다. 오랫동안 누워계셨기 때문에 등피에 온통 등창이 나서 아무 느낌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다. 평소에 거의 오지도 않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던 자식

들도 그 모습엔 통곡을 했다. 자신들의 불효로 인한 불편함을 눈물로 씻어내려고 발버둥을 쳤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목욕을 씻겨 드린 적이 없다. 한번은 어머님께 내가 직접 목욕을 씻겨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혼자서 씻겠다고 하셨다. 자신의 속에서 나온 막내아들에게도 자신의 참담한 노추의 몸을 보이기 싫어하셨다. 그래서 결국 아내와 자원봉사자가 번갈아 가며 삼 일에 한 번씩 3년 10개월 동안 어머님을 씻겨드렸다. 원래 씻기 싫어하는데다가 서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목욕을 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었으리라. 게다가 고부간에 모두 강한 성격이었지만 결국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어머님은 비참한 심정으로 백기를 들었으니 며느리에게 씻길 때 참담한 심정이었으리라. 어머님은 알고 계셨다. 목욕하지 않는 날엔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술을 마실 수 없었으니까. 게다가 아들은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교감 한답시고 매일 밤 11시 30분에야 퇴근해서 잠깐 방에 들어와 다리나 몇 번 주물러주고는 사라져 버렸으니.

그래서 어머님은 며느리가 장시간 외출하거나 휴일에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이라도 가는 날엔 완전 국경일처럼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베란다 국기계양대에 태극기를 내걸고 해방의 기쁨을 안주 삼아 어머님의 술잔에 내 술잔을 느닷없이 탁! 부딪치며 술을 마시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술이 쏟아진다고 비명을 토했지만,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모처럼 어머님께 효도한다는 뿌듯한 심정이 되어 그 좋아하는 산책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평소에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 것이 고맙고 안쓰러

워 아내 몰래 아껴 모은 비상금을 털어서 자고 오는 동창회 모임에 아내가 참석하도록 지극정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그러나 한번은 2박 3일이나 되는 대박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며느리가 무슨 심보인지, 불참한다고 해서 나와 어머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아내 몰래 태극기를 반 쪽 내려서 깃대에 매달았는데 무신경한 아내는 왜 조기를 게양했는지 알지 못했다. 돌아가신 어머님과 나만 아는 모자간의 아름다운 약속이므로.

시골에 계실 때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선풍기를 안고 살다시피 했는데, 우리 집 아파트로 옮기고부터는 선풍기는 고사하고 일 년 내내 전기장판을 3단에 켜놓고 사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파트 생활한 지 일 년 만에 한평생 백약이 무효한 고질병이던 어머님의 해수천식이 완치되었다. 기침을 심하게 할 때마다 듣는 자식들은 귀를 막고 싶도록 가슴 아픈 고통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사라졌다. 땅기운도 오르지 못할 고층의 아파트인데 평생을 안고 살던 심한 기침병을 낫게 한 건 무엇일까.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며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손녀의 방을 드렸는데, 손녀의 고운 마음이 통한 것일까.

어머님은 하루 종일 혼자서 화투놀이를 하시면서 틈만 나면 문밖을 내다보셨다. 혹시나 막내아들이 오나, 행여나 며느리가 술을 주지나 않을까 해서 눈은 연신 거실 쪽으로 향해 있었다. 못난 아들은, 술 마시면 배설물이 몸에 많이 묻어 목욕시키기 어렵다는 며느리의 말만 믿고 술 한 잔 주는데도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았다. 어머님은, 무심한 며느리가 목욕시킬 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지만 시어머니를 더 억박지르며 세계 문질렀다고 소리 낮춰 말씀하셨다. 그 때마다 나는 피가 거꾸러 흐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모친께 말씀드리면서 며느리 쫓아내고 둘이서만 오순도

손 살자고 손가락까지 걸며 굳게 약속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회식하고 귀가한 막내아들이 술기운을 빌어 며느리에게 큰소리치는 말을 들었을 때 구십삼 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듯하다며 막내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흔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못난 아들이 며느리에게

“내가 어제 과음해서 잠시 미쳤었나 봐.”

라고 사죄하는 말을 듣고 강하게 키우지 못한 자신에 대해 가슴을 치며 자책하셨다.

아내가 어머니의 전기장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렸지만 나는 감추어 두었다가 그 해 초겨울 몰래 내 방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형의 유산이다. 어머니는 3단을 고집하셨지만 나는 1단에 놓아도 조금 더울 정도다. 어떤 때는 어머니 하관할 때 보공(補空)으로 넣어드릴 걸 그랬나, 후회하다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등피의 살이 짓무르고 온 몸에 저승꽃이 필 때까지 누워계시던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이 남아있는 젖가슴 같아서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아내는 항상 못마땅한 표정과 마음으로 호시탐탐 버리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내가 없는 틈을 타서 함부로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전기장판을 버리면 나를 버리는 것으로 간주해서 나는 혼자 살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아내도 나를 잘 알고 있다. 자취 경력 십팔 년에, 혼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아하는, 별난 성격의 소유자임을 삼십 년 살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창 바깥세상은 찬바람이 뽀뽀 부는 엄동설한이다. 새벽에 잠이 깨어 두꺼운 겉옷을 껴입고 아파트 베란다 의자에 앉아 앞산 솔숲을 내려다

본다. 강풍에 소나무들이 진저리를 치듯 온 몸을 떨고 있고 유리창은 피리소리 같은 기이한 비명을 질러댄다. 앙상한 아카시아나무가 심하게 요동치며 금방이라도 까치집을 털어버릴 것 같다. 손에 든 뜨거운 찻잔에 파문이 인다.

방에 들어와 어머니의 전기장판이 깔린, 따스한 침대에 누워 새들을 생각한다. 이 추운 겨울에 새들은 어떻게 견디며 살까. 다음 생에는 그리움이 없는 새가 되고 싶다가도 추운 겨울이 되면 그런 생각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다. 대신 고향 산속에 계신 부모님이 찾아와 바람처럼 유리창을 두드린다.

고향 시골집은 겨울이면 외풍이 세서 코가 시리지만 방바닥은 너무 뜨거워 담요를 깔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방바닥이 식어서 찬 기운이 살며시 감돌 때쯤이면 창밖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잠결에 들린다. 아버지께서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피는 소리다. 잠시 후에 방바닥은 다시 따스해지고 밀려가던 잠결도 다시 살며시 밀려온다.

내 삶의 등피를 따스하게 해주셨던 두 분은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를 7단계에 속하지 않는, ‘꺼짐’으로 맞춰놓고 어디로 돌아가신 걸까. 칠 남매 낳을 때마다 한 단씩 높아가는 삶의 고단함에서 이제 훌훌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그리움의 온도를 높이듯 온도조절기를 붙잡고 3단으로 높여놓았다. 10분도 채 못 되어 등피가 따뜻해졌다. 어머니가 쓰시던 전기장판은 낡았지만 핏줄을 타고 흐르는 그리움은 오히려 햇빛처럼 온 몸을 데운다.

찬바람 스산하게 부는 이 겨울 밤, 따스한 전기장판 위에서 모자간의 정을 안주 삼아 막걸리 잔 부딪치며 마시던, 나의 어머니가 그림다.



전전주초등학교
최근욱



수상소감

화창한 봄날, 내 이름을 불러주니 살맛이 난다. 어린 시절 꿈이 소설가였다. 이루지 못한 희망이다. 늦게나마 '공무원문예대전'에 이름을 올리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빈 교실을 굽어본다. 해님이 창문을 열고 징검장검 걸어가 교단에 서 본다. 휘돌아 보고는 아~ 교실이 조용하구나! 아이들이 흘린 연필의 오디세이아를 써 봤다. 교실 풍광도 있고, 아이들과 교섭했던 잔잔함도 있다. 오래된 해후도 있고, 가족사도 만난다.

몽당연필은 '나귀가죽' 부적처럼 생명의 소멸이 있다. 이를 인연으로 화해하고 싶었다. 한가하게 사는 일에 바빠 사는 한가론(閑暇論)이 있다.

출석수업 날, 방송대학 학우들을 만난다. 초콜릿을 사주고 싶다. 나를 휴대전화도 없는 새옹 같은 노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달콤한 초콜릿도 사주는 남자로 생각해다오.

당부하고 싶다. 추사(秋史)는 몽당붓을 일천 자루를 남겼다. 당신은 몇 자루의 몽당연필을 남길까, 숙제이다.

몽당연필

지난 가을이다. 강원도 지역을 가족여행하면서 어느 고찰에 들린 적이 있었다. 키 큰 소나무 사이에 ‘몽(夢) 당(當) 연(緣) 필(必)’이라고 쓴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자세히 보니 ‘꿈을 가져라(夢), 당당하게 노력하면(當), 인연이라는 것은(緣), 반드시 이루어진다(必)’ 이렇게 부연해 놓은 일종의 템플스테이의 슬로건이었다. 이두문자 표기처럼 한자를 음차하여 건강부회 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신선 감을 느꼈다. 나는 몽당연필을 데굴데굴 굴러봤다. 지난 날 어린이들과 함께했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내 어린 시절에 몽당연필은 절약정신의 미학이기도 했다. 연필이 없어 선생님이 불러주는 ‘받아쓰기’를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고, 도막연필을 붓깎지에 끼워서 글씨를 쓰기도 했었다. 연필심이 똑똑 잘도 부러졌다. 필통 속에 연필이 흔들리면 명이 든다고, 누님은 비단조각을 풀칠하여 골무를 만들어 필통에 맞게 끼워 주었다. 골무에 연필을 키순으로 가지런히 꽂았다. 책보를 등에 짚근 동여매고 달려도 연필이 찰랑거리지 않았다. 연필 표피에 에나멜 칠도 없는 맨살이었다. 나뭇결에 공이가 박혀 깎으면 무더기로 떨어져 나갔다. 글씨가 희미해 혀끝을 빼물고 연필심에 침을 묻혀 썼다.

어머니가 장날에 달걀을 팔아 연필을 사다 주었다. 나는 연필이 다 달

아서 쓸 수 없다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졌다. 어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면 서 용케도 그 몽당연필을 주워왔다. “아들아, 우리는 부자가 아니다. 연필을 이렇게 헤프게 쓰면 너 중학교에 못 간다.” 아껴 쓰라, 하였다. 나는 몽당연필 끝을 다듬어 사격장에서 주는 탄피에 꽂았다. 손에 쥐니 차갑고 둔탁했지만 글씨를 쓰니 잘 써졌다. 마침내 중학교 입학시험인 국가고사가 있었다. 여러 학교 수험생들이 큰 학교에 모여서 시험을 보았다. 물론 4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었다. 미국에서 수입한 신교육 시험방식이었다. 다른 문제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 님이’ 문제가 출제된 것만 딱히 기억된다.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로 갈등이 갔다.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지 헷갈렸다. 아뿔싸, 고심 끝에 그만 연필심이 똑 부러졌다. 바뀐 쓸 다른 연필이 없었다. 나는 난감했다. 필통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주어다 준 몽당연필이 텅굴고 있었다. 그 몽당연필로 마지막 문제까지 시험을 잘 보았다. 나중에 시험점수 발표를 보니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하였다. 그 덕분에 그 어려운 사범학교(병설)에 갈 수 있었다. 손에 몽당연필을 쥐면 주름진 어머니 얼굴이 그림다.

교사시절이었다. 저학년을 담임하였다. 청소를 할 때면 아이들이 힘이 부쳐 교사가 거들어주어야 했다. 책상을 앞뒤로 옮기고 비질을 했다. 으레 쓰레받기에 아이들이 흘린 몽당연필이 하나, 둘씩 올라왔다. 나는 그걸 주어서는 교사용 책상 위 연필통에 담았다. 새끼손가락만한 몽당연필들이다. 나는 연필을 돌려가면서 칼로 사각사각 깎았다. 향나무 냄새가 코로 스민다. 낙엽 타는 내음 같기도 하고 커피 향 같기도 하였다. 나는 그 몽당연필을 수학문제를 풀다 연필이 부러진 아이에게도 주었고, 연필이 없다고 손을 드는 아이에게도 다가가 주었다. 나는 모아 둔 몽당연

필에 색실을 꿰어 목걸이를 만들었다. 학년이 끝나고 아이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수업’이다. 나는 손수 만든 ‘몽당연필 목걸이’를 한 사람 한 사람 목에 걸어 주었다. 아이들이 좋아서 구슬처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앵두처럼 달랑거렸다. 1년 동안의 흔적이었다. 몽당연필에는 높은 꿈이 모아 있다고 했다. 그 생각들을 높은 산꼭대기에 세우라고 당부하였다. 어떤 때는 졸업하는 6학년 아이들 목에도 걸어 주었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서쪽 끝에 있는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가 있다. 우리 손녀가 그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 아이가 3학년 때이다. 우리 손녀가, 크리스마스 때 그 반 아이들에게 한국의 연필을 선물하고 싶다고 보챘다. 할아버지가 사서 보내 달라고 하였다. 나는 문방구에 나가 먼 나라에 보낼 연필을 골랐다. 옛날에는 한 다스가 12자루였는데 지금은 5자루, 6자루가 한 다스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연필 종류도 참 많았다. 연필 길이도 일정치가 않았다. 아예 몽당연필처럼 상품화된 것도 있었다. 나는 그 나라 아이들에게 한국 아이들은 좋은 연필을 쓰고 있구나! 자랑하고 싶어서 디자인도 튀는 것으로 뽑았다. 김홍도 ‘씨름’그림이 도안된 한지 노트와 같이 사서 보내주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녀는 그림을 잘 그린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 칠순 생일 선물로 내 캐리커처를 그려 보내왔다. 몽당연필로 그렸단다.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내 얼굴을 빼다 박았다고 했다. 그 그림 밑에다 “할아버지 제 딸이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써 놓았다. 나는 우리 손녀가 결혼 때까지 살아달라는 뜻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아니었다. ‘나의딸의딸의딸’이런 가족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해, 우리 손녀 나이가 10살이었다. 그 아이 어머니가 29살에 결혼 했으니 그 아이가 그의 어머니 나이에 결혼하고, 또 그 아이 딸이 그 나이에 결혼한다고 셈하니, 나는 120살 까지 살

고 있었다. 이 아이가 신사임당 같은 화가가 되었으면 하는, 할아버지 바람이다.

언젠가 오래된 제자로부터 뜬금없는 전화를 한통 받았다. ‘대야’ 초등학교에서 졸업시킨 제자였다. 그 아이는 윗니 아랫니가 가지런했고 백옥처럼 깨끗했다. 나는 아이들의 이 검사를 할 때면, 꼭 이 아이를 본 보기로 앞세웠다. 양손을 뒷짐 지고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분단마다 돌게 하였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서울 가는 편에, 그 제자를 만났다. 그 예쁜 아이도 나이를 먹어 스승이나 제자가 같이 늙어가고 있었다. 졸업할 때 내가 걸어준 ‘몽당연필 목걸이’를 추억했다. 내가 버스에 오르는데 그 제자가 “친구들과 식사 한 번 하세요” 촌지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나는 퇴직 친구 8명을 몰고 전주 오저리에 있는 ‘가마솥’ 맛집을 찾았다. 참나무 장작개비가 가지런히 쌓여있고 가마솥에 잉겔불이 타고 있었다. 그 집 민어탕이 일미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총각선생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를 50년 만에 만났다고 호기를 부렸다. 담백한 민어탕을 들면서 그 제자 전화번호를 기억해 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친구를 바꾸어 주었다. 친구가 나의 제자에게 실감 있게 ‘삼락(三樂)’을 말했다. “우리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두어서 자랑스럽다.”하였다. 마침 TV 화면에 ‘LA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투수가 14승 완봉승을 올리는 공을 던졌다. 그날따라 술맛이 좋다고 소주잔을 높이 부딪쳤다.

나는 한참 늦은 희수(喜壽)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수학하였다. 그 과정 속에 졸업논문 쓰기가 있다. 나는 문헌을 뒤지고 천착하여 논문 한편을 써냈다. 그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다. 그 논문을 학술제 때 강단

에 올라 발표 하였다. 나는 그 소감으로,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멀리서 올려봤던 8,848m 에베레스트 설산 위에 몽당연필을 올려놓은 것 같은 감동이라고 말했다. 마치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집어넣는 것처럼 과장된 말이지만,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소리가 마룻대를 들썩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김훈 작가는 꼭 연필로만 글을 쓴다. 그는 몽당연필로 ‘빛이 부서지고 태어난다.’ 이런 사유의 글을 쓴다. 내가 퇴임하고 교문을 걸어 나오는데 한 아이가 내 호주머니에 쪽지를 찢어주고는 뽕박질을 쳤다. 꼬깃꼬깃한 종이에 몽당연필로 “교장선생님 퇴직하셔도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세요. 우리들이 응원해 드릴게요.” 쓰여 있었다. 나는 이 말을 금언처럼 가슴에 지피며 살아간다.

나는 이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살아남은 한 치에 불과한 몽당연필이다. 강원도 산사에서 만났던, 노력하면 필히 인연이 된다는 ‘몽당연필’을 외워본다.





경남지방경찰청
이 경 식



수상소감

추억을 남기는 적절한 방법 중에 '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뿐이지, 시간을 내어 글을 쓰거나 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해 볼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연히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하다가 접하게 되어 참여하게 된 이번 문예대전은 제게 '진지한 글쓰기'를 시도해 본 최초의 기회가 최고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아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찰관이 사는 집

3년 전의 일이다. 갑작스럽게 발령을 받게 된 나는 거처를 마련할 시간이 촉박해 닿는 대로 근무지에 가까운 대학가에 원룸을 얻게 되었다. 나는 원래 잠자리나 사는 곳에 대해 크게 까다로운 성향이 아닌지라, 별이 잘 드는지, 수도가 잘나오는 지, 보일러의 성능이 괜찮은지 간단한 몇 가지의 사실만 확인하고 거처를 정하는 편이다. 처음 본 집이 벽면에 곰팡이가 핀 것을 벽지로 대충 막아놓은 것 같아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그냥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본 두 번째 집을 보곤 바로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2층 주택을 개조해서 (반)지하에 3칸, 1층에 5칸, 2층에 6칸의 방을 낸 이 집의 앞마당을 쓸고 있던 인심 좋아 보이는 60객의 집주인은 인근을 두리번거리던 나를 발견하고는 너스레를 떨며 집을 구하냐며 먼저 말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대학가의 원룸촌인데 행색이 대학생 같지 않아보여 혹여나 방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일말의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인의 제의에 걱정이 해소됨과 동시에 해가 드는 방향의 모서리에 위치한 이 집의 위치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집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는 등 마는 등 하다 나는 서둘러 이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

1층보다는 2층을 선호하는지라 2층 계단을 올라와서 안쪽으로 세 번째 정도 되는 곳을 지목하고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동시에 차에서 단

출한 짐을 꺼내와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집주인이 내 짐의 근무복을 보고는 내게 경찰관이었냐며 대학생이 아니었냐며 화색(?)이 도는 얼굴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대뜸 제안하기를 자신도 예전에 공직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반값다며 1층에 더 너른 방, 그곳으로 계약하면 월세 5만원을 깎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집주인이 제안한 1층의 방은 2층에 비해 위치는 좋지 않았지만, 방이 넓고, 냉장고가 컸다. 그래서 내 마음 속으로는 2층의 방과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던 터인데, 주인 스스로가 방값을 깎아준다고 하니 더 이제는 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대학가 한켠의 이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은 본래 70-80년대에 계획적으로 단독주택지역이 조성된 곳이었다. 대학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최초로부터 원룸으로 설계되어 지어진 번듯한 건물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기껏해야 2층 주택을 개조한 뒤 칸칸이 나누어 '원룸식'으로 세를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아무래도 따로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방문과 밖이 바로만나는 구조이다 보니 보안상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내가 세를 얻은 이 집은 그 중에서도 약간 외곽에 위치해 내부시설이나 건물의 오래된 정도는 인근보다 낫지만 보안상의 불리함이 더해져 공실이 제법 많은 편이었다. 나는 그런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입장이라 신경 쓰지 않지만, 젊은 여대생과 같은 부류가 살기에 꺼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런 이 주택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이사를 온 뒤 한 두달 뒤부터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언뜻 보기에든 옛되보이는 여대

생이 이 집의 2층으로 입주한 것이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개강에 임박한 시기라 이사가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한 두달 사이에 여대생들이 계속 이사 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누가 봐도 '보안상' 불리해 보이는 이 주택에 여대생들이 이사를 온다는 것은 집주인이 방값을 '가격파괴' 수준으로 깎아줬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었고, 나는 그것이 우리네 대학생들의 빈곤의 한면을 보는 것 같아 혼자 씁쓸해 하기도 했었더랬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이사 오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뒤에 이사 온 여대생은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한집(?)에 살지만 나와 6~7살 차이나는 여대생들과 친하게 지낼 것도 아니고, 나는 그들과 공통된 삶의 범주를 공유하는 대학생도 아니었다. 마주쳐도 모른척하며 지나가는 것이 예사고 지하의 공동세탁실에서 잠시 한 두 마디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먼저 쓰세요. 정도)이도 데면데면한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주말아침마다 숙취에 찌들려 이온음료나 생수 따위를 사 가는 내가 이상해 보일수도 있지만, 이상한(?)사람이 아니라고 크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그냥 모른 채하며 지내왔다. 그런데 그날은 계산을 마친 후 나가는 나를 향해 그녀가 "경찰관 아저씨, 맞죠?"라며 대뜸 한마디를 던졌다.

내 직업을 어떻게 아는지가 궁금한 것이 먼저일테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고 내게 '아저씨'라는 막말을 한 그녀를 쏘아보려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오빠'라고 칭할 수는 없으니 그런 것이겠지 하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하지만 '저기요'라는 좋은 단어가 있지 않은가...) 그녀가 내 직업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 졌다.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법 놀라웠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집 저

집을 보러 다녔는데, 우리 집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시설에 비해 방세도 저렴하고 인근이 조용한 등 이점도 물론 작용했지만, 외지에 있어 안전에 취약하지 않을까 망설일 때 은근 집주인이 입구 방에 경찰관이 산다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안심이 되어 방을 계약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배시시 웃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은근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의 말을 100%신뢰 할 수는 없지만, 집주인의 행태를 미루어 짐작 건데 이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예들 들어 최초에 집주인의 제의에 바꾸게 된 내 방의 위치가 1층과 2층의 모든 통로와 연결되는 정 가운데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추가로 지하세탁실에 공용세탁기를 돌리고 때를 맞춰 널지못하면, 다음에 쓰고자 하는 사람은 옆의 세탁통에 세탁물을 꺼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유독 근무복을 세탁한 뒤 내가 잇고 빼지 않으면, 보통은 세탁통으로만 옮겨놓던 집주인이 근무복을 척척 털어서 지하세탁실 가운데 빨래걸이에 잘 보이게 널어놓곤 했던 것이다.

집주인은 “이곳에 경찰관이 산다”라는 말만 했을 뿐 “경찰관이 있어 이 집이 안전하다”라거나 “경찰관이 이 집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집주인은 잘못을 한 것이 없었다. 그로 인해 안전하다고 느껴 이 집에 살기로 한 것은 순전히 계약하기로 한 여대생들 스스로의 책임으로 귀속될 문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경우는 조금 달랐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입주민들이 내가 경찰관인 것을 몰랐던 경우와 알게 된 경우는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만약 야심한 밤에 옆방의 여대생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다고 해보자 “까악”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옆방

의 상황은 종잡을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상대방이 내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대생은 뭔가 그래도 경찰관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근무 중에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경찰관이 분명하지만, 퇴근하고 나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일 뿐이다. 권총이나 테이저건과 같은 경찰장구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수갑이나 삼단봉을 지니고 있지도 않아 범죄자를 제압 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체력이 조금 낫다 할 정도는 되지만, 흥기를 든 강도와 맨손으로 대적한다거나, 덩치 큰 괴한과 상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지도 모른다.

솔직히 이사를 갈까 하고도 생각 해봤지만, 희박한 확률에 너무 마음을 사로잡혀 스스로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져 이는 관두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이후로 상당히 분주해졌다. 혹시나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내방에 야구방망이를 구비해두는 한편, 이따금씩은 밤에 운동을 빙자하여 집 주변을 돌며 순찰(?)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 한 번씩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집주인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으면, 요새 젊은 여성들이 집에 많이 이사 오던데 방법창은 튼튼한지, 방문은 특수키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넌지시 묻기도 하여 이를 정비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 좁도둑이라도 막을 방편으로, 지하 세탁실 잘 보이는 곳에 근무복을 자주 걸어놓기도 했다.

그 집에서 2년을 사는 동안 다행스럽게도 단 한 번의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입주민들에게 전혀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내 스스로는

열심히 우리 집을 수호했다고 여기고 있다. 집주인과 나는 암묵적으로 우리 집을 지키는 침병이 되어 다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일체 침해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집을 지켜왔다.

물론 집주인도 나의 의도를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건지는 알수 없지만 내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다. 내방의 냉장고가 시원찮다는 한마디에 바로 다음날 새 냉장고를 척척 바꿔준다던지, 지하 공동세탁실에 세탁기의 대수가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에 각 층마다 세탁기를 비치 해준다던지 하는 그런 일들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발령이 난 나를 위해 선뜻 방을 빼주는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그 후로 나는 2년여를 타지에서 근무한 뒤 다시 이 도시로 오게 되었고, 지금은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가끔씩 그 집을 지나치곤 한다. 예전에 살던 집이라 반가운 마음에 그곳을 자세히 살핀다던지 집주인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 안부를 묻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떨찌감치 떨어져서 속 둘러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도 그곳에서 지낸 2년간을 돌이켜 보면 그날들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인근의 방에서 비명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들려 긴장한 적도 몇 번 있었고(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진짜 뛰쳐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한 적도 한두 번 있었다. 거기에 거주하던 여성들은 나와 집주인의 노력(?)을 알 턱이 없을 테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현재 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원룸 생활을 언

제 다시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시절 알 듯 말듯 한 부담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한번씩은 내 집을 내가 지킨다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었던 그 때가 그립다. 그 것은 아무 이유없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이 내게 준 힘이 원동력이 된 건 아니었을까? 나는 아마도 천상 경찰관이 맞는가 보다.





전)부산 개금고등학교
서미자



수상소감

수상 소식을 접하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한번도 '엄마'라고는 불러 보지 못 했던 어머니. 살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 본 적도, 껴안아 본 적도 없었다. 돌아가셨을 땐 슬펐지만 고명딸의 절절한 눈물은 아니었다.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삶의 힘든 고비 때나 소소한 즐거움이 있을 땐 습관적으로 어머니를 찾았다. 그러나 유년시절의 꿈꿨던 기억들이 앙금으로 가라앉아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져 있는 걸 늘 느꼈다.

이젠 이 글을 씀으로 해서 스스로 유년 시절의 나와 화해하길 바란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새 가슴에 든 멍은 오래도 간다

역장이 무너져 더 무너질 역장이 없을 정도로 연일, 부모라는 이름의 어른에 의해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몇 년 전, 자기 집에서 이불에 싸인 채 납치된 나주 꼬마가 생각났다. 그 사건을 대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쏟아 부어도 시원찮을 더러운 기분에 생채기를 덧입히는 기사를 봤었던 기억이 난다. 자신이 당한 일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이불을 놓칠세라 그 여자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이불을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 기사 한 줄에 나는 갑자기 대못을 뺀 것처럼 숨이 턱 막혔었다. 어떤 엄마가, 아무리 이상한 엄마라도 진정 엄마라면 그런 엄청난 일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깟 이불을 잃어버렸다고 혼을 내겠는가? 그럴 정도로 사건의 본질에 눈을 뜨기엔 그 아이는 너무 어렸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라는 이 말을 보고, 유아 시절부터 이유 없이 혼나는 것은 정말 어린 영혼을 혼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어린 시절의 어떤 사건이 떠올랐다.

나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친모한테 많이 혼났고 이유도 모른 채 엄청 맞고 자랐다. 따라서 내 초등학교까지의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여 수십 년 동안 불안감에 시달렸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여자애였고 최약자였으므로 어머니는 나에게 집착했고 나는 치맛바람이 부는 대로 제대로 퍼지지도 않은 빨래가 되어 갔다. 부모님을 일찍 여윈 어머니는 층층시하에서 느끼는 압박과 갈등과 설움을 풀 수 있는 출구가 가장 약한 고리인 '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듯하다.

성인이 되어서는 그게 엄마의 성정이었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교육 방식이었다고 이해하려 애썼지만 당시에는 엄마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무조건 피해야 될 존재였고, 사랑이란 이름의 괴물을 키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엄마의 그러한 교육방식이 나의 인격과 살과 뼈를 형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갑자를 훌쩍 넘긴 이 시점에도 내 감정에 생긴 골과 구멍은 메우지를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날은 무슨 연유였는지 사촌과 서면 로터리에서 놀다가 우리 집으로 가려고 차도로 나왔다. 우리는 로터리 횡단 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당시는 길 건너편이 부산진 경찰서였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건너편만 보고 서 있던 나와 조금 떨어져 있던 어느 아주머니가 나를 보면서 '어어어' 했던 것 같다. 그와 동시에 나는 뭔가에 부딪쳐서 넘어졌고 사람들이 애가 차에 치었다면서 우하니 몰려들었다.

나는 그때 건너편 경찰서를 보면서 제복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 무조건 무서워했던 예닐곱 살 때를 떠올리고 있었다. '생각'이란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광야에 말 달리는 초인'과 같아서 찰나의 순간에도 '바위 겁'이나 '겨자 겁' 같이 많은 생각을 엮어 갈 수가 있다.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일곱 살 때 할머니와 기차

타고 어딜 다녀왔는데 내 표를 끊지 않고 타는 바람에 제복 입은 역무원과 실랑이하던 장면, 돈이 있는데도 없다고 버티던 할머니, 나도 공범자로서 돈이 정말 없다는 뜻으로 지었던 미소, 그 제복 입은 사람이 끝까지 잡으러 올 것 같아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몇 번이고 돌아봤던 일들. 그래서 나는 내 사촌이 옆에 있다는 것도 잊고 내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은 채, 경찰서만 보고 있다가 택시에 부딪쳤던 모양이었다.

쓰러지면서 나의 ‘독립된 생각’은 제 자리를 찾았는지, 나는 내가 차에 부딪쳤다는 사실에 겁이 덜컥 나서 벌떡 일어섰다. 나는 세계 부딪친 게 아닌 모양이었다. 달려오던 택시가 횡단로 앞이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자동차는 그 관성의 힘을 미처 다 거두어들이기가 아쉬워 작은 제물이라도 얻어야했던가 싶다. 나는 차에 부딪쳤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아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눈앞이 캄캄해 왔다. 집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소리가 ‘차조심해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였으므로 나는 그 못을 던져내 버린 죄에 대한 응징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택시 기사도 놀래고 사람들도 웅성거리던 사이에서 나는 도망가려고 했다. 골반의 뼈와 살이 어찌 잘못되었는지 도망가기가 쉽지 않았는데도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하면서 길을 건너려 했다. 경찰서 앞인데도 그 날따라 경찰은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된다는 말에 나는 사촌과 억지로 그 택시에 태워졌다. 나는 하나도 아픈 줄을 몰랐다. 실제로는 아팠겠지만 나의 머릿속을 채운 건 내 부주의로 이런 사고가 났으니 이렇게 바보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나에게 쏟아질 비난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더듬하게 차 사고를 당했다 말인가?’ 눈은 어디다 뵈노? 뭐 쳐다본다고 차를 못 봤노?’

폭포수처럼 쏟아질 어머니의 꾸지람만 떠올라 나는 이 사고를 은폐하기로 작정했다.

택시는 애 둘을 싣고 동래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면에도 병원이 천지?였는데 어떤 생각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기사는 두 말도 않고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차에 실려지자 말자 징징대면서 내려 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하나도 안 아파예. 병원에 안 가도 되예. 내려주이쇼.”하면서 마치 유괴되는 소녀가 범인한테 애원하는 말투로 매달렸다.

처음에는 그 기사와 나하고 동갑내기인 사촌까지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했지만 워낙 내가 멀쩡함을 과장하면서 금방 달리기라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우리 둘을 내려 주었다. 그런데 그 곳은 서면에서도 몇 정거장을 가야 하는 양정 어느 지점이었다.

차에서 일단 내리니까 나는 살 것 같았다. 그건 내가 병원에 실려 갔다 하면 어른들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그 난리법석의 중심에 내가 부주의한 말썽장으로 도장이 찍혀서 온갖 꾸지람과 오만때만 잔소리를 들으면서 식구들의 시선을 받으면, 그만 벽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제법 먼 길을 겨우, 그러나 멀쩡한 척 하면서 집으로 왔다. 나는 내 사촌한테 당부했다.

“집에 가면 어른들한테 내가 교통사고 난 거 말하지 마레이. 어른들 걱정하시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응, 알았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곧 죽어도 ‘내가 부주의했다고 꾸지람 들을까 싶어

서'라고는 말하기 싫어서 괜히 철이 난 척 '어른들 걱정 안 끼칠라고' 하는 식으로 둘러대었던 것이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 그날 저녁답에 할머니가 “차에 받쳤다면 서?” 하셨지만 내가 워낙 멀쩡한 척하니까 많이 걱정하시는 눈치가 아니어서 나는 안심을 했다. 매질과 잔소리의 대가인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 별로 기억에 남은 게 없는 걸 보니 내가 지레 겁을 먹은 만치 큰 꾸지람도 없었던 듯하다.

밤이 되니 온갖 삭신이 다 쭈셨다. 그때는 방에 앉는데도 입이 딱 벌어지면서 비명 소리가 절로 내려는 걸 꿀꺽 삼키려고 애를 썼다. 교통사고 치곤 참 싱겁게 끝난 사고였는데도, 우리 경상도말로 그야말로 ‘시부지기’ 받쳤는데도 그 후유증이 제법 며칠을 갔다. 끈을 놓아 준 무생물체의 일방적인 편치는 너무 도도해서 내 연한 뼈와 살이 그 도도함을 완전히 튕겨내지도, 그렇다고 온전히 흡수하지도 못 한 상태로 나는 식구들 몰래 끄끙거리야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운전수는 운수대통이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했지만 자칫하면 뺨소니로 몰릴 뻔할 수도 있었고, 경미하지만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다가 병원비 등등 골치 아픈 일이 많았을 테니까 말이다. 태생적으로 약지도 못했지만 평소에 어머니의 매질과 잔소리로 늘 주눅 들어 구석만 찾고 싶었던.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나 같은 애를 치었던 게 그 사람의 작은 행운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또 시절이 지금처럼 수상하다 못해 흥흥한 게 아니라 순진한 시절이었다.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되던 때였으므로 자해 공갈단도 흔하지 않았고 조금 다쳤다고 몇 달씩 입원해서 보험금 타내던 시절도 아니었던 것도 그 운전수한테는 다행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불’을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걸 꼭 쥐고 있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뱃속에서부터 목올대까지 치미는 울음을 삼켜야 했다.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닌 교통사고를, 혼날까봐 은폐하려 했던 나의 어린 시절이 오우버 랩되었다. 물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은 이렇게 아이들의 어린 새 가슴에 뭔지도 모르는 멍을 들게 하고 주눅 들게 하여 평생을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한다. 나처럼 계단 밑의 삼각 공간을 보면 벽을 세우고 싶어 하고 박공이 있는 지붕을 보면 또 하나의 고치를 만들고 싶어 할 지도 모른다. 또한 자칫 본질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아빠 미안해. 집에 아무리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 아이가 아빠한테 안겨 울먹이며 한 말이다.

‘뭐가 미안한 거지? 어른들이 미안해. 세상이 미안해.’

우린 그 아이에게 정말 절절한 이 한 마디를 해주어야만 한다. 그건 절대로, 결단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또한 그깟 이불은 정말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파주소방서
김기호



수상소감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봄이 그러했듯이 여전히 산과 들엔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져 저마다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가볍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가로수 나뭇잎을 잔잔히 흔들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반가운 듯 손짓을 합니다. 이래서 계절의 여왕은 5월인가 봅니다. 젊은 시절 아름답고 예쁜 꽃들에 눈길만 가더니만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다움 뒤에 가려진 작은 들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농촌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아버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꽃과 닮아서 아버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심사위원님들에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전달되어 부족한 글을 뽑아 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유언

2014년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발견되어 안동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 머리를 수술 하셨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도 아직 안도하긴 일렀다. 큰 수술이었기에 아버지는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보름쯤 지나고 나서야 힘겹게 눈을 뜨셨다. 하지만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속은 타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요양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고향을 떠나 자식들이 있는 서울의 어느 요양 병원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바람일 뿐이었다. 어떤 날은 눈빛으로 나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전혀 기억이 없으신 듯 했다. 혹시나 해서 병원 선생님께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 인지가 없다며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했다. 그렇게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아버지는 봄이 온 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누워만 계셨다. “아부지 봄이요, 봄! 나가서 일하셔야죠.”라고 말을 건넸다. 아버지는 말없이 물끄러미 창밖만 바로보고 계셨다.

자라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기에 말없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

라고는 말일 논일하느라 했던 말이 전부였다. 한창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잔소리 한번 안 듣고 살아서 좋기도 했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버지가 육남매 중에 막내인 나에게 아무 관심 없으신가보다 하고 원망해 본 적이 더 많았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야 했을 때도 충고라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가만히 계셨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 괜히 엄마에게 “아버지는 뭐라 하셔?” 하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심한 말뿐이었다.

그 시절 하루는 친구들과 읍내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막차를 놓쳐 집까지 걸어가야 했던 날이 있었다. 휴대전화가 없는 시절이어서 집으로 연락할 길도 없고 해가 저물어 질퍽같이 어둡고 스산한 산길을 혼자 걸어서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동네사람들 말로는 예전엔 이곳에 늑대도 많이 살았다는데, 등짝이 서늘해지며 머리가 쭈뼛 서는데 먼발치서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 여기 웬 일이세요?”

“이제, 오냐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왔다.”

“그래요? 멀리도 오셨네요.”

아버지의 느릿느릿한 걸음을 따라서 말없이 타박타박 집을 향해 걸었다.

결혼한 이후 1년에 서너 번씩 아이를 데리고 먼 시간을 달려 고향에 내려 갈 때면, 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삽과 곡괭이부터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밀린 일을 시켰다.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께 농사 좀 그만 지으시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 되면 아버지는 새벽부터 바빠지셨다. 아버지는 오이와 고추 상추를 마대자루에 가득 담아 오셨다. 나는 서울에 가면 더 싸고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이제 편히 좀 사시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꾸 없이 차 트렁크가 차도록 채워주실 뿐이었다.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성치 않은 다리를 이끌고 오셨다. 살날이 머지않은 아버지를 뵙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셨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곁에 앉으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건네셨다.

“허이 허이 허이 여보소, 녀 달 며칠을 물 한 모금 못 잡숫고 어찌 사노, 어찌 살아. 내 왔니더, 어데 말씀함 해보소. 이제 가면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어디 말 한마디라도 좀 해 보소.”

어머니의 설움 가득한 목소리에 나도 어느새 숙연해졌다. 그 순간 이었다. 아버지 눈이 붉게 충혈 되면서 눈가에 이슬처럼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병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확인했다. 아버지의 심장박동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알아보시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려는 듯 입을 움직이려고 무한히 애를 쓰셨다. 한 맺힌 어머니의 절규와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파왔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보소 야들 아버지 내 왔니더. 이제 보면 저승에서나 볼 텐데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소.”

“험한 고생 다하고 편하게나 가지지, 혼자가지 말고 나도 좀 데려 가세

이, 혼자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려 가세이.”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아버지는 더더욱 안간힘을 쓰셨지만 끝내 한마디 말조차 하질 못하셨다.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고 계시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한참을 보시던 아버지,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는 얼굴을 돌리시고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또 훔치셨다.

“엄마, 아버지 쉬시게 그만 감시다. 자꾸 이러시면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를 뒤로하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어머니는 그렇게 말없이 눈물만 훔치고 계셨다.

다음날 형한테서 전화가 왔다. “형 무슨 일 있어? 혹시 아버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일은 무슨, 그냥 아버지가 오늘 좀 좋지 않으시네. 시간되면 한번 와보라고.” 형의 목소리가 많이 잠겨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근무도 있고 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터라 다음 날 들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근무 중에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형의 전화였다.

“... 음.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4월 5일 한식날, 온천지의 산과 들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옷을 차려 입은 날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한마디 유언조차도 남기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편안히 먼 길을 가셨다. 떠나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영정 사진을 들고서 생전 아버지의 걸음처럼 한발 한발 터벅터벅 걸을 때였다. 문득 그날이 생각났다. 친구들과 놀다가 막차를 놓쳐 집까지 걸어가야 했던 날, 어두운 산길을 혼자 외롭게 걸어서 집으로 향하던 날 밤, 바람 쐬러 나오셨다며 먼 길을 마중 오신 아버지, 그저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무섭고 으스스한 그 길이 편안하

게 다가왔었지. 아버지란 그런 분이셨구나. 앞에 서 계시진 않으셨지만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셨고 말씀은 안하셨어도 몸으로 보여주신 그 많은 말씀들. 당시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자식들의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한없이 쏟아 내고 계셨다. 일제시대와 6.25, 가난과 보릿고개라는 인고의 세월을 걸어오면서도 아버지는 누구의 도움 없이 육남매를 훌륭하게 키워 내셨다. 아버지는 말없이 떠나셨지만 이제야 아버지란 높은 산의 울림을, 넓고 깊었던 사랑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전국가정보원
강헌택



수상소감

사춘기 시절 피천득의 수필을 읽으며 가슴이 설레인 적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고향에서 농사일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다보니 적막한 밤에는 골방에 엮드려 노트에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보내 온 지난 날 들을 회상하며 이제는 한 발 늦게 가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멈춤의 미학'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달고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필가 피천득처럼 심금을 울리는 글을 쓰고 싶었으나 재주가 한계가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속에서 주변을 돌아 볼 여유조차 없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주변의 소소한 것도 돌아보고 이웃들도 생각하면서 살맛나는 세상이 되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이번 입선을 계기로 더욱 용기를 내어 남은 인생동안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작은 다짐도 밝혀 둡니다.

멈춤의 미학

얼마 전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서지오라는 여가수를 알게 되었다. 어느 프로에 서지오 가수가 게스트로 참석했는데 진행자 말이 참 재미있었다. 진행자는 서지오 가수를 부르게 된 것은 이름이 좋아서였다고 밝히면서 가지오가 아니고 서지오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줄 것 같다고 그 가수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가수도 보통은 아니었다. 바른정(正)자를 설명하면서 어떤 일을 바르게 하려면 하던 일을 멈추고(止) 한번(一) 더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바른 정자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서는 무척 인상 깊게 들렸다.

우리에게 멈춤(止)이라는 단어는 대개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무한경쟁 시대에 멈춘다는 것은 곧 낙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줄곧 참을 인(忍)을 가슴에 새기고 힘들더라도 쉬거나 멈추어서는 안 되고 앞만 보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여겨왔다. 지금도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책상머리에 참을 인자를 붙여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왔다. 이런 결과로 일부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도 소문이 나았다.

그러다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자 얼마 전부터는 지난 과거에 대해 성찰도 많이 하게 되고, 슬로우시티(slow city)나 ‘멈춤의 미학’이니 하는 단어들도 회자되고 생활방식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요즘은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호젓한 곳에 올레길이니 둘레길이니 하는 길들이 잘 닦여져 있다. 그 길을 걸으며 이름 모를 풀꽃을 보고 산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을 것이다.

내려갈 때 보았네/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의 畵文인데, 젊어서 세상살이에 바빠서 보지 못한 것들이 나이 들면서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관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시인은 못 보았던 꽃을 찾고 한동안 기쁨에 겨웠을지도 모르겠다.

일찍이 중국 수나라 학자 왕통은 ‘삶에는 나아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다’면서 지학(止學), 말 그대로 멈춤의 학문이라는 것을 역설 하였다고 한다. 잠시 멈추는 것을 시간낭비로 여겨서는 안 되며, 잠시 멈추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더 빨리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일중독에 걸려서 일하지 않으면 마치 남에게 뒤쳐질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왔고 자신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주변을 둘러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왔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불안과 초조함에 싸여 몸과 마음은 병들어 왔던 것이다.

최근 멈춤의 미학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활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려는 돌파구로 이해될 수 있다. 멈춤은 일찍이 종교에서 수행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았나 싶다.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두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방향 감각을 찾으라고 주문하고 있으며,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명상을 중요한 수행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명상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마음속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마냥 달리기만 하면 기름이 떨어지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강제로 멈춰서게 되지만, 잠깐 멈추어 기름도 넣고 고장은 없는지 점검한 후 달리면 오래 갈 수 있듯이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잠깐 멈추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몇 년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급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안현수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부상으로 탈락하자 우리 국민들은 안 선수의 능력이나 잠재력은 간과하고 그 선수를 사실상 내팽개쳤다. 반면 러시아는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안 선수를 과감히 자국으로 귀화시켰으며, 안 선수는 그 기대에 부응했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길게 보고 안 선수의 천재성을 인정하여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면 안 선수가 굳이 말도 통하지 않는 러시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느라 얼마나 많은 인재를 잃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리다가도 잠시 멈춰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는지 살펴본다고 한다. 아마도 그들은 몸과 마음의 일치를 실현

하기 위한 멈춤의 미학이라는 DNA를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골프를 배우다보면 코치들이 천고마비(천천히 고개숙이고 마음을 비우고)주문을 외우며 샷을 하라고 강조한다. 통상 초보자들이 급한 마음에 샷을 빨리 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스윙 탑 위치에서 멈추었다가 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칠지(止)자는 꼭대기(上)에 올라 갔을 때엔 한번(1)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하라는 글자라고 한다. 욕심을 갖지 말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분수를 모르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힘들게 쌓아온 명예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지탄을 받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잠시 멈춘다는 것, 그리고 분수를 알고 그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멈추어야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책상 앞에 참을 인(忍)자 대신 멈춤을 안다'는 뜻의 '지지(知止)'를 붙여놓도록 지도하는 것이 현명한 교육방법이 아닐까 싶다.



강원도 태백시
남궁 증



수상소감

세월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보는 시각도, 생각하는 사고도 자꾸 황폐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쓰는 글도 신선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기만 합니다. 그런 拙稿를 選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삶을 살라는 채찍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산초당에서 - 흔적과 상처의 메타포

내가 다산 초당을 다시 찾은 건 올봄의 일이다.

초당으로 오르는 길엔 산수유며 매화꽃이 가는 겨울을 아쉬워한다. 물러설 것 같지 않던 겨울의 흔적만 남은자리, 어느새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고 밟히는 풀의 자국마다 새싹의 기운이 가득하다.

최근엔 크고 요란한 곳 보다 마음의 숨은 꺼풀을 살짝 드러낼 수 있는 호젓하고 작은 공간 찾기를 즐겨했다. 어느 작은 산사, 등산길의 한적한 공원, 혹은 산골짜기의 작은 유배지가 최근 나들이 길의 다였다. 불혹을 훌쩍 넘겨 번잡함 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더 좋은 까닭이고, 다산 초당을 찾은 건 그런 연유일 것이다.

다산초당은 강진만을 한눈에 굽어보는 전남 강진군 만덕산 기슭에 자리해있다. 다산은 강진 유배기간 중 10여년을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이곳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권에 달하는 조선조 후기 실학을 집대성 하였다.

유배 초기에는 강진읍 동문 밖 주막과 보은산방 등에서 지내다 1808년 봄,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겨 해배될 때까지 있었다. 지금은 차를 끓이던 약천, 연못가운 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 놓은 연지석가산, 시름을 달래던 곳에 세워진 천일각이라는 정자와, 다산이 직접 새겼다는 丁石바위가 남아 그때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그 흔적 앞에 선다. 흔적을 시간이 갖는 기억의 편린들이라고 한다면, 바위에 새겨진 丁石은 지난 시간을 증거 하는 애잔한 흔적의 목록은 아닐까한다.

가만히 세월을 가늠해본다. 200년의 흔적이 남긴 자리. 역사 속 그 흔적은 그 스스로 고요해서 아름답다. 다산은 수많은 저술과 함께 바위에 ‘丁石’ 두 글자를 흔적으로 남겨 그 고요를 면벽하지 않았던가. 흔적을 남김으로써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이 丁石 비문이다.

다시 찾은 다산초당은 미망과 유혹의 그늘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목민(牧民)과 경세(經世)의 화두를 던져준다. 현세의 그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이 물질만능의 탁수로 변질되어 사람을 혼란케 하고 속박하는 상처로 남는 것이라면, 인내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나머지인 선인의 그것들은 우리를 포용하고 갈 길을 알려주는 흔적으로 남는다.

흔히 유배지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한 그것만의 흔적을 만난다.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만나고 때로는 우물처럼 웅숭깊은 사상과 학문적 흔적을 만난다. 나아가서 길게는 수십 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들의 쓸쓸함까지도 만날 수 있다.

다산과 정약전, 그리고 윤선도가 그러하지 않은가. 그들에겐 한때 살아 빛나는 순간도 있었을 터, 지금은 허허로운 아픔과 고요만이 배어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대로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을 신명처럼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

사람에겐 나름대로의 흔적과 상처가 있다. 사물 역시 마찬가지다. 새가 날아간 자리에도 조그만 솜털의 흔적이 있고 봄을 지나는 바람에도 겨울을 이겨낸 남풍의 흔적이 느껴진다. 자그라거리는 냇물의 소리에도 조약돌의 흔적이 담겨있지 않던가. 나뭇잎의 흔적은 떨어진 자리마다 자

라나는 한 뼉 마디이고, 소나무의 상처는 가지가 꺾여 도드라진 옹이일 것이다.

상처가 흔적 같고 흔적이 상처 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요소.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보듬어 그 어떤 흔적으로 남기지 않던가. 살아가며 수많은 흔적과 상처들을 만나지만 면면이 이어져 남는 건 단연 역사속의 흔적들일 것이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의 홍익이념과 고구려의 상무정신, 더불어 천년 신라의 화랑정신 등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흔적들이다. 원시시대 토기와 신라시대의 첨성대, 조선시대 측우기는 실용주의가 고안해낸 물질세계의 흔적들이다. 고성의 공룡화석은 그 흔적으로 인해 간직한 수만 년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기념케 한다. 또 화성표면의 물의 흔적은 그곳 또한 생물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는 메타포이다.

그래서 역사 속 우리조상들은 다보탑이나 불국사 같은 종교적인 흔적을 남겼고 그것을 통해 정신적인 도야를 이룩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초당에 연해 있는 뒷마루에 앉아본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모각했다는 '다산초당'의 현판이 문밖으로 열려있다. 그동안 술하게 스쳐갔을 사람들의 자취를 느껴본다. 어떤 이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기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위해 들렀던 자리, 이른 저녁의 적막만이 나를 맞는다.

적막이 짧은 그림자를 만든다. 그 그림자는 자연이 만든 영상이다. 눈에 비추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인간의 흔적은 유한함을 무한함으로 바꾸어 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인

간 존재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우리들의 삶을 예전보다 한결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나 문명을 가져온 흔적의 이기가 주는 배금주의의 팽배는 그 부작용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흔적 보다는 정신적인 흔적을 더 상위 가치에 두는 것은 아닐까 한다.

또한 옛 선인들의 정신적 흔적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이어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사유케 하는 흔적중의 으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흔적을 긍정이라고 한다면 상처는 부정이다. 흔적은 어떤 현상 또는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보람 또는 모습, 자취, 자리, 종적 등을 말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상처는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자리, 혹은 피해를 입은 자국을 말한다. 상처의 비슷한 말이 흠집 또는 생채기, 상흔 등을 말하는 것이고 보면, 흔적은 남겨짐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한 안위를 주고, 상처는 간직됨으로써 추억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내가 다산 초당을 처음 찾았던 건 이미 수년전의 일이다. 생각의 오류가 시련으로 닥쳤던 때였다.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징계라는 참혹한 상처를 안고 다산초당을 찾았었다. 다산의 유배지를 찾게 된 건 그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받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상처란 드러난 외상보다 속살을 파고드는 내상이 더 아픈 법이다. 나는 내면의 상처를 외면의 분노로 다스리고자하였다.

번민으로 찾은 다산초당은 위안보다는 상처만 깊게 하는 듯싶었다. 다산초당의 약천의 맑음이라든가 백련사의 푸른 동백이, 흐트러져 어지러운 내 마음에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도 싶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편과 상처를 주었듯, 내 마음속에 환부가 깊어져 고통과 번뇌의 시간이 그리

길 줄 몰랐었다.

그러나 다산이 머물렀던 곳, 동백꽃 흐드러진 길 끝이었다. 천일각이었다. 거기에서 바다 건너를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무언가 가슴에 찡하는 아픔이 전해왔다. 천일각은 하늘 끝의 한 모퉁이라는 유래가 전해오는 터다. 그 모퉁이에서 끝없는 그리움에 사무쳤을 다산의 마음을 헤아려보았다. 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저 그것뿐이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하천변의 돌맹이처럼 나는 물에 씻겨 흘렀다. 둥글 둥글한 조약돌로 변하기 시작한건 이때부터였지만, 여전히 흔적이 되지 못하고 흥터로 남은 나를 바라다본다.

흔적이 남음으로써 아름답다면, 상처는 남음으로써 뒤를 돌아보게 한다. 나의 상처를 본다. 어느 상처는 도드라져 한때의 젊음을 담보하였고, 그 어떤 상처는 보기에조차 심한 흥터를 남겼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상처를 살피고 치유했던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견디게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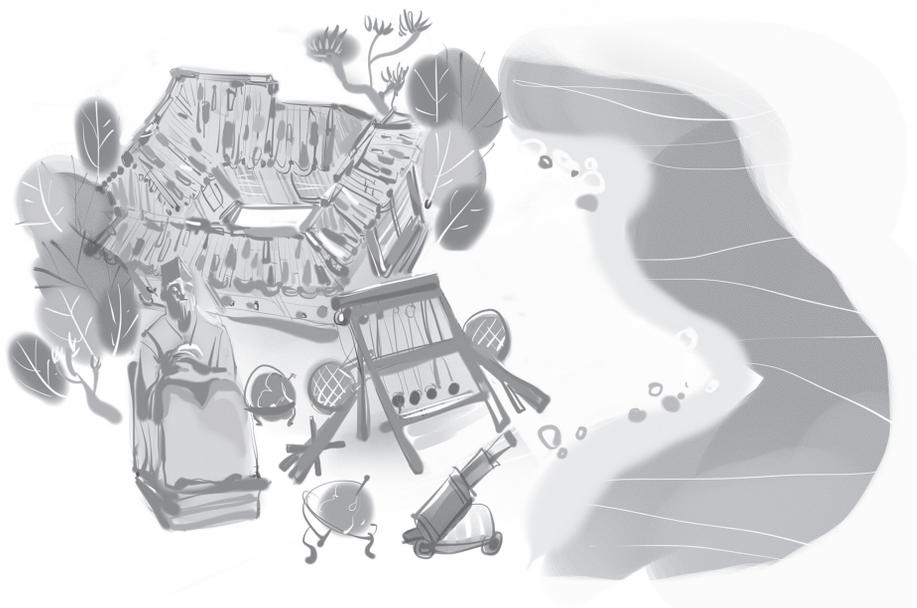
상처는 그 마다 원인이 있다. 또한 사람마다 그 농도와 종류가 다르다. 나에겐 나만의 상처가 있듯 다른 누군가에겐 그만의 상처가 있다. 상처는 타인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다. 흔적이 그렇듯 그 사람의 일생을 증거 하는 것이 상처인 까닭이리라.

천일각을 건너 다산초당을 한 바퀴 휘돌아 나온다. 다산의 그 큰 흔적에 비하면 한줌만한 초당이 저녁놀에 잠긴다. 흔적 없는 바람이 나를 지나 丁石 바위에 가 닿는다.

이곳에서 유배생활의 대부분을 지내며 지닌 상처를 목민과 경세의 철학으로 다듬었을 다산. 그가 유구함속에 더욱 빛나는 건 상처를 승화시켜 흔적으로 남긴 丁石같은 그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나도 나의 상처를 잘 갈무리하고 승화시켜 유무형의 흔적으로 남길 수는 있을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 연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초당 앞 동백은 꽃을 활짝 피웠다. 늦도록 아이들이 뒷마루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는다. 열린 문 뒤로 다산의 영정이 같이 찍힌다. 아스라이 강진만이 그저 아득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수정



수상소감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번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사혁신처 주최 문예대전 당선 소식을 듣고 수필을 부모님께 SNS를 통해 보내드렸는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고마워하셨습니다.

멀리 있어서 더욱 그리운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간의 정을 온라인으로나마 자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동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공유, 큰 기쁨

얼마 전 인기리에 방송된 텔레비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배경 시절에 청소년기를 지낸 우리 7남매는 ‘6080’ 또는 ‘7090세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시대를 모두 경험해 본 ‘행운’의 세대이다. 전형적인 시골 농촌에서 갖은 고생을 이겨내며 자식을 키워내는 부모님을 보며 자라났고, 농번기에는 학교 공부보다는 일손 돕기가 먼저였던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도시로 나오기 직전까지 각자 최소 10년씩 몸 단련, 마음 단련의 값진 훈련을 경험하였던 것마저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2남 5녀.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출가하고 각자 나름대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해외로 나간 자식들도 있어 최근 20년 동안 우리 형제자매는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모여 본 기억이 없다. 그래도 명절이면 국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고, 해외에 있는 자식들도 전화통을 올려대며 부모님을 중심으로 소위 ‘연결’이라는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멀리 있어도 늘 그리운 것이 자식이고 부모이기에 1년에 한 두 번이고, 잠깐이지만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 펼쳐지곤한다.

나 역시 일찍이 겪은 값진 훈련 덕분일까? 대학 졸업 후 넓은 세상에

나와 20년간의 직장생활을 그야말로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물론 예기치 않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잘 버텨온 것은 어린 시절 쌓아놓은 몸과 마음의 근력이 나름대로 단단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늘 일손이 모자라 일꾼으로 동원되었고, 10리가 넘는 등학교 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 다녔던 우리 남매들은 지금도 그 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우곤 한다.

낯설던 도시생활이 이제는 내 삶의 터전이 된 지금, 친정을 찾는 것은 고작 일 년에 몇 번,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뵈 때마다 더 아위고 쇠약해지시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거기다 아버지는 2년 전 파킨슨병을 얻으셔서 점점 더 말 수가 줄어들고, 손을 떠시면서 약간의 대인기피증도 앓고 계신다.

과거의 엄격하고 강인하셨던 아버지의 든든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으로 아버지를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시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지 많은 시도를 해 보지만 쉽지가 않다.

IT관련 부처에 근무하는 나는 인터넷 “연결”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과 효과를 누구보다 잘 실감하는 편이다. 인터넷이야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날과 같이 튼튼한 인프라와 콘텐츠가 풍부하지는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좋은 내용들을 즐기노라면 인터넷상의 콘텐츠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재미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인터넷을 이용해 부모님과 좀 더 소통하고 싶어졌다.

80이 다된 노인들에게 무슨 인터넷이냐 괜한 짓이 아니냐며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나는 결국 작년 여름 부모님께 테블릿 PC를 각각 선물해 드리고, 시골집에 와이파이를 깔아 드렸다.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산골

마을까지 인터넷을 설치해주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용 가격도 신용카드 이용조건으로 월 14,000원, 이걸 더 마음에 들었다.

엄마는 어릴 적 열병을 겪은 후부터 줄곧 눈이 성치 않았지만 다행히 가까이에 불빛이 있는 글자는 곧잘 식별을 하셨다. 그래도 사실 처음 몇 개월은 실수가 많으셨다. 글자 치는 법, 띄어쓰기 하는 법, 와이파이 살리는 법 등등 엄마의 인터넷 활용기는 참으로 답답하고도 느렸다.

그렇지만 마침내 엄마는 큰 테블릿 PC를 통해 각 지에 흩어져 있는 자식들과의 실시간 채팅은 물론, 보고 싶은 손자 손녀와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무료전화도 즐기신다. 거기다가 유튜브를 통해 ‘가요무대’ 노래도 골라 들으시고, 잠이 안 올 땐 법륜 스님 강연도 골라들으신다고 한다. 기대 이상의 발전이다.

요즘 카톡방에 모인 우리 가족들간의 소통은 더욱더 활발해지고, 좋은 정보나 교훈이 있을 때 나누고, 서로의 소식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공유하며 즐긴다. 나는 아버지 보시라고 파킨슨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담을 올려드렸고, 건강식단과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곤 한다. 둘째 딸은 미국에서 아들 오케스트라 공연 동영상을 올리고, 프랑스에 사는 외손녀는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크뢰상을 구웠다고며 먹음직스런 빵 사진을 올려 주었다. 얼마 전엔 가슴 뭉클한 일도 있었다. 엄마가 몇 년간 손수 키우기도 했던 손녀딸이 “조손동행” 글짓기 대회에서 “할머니와 지낸 추억”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글을 올려 모두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가족애가 더 깊게 싹트는 느낌이 들었다.

‘행운아’로 태어난 우리들 세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흔한 수단이지만

이 놀라운 디지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들에게 인터넷을 연결시켜드린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 한 일인 것 같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7남매의 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농기계를 몰고 새벽 2~3시면 남의 집 논갈이를 위해 출두하셨다. 눈이 나쁜 엄마는 타작하면서 탈곡기에 오른쪽 약지가 잘려나가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다. 자식이 둘인데도 혁혁거리며 힘들어하는 나에 비해 엄마는 장애를 안고 살았어도 7남매 중에서 한 명에게도 소홀히 하는 법 없이 자상하고 강인하셨다. 자그마한 키에 왜소한 엄마가 자식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걸 보면 참,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싶을 때가 많다. 대단한 사명을 띠고 세상에 나오신 분인 건 분명해 보인다.

오늘 아침에는 “고맙다. 요새 이게 엄마 낙이다.”라고 나에게 일대일 특을 남기셨다. 나는 속으로 ‘당신들이 만들어 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1/100이라도 부모님이 누리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응답해 드렸다.



부산시 부산진구
노진숙



수상소감

얼마전 아카시아 나무가 연한 잎을 밀어올리는 풍경을 차창 밖으로 보았습니다. 아카시아를 보면 언제나 코끝에는 향기가 스치는 듯합니다. 환취겠지요. 기억속 향기에 기대어 머릿속이 잠깐 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여 어린 시절의 발효된 기억을 더욱 오래 간직하고 싶어집니다. 어린시절을 구성했던 모든 것들-골목길 가로등, 아카시아, 민들레, 오르막길, 갈라진 벽들, 지네, 구렁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유년의 장소, 나의 유토피아

1. 기억의 실타래

주황에 가깝지만 노란색을 그 안에 품고 있는, 동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백열등은 철제 갓에 싸인 채 낮 동안 일어났던 삶의 온갖 소리와 냄새들을 조금씩 뱉어내는 듯 했다. 미세한 공기 속에 함유된 삶의 무게와 색채와 질량을 백열등이 어찌 다 밝힐 수 있으랴만, 가로등은 그 동네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촌로인양 곳곳하게 골목어귀에 서 있는 것이다. 오르막이 다시 가팔라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쏟아지는 아카시아 향, 그 길을 내딛으며 품었던 태양에 대한 증오와 땀의 축축한 냄새도 오래된 철제 갓 어딘가에 스며 있었을 것이었다. 낮 동안 구워낸 선명이네의 쿠키냄새,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며 잣아드는 소리, 우리 집을 드나들던 구렁이의 잠드는 소리,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는 순간 빠르게 도망가는 지네를 보고 피부에 번졌던 소름까지도 철제 갓은 한껏 껴안고 있었을 것이다. 어린 우리의 귀걸이 노릇을 해주었던 분꽃이 꽃잎을 접으면 엄마들이 부르던 우리의 이름. 하나 둘 집으로 가고 마지막 남은 아이의 서러움까지 품고 있는 백열등 불빛에는 책 한권을 남기고 홀연히 먼 곳으로 가버린 아버지의 서러운 꿈도 서려 있었을 것이고, 그 등이 밝혀주는 것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률을 무한히 간직하고 있는 풍금처럼 풍요롭고,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내 기억 속에 아슴아슴 피어난다. 그 기억은 태양아래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바다처럼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출렁거리며 내게로 차오르는 것이다.

2. 골목 안 풍경 하나

그때 우리는, 우리가 유년을 보냈던 70~80년대가 이렇게 유명한 시대가 될 줄 몰랐다.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통령이 죽었다 했고, 대학교에 다니던 사촌오빠는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했다. 학교로 가는 산길 중간쯤, 분꽃이 지천으로 피어났던 언덕에 천막을 치고 살던 병호네 아버지가 병호 엄마의 비녀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채어 동네 어귀까지 끌고 나와서 마구잡이로 두드려대던 날을 제외하면 어수선한 나라와는 달리 동네는 평화로웠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당한 총상에 비하면 사적인 폭력은 얼마든지 용인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담장너머로 혀를 차며 뒷집지고 있었다. 같은 반이었던 병호는 어린 내가 보기에든 마음의 병색을 질게 하고는 교실을 지켰는데,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까까머리에 주근깨 가득했던 소년은 부끄러운 듯 늘 얼굴을 숙이고 다녔고,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다. 다리를 절던 아랫집 아저씨는 우울한 신체에 대한 원망을 낚시로 대신했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옆집 아저씨네 막내아들이 양공주들의 포주가 되었다는 소식은 어린 우리들에게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었다. 쿠테타라는 말보다 포주라는 말이 더 무서웠기에 나라사정은 곧 잊었다. 게다가 서울 댁이라 불렀던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들었던 1.4후퇴 때 얘거나 전쟁 통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버지 얘기에 비하면 당시의 쉬쉬하던 사건들은 관심을 끌지 못했고, TV에서에서나 보던 이들의 죽음은 마치 TV 연속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3. 골목 안 온기들, 꿈들

끝도 없는 오르막 옆으로 난 작은 골목길과 짝짝 갈라진 그 골목 벽의 틈들과, 갈라진 틈에서 올라오던 폭신한 이끼, 그 이끼사이에서 놀던 옛 된 벌레들과 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달팽이, 달팽이를 하릴없이 괴롭히던 동네 아이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가득하다. 꼭대기였던 우리 집 건넌 방 애기에게 배달되는 야쿠르트가 녹슨 대문 앞에서 송글송글 땀 흘리며 물끄러미 놓여있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훌쩍 마셔버리고 모른 채 할까 망설였던 그 짧은 순간의 도덕이, 마당에 덩굴던 야쿠르트 빨대를 땅에 대고 입으로 흡! 하고 빨아들였을 때 내 작은 입안으로 가득 들어오던 흡의 감촉이, 산에서 내려와 어느 집 마당에서 냇을 놓았던 독사와 길 잃은 독사를 잡으러 왔던 아저씨의 입에서 나던 휘파람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곤 하는 것이다.

산으로 통하는 골목을 숨기고 있던 그 오르막에는, 생애의 강한 열망이 태양처럼 쏟아지던 그 오르막에는, 탄탄하고도 고단한 생의 근육 같았던 그 오르막에는,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기도 하고 모호한 매력을 발산하기도 하는 독사와 흡사한 구석이 가득하였다. 오르막 맨 끝 우리 집 뜰 안 무화과나무를 잡고 담장 너머를 보면, 처음엔 까만 머리가 보이고 다음엔 몸통이, 그 다음엔 휘휘 젓는 팔이 보였다. 갈지자로 천천히 걸으며 올라오는 사람,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사람, 전봇대 앞에서 한번 쉬었다가 올라오는 사람, 긴 호흡을 내쉬며 자신이 얼마나 왔는지 뒤돌아보는 사람.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오르막을 다루면서 삶을 유지하고 견디고 가늠하고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 동네에 대한 나의 기억은 그림자가 실물로 빨려 들어가 듯 그 사람들과 그 장소들 속으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점점 더 수렴되어 갔다. 사이렌의 노랫소리처럼 그 곳은 나를 유혹하고 그곳을

욕망하게 하면서 잊었던 것을 기억나게,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였다. 홀연히 먼 곳으로 가버린 아버지의 나이를 이제 내가 넘어서고 나니 오르막 동네에 살았던 아버지가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를, 아직도 나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엿보고 싶은 것이다.

4. 그런 날의 밤들

내가 생의 오르막길을 숨가빠하며 오르고 있었을 때는,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 오르막의 끝을 절망적으로 쳐다보았을 때는, 고된 길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는 듯 아카시아 향을 뿌려주던 유년의 동네처럼 생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헉헉거리며 뛰어갔고, 무엇인가가 나를 재촉하는 듯 했다. 어린 시절의 동네에서처럼 개미의 일과를 좇거나,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나무작대기로 뒤집어보거나, 잘 자라고 있는 애호박에 상처를 내어 동네 아주머니들의 잔소리를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목적 없고 무의미하고 무로해 보이지만 나를 잊게 하고 나를 생성하게 했던 일상도 없었다. 그 동네를 떠난 이후 더 이상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아도 되었고 가로등이 필요 없는 곳에 살게 되었지만, 생은 갈수록 가파르게 이어졌고 떠나온 동네의 밤길을 밝히던 알전구처럼 따뜻한 빛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세 들어 살던 주인집내 부부가 나누는 자정의 거친 숨소리였다. 그 소리는 병호 엄마가 겪었던 해질 녘의 불행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행복에 찬 소리였겠지만, 은밀하고도 내밀한 생의 아름다운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고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천박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죄는 아무에게도 없었다. 단지, 도시 빈민을 위해 임대업자들이 지은 그 집이 대도시의 천박한 소음과 소란과 소동을 품고 있었을 뿐이었다. 차라리 내겐 가뭏없이 이어지는 병호네의

부부싸움이 거칠지만 승고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싸움에는 생에 대한 깊은 슬픔과 원망과 원한, 분노 같은 것들이 엄숙하게 또아리 틀고 있었을 거니까. 담벼락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그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날의 밤들은 동네 전체가 잠 못 들고 뒤척였을지도 몰랐다. 그 밤은 분명 우리 집을 드나들던 구렁이가 꿈틀거렸던 것처럼 깊고도 뜨거운 무엇인가가 생의 어떤 지점을 향해 꿈틀거렸던 밤이었을 것이다.

5. 사라진 동네

사십 여 년 전 과거가 방금 지나간 과거보다 더 생생하게 되살아나 열살짜리의 심장박동 소리가 오십 문턱에 선 내 귀에 들리는 듯하다. 동네를 감싸고 있던 아카시아가 겨우내 버려져 있다가 오월 경 첫 향을 내보내면, 동네는 권태로움에서 깨어나고 공기 중 떠다니는 향기라도 굽어모을 요량으로 녀마주이 아저씨들은 붕대 감은 손을 휘휘 저으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골목마다 놓고 있던 꼬맹이들의 비명소리가 나고 후닥닥 뛰어가는 소리,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법 동네가 시끌벅적해졌다. 아마도 녀마주이 아저씨는 계속해서 고독하였을 것이다. 그의 고독을 꼬맹이들은 알 리 없겠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카시아는 방문자의 고독을 향기 속에 머금고 있다가 자신의 뿌리로 내려 보내어 이듬해에는 그 고독까지 첨가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향을 동네에 선물하는 것이다. 그러면 동네는 다시 깨어나고 아이들은 후닥닥 거리거나 꽃들을 새로 따면서 매년 갱신되었다. 새로운 것들을 더하면서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거나 더 넓어져 어린 우리들이 아직은 알 수 없었던 그 동네만의 풍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풍경은 지나가는 개미와 달팽이도, 지네

랑 구렁이도 함께 동참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금 간 벽의 틈에서 피고 지던 민들레도 한 몫을 한 것이리라.

뉘 집 계단 옆 하릴 없이 피어난 토끼풀을 할 일 없던 우리들이 똑똑 잘라내어 돌칼로 썰고 쪼고 뺏던 시간까지 지층 깊이 묻어두었던만, 그 땅을 파내고 아카시아를 잘라내며 낡은 집들을 헐어버려 지렁이도 지네도 민들레조차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십 여 년도 더 지난 듯하다. 그 때의 지면들은 모두 통합되어 하나로 정비되었고, 내 땅이요, 네 땅이요, 를 씌름 하던 측량조차 필요 없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유토피아는 기억에서만 존재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그 동네를 일구며 꿈을 키웠을 어르신들의 부고가 늘어나면서 기억보다 더 빠르게 사라진 동네처럼 어르신들의 소박한 꿈들이 차곡차곡 소멸되어 가는 것만 같다. 나도 언젠가는 어르신들이 보낸 초청장을 당신들에게 보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풍요로웠던 어린 시절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어 비밀의 창고 속에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창고 속 비밀들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일구는 꿈으로 새롭게 변하여 아지랑이처럼 땅을 뚫고 피어날 것을 믿는다. 더딘 봄날, 가까스로 따뜻해진 봄별 아래 가만히 있으니 아슬아슬 피어나는 무언가가 멀리서 더딘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듯하다. 두 눈을 가느다랗게 떠도 흐리기만 한 저것은 무엇인가. 비밀창고를 열고 나오는 낡은 꿈들의 오래된 열망인가.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전한별



수상소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후 아무리 졸리고 피곤하더라도 한 시간씩 글을 끄적거리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을 통해 제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기쁨을 온전히 누렸음에도 수상까지 하게 되어 더 감격스럽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인사혁신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존경하는 수원시장님과 수원시 공무원 선·후배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던 삶의 모습들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근무하게 된 곳은, 경기도 수원의 구도심이였다. 낙후된 그곳에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노인 분들이 많이 살았다. 첫 근무지였기에 내겐 특별했고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기에 마음엔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일찍 출근하여 그날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그 열정을 점점 사그라들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추레한 차림의 할머니가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와 등본을 떼 후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보이셨다. 나는 괜찮다고 말씀드린 후 흔쾌히 보내드렸다. 동전 통에는 내 지갑에서 꺼낸 400원을 넣었다.

그 뒤로도 할머니는 동사무소를 자주 방문하셨다. 조그만 수레에 빈병을 가지고 와서 정수기 물을 떠가시곤 했다. 점점 병의 숫자가 많아지더니 결국에는 할머니가 정수기 물을 다 받아가 버리고 말았다. 텅 빈 정수기에 물이 찰 때까지 직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도 얼마나 궁하면 저러실까 했는데 주민센터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 하나가 할머니는 건물까지 있는 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회초년생인 나에게는 갑자기 찬물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엄습해 왔다.

예전 일까지 겹쳐 화가 폭발한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른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그러나 일전에 애처롭게 바라보던 할머니의 그 눈빛은, 사납게 변한 탐욕스러운 눈빛이 되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뭐가 어떠냐며 뻔뻔한 태도로 할머니는 그날도 정수기가 텅텅 비도록 물을 떠가셨다.

그 뒤로도 할머니와 같이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술에 취해 주민센터를 매일 찾는 주정뱅이 아저씨도 있었고 무작정 찾아와서 일자리를 달라며 큰소리를 쳐대던 사람도 있었다. 그동안 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무풍지대에서 곱게만 살아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매일 아침 민원인을 축복 하던 기도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다. 한 명 한 명이 내 민원대 앞으로 와서 입을 뿔 때까지 시비를 거는 까칠한 주민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신이상자인 동네 주민이 주민센터에서 난리를 치며 시끄럽게 하다가 동장님이 주신 돈 만원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 그 모습은 나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했다. 20대 중반을 넘긴 동기가 민원대에서 이유 없는 민원인의 폭언을 듣다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모습도 낯설지 않았다. 한참을 울다 나와서도 민원대 책상에서 울음을 계속 삼키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도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

안정된 고용이 법으로 보장되는 공직이 이럴진대 30여년의 세월을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직장에 몸담고 버텨내신 아버지께 대한 존경심과 안쓰러움이 밀려왔다.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한 상황을 온몸으

로 받아내고 모욕감을 견뎌내며 그 시간들을 버티셨겠지.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 ‘내가 더러워서 그만 둔다’는 패기도 부러보지 못하셨겠지.

신혼의 꿈에 젖은 내 남편도 은행 창구에 앉아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다 받아내고 있을 것이다. 나와 갓 돌이 지난 딸을 지켜야 하기에 그 또한 많은 울분을 억누르며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견뎌낼 것이다. 지난 세월을 살아낸 나의 아버지와, 가끔은 짜증으로 응대했던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측은함이 이제야 마음 깊이 느껴졌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면서 생활의 변화도 생겼다. 어떤 서비스를 받아도 그것에 토를 달지 않게 되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뭐하나 알아보려면 전화를 몇 번이나 돌리고 돌리다 이내 끊어져버리고 말아도 나는 흥분하지 않는다. 그곳 직원의 일처리가 잘못되어 또 한번 수고를 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 태도가 불손해도, 나는 윗선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예전의 나라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난리를 폈을 것이다. 천태만상의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이제 보이지 않던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진 것 같다. 저 직원도 나와 같은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을 지닌 인간임을 인정하자.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자.

내 마음을 다독이며 참다보면 정말 화가 가라앉아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나중에 나의 실수나 불찰도 누군가 너그러이 봐 줄 수도 있겠지. 혹은 나의 소중한 이가 당할 일이 한 번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다독여 준다. 내가 살아보니 인

생이 녹록지 않으니 저들의 삶에 대해서도 측은지심이 생긴 것이다. 어찌되었든 나 위주의 삶의 관점이 외부로 향해지며 남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첫 발령을 받은 후 반년정도 지났을 무렵, 할머니 한 분이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가지고 오셨다. 할머니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저 ‘난 암 것도 몰리’ 이 소리만 반복하며 힘없이 서계셨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의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 번에 끝나는 서류작업이 아니었다. 여러 번의 통화를 해야 했고 할머니는 무조건 내 앞에서 나에게만 모든 걸 부탁하셨다.

마지막 서류 처리가 끝난 날 모든 서류를 챙겨서 할머니께 보내드렸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셨다. 근처 편의점에서 산 각종 음료수가 손에 들려있었다. 평소 백 원짜리 동전 하나, 천 원 한 장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가난한 처지의 할머니였다. 그럼에도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하다’고 나에게 감사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셨다. 극구 사양하는 내게 끝내 음료수를 안겨주고 나서야 발길을 돌리셨다.

공직자로서의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는 순간이었다. 도움이 절실한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서는 감사함과 뿌듯함이 충만하게 차올랐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나며 쓰레기통을 땡땡 차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흠어진 쓰레기를 주워 통에 넣으며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민원인도 많다.

앞선 사람에게는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면 저럴까 하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겨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타인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쓰레기통을 발로 차

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민원인을 대하면서 나 또한 저런 따스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할 만큼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시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답답해져 가는 내 모습에 가끔은 스스로 놀랄 때가 있다. 공직에 들어와 민원창구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버텨낸다.

돌이켜 보니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들어준 그 솔한 민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감정노동자로서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병들어 가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패기어린 신규 공직자가 입은 마음의 생채기를 회복하는 과정, 더 의연한 공무원상을 모색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이 민원인과의 갈등의 순간들을 즐겁게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위안과 치유와 단련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후배들은 더 멋진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포항이동중학교
손 달 호



수상소감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한 작품의 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져 가는 것 같다. 반가운 일이다.

과거에도 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기에 더 애착이 가는 것이라. 정진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안일함

쌀을 찜기 위해 정미소에 갔다. 동네 사람에게서 병작했던 벼를 식량하기 위해서이다. 고향의 전담으로부터 식량을 가져다 먹는 일은 왠지 부잣집 같은 넉넉함이 있고, 조상과 자손이 논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긍지마저 갖게 해 준다. 하지만 바쁜 도시 생활이라는 핑계를 대며 고향에 갈 때마다 늘 허겁지겁 다닐 때가 다반사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시골에 갈 일만 생기면 바쁘다는 구차한 변명이 고개를 든다. 고향의 시골은 무슨 건수든 불일이 상존해 있는 곳이어서 그 일로부터 얽매이지 않으려고 미리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가 보다. 일찌감치 자기 합리화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방앗간 호박에다 벼를 여덟 포대기 풀어 넣었다. 앞서 찜은 벼들은 도정이 잘 되었는데 우리 벼를 넣으니 이전과 같지가 않았다. 방아가 몇 바퀴쯤 돌더니 짹짹거리며 사달을 낼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경쾌하던 방아 소리가 불규칙해지며 힘겹게 돌아가고 있다. 방앗간 기사 양반이 기름을 치고, 기계를 만지며 분주하게 오간다. 못마땅한 인상을 보고 있는 나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았다. 애가 타고 궁금했지만 물어 볼 분위기가 안 돼, 옆에서 눈치만 살폈다. 드디어 방아가 섰다. 원동기에 감긴 굵은 밧줄과 미간을 찌푸린 기사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는 애써 태연한 기색을 보였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방아 소리가 몇자 방

앗간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급기야 원망의 한 소리가 터졌다.

“나락이 안 말랐잖아!”

문제의 원인을 버가 털 말려진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기본을 탓하는 목소리가 내 심장에 꽂혔다. 뽀얀 먼지가 앉은 모자를 폭 눌러 쓴 기사 양반은 순박하게 보였지만, 일이 꼬이니 표정이 밝을 수가 없었다. 요사이 가 추수 뒤라서 방앗간엔 한창 대목인 썸이다. 우리 뒤에 찢을 순서를 기다리는 벼 포대기의 줄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메뚜기 유월 한철이듯 방아가 수월하게 돌아가면 수입이 짹짹할 텐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니 짜증이 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절부절 가시방석이었다. 나는 어느덧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착한 사람이 돼 있었다. 문득 그 다음 말이 걱정되었다. 그가 먼저 어떤 판단을 내려 주는 것보다 내가 물어서 나오는 대답이 강도가 약할 것 같다는 계산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순발력 있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하고는 할끔 눈치를 살폈다.

“어떻게 하긴, 피내야지요!”

굵직한 목소리가 무겁게 머리를 눌렀다. 공구를 이리저리 돌려 방아를 손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무라니까 모든 잘못이 나에게로 쉽게 쏠리는 듯했다. 미안한 마음이 방앗간 안을 서먹하게 만들었다.

‘결국 찢을 수 없구나.’

예감했던 대로다. 순간, 아까와는 다른 간교한 마음이 일어났다. 간신히 어떻게 해서라도 찢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쁜 시간을 틈 타 왔는데 허탕을 받아들이기가 싫었다. 하지만 그

것은 희망일 뿐이었다. 오늘은 그냥 퍼 담아 가야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았다. 기왕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아까 보단 마음이 대담해졌다. 불안한 마음도 없어졌다. 덜 마른 것도 찢는 게 기술 아닌가 하는 합리화가 역공을 가할 기세였다.

지혜란 체험을 통하지 않고 아는 능력이 아닐까 싶다. 나는 늘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저 방자한 언행이 나오기가 일쑤였다. 일을 겪은 뒤에야 풀이 꺾였다. 이 세상을 불가에서는 화택(火宅)이라고 한다. 불난 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불길이 발밑까지 와서야 비로소 불난 줄을 아는 사람이다. 나의 무지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며 살아왔다.

벼를 충분히 말려서 정미소에 가야 하는 것은 농사집 자식으로서 상식일 것이다. 옛날에 어른들은 명석에다 벼를 늘어두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맨발로 들어가 뒤적거리며 말렸다. 며칠을 늘어 말린 다음, 가마니에 넣어 양지바른 축담에 옮겨 놓았다가 방앗간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노련한 방아장이는 방아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봐도 이 주인이 신농씨지를 안다고 한다. 제대로 말려진 벼를 찢으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부터 맑고 경쾌하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성껏 말려진 벼의 겨는 짐승 주기 아까울 정도로 가루가 곱다. 흉년 든 해에 이것으로 겨 떡을 해 먹었다는 속설은 벼를 정성들여 말렸다는 말로 들린다.

오늘 퍼 담은 벼는, 추수한 것을 밀폐된 공간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싣고 간 것이었다. 자주 창고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별이 들게 해서 말려야 되는데 허겁지겁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러다 덜미가 잡힌 셈이다.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인데 이를 무시한 대가로 방앗간으로부터 퇴짜를 받고 곱으로 시간을 잡아먹게 된 것이다. 쉽게 취하려는 안일함이

내 마음 한가운데 웅그리고 있었던 게다. 가자마자 금방 쌀을 싣고 올 요
량이었나 보다. ‘안일함’, 그것은 오늘 일을 가르친 주범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까지 이 광경을 지켜본,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따가운 평판을 듣는 일이다. 뒤통수가 근질거렸다. 죄송스럽고, 부끄럽
고, 면구스럽다는 따위의 형용사로는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
다. 나보고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저래가지고도 밥 먹고 사나?’

하며 거꾸거꾸 눈총을 주는 듯 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시
골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벼가 안 말라서 도로 퍼 담았다는 말은
나한테서 처음 들었을 테다. 옛날, 가래 낀 목소리로 안일한 나의 생각을
찌르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일침이 귓전을 때린다.

“아이고, 야들야 나락 잘 말라야 방아장이 안 나무란다.”





경상남도
변경록



수상소감

존경하는 수필가 금아 피천득님의 '수필은 중년 고개를 넘어 선 36세 이상을 산 사람의 글이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었나 봅니다.

서른여섯 해 째를 살게 된 올해,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한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뜻밖의 입선에 무척 기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책임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좋은 글을 쓰겠다는 제 다짐에 자신감이라는 큰 날개를 달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이지만 진심 하나만은 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손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이 제 판에는 제법 재미있는 놀이를 찾은 모양이다.

아들 녀석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고 있던 내 손을 놓고는 몇 걸음 떨어져 두 손을 활짝 펴고 기다리고 계신 제 할아버지께로 아장아장 걸어간다. 그러고는 다시 나에게로, 또다시 할아버지에게로.. 아들과 아버지,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삼대(三代)의 걸음마 놀이는 그렇게 그칠 줄을 모른다.

하긴, 불과 얼마 전 땅을 딛고 일어서서 기적 같은 생의 첫걸음을 뗀 아들은 제 스스로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신기할까?

아버지와 나 또한 그 모습이 대견하고 어여빠 연신 허허 웃어대며 아들의 놀이에 동참한다.

세상 걱정 없어 보이는 해맑은 얼굴로 ‘아버지 된’ 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 될’ 이의 손... 아들 녀석은 세상 아버지의 손에 얼마나 고된 세월의 무게와, 얼마나 깊은 슬픔과 때로는 얼마나 밝은 환희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기나 할까?

문득 아들 녀석이 넘어질세라 서둘러 손 율타리를 만들어 손자를 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손을 지그시 바라본다. 이내 아직 내 머릿속에 채 휘발

되지 않은 아버지의 손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려 본다.

집을 나서 논두렁 같은 골목길을 지나면 어느새 언덕 너머에 갈림길이 보인다.

아버지는 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다 펴기를 두어 번 반복한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다는 신호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십여 분 정도 걸리는 내 등굣길의 일부를 함께 하셨다.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집을 나서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아버지와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비슷해서였을 테다.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아버지와 나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은 분이셨고 덩달아 나도 내성적인 탓이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린 그 시간에 아버지와 내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소재는 그리 무한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갈림길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두어 번 움켜쥐었다 펴시면 나는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놓고 남은 등굣길에 오르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둘만의 무언의 약속 같은 일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이 무료하거나 싫지는 않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조금은 서먹해도 되는 사이, 둘만이 알고 있는 무언의 신호로 서로 통하는 사이. 나는 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는 달리 나와 아버지는 그런 사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것이 왠지 멋지다고 생각했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손을 잡고 매일 등교하던 소박한 스킨십

은 유년시절의 나에게 적지 않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줬던 것 같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아버지의 따스한 손에서 나에게 전달되는 훈훈한 온기가 얼어붙은 내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고, 더운 날에는 둘이 잡은 손 사이에서 스미어 나온 촉촉한 땀 사이로 때마침 지나가는 아침 바람에 기분 좋은 상쾌함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좋았던 점은 짧은 시간이나마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의 손을 잡고 내 등갯길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뿌듯함과 든든함이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그 단순하고 원초적인 행위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내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갈림길에서 헤어져 직장으로 향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 보였던 것은 단지 아버지께서 내 시야에서 멀어지기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당시 아버지의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그보다도 한참이나 뒤에 어머니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후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우리 집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IMF가 찾아왔고, 당시 건축 자재 납품업을 하셨던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고야 말았다.

그동안 공부한다는 핑계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터에 가서 일을 도와 드린 날은 알갭게도 아버지께서 부도로 인해 당신의 사업장을 정리하시는 날이었다.

그날은 내가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해의 겨울방학 때였는데 코끝이 제

법 시린 추운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회사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건축 자재들을 창고에서 꺼내 트럭으로 옮기는 일을 도와드려야 했다.

대입 수능시험을 마치고 매일 집에서 텅굴텅굴하기만 하다 끌려오다 시피 아버지의 일터에 나와 역지로 일을 해야만 했던 나는 금세 지쳐 땀이 비 오듯 흘렸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고 해요 우리.”

“허허.. 녀석아 이 자재들을 오늘 오전 중에 이 창고에서 다 빼야 한단다. 나는 매일 하는 일이라 괜찮으니 너는 힘들면 좀 쉬도록 하렴.”

그렇게 하는 등 마는 등 일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찾은 목욕탕.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은 무거운 자재에 찍혀 이곳저곳 성한 데 없이 멍투성이였다.

오래전 나의 등갯길을 함께 걸으며 내 손을 포근히 감싸주셨던 부드럽고 따뜻한 아버지의 손은 온데간데없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기름때가 잔뜩 낀 피멍이 든 아버지의 서글픈 손이 내 시선을 좇아 눈치 없이 파고 든다.

한때 어린 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당신의 그 손은 삶의 풍파와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듯했다.

나는 차마 계속 아버지의 손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황급히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손은 유년시절의 내 기억 속에 몇 가지 짙은 단상들을 남겼다. 때로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때로는 거칠고 안쓰러운 손으로 내 어린 시절 기억의 한 조각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놀던 아들 녀석은 어느새 할아버지 곁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다.

아버지께서는 손바닥만 한 아들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도닥도닥 두드리시며 곤히 잠들어 있는 손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다.

아버지의 얼굴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에 대한 야속함과 알 수 없는 회한이 배어 있는 듯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 그 안에 깃든 숨길 수 없는 세월의 흔적들..

야속한 세월의 칼날이 당신의 손에 여기저기 깊게 음각한 흔적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아, 아버지도 세월을 피해갈 수 없구나, 어린 시절 고사리 같던 나의 손을 넉넉히 감싸주셨던 아버지의 보드랍고 듬직한 손이 이제는 저렇게 변해 버렸구나.’

주름 하나에 아버지의 청춘이, 주름 하나에 아버지의 행복이, 주름 하나에 아버지의 슬픔이 켜켜이 박혀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손을 보고 있는 내 눈앞에 이제 갓 아버지가 된 내 손이, 그리고 먼 훗날에 아버지가 될 내 아들의 손이 오버랩 되어 아른거린다.

순간, 이제 내가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남은 시간을 오롯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지 덜컥 두려워진다.

나밖에 모르던 한 남자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남편으로, 사위로,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나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늘어날 때마다 내게 기대되는 역할은 다양해지고 커진다는 것은 분명 나에게 또 다른 삶의 무게와 두려움으로 나를 짓누르곤 한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초라한 손이 더욱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당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이기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그 노고가, 아직 그런 고난을 겪어봤을 리 없는 내게 더 크게 와 닿는 탓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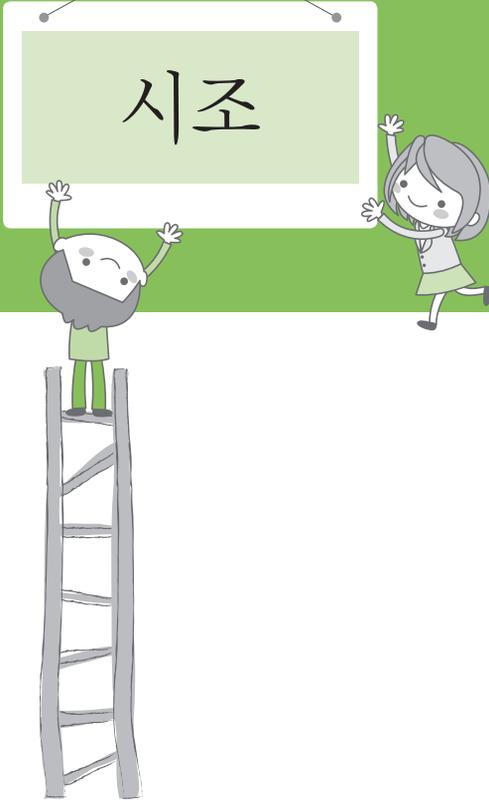
하지만 나는 어렵פות이 알 것 같다.

때로는 삶의 길에 거친 비바람을 만나 고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 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보면 그 속에서 분명 또 다른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앞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나의 아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세상 모든 아버지의 손은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그리고 세상 모든 아버지들 같이 반드시 그런 손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라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용기 내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려야겠다.



심사평

지난 해 보다 응모자 수가 늘어나고 편수가 많아졌다.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연시조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시조가 고시조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이 많았다. 소재가 그렇고 표현 방법 또한 그랬다.

금상 수상자로 결정 된 <새>의 경우 표현이 신선하고 섬세했다. 붓으로 그린 한 편의 묵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이는 현대 시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했다.

현대시조는 바로 현대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정진한다면 오늘의 입상이 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심사위원: 유재영, 민병도



금상 ● 새(鳥)
조달청 김훈희

은상 ● 먹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이승은

동상 ● 승부 역에서
전)부천세무서 이홍균
바래길을 읽다
남해군보건소 김향숙
노거수가 쓴 문장
전)포항남부초등학교 심금섭





조달청
김 훈 희



수상소감

"마을 어귀 느티나무시린 발 무릎위로/깨어진 장독처럼 웃고 있는/어린 내가 있었다."
 나에게 시는 어릴 적 못살 것 같이 사랑하다가도 미워하다 이제는 같은 속도로 걸어가
 는 늙은 부모의 냄새가 난다.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하기 시작하고 몇 년 동안은 가슴
 조리던 5월들이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심사위원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나의
 부족한 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조달청 동료들이 글을 쓰게 한 힘이었다고 전하고 싶
 다. 세상을 알아갈 때 만나 지금까지 같이 해온 아내와 내가심은 느티나무라고 부르는 아
 들에게 사랑을 보낸다. 이제는 낱아버린 나의 깨진 장독에 의미 있는 것을 채워가야겠다.

새(鳥)

푸르른 화선지로 점하나 날아들고
긴 다리 곧게 펴서 붓끝이 세워지면
온몸에
뼈마디까지 붓대처럼 비었다

세월 다 쪼아 먹어 멈출 줄 모르는 듯
치열한 벼루소리 구슬픈 울음소리
허공을
막 쥐고서있는 그 누구의 손인지

쉽 없는 고갯짓에 수 없이 쓰고 지운
가슴에 모래 같은 이름과 사연들이
푸드득,
먹색 세상 속으로
눈물처럼 번졌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이승은



수상소감

창에는 봄을 그린 그림이 가득합니다. 저 그림이 없다면 어찌 살았을까요? 작년에 그랬듯이 목련이 그려졌고 벚꽃도 그려지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철쭉 꽃자리에 색감을 묘하게 더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지리산 끝자락에서 몸을 폼지락거리고 있으니 노란 그림이 그려지겠지요.

저도 그랬나봅니다. 왜인지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구요. 학생들에게 시조를 가르치면서 시조의 향기에 물들더니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나봅니다. 의미단위로 끊어지는 음보와 언어들 다소곳이 담겨지는 매력적인 시형식이 늘 나를 따라 다녔습니다. 시 쓴다고 내 영혼은 자유롭다고 외면했을 때도 내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의 언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2016년 봄과 세상을 시조로 그려내라고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먹

먹을 보면 먹먹하다
 숯검정 다스려
 깊어질 때까지
 혼자서 아파했을
 아직도 웅크린 가슴 둥글게 갈아낸다

굽은 털 하나 없이
 허공에 걸려있던
 붓 하나 꺼내면
 구석마다 촉기 스며
 눈을 뜬 고운 선 따라 무엇이 돌아날까

먹 기운 번지면서
 여백 내준 화선지
 지상의 오랜 약속
 대궁 사이 꽃 달아
 난(蘭) 몇 개 하늘 쪽으로 말없이 몸을 푸는

접혀진 시간들
 서성이던 그늘음에
 묵향이 퍼지고
 모난 데가 퍼진다
 가슴에 수묵(水墨)이 스며 먹먹해도 먹을 간다.



전)부천세무서
이 흥 균



수상소감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勝負의 기념비처럼 세워진 이 조그만 역사는 자기보다 더 조그만 천정도 없는 화장실까지 갖추고는 낯선 나그네들을 요란스럽지 않게 마중하고 또 묵묵히 배웅한다. 承富역이다.

나의 나그네 길은 '낙동정맥트레일' 코스 중 양원 역까지의 구간을 걸었을 뿐인데 발끝에 묻어나는 가을은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다. 어느 순간 기차가 개울을 건너 내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왔다가 너무 높아 넘지 못하고 산허리에 구멍을 내어 꺾으며 지나갈 때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이라 노래 한 이름 없는 역무원의 표현에 비견할 순 없지만, 부끄럼도 망각한 채 잠시 눈감았던 기억을 더듬었다가 덤으로 작은 선물까지 받으니 이 또한 승부역을 기억하기에 좋은 추억이다.

승부 역에서

하늘 세 평 승부 역엔
나그네도 설만하다
벗할 이는 없지만
외롭지는 않아서
아무 때 길을 나서도
이곳으로 올만하다.

가을비가 추적어도
망설임은 사치다
나서면 그때부터
감탄사가 절로난다
그 누가 만들었을까
이 산속에 역사를.

태백산 너털 샘이
흘러 만든 낙동여울
닿는 곳 구석마다
마을하나 만들고는
외롭지 않게 하려고
기차역을 두었구나.



남해군보건소
김향숙



수상소감

어느날 문득 앞만 보고 달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생의 아스팔트 길에서 굽아 터진 마음을 어루만져 준 바래길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5월 3일은 딸아이가 태어난 지 스무일공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3교대 병원근무를 하는 딸의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해 어미의 마음이 짜안 하던 차에 뜻밖에도 수상소식을 접했습니다. 갑자기 오장육부가 먹먹해졌습니다.
앞으로 자연과 더불어 시조공부를 하면서 사부작 사부작 바래길을 걸어가라는 심사위원님들의 격려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문화회와 독서모임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어우렁 더우렁 보물섬에서 문학의 깃발하나 오달지게 꽃으렵니다.

바래길을 읽다

하늘 날던 바다새가 화들짝 착지하다

더듬어 걸어온 바래길로 초상이 나부끼다

딩동댕 부푸른 꿈을 갯바람이 보듬다.

해무속에 가려진

깜박이는 파문들

녹슬어 안보여도

노래는 흐르는데

바위섬

저 물결 위에

깃발 하나 꽂는다.



전)포항남부초등학교
심금섭



수상소감

부족한 글 뽑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머리가 없는 데다 소심하기까지 해서 언제나 글을 쓰고 난 뒤 읽으면서 반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 공감이 가는데 내 글은 이게 아닌데 하는 의심도 들어 남에게 보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상소식을 받으니 오랫동안 의심하며 품고 지내온 숙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시는 선물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모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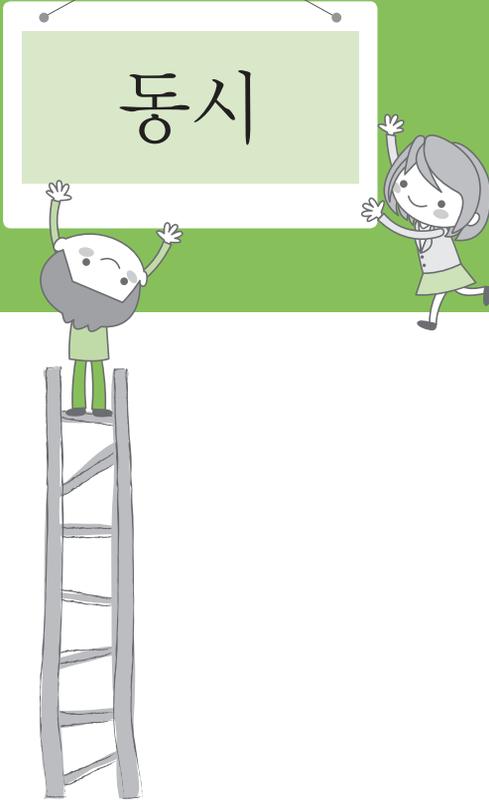
앞으로는 내 글을 부족하다고 감추고 위축되기보다는 나만의 색깔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거수가 쓴 문장

뼈대 곧추세우는 고깃사위 흔적이며
구새 먹은 내력까지 고스란히 적은 문장,
각주로 다시 채워낸 맵자한 그 일대기.

덧대온 시간마다 천 개의 길을 열며
부씩부씩 송진 더께 올차게 일떠난 몸
삽삽한 갑골문체로
저저이 적은 자서전.

어늬이치던 한겨울에도 은결들지 않고
애면글면하던 순간 절정으로 아우르며
오롯이 섭새긴 경전
읽고 또 읽는 뜻 빛깔.



심사평

은상에 뽑힌 ‘화각’은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 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지만, 화각을 다루는 장인의 정성과 전통공예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점이 금상 작품과 비교대상이 되었다.

은상에 뽑힌 ‘자전거 바퀴’는 쉽고 흔한 소재이고 그래서 많은 시인이 다룬 소재이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어린이 독자들이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앞 뒤 바퀴가 이루는 위계질서에 대해 시사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표현이 주는 동시다운 발상에 심사위원의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 김종상, 정두리



금상 ● 자전거 바퀴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송태엽

은상 ● 화각

한국교원대학교 김상한

칭기즈 칸

동상초등학교 하송

동상 ● 돌고래무늬 커튼

경기도 평택시 김경태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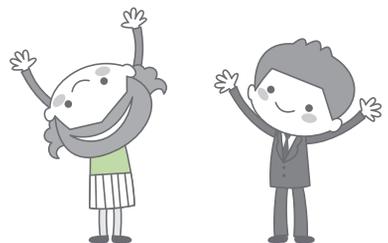
철원 내대초등학교 김지수

어디로 가니

울산시 울주군 김봉대

입선 ● 카톡해요

청주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 이기락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송 태 업



수상소감

3년 전, 스물넷의 딸이 느닷없이 시집을 가겠다고 해서 준비는 커녕 아이같은 딸의 결혼을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던 터라 적잖이 놀랐다.

사돈댁에서도 예사말로 '딸만 주시면 됩시다'라는 말에 승낙하고 말았다.

만혼풍조에 일찍이 결혼하고 이듬해 행복한 할아버지로 만들고 늘그막에 동심을 간직할 수 있게 한 딸과 외손녀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채고 수상의 영예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년 후 친구들에게 자전거 바퀴의 역할을 할 하운이에게 이 시를 선물로 전한다.

자전거 바퀴

자전거 바퀴는 사이가 참 좋다
서로 앞다투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앞에서 달리면
뒤에서 열심히 따라간다.

나는 이리로 가고
토라진 친구는 저리로 가지만
자전거 바퀴는 싸울 줄도 모른다
싫으나 좋으나 언제나 함께 간다.

친구야!
네가 앞서면 난 뒤에서 따라갈게
오르막이면 내가 밀어줄게
언제나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상한



수상소감

감사합니다.

올해는 봄비가 자주 내립니다. 덕분에 즐거운 일도 이렇게 생기는 모양입니다.

동시를 쓰면, 참 재미있고 즐거운 모습을 자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 마음을 지닌 어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늘 응원해주는 가족들, 사랑합니다.

화각

콧구멍에서 더운 바람을 뿜는다
 날카롭게 세운 뿔이 앞으로 달린다
 불끈하게 힘을 준 네 다리,
 모래바람 가득하다
 두 눈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다
 두두두 달려 나간다

쉬익쉬익 가쁜 숨을 몰아쉬고
 뒤로 버티던 다리가 앞으로 밀린다
 휘젓던 코뚜레에서 피가 난다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밀려서. 밀려서. 간다

“잊지 않을게.”
 세운 뿔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단단한 껍질에 갇힌 뿔을 넓게 펴고 고른다
 다시 한 번 넓게 펴고 고르고 밀어 깎는다, 다시 한 번,
 검게 거침없던 뿔이 투명하게 얇전한 뿔이 되었다
 모래바람 대신 코뚜레 대신
 석채 안료로 오방색 옷을 입혔다
 반질반질하게 화사한 빛을 새겼다
 다시 되살아나 뿔을 세운다



동상초등학교
하승



수상소감

먼저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 '칭기즈 칸'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테무진은 9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굶주림을 달래며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겨우 10만의 병사로써 세계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 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1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칭기즈 칸을 선정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테무진처럼 깨끗하게 역경을 극복하며 멋진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칭기즈 칸

역사책속에서 칭기즈 칸의 일생을 만났어
 정복왕 칭기즈 칸보다
 나는
 어린 테무진*이 좋아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테무진을 생각해 봐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삼이며 팽이며 낫을 만드는 대장장이 테무진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야
 유목민의 음식인 양고기와 우유도
 풀밭에서 나거든
 농기구가 있어야 곡식들이 쑥쑥 자라고
 아이들도 따라 자라거든
 나는 몽골 제국의 카칸** 칭기즈 칸이 아닌
 대장장이 테무진을 만나러
 어젯밤처럼
 오늘밤에도 역사책속으로 달려가는 거야

* 테무진 : 칭기즈 칸의 어린 시절 이름으로 대장장이라는 뜻

** 카칸 : 몽골제국의 황제



경기도 평택시
김경태



수상소감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 바다를 보면서 꿈을 키운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바닷가에서 뛰놀던 나의 어린 시절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 돌고래 떼를 생
각해 봅니다.
바다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시를 써
나가겠습니다.

돌고래무늬 커튼

얼마 전 반구대 암각화를 보았을 때, 나는 이 바위 주변에 살았을 옛사람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이어차, 어이어차, 뱃머리를 올려라.
오늘도 만선이다. 더 먼 바다로 어이어차.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돌고래들이 반짝이는 이 암각화에 나 또한 나의 바다를 새겨 넣고 싶었습니다.

파도는 어느 방향으로부터 밀려오는 것일까요.

이른 아침 창문을 여니 새로 산 돌고래무늬 커튼이 하늘거렸습니다.

고대의 바다를 누비던 한 무리 돌고래 떼를 내 작은 방 안에 풀어놓았습니다.



철원 내대초등학교
김 지 수



수상소감

학교에 연못이 있는데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물 위로 떠다니는 소금쟁이, 거꾸로 헤엄치는 송장헤엄치개, 사마귀를 꼭 닮은 게아재비,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이름 모를 물고기들... 시간 날 때 마다 연못을 지켜보니 그곳엔 내가 몰랐던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를 읽는 것도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살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시를 읽어주고 함께 자연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눈

눈이 내린다
그걸 보려고
작은 창으로

아빠
엄마
아이
모두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하루 내내
바꿨던 얼굴들이
그제야 나란히 붙어 서서



울산시 울주군
김봉대



수상소감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몇 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온 새댁은 나이가 스물한 살에야 하얀 흰 눈을 처음 보았다고 감격해 했다. 처음 본 눈을 보면서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그 새댁,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빌어본다.

삶(사람)은 누구나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간다. 그 와중에 어디서 살 때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된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민들레, 외국에 가면 그 나라에 민들레가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 다행스럽게 민들레들은 잘 살아가고 있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민들레가 있다. 우리 모두는 언제 내가 민들레가 될지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먼 타국에서 온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담장이 없는 이웃처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부끄럽습니다.

어디로 가니?

가을바람에 떡갈나무 잎이 꿈 떨어지는데
길가에 혼자 핀 민들레꽃 송이는
하얀 꽃잎이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한다.

“민들레야, 너는 어디로 갈거니?”

“글쎄, 바람이 부는 데로 가지,”

“나도 너를 따라 가고 싶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새댁은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민들레꽃이 부러워
날아가는 흩씨를 하염없이 바라만 봅니다.



청주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
이 기 락



수상소감

넉넉하고 정감 있던 산골의 유년시절 하늘, 바람, 꽃은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생존경쟁 속으로 빠져들면서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지요.

문득 돌아보니 자연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골분교에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묻혀있던 씨앗들이 하나둘 움트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이 모여져 입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쁨은 의미가 큼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고 회갑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과 유년시절의 정서를 품고 살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해준 아내와 심사모 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카톡해요

봄 햇살 내려앉은

따사한 올안에

어미닭 흥겨워

꼬 꼬 꼬

노래부르고

삐약삐약

병아리

개나리꽃 피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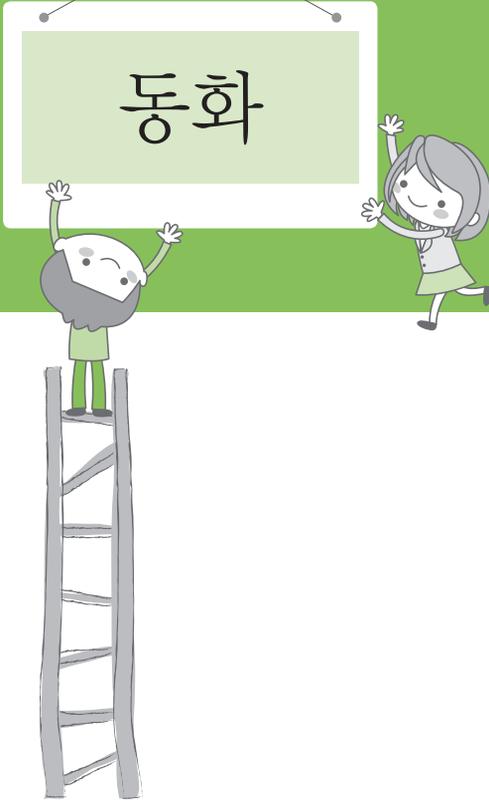
뒷마당 할머니

고고고 고고

모이 한줌 뿌리면

카톡 카톡 카톡

어미닭 문자 쏘는 소리



심사평

응모작 중에서 진부한 이야기, 생활문 비슷한 이야기 등을 제하고 보니 15편으로 압축되었다. 이를 두 심사위원이 정독하여 10편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작품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6편을 뽑아 순위를 정하였다.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한 작품이 『똥똥지』와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였다. 짙한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친다면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를 꼽을 수 있겠으나 소설적인 표현 때문에, 단 순명쾌하게 『똥똥지』의 의미를 재해석한 『똥똥지』를 금상,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를 은상으로 결정하였다.

심사위원: 박성배, 이규원



금상 ● 똥단지

진)진안 정천중학교 이용호

은상 ●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

이천 설봉초등학교 임민수

동상 ● 느루네 집

경기도 남양주시 박경리

내 이름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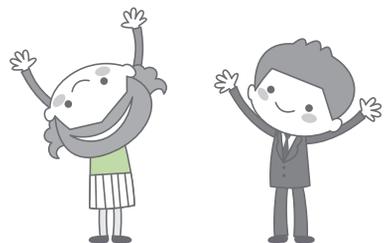
오산 고현초등학교 양현애

입선 ● 못난이 양과

양주 칠봉초등학교 윤상인

블랙홀에 빠진 핸드폰

대구교육청 김철구





전진안 정천중학교
이용호



수상소감

동화(童話) 부문 금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심사위원의 실수(또는...)로 내 작품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입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 문제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민법 제 678조---현상공모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못한다).

이번 공모전에서 낙선된 분들 가운데, 본인의 작품이 저의 작품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작품을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이 저의 작품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상장과 상금을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이것이 동심(童心)을 추구하는 자의 자세이며, '산문정신(散文精神)'이라고 생각합니다.

(5yongho5@daum.net)

똥판지

어머, 어머니나... 가을—하늘이 강물 속에 펼쳐져 있었다. 낮달이 강물 속에 떠 있고, 뭉게구름도 강물 속으로 흘러갔다. 송사리 떼가 그 뭉게구름을 타고 놀았다. 강물 속으로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타 보려는 욕심에, 소금쟁이도 강물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우리들은 강변에서 ‘물수제비—뜨기’ 놀이를 했다. 납작한 돌멩이를 골라 엉덩이에 쓱쓱 문지른 후, ‘언더핸드’—투수 같은 폼으로 강물 위로 힘껏 던진다. 그 돌멩이가 물 위를 담방담방 튀어 날아간다. 물위를 퐁—퐁—퐁 튀어가며, 물수제비를 뜬다.

자칭 ‘호랑나비’라는 별명을 가진 호준이 차례였다.

‘호~호~호~호.’

호준이가 던진 돌멩이가 강물 위를 호랑나비처럼 날아갔다. 4개의 물수제비를 만들었다. 먼저 던져, 3개씩을 기록한 상진이와 민수는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 유독 명수만은 호준이의 기록 4개를 비웃었다.

“에헤~, 그것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지.”

호준이가 자책하듯 오른발로 땅바닥을 세차게 밟아 댔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미끌미끌할 정도로 촉감이 좋은 돌을 골랐다. 던지는 폼이 좋아야 한다가에, 몇 번 연습을 해 보았다. 하지만, 남자 아이들처럼 멋진 폼이 나오질 않았다. 입술을 맞물고 강물을 향해 힘껏 돌

을 던졌다.

‘수~수.’

겨우 2개였다. 강변에서 지켜보던 물-역새꽃들이 하얗게 웃었다. 홍일 점이라는 것 때문이었을까. 명수도 나의 ‘물수제비-뜨기’ 기록은 비웃지 않았다.

영똥하게도 나를 칭찬한 아이가 있었다.

“수정아, 멋지다, 최고였어. 마치 물 찬 제비 같았어.”

‘똥판지’라는 별명을 가진 웅철이었다. 선생님에게 매번 영똥한 질문을 해 대는 아이다. 초등학생이 원자폭탄 제조 원리를 질문한 적도 있었다. 여름에 털모자를 쓰고, 겨울에 반소매 티를 입고 학교에 오는 아이. 그 웅철이가 엄지를 치켜세우며 내 편을 들자, 아이들이 실실 웃었다. 내 얼굴이 금세 홍당무가 되고 말았다.

샘이 많은 친구, 명수 차례였다. 명수가 오른팔을 빙빙 돌리더니, 앞으로 나섰다. 갑자기 뒤로 돌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저 묘한 눈빛……. 요즘 들어 자주 날아드는 명수의 야릇한 눈빛에 부담을 느끼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소로 맞아주었다.

명수의 준비 동작은 야구의 언더핸드-투수-폼 그대로였다. 4개를 비웃은 만큼 최고 기록도 세울 것 같았다. 내 휴대폰으로 명수의 <물수제비-뜨기> 장면을 잡기로 했다. 명수가 미끈한 돌멩이를 엉덩이에 ‘쓱쓱-쓱쓱’ 문지른 후, 돌멩이에 입맞춤을 한 다음, 강물 위로 힘차게 던졌다.

‘명~명~명~명~명.’

아이들의 눈빛이 명수가 던진 돌멩이를 따라 강물 위를 달려갔다. 내 마음도 물위를 ‘동-동-동’ 뛰어 갔다. 명수가 던진 돌은 마치 ‘바실리스

크’ 도마뱀이 강물 위를 뛰어가는 것 같았다. 다섯 개의 물수제비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와’ 하고 부러워했지만, 명수는 ‘에잇’하고 자책하는 소리를 내뿜었다. 자기의 최고 기록 6개를 깨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몸집에 비해 머리통이 유난히 큰 웅철이 차례였다. 얼굴은 좀 미련한 듯 생겼는데, 유머 감각이 반짝이는 아이다. 공부도 못하는 편인데, 바둑 실력은 아마 3단이란다. 우리 선생님이 웅철이한테 바둑을 배운단다. 하지만, 신발을 짹짹 신고 다니기도 하는 아이. ‘퐁판지같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친구다.

웅철이의 준비 동작은 참 엉뚱했다. 갑자기 가수 ‘싸이’의 ‘말-춤’을 추기 시작했다. 상진이, 민수, 호준이가 얼떨결에 따라 했다. 내 몸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말뚝처럼 서 있던 명수가 웅철이를 바라보며 이죽거렸다.

“야지랑 떨어졌네, 퐁판지같은 놈.”

가자미눈을 뜨고 명수가 또 비아냥거렸다. 웅철이는 오히려 명수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여간해서 화를 내는 법이 없다.

‘퐁~퐁~퐁?’

내가 예상하는 ‘퐁-판-지’의 물수제비 기록은 3개였다. 적어도 내 기록 2개는 넘어설 것 같고, 평소 삼(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웅철이가 ‘물수제비-뜨기’를 위해 폼을 잡았다. 왼발을 들어 올려 막 던지려는 순간, 강물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햇빛을 받은 물고기의 옆구리에서 한 줄기 빛이 반짝였다. 은빛 ‘물빛-꽃’ 그리고, …… ‘그대로 멈춰라’, 게임을 하듯 똑 멈춰 선 웅철이가 그 빛을 쫓고 있었다. 반짝…, 웅철이의 눈에서도 ‘눈빛-꽃’ 한 점이 피어올랐다.

이윽고 뜻 모를 미소를 짓더니, 웅철이가 손에 쥐고 있던 납작한 돌멩

이를 풀밭에 던져 버렸다. 이어, 생똥맞게도 호박만 한 돌덩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것을 마치 포환던지기를 하듯 강물로 던졌다.

“퐁~당!”

강물 위에는 물수제비 대신 파문이 일었다. 동그라미 하나가 강물 위에서 피어나, 수많은 동그라미를 새롭게 만들며,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에라잇, 똥판지같은 놈. 네 기록은 ‘영’이야, ‘뽕’.”

명수가 웅철이 머리에 꿀밤을 먹이며 소리쳤고, 아이들도 웅철이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그렇게 통바리맛고도 웅철이는 환하게 웃었다. 웅철이는 평소에도 그렇게 종종 엉뚱한 짓을 하여 꿀밤을 얻어맞곤 했다. 그 결과가 ‘똥판지’라는 별명이었다.

한 시간 전, ‘물수제비-뜨기’ 놀이를 하러 오던 중에도 웅철이는 엉뚱한 행동으로 이미 꿀밤 4대를 얻어맞았었다. 강변 물억새 사잇길을 걸어 오는데, 호준이가 담임선생님의 흉을 보았다. 담임선생님의 별명은 ‘방귀-쟁이’였다.

“……, 그 냄새가 정말 죽인다, 죽여.”

아이들이 웃어 대는 순간, 웅철이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쉿, 조용히 해. 지금 우리의 말을 몽땅 엿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췌.”

아이들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우리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상진이가 입을 비쭉거리며 말했다.

“웅철아,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아?”

웅철이가 양쪽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하얀 억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몽땅 엿듣고 있잖아!”

‘아뽕싸’ 하며 나는 내 무릎을 딱 쳤다. 엉뚱한 것 같으면서도, 웬지 가

숨에 와 닿는 웅철이의 반짝이는 유머에. 하지만, 아이들은 웅철이에게 꿀밤을 먹여 댔었다.

우리들의 ‘물수제비-뜨기’ 놀이는 웅철이의 엉뚱한 행동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터덜터덜 강변 둔치 풀밭을 걸었다.

강변 둔치 밭에 이르렀을 때였다. 민수가 그 밭에 무리 지어 피어 있는 샛노란 꽃을 발견하고, 요리조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이 꽃은 ‘쑥방망이’야.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민수의 말투에서는 어쩐지 쑥-냄새가 풍겼다.

“아니야. 이 꽃은 노란 들국화야. TV에서 본 기억이 있어.”

명수의 말꼬리에는 확신하듯 힘이 실려 있었다.

“아니야, 이 꽃은 금불초야. 채소가게를 하는 우리 이모한테 들었어. 이 금불초는 봄에 어린순을 뜯어 나물로 먹는다고 했어.”

평소 조용하던 상진이도 목소리를 높였다. 호준이도 상진이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엔 구절초 같았지만, 자신이 없어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겨 대고 있었다. 맨 나중에 도착하여, 그 꽃을 살펴보던 웅철이의 얼굴이 갑자기 노랗게 변했다. 이상하여, 내가 물었다.

“웅철아, 갑자기 왜?”

“아, 아무 것도 아니야.”

그 꽃을 잡고 있는 웅철이의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웅철이를 다그쳤다.

“웅철아, 혹시 너, 이 꽃 이름이 뭔지 알고 있는 거야?”

웅철이가 움찔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모, 몰라. 수정아, 나는 정말 모, 몰라.”

말까지 더듬었다. 평소 웅철이답지 않은 엉뚱한 반응이었다. 웅철이가 내 눈빛을 피하느라 강물 쪽으로 눈을 돌렸다.

쑥방망이, 노란 들국화, 금불초, 내가 주장한 노란 구절초까지 뒤엎쳐서 강변이 시끌벅적했다. 결국 우리들은 내기를 했다. 그 꽃 이름을 알아맞힌 사람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을 몰아주기로. 모두 동의했는데, 웅철이만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머뭇거렸다.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기로 했다. 내가 휴대폰을 켜자, 아이들의 눈이 내 휴대폰 화면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웅철이는 마뜩잖은 표정을 지으며 돌멩이 하나를 물-역새발 속으로 집어던졌다. 순간, 역새발 속에서 핑 한 마리가 화들짝 날아올랐다.

쑥방망이, 노란들국화, 금불초, 구절초까지 검색창에 모두 쳐 넣어 봤지만, 그 꽃과 똑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 꽃 모양이 비슷하면 잎 모양이 달랐고, 잎 모양이 비슷하면 꽃의 모양과 크기가 달랐다. 꽃 이름 자체가 없는 것도 있었다.

마침 좀 떨어진 곳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 아주머니가 보였다. 나의 제안으로 그 분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명수가 그 어른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잠시 뒤로 물러나 있던 웅철이가 ‘잠깐’을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눈을 감고 입을 앙다물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이 셋노란 꽃의 이름은 똥..., 똥판지야, ‘똥판지-꽃!’”

아이들 모두 멍한 눈으로 웅철이를 바라보았다.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었다.

아이들이 웅철이에게 통을 놓기 시작했다.

“똥판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웅철이 너는 역시 ‘똥판지’야.”

“‘똥판지’보다는 차라리 ‘똥-단지’가 더 어울리겠다.”

“똥판지란 말은 들어 보았지만, ‘똥판지-꽃’이란 말은 난생처음이야.”

통바리맞던 웅철이가 이번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급기야 내 입에서도 한마디가 터졌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에 ‘똥판지’란 이름을 붙이다니, 멍청한 노-
음.”

웅철이가 내 눈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수정아, 너마저…’ 하는 눈빛이었다.

웅철이가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낀 채, 다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후, 말했다.

“거짓말 아니야. 이 꽃은 ‘똥판지-꽃’이야. 우리 고모네 집에 가면 텃밭에 엄청 많아. 우리 고모부는 이 똥판지를 ‘돼지감자’라고 불러.”

말을 끝낸 웅철이가 입을 앙다물었다.

“♪ 똥판지-돼지감자, 똥판지- 돼지감자……. ♪”

아이들은 이제 웅철이를 ‘돼지감자’라고 놀려 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양감질로 웅철이 주위를 돌며, 조롱했다. 웅철이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투덜거렸다.

“에잇, 이놈의 ‘똥판지-꽃’. 하필 여기에 피어 있어 가지고…, 사람 쪽 팔리게 만들고 있네. 아, 쪽팔려!”

웅철이가 샛노란 꽃 한 송이를 꺾어, 입맞춤을 한 다음, 꽃잎 한 장 한 장을 떼어 바람에 날려 주었다. 그 예쁜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샛노란 웃음을 터뜨리는 것만 같았다. 웅철이가 비로소 폭소를 터뜨렸다. 불길한 예감 하나가 눈앞을 스쳐지나갔다.

아이들은 아직도 웅철이를 ‘돼지감자’라고 놀리는 것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 얼레리 꼴레리-똥판지, 얼레리 꼴레리-돼지감자……♪.”

아이들의 비웃음소리에, 그 꽃에 앉으려던 꿀벌이 화들짝 날아올랐다. 그 순간이었다. 내 가슴속에서는 ‘혹시’라는 낱말이 돌아났다. 그것이 마치 꿀벌의 독침처럼 내 가슴을 콕 찌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얼른 휴대폰을 열고, 검색창에 ‘똥판지-꽃’을 쳐 넣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내 입에서 탄성이 터졌다.

“어머, 세상에… 오, 하느님 맙소사.”

휴대폰 화면에 ‘똥판지-꽃’이 셋노랑게 피어나고 있었다.

‘…〈똥판지〉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초로, 땅속줄기의 끝이 굽어져 감자모양의 덩이줄기가 된다. 노란 들국화처럼 보이는 꽃은 초가을에 피며, 덩이줄기는 식용 또는 가축 사료로 쓰인다. 사람들은 그 똥판지를 ‘돼지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엔 당뇨병 치료 식품으로 선풍적 인기가…….’

꿀벌에 쏘인 것처럼 얼굴은 화끈거리고, 아랫배에서는 ‘콕’ 찌르는 듯한 통증 하나가 지나가고, 휴대폰을 움켜쥔 내 손이 바르르, 바르르르 떨렸다.

“왜 그래, 수정아?”

명수가 물었지만, 내 말문은 열리지 못했다. 동-동-동, 동-동-동-동-동… 두근거림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내 앞으로 몰려들었다. 상진이, 민수, 호준이의 입이 짹-짹-짹 벌어졌다. 이어 명수가 내 휴대폰을 빼앗듯 잡아 들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입이 짹 벌어지더니, 그 자리에 벌렁 누워버렸다. 미소를 머금

은 응철이의 눈빛이 명수를 겨냥하자, 명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석새밭 속으로 숨어버렸다.

응철이가 엄지를 우뚝 세우며, 나에게 한마디를 쓰았다.

“수정아, 고맙다. ‘똥판지’를 ‘똥판지-꽃’으로 만들어 주다니!”

응철이에게 잼을 날리고, 카운터펀치를 맞은 셈이었다.

응철이가 풀밭에 벌렁 누워, 자지러지게 웃어 댔다. 응철이의 얼굴이
 마치 ‘똥판지-꽃’처럼 보였다. 그 샛노란 웃음소리가 내 가슴속으로 몰려
 들어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샛노란 바람기둥이 내 가슴속 이
 곳저곳을 휘젓고 다녔다. 그 회오리바람에, 내 몸이 허공으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위장과 콩팥, 심장이 샛노랑
 게 물들더니, 폐(가슴)까지 샛노랑게 물들어 버린 느낌. 아니, 물들어 버
 리고 싶은 내 마음……. 드디어, 내 가슴속 중심에 ‘똥판지-꽃’ 한 송이가
 함초롬히 피어나고 있었다.

상진이, 민수, 호준이가 다시 똥판지-꽃을 어루만지며 자세히 관찰했
 다. 상진이와 민수는 뒷머리를 긁적였고, 호준이는 자기 머리에 스스로
 꿀밤을 먹여 댔다. 그 순간, 석새밭 속에 숨어 있던 명수가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손-나팔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외쳤다.

“나는 ‘똥판지’다~, 내가 바로 ‘똥판지’야~.”



이천 설봉초등학교

임민수



수상소감

처음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콧방귀 낄거라는 예상과 달리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해준 집사람에게 고맙고, 아들 임현승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아빠, 엄마, 누나 고맙습니다. 항상 걱정해 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도 감사드립니다.

글이 막힐 때 마다 순수한 말과 순박한 웃음으로 해답을 제시해 준 제자들에게 고맙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아이의 마음을 대변하여 동화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상이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

사람들은 우리 아빠를 경비원이라고 불러요. 난 사실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저 언제나 검게 그을린 얼굴로 웃으며 퇴근하시는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는 것이 제가 아빠와 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날 밀쳐내시곤 화장실로 부리나케 들어가 씻으세요. 그래서 난 때론 아빠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한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신 아빠는 언제나 내 동생 윤하를 먼저 꼬옥 안아주시거든요.

우리 아빠 아침에 회사를 나가시지만, 저녁에 회사에 나가시는 날도 많으세요. 저녁에 출근을 하는 날이면 엄마는 아빠를 더욱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나는 아침에 회사를 가시는 아빠가 더 좋아요. 아빠랑 함께 동네 앞 정류장까지 걸어가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하면 우린 인사를 나눠요. 아빠 등교하는 제 모습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세요. 그 모습은 정말 해처럼 밝게 빛이 나요. 아마 동생 윤하가 질투할까봐 집에서는 동생을 안아주시지만, 밖에서는 진짜 아빠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나의 궁금증을 꼭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아빠가 나와 동생 윤하 중 누구를 더 많이 사랑 하시는지 물어볼 거예요. 학원을 마치고 아빠를 찾아갈 거예요. 아빠가 일하시는 곳은 제가 얼마 전 새로 다니게 된 미술 학

원 옆 옆 옆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높고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크고 높은 아파트는 우리 학원 옆에 딱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전 어렵지 않게 아빠를 찾아갈 수 있어요.

마침 오늘은 학원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사람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난 아빠를 만날 생각에 당연히 아빠의 얼굴을 그렸어요. 도화지에 한가득 아빠의 얼굴을 채웠어요.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려 아빠의 몸은 아주 작아져 버렸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뿐이었어요.

아빠를 만나러 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학원 옆 한마음 소아과를 지나 셋별 마트를 가로질러 왼쪽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아빠가 일하는 아파트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얼른 뛰쳐나와 버렸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운동화를 꺾어 신어 넘어질 뻔 했지 뭐예요. 나는 운동화를 다시 고쳐 신고 또 고쳐 신었어요. 빨리 뛰어가려면 운동화를 단단히 신어야 해요. 날 보면 깜짝 놀라실 아빠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아빤 내가 어린 시절 나를 곤잘 놀리곤 하셨어요. 아니 글썄 내가 다리 밑에서 주어진 아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때면 놀라 남몰래 울기도 했지만 이젠 그런 장난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젠 내가 아빠를 놀라게 해 줄 차례예요.

아빠가 계시는 아파트는 입구가 아주 커다랗고 높았어요. 그림책에서나 보던 멋진 성처럼 말이죠. 입구뿐만이 아니에요. 아파트 안엔 공주님의 성에서나 볼 수 있는 분수와 푸르른 나무, 화려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었어요. 마치 놀이공원에 놀러 온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아요. 힘차게 솟아오르는 분수 뒤로 아른 아른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역시 우리 아빤 정말 멋진 곳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어서 아빠를 찾아 달려가 안

기고 싶어요. 아빤 대체 이 넓은 곳 어디에 계신 걸까요? 마침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강하옥 경비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응? 뭐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또박 또박 말씀드렸어요. 강.하.옥 경비원이에요.

“아~ 경비. 저 쪽으로 가보렴.”

아주머니는 아파트 한편 그늘진 곳에 위치한 작고 낮은 건물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고개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는 무표정으로 어깨를 한 번 으쓱 하시곤 발걸음을 재촉하셨어요. 저도 얼른 뒤돌아 아빠가 계신다는 곳을 향했어요. 얼른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 하니까요. 작고 낮은 건물의 문을 벌컥 열고 아빠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 곳엔 아빠가 안 계셨어요. 푸른색의 옷을 입은 다른 아저씨가 앉아 계셨지요.

“우리 아빤 어디 가셨나요?”

제가 묻자 아저씨께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너의 아빠가 누구시니?”

“우리 아빠 성함은 강.하.옥 이에요.”

“아하, 강 씨 딸이구나, 아빠는 저기 102동이라고 쓰여 있는 아파트 옆 작은 건물에 계실거야 거기로 가보렴.”

이번엔 아빠를 정말로 찾을 수 있겠죠? 저는 102동이라고 쓰여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역시 그늘진 곳 작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은 건물의 조그만 창문으로 살짝 안을 엿봤어요.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회색 운동화, 거칠거칠한 손, 수염자국, 그리고 검게 그을린 피부. 우리 아빠가 확실해요. 드디어 아빠를 찾았나 봐요. 이젠 아

빠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동생 중 누굴 더 좋아하시는지요.

마침 아빤 장갑을 끼면 건물 옆 작은 창고로 향하셨어요. 그곳엔 산더미 같은 종이가 쌓여있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종이를 버리고 갔어요. 아빠는 그 곳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차곡차곡 주어 올리시며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아빤 경비원이에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경비원은 아파트를 지키는 영웅이라고요. 우리 아빤 지금 아파트를 깨끗하게 지켜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때, 한 아주머니께서 아빠에게 말을 거셨어요.

“703호 택배 왔어요?”

아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훑어보시더니 택배가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잘 찾아보세요. 703호요. 왔을 텐데.”

아주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빠를 다그쳤어요. 아빠는 높다랗게 쌓인 상자를 하나씩 다시 바닥으로 내리며 아주머니의 택배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으면 703호로 갖다 주세요.”

아주머니는 휴대전화를 몇 번 꺼냈다 넣었다 하시더니 한마디를 남기곤 종종 걸음으로 가버리셨어요.

아빠는 다시 내려둔 상자를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하고 아빠를 큰 소리를 부르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빠를 등 뒤에서 불렀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아빠가 놀란 눈으로 날 바라보셨어요. 그러곤 이내 웃으시며

“우리 딸, 여길 어떻게 왔어?”

놀란 아빠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내 학원은 잘 다녀왔는지, 점심은 잘 먹었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는지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우리 아빠가 확실해요. 잔소리 하시는 모습을 보니.

아빠 상자 쌓기를 마무리하시곤 날 아빠의 작은 공간으로 데려갔어요. 그 곳엔 아빠의 책상과 의자, 그리고 신기한 기기들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빼걱대는 의자에 앉자 책상 위 작은 선풍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훑날렸어요. 아빠는 책상 위에 살짝 엉덩이를 붙이시곤 날 보며 웃으셨어요.

“오늘은 미술학원에서 무엇을 배웠어?”

아빠 내가 학교에선 뭘 배웠는지, 학원에선 무엇을 했는지 늘 궁금해하세요. 그런 아빠를 위해 오늘 그린 아빠의 얼굴을 꺼내보였어요. 등글게 말린 종이가 약간 구겨졌지만 그림 속 아빠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딸, 아빠를 아주 멋지게 그렸구나. 어디보자 아빠가 보답으로 선물을 해야겠는데…. 잠시만 있어볼래?”

모자를 벗어 바지 깃을 툭툭 터시던 잠시 사라지셨던 아빠가 까만 봉지를 들고 달려오셨어요. 아빠의 가슴에 달린 호루라기가 햇빛에 반사되어 아주 멋지게 반짝였어요. 봉지 안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콘이 들어있었지요. 역시 오늘 아빠를 만나러 온 건 참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려던 참이었어요.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어이~ 강씨. 지금 뭐하는 거야?”

모르는 아저씨가 아빠에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아빠는 웃으며 왜 그러시냐고 물으셨어요.

“703호!! 택배 왜 안 갖다 줘?”

아저씨는 소리쳤어요.

“아~예. 사장님, 그게 아직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네요.”

아빠는 무서운 아저씨께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하셨어요. 아빠의 대답을 들은 아저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려다 갑자기 뺨 뒤 돌아 보시며
“강씨! 놀지 말고 일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아빠를 노려보곤 다시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아빠는 잠시 멍하니 말없이 서 계셨어요. 아빠에게 이유도 없이 화를 낸 그 아저씨는 마치 만화영화에 나오는 악당과 같았어요.

아빠 다시 날 물끄러미 보시더니 빙긋 웃으며 아이스크림이 맛있냐고 물으셨어요. 난 아직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못 했는데... 아빠가 어색해하실까봐 아주 맛있다고 대답해 버렸어요. 저는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아파트를 지키는 게 재밌어?”

아빠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아파트를 지키는 건 보람된 일이지.”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여쭙보았어요.

“조금 전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지?”

아빠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예상과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슬하야. 조금 전 그 아저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바쁜 사람인 걸.”

전 아빠의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생각하고 아이스크림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아빠와 나 사이를 뒹뒹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빠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이유가요.

“아빠!!!”

“응?”

“아빠 물어볼 것이 있어요. 아빤 나와 윤하 중에…”

그 때 었어요.

“강씨, 이거 먹어요~”

한 할머니가 바람처럼 지나가시며 빵을 넣어주셨어요. 아빠가 감사하다며 벌떡 일어나 인사하는데 이미 할머니는 자리를 떠나고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할머니가 이거 아빠 먹으라고 주신거야?”

“응, 아빤 아파트를 지키는 영웅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나눠주고 때로는 선물도 준단다.”

아빤 하얀 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싱글벙글 웃으시며 으쓱해 하셨어요.

“슬하야 빵 먹을래?”

“아니. 난 아이스크림 다 먹고 먹을 거야.”

“그래, 그럼 아빠가 혼자 다 먹어버려야지~”

아빠는 봉지를 쪽 찢으시고 크림빵을 한 입 크게 훅 베어 물으셨어요.

빵뽕~~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큰 트럭이 급하게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곤 운전석에서 기사님이 내리시더니 크고 작은 상자들을 급하게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흰 장갑을 멋지게 끼곤 밖으로 달려 나갔어요.

“이야~ 오늘은 택배가 더 많네요. 허허허”

아빠는 그렇게 너털웃음을 지으며 쌓여있는 상자를 어깨에 척척 메고 창고 안으로 분류해 넣으셨어요. 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니 왠지 아빤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였어요. 아빠가 ‘엇’ 하

는 신음소리를 내며 상자를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아빠!!!!”

내가 놀라 밖으로 달려 나가자 아빠가 싱긋 웃으며 소리쳤어요.

“아냐 아냐 괜찮아. 아빠가 실수로 상자를 떨어뜨려버렸네.”

아빠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보였어요. 우리 아빠는 강하고 멋진 영웅이라 다시금 힘차게 상자들을 창고로 옮겼어요.

띠리리링~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아빠의 휴대 전화예요.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는 열심히 일하시느라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받으면 엄마가 많이 놀라실 텐데. 하지만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아~~”

“어머, 슬하니? 너 왜 아빠 전화를 받아? 너 어디야? 아빠는?”

엄마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마침 다행히 아빠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셨어요. 아빠는 한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계셨어요.

“아빠, 엄마 전화 왔어요.”

나는 아빠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어버렸어요. 엄마를 상대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엄마와 통화를 마친 아빠가 내게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피자와 햄버거를 사 줄 테니 얼른 집으로 오랬대요. 엄마는 평소 피자나 햄버거는 착한 음식이 아니라며 조르고 졸라도 사주지 않으시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조르지 않아도 사주신대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겠어요. 제가 없는 사이 동생 윤하가 다 먹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아 참!!! 아빠에게 물어볼 것이 생각났어요. 이번엔 진짜 대답을 듣고 갈거예요.

“아빠, 아빤 나랑 동생 중에 누가 더...”

그 때였어요.

“이봐 강씨!! 택배 온 지가 언젠데 왜 아직 안 갖다 줘?”

아까 그 무서운 703호 아저씨예요.

“아, 네. 사장님. 이제 막 도착해서 연락드릴 참이 었...”

“일 똑바로 못 해!”

아저씨가 또 무섭게 소리쳤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밋고 너무 싫은 아저씨예요. 아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쁜 사람이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저 나쁜 사람 같았어요. 아저씨가 소리치는데 무서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영, 영”

내가 울자 아빠도 나쁜 아저씨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힘든 일을 하는 이 아파트의 집꾼 같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 어~ 이거 참. 강 씨 딸이야 일터에 애를 데려오면 어떡해?”

무서운 아저씨가 날 힐끔 보더니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혼나나 봐요. 갑자기 아빠에게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 때, 지금까지 웃기만 하던 아빠의 표정이 아주 무섭게 변했어요. 아빤 나쁜 아저씨에게 크고 근엄한 소리로 말했어요.

“703호 사장님. 이 아이는 사랑스런 제 첫째 딸입니다. 지금 우리 딸이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아직 어린 녀석이 아빠가 하는 일이 궁금해 여기까지 온자 찾아온 모양입니다. 사장님은 자녀가 없으십니까? 제가 일에 있어 부족하다면 모를까 제 딸이 여기 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으니 이제 그만 하시고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택배는 조금 전

도착해서 창고로 옮겨놓았으니 직접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그 동안과 다른 멋진 모습으로 나쁜 아저씨를 혼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정말 멋진 영웅 같았지요. 아저씨는 멋쩍어 하며 택배를 찾아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제야 다시금 미소를 띤 아빠가 내 등을 토닥여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하야, 많이 놀랐니? 아빤 괜찮아. 걱정하지마. 사랑하는 우리 딸 이제 그만 울자. 응?”

나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의 인자한 미소 뒤로 붉은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가 걱정하시니 집으로 가야지?”

아빠가 말했어요.

“응, 아빠. 이제 가야겠어. 아빠도 일찍 와서 같이 피자랑 햄버거 같이 먹자. 내가 아빠를 위해 피자와 햄버거를 지키고 있을게. 윤하가 다 먹지 못 하도록.”

아빠가 싱긋 눈웃음을 지어보였어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아파트를 돌아보았어요. 우리 아빤 아파트를 지키는 영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나를 지켜주기 위해 아파트에서 힘든 일도 웃으며 하시는 나의 영웅이었어요. 이젠 아빠에게 나와 동생 중 누굴 더 좋아하는지 묻지 않을래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대신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말해줄래요.

“아빠,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나와 우리 가족을 늘 지켜줘서 고마워요.”라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박 경 리



수상소감

너희 강들아, 여호와 앞에서 손뼉을 쳐라!
너희 산들아,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라!
[성경의 시편 98:8]

감사함으로 손뼉치고 노래하기 좋은 5월!
어마어마한 선물 주셔서
손뼉 치며 기뻐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루네 집

“이렇게 멋진 집을 가진 생쥐는 이 세상에 나뿐일 걸!”

꼬꼬마 생쥐 ‘느루’는 자기 집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느루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 속, 부디할아버지네 오두막집에서 살았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오두막집의 구석방 천장에서 살았어요, 이 방을 ‘먼지방’이라고 부르면서요. 부디할아버지가 오래도록 청소하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했거든요.

부디할아버지는 뭐든지 거북이처럼 느렸어요. 말할 때, 걸을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눈을 깜박일 때도 느릿느릿했어요.

잠깐! 느루네 집을 더 설명해야 해요.

밤이 되면 느루는 먼지방 천장에 뚫어놓은 구멍에서 고개를 쭉 내밀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기타줄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요. 그 다음에는 기타 옆 옷걸이에 걸린 부디할아버지의 멜빵바지로 옮겨가요. 그 다음에는 멜빵바지에 달린 가슴주머니로 들어가요. 바로 여기예요! 멜빵바지에 달린 가슴주머니! 적당히 깊고 아늑한 가슴주머니! 여기가 바로 느루네 집이에요.

밤이 오면 느루는 이 가슴주머니집에서 달콤한 휴식을 가져요. 때로는 친구랑 밤새도록 노는 꿈도 꾸었어요. 부디할아버지한테 쫓기는

꿈이 한 번 있었지만 상관없어요. 가슴주머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날다람쥐도 상상할 수 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별똥별의 모형도 상상할 수 있거든요.

며칠 전,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먼지방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의 먼지들이 훅~ 한꺼번에 날아올랐죠.

“어-디서-부터 치우-지-?”

부디할아버지가 방안을 느리게 둘러보더니, 느루네 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깥 빨래통에 던져버렸지요.

“먼지방이 아닌 바깥에서 잠드는 것도 꽤 멋진걸! 사랑거리는 밤바람도 기분 좋고, 밤새들의 비밀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

느루는 땀냄새 지독한 빨래통이라도 상관 없었어요. 가슴주머니가 빨래통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잠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부디할아버지는 세탁된 멜빵바지를 입고 먼지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느린지 그 작은방을 치우는데 이틀이나 걸렸죠. 물론, 천장의 구멍도 새 벽지로 막혀버렸지요.

“괜찮아, 구멍은 하루에 열 개도 뚫을 수 있어!”

느루는 부디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어요, 밤마다 먼지방문 앞에 걸리는 느루네 집만 있으면 되니까요.

먼지방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멜빵바지가 걸렸던 곳에는 작고 파란 옷들이 걸렸고, 바닥과 벽지도 온통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천장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커다란 바퀴가 달린 침대와 파란색 이불이 펼쳐졌어요. 변하지 않은 건 낡은 기타뿐이었어요. 아참! 느루가 새로 뚫은 구멍도 그대로예요.

“너석-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끼이익! 걱정스런 얼굴로 먼지방을 둘러본 부디할아버지는 점심때서야 다시 돌아왔어요. 곱슬머리에 커다란 가방을 짊어진 꼬마와 함께 말이죠. 곱슬머리 꼬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니가- 쓸- 방이다. 저 구멍-은 생쥐가 뚫-은 건데 걱정 말아라-. 생쥐가 널- 해칠 만-큼 크지 않-단다. 네 귀보-다 작을 거야. 구-멍이 아주- 작지?”

부디할아버지가 천장에 뚫린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열 살인데 이렇게 작은 생쥐 따위가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곱슬머리가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고, 힘주어 말했어요.

“후유~ 곱슬머리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 잔뜩 겁먹은 눈이었어.”

느루는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내려다 봤어요.

“이 방의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 특히, 저 낡아빠진 기타와 생쥐는 너무 싫어!”

곱슬머리는 부디할아버지가 방에서 나가기 무섭게 소리쳤어요.

“쳇,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인지 모르겠군. 저 녀석 때문에 기타를 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지붕으로 나가야 하니 여러 가지로 귀찮아.”

느루는 투덜거리면서 지붕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곱슬머리가 뭐라 든 신경 쓸 틈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점심때 돌아온 부디할아버지가 새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느루네 집이 있던 멜빵바지가 보이지 않았죠. 빨래통을 수십 번 찾아보고, 부디할아버지 곁을 수없이 맴돌아봤지만 느루네 집은 깜깜한 밤이 와도 먼지방문 앞에 걸리지 않았어요. 느루는 지쳤어요. 지칠수록 포근한 집 생각은 간절했어요.

“아니야, 아직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았어. 내일은 꼭 내 집에서 잠들 수 있을 거야.”

느루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천장으로 돌아왔어요.

“헉헉!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

숨이 목에 차오를 때까지 천장 안을 달려봤어요. 하지만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곱슬머리의 목소리가 천장 위로 올라왔어요.

“파란벽, 노란 비옷, 바다색 이불, 낡은 기타…”

곱슬머리가 먼지방 안의 물건들 이름을 불러보는 듯 했어요.

“노란 천장, 작은 구멍, 더 작은 생쥐, 눈알이 반짝이는 생쥐, 무섭지 않은 생쥐, 겁쟁이 생쥐…”

“뭐? 겁쟁이 생쥐라고?”

느루는 곱슬머리를 가만 두지 않을 기세로 머리를 숙 내밀었어요. 그때였어요. 곱슬머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느루를 향해 베개를 힘껏 던졌어요. 가방 속에 있던 책과 학용품들도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졌어요.

“야!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느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어요.

“겁쟁이 생쥐야! 왜 그렇게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거야?”

곱슬머리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빈정거리기까지 했어요.

“겁쟁이라고? 너야 말로 겁쟁이 아냐? 니가 이 방에 들어올 때 얼마나 지독한 겁쟁이 얼굴이었는데 알아? 그래놓고 나보고 겁쟁이라고? 쳇, 어이없군. 어쨌든 내가 겁쟁이든 아니든 상관 마. 나는 너 같은 겁쟁이 곱슬머리한테 관심 가질 시간 없어!”

느루가 차갑게 쏘아붙이고 천장 구석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알아, 엄마도 나 같은 아이한테 관심 없으니까…”

느루가 돌아와 눕자마자, 곱슬머리의 풀죽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느루

는 곱슬머리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어요.

“어휴, 저 곱슬머리 꽤 신경 쓰이게 하는군!”

느루는 다시 구멍 속에 몸을 내밀었어요. 곱슬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쑥 집어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든 곱슬머리에게 해 줘야 할 것 같았어요.

“나 오늘 집을 잃어버렸어, 곧 찾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시 못 찾을 까봐 기분이 좀 그래.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지루하고 답답해. 소리 지른 건 조금 미안해. 하지만 네가 먼저…”

느루는 오늘 일을 털어놓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별로 잘못된 것도 없이 사과하는 것도 억울했지요.

“지루하다고? 너도 나랑 똑같구나…”

곱슬머리가 무릎 사이에서 얼굴을 빼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나도 오늘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엄마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나도 너처럼 답답하고 지루해. 미안해 처음부터 널 맞출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그런데 어찌다 집을 잃어버렸니?”

곱슬머리가 침대 위에 까치발로 서며 물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잃어버린 건 아니야. 곧 찾게 될 거니까. 부디할아버지가 입던 멜빵바지가 있어. 앞가슴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려 있는 옷.”

“아, 그 옷!”

“그 옷이라고? 네가 봤니?”

느루가 다급히 물었어요.

“물론이지. 아까 나를 마중 나온 할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어. 그런데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라서 강물에 던져버렸어. 지금쯤 아주 멀리 떠내려 갔을 거야.”

“뭐? 내가 내 집을 강에 던져버렸다고?”

놀라움에 느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네가 놀랄 일은 아니잖아. 할아버지도 ‘새 옷을 사 입어서 버릴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거든.”

곱슬머리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어떡하지?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니가 내 집을 버린 게 틀림없다고.”

느루가 꼬꾸라지듯 주저앉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금방 울음보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봐, 잘못 들은 거 아냐? 내가 버린 건 네 집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더럽고 냄새나는 작업옷이라고.”

곱슬머리가 힘주어 말했어요.

“내가 버린 부디할아버지 옷에 내 특별한 집이 있었어. 항상 나를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던 집! 그 집 때문에 나는 다른 생쥐들하고는 달랐다고. 그런데 이젠 나도 남의 쌀톨이나 흙치다 지쳐, 아무렇게나 잠드는 지저분한 생쥐일 뿐이야.”

느루는 비틀비틀 천장 구석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무섭고 낯설어졌어요. 느루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엉엉엉 큰소리를 내며 울기만 했어요.

“너무 미안해. 너의 소중한 집이 거기에 있는 줄 몰랐어…”

곱슬머리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느루를 따라 올 것 같았어요.

“자니?”

한참이 지난 뒤, 곱슬머리의 힘없는 목소리가 천장 속으로 올라왔어요.

“아니.”

느루의 슬픈 목소리도 천장 가득 퍼졌어요.

“할아버지한테는 비밀인데, 나 사실은 겁쟁이가 맞아. 엄마가 없는 이방이 너무 무섭거든.”

이번에는 곱슬머리가 참았던 울음을 엉엉엉 터트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너 있는 곳으로 내려가도 될까?”

느루가 울음 띤 얼굴을 내밀며 곱슬머리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야. 우린 비밀을 나눈 사이니까.”

느루는 벽에 걸린 기타줄을 타고 조심스럽게 쪼르르 미끄러졌어요.

“투웅~”

기운이 없어서였는지 느루가 기타의 울림통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크, 이렇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와줄까?”

곱슬머리가 울림통 속으로 손가락 내밀었어요.

“아니, 나가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 안이 생각보다 아늑한데!”

느루가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하자, 곱슬머리는 울림통에 걸쳐진 기타줄을 살짝 건드렸어요. 기타줄은 “차르릉” 맑고 소리를 뿜냈어요.

“이야~ 이 낡은 줄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줄 몰랐어!”

느루는 언제 울었냐는 듯 호들갑을 떨었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너만 좋다면 이 기타를 너의 새집으로 가지는 게 어때? 아니, 너랑 나의 새집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나는 네 집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줄 거니까.”

“새집?”

느루는 곱슬머리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울림통 안을 살폈어요. 오래 된 나무냄새도 좋고, 기

타의 곡선을 따라 누우면 아늑하기까지 했어요.

“듀링~ 듀링~.”

느루가 올림통 밖으로 나오다가 굽은 기타줄을 건드렸어요.

“차링~ 차링~.”

느루와 곱슬머리는 번갈아가며 기타줄을 튕겼어요.

“야호! 내가 아는 생쥐 중에서 기타를 집으로 가진 생쥐는 없어. 나는 기타를 치는 낭만적인 생쥐가 된 거야!”

느루가 소리쳤어요.

“그건 네가 다시 특별해졌다는 거지? 밤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생쥐와 기타연주를 하고, 엄마 얘기를 들려주는 꼬마는 나밖에 없을걸.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집을 가진 꼬마가 된 거야!”

곱슬머리도 덩달아 들뜬 목소리가 되었어요.

“곱슬머리, 정식으로 널 소개할게. 내 이름은 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집을 가진 생쥐! 오늘 밤 나의 새집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느루가 곱슬머리 손바닥에 폴짝 올라서서 두 팔을 활짝 폈어요.

“나도 이 파란색 방에 찾아온 널 진심으로 환영한다.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의 가슴주머니가 너의 맨 처음 집이 아니잖아. 우리들의 맨 처음 집은 엄마 배속이었다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린 앞으로 새롭고 멋진 집이 계속 생길 거야. 그치?”

느루와 곱슬머리는 이층침대를 쓰는 형제처럼, 새집 이야기로 시간은 줄 몰랐어요.

“그렇-고-말고-! 나도 너희-들이 생겨서 좋-구나. 잃는 건- 없-는 거란다-. 새로운- 게 자꾸- 생기-는 것뿐-이지-.”

부디할아버지도 먼지방문 앞에서 느리게 웃었어요.



오산 고현초등학교
양현애



수상소감

몇 번의 봄을 맞이하는 사이,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로서의 일상에서 동화를 쓰는 시간만큼은 제 안에 있는 아이
가 뽀로롱, 잠에서 깨어납니다.
한결같이 제 안의 아이를 아껴주고 보듬어준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

나는 문제아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문제아래요.

문제아? 나는 문제아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지요. <지능, 성격, 행동 따위가 보통의 아동과 달리 문제성이 있는 아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내 이름 대신 문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는 내 이름을 잃어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잃어버린 이름을 찾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기, 괜찮다면 내 이름을 함께 찾아주지 않을까요?

“밥을 먹는 거야, 밥알을 세는 거야?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지? 네가 빨리 학교에 가야 엄마가 준비하고 나가지!”

“엄마, 나 오늘 ….”

“엄마 지금 바쁘다니까! 이따 말하자.”

“엄마, 나 ….”

“애가, 진짜! 엄마 회사 간다고 심통 나서 그러나 본데, 엄마가 너 잘 되라고 돈 버는 거야.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래도 돈 벌어서 너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구, 내 정신 좀 봐! 다 먹었으면 일어나!”

“엄마, ….”

“이따가 말하자고 했지. 엄마 먼저 간다. 문단속 잘 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

– 쿵! –

문이 닫히고 엄마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역할놀이 준비물 꺼내세요. 교과서도 준비하고.”

“준비물 안 가져왔어요.”

“음, 그럼 교과서라도 꺼내.”

“저기 교과서도 안 가져 ….”

“애, 너는 준비물도 안 가져오고 책도 없어?”

“아침에 엄마가 ….”

“이럴 때에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부터 하는 거야. 변명부터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지? 선생님이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침에 ….”

“방금 가르쳐줬는데, 또! 뭐부터 해야 한다고?”

“….”

“이제 대답도 안하는 거니? 이따가 부모님께 전화 드려야겠다. 교실 뒤에 서 있어!”

– 쿵! –

문이 닫히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야, 너 역할놀이 하기 싫어서 준비물 안 가져온 거지? 너 처음부터 이 역할 하기 싫어했잖아. 그래서 일부러 안 가져온 거지?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집에 ….”

“집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 것 같아?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사과해!”

“그게 아니라 ….”

“사과하기는 싫다 이거지? 엄마가 너 같은 애랑 친구하지 말랬어. 이제 너랑 안놀 거야!”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하고 우리한테 화낸다. 애들아, 빨리 선생님한테 이르자!”

— 쿵! —

문이 닫히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다들 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모두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흥!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언제부터가 나는 문제아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동네 아주머니들도 내 이름 대신 문제아라고 불렀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창피하다며 이사를 갔습니다. 다 내 탓이래요!

젖니가 빠지고 납작한 앞니가 새로 돌아나는 동안 그렇게 차례차례 문이 닫혔습니다. 내 마음의 문도!

— 쿵! —

“너 이번에 전학 간 학교에서는 잘 하고 있는 거지? 엄마가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잘 하란 말이야. 아빠 이번에 엄청 중요한 일 하시니까 ….”

“먹칠 걱정 그만하고 빨리 분칠이나 해! 맨얼굴은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아빠가 있었던가? 얼굴본지 하도 오래 돼서 난 엄마가 과부인줄 알았지!”

“뭐가 어찌고 어째? 엄마,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

“아, 이제 그것도 아까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공부도 못해서 미안하네.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 맞다! 내가 빨리 나가줘야 엄마가 빨리 준비하고 나가지? 학교 다녀올게.”

“재가! 엄마 얘기 안 끝났어. 밥도 안 먹고 어딜 ….”

— 쿵! —

문이 닫히고 엄마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숙제 안 해온 놈들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소리 못 들었어? 빨리 일어나! 너는 숙제도 안 해온 녀석이 뭘 잘했다고 인상을 팍 쓰고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운 것 같은데, 내 얼굴도 내 맘대로 못하나?”

“이제 반말까지? 어디서 예의 없게 ….”

“반말 아니고 혼잣말인데요! 혼잣말도 못하나요?”

“허, 이 녀석이 ….”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됐죠?”

“그게 예의야? 누가 그렇게 ….”

“전에 있던 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께 그렇게 배웠는데요. 불만이 시면 그 선생님께 따지세요. 그 선생님 이름 알려드려요? 아니면 전화번호?”

“너 안 되겠다. 교무실로 따라와! 당장!”

— 쿵! —

문이 닫히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회 조사 보고서도 안 써온 거야? 너 우리 수행평가 점수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때문에 사회도, 과학도 ….”

“네 점수를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언제 해온다고 했어? 그리고 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네가 뭔데?”

“됐다, 됐어. 너 같은 애랑 한 조가 된 내 운이 나쁜 거지. 지나가다 똥 밟았다 생각할 테니까 ….”

“똥? 너 말 다했어? 다시 한 번 말해봐, 이 새끼야!”

“애들아, 너희 빨리 선생님 모셔와!”

“어디 똥 맛 좀 봐라!”

“너, 의자로? 으아아아아아악!”

— 쿵! —

문이 닫히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차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꽤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의자를 던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 손이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렇

계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 입도 내 얼굴도 내 발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욕을 하는 내 입! 뼈죽 거리는 내 얼굴! 시도 때도 없이 날리는 이단 옆차기까지!

언제부턴가 나는 심각한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셨지만 잘 안 됐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도 동네 아주머니들도 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대요. 다 문제아인 내 탓이겠지요?

젖이가 빠지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새로 돌아나는 동안 그렇게 차례차례 문이 닫혔습니다. 내 마음의 문도!

- 쿵! -

“...”

“...”

이번에는 누구의 말을 듣지도 그 누구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 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누구의 말을 들을 수도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내가 잘못을 해도 꾸중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지 뭐예요? 모두 내 눈치를 보며 슬슬 피했어요. 하하하하하! 꼭 왕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재미있잖 아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 이 외로움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가 나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는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이건 학교에서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한 하루하루가 정말 지겹고도 무서웠어요.

몽툭한 어금니가 돌아나는 동안 그렇게 차례차례 문이 닫혔습니다. 내 마음의 문도!

- 쿵! -

하늘에는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길에는 동네 강아지들이 멍멍, 킁킁 짖어대며 폴짝이네요.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축구를 하네요. 그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말 한 마디 건네준다면!

“넌 이름이 뭐니?”

“...”

“넌 수줍음이 많구나!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내 짝이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네요. 나는 당황하여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은 아직 말하지 못했지만요. 다른 친구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내 짝은 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요.

“너는 집이 어디니?”

“무슨 과목 좋아해?”

“생일은 언제니?”

“...”

대답 없는 나를 향해 내 짝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인내심과 끈기로

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랑 축구할래?”

혁, 축구? 나랑? 이걸 생각도 못해본 질문이에요.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짝은 여자 아이입니다. 여자 아이가 겁도 없이 남자인 나랑 축구를 하자고 하다니요! 그것도 문제야로 소문난 나랑 말이에요. 내 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한 아이 같아요. 그렇지만 씬 없이 내게 말을 거는 친구의 목소리가 듣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내 입에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너 조심해야 할 거야! 나 태권도 유단자에 못하는 운동이 없거든!”

내 짝이 교실 문을 열고 신나게 뛰어갑니다. 축구공을 한 팔에 끼고 말이에요.

- 드르륵! -

여자 아이와 축구라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납니다. 내가 옷자 다른 친구들도 어색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나를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운동장은 아이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이 이리 넓었던가요? 다른 아이들과 뒤섞여 축구를 합니다. 뭔가 조금 행복한 기분입니다.

아이들과 어울려 소리 지르고 뛰어노는 동안 그렇게 닫혔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도!

- 드르륵! -

“선생님이 임무를 주겠다. 오늘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회장, 부회장에게 눈치를 주네요.

“선생님, 저희가 할게요!”

내 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자인 내 손을 덥석 잡고는 번쩍 손을 듭니다. 그러자 선생님 얼굴이 단박에 환해집니다.

“그래? 정말 고맙다. 태권소녀랑 우리 반 티프가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선생님은 우리의 어깨를 툭툭 치시고는 눈을 찡긐하시네요.

우리 선생님은 아직 내 소문을 듣지 못하셨나 봐요. 나를 별명으로 편하게 부르십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아인데 말이지요.

“티프가이! 오늘 머리 멋지다. 어디에서 자른 거야?”

“티프가이! 타자 완전 빠르더라. 언제 그렇게 연습했어?”

“티프가이! 우리 반 체육부장으로 임명할게. 앞으로 잘 부탁해!”

“...”

대답 없는 나를 향해 선생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임무를 줍니다. 인내심과 끈기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티프가이! 선생님과 데이트하자!”

헉, 데이트? 나랑?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우리 선생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엉뚱한 분이신가 봐요. 창문 밖 화창한 햇살과는 달리 내 머릿속은 번쩍번쩍 번개가 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듣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에.”

내 입에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개미처럼 작은 목소리에, 내 마음과는 정말 다른 굉장히 투명스러운 표정도 함께 말이에요. 예전처럼 또 꾸중을 듣게 되겠죠? 휴!

꾸중 들을 준비를 하려는데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의자로 이끄십니다. 마주 앉은 선생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과 데이트라니요! 왠지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선생님의 데이트에 응해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데이트 시작할까? 먼저 우리 터프가이의 친한 친구는 누구니? 뭘 좋아해?”

“...”

한껏 기대했던 선생님과의 데이트라는 것이 재미없는 상담인 것 같아 살짝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음, 아직 선생님한테 네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지 않았니?”

나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다릴게. 그렇지만 선생님은 네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선생님한테 먼저 데이트 신청해주지 않을까?”

선생님은 구겨진 내 얼굴을 보지 못했는지 아직도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웃는 얼굴을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내 입에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약속한 거다!”

선생님이 아기처럼 방긋방긋 웃으십니다. 내 마음도 스르륵 편안해졌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선생님이 손수 교실 문을 열어 배웅해주십니다.

- 드르륵! -

복도 저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선생님의 따뜻한 눈길이 느껴집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니 긴 머리가 휘날리게 손도 흔들어 주시네요.

나도 어색하게 손을 흔드는 동안 그렇게 닫혔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도!

- 드르륵! -

내 방문이 삐뚤고 엄마가 조용히 간식을 두고 나가십니다. 거실 소파에 숨죽이고 계시는 아빠가 가만히 보입니다. 그새 엄마, 아빠 머리에 흰 눈이 내렸나봅니다. 부쩍 많아진 흰 머리에 왜 이리 내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입 안에서만 맴도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이 요즘은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 아빠!’

괜히 눈앞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한숨을 쉬며 눈을 감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내 짝 태권소녀가 내 손을 잡아줍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선생님이 나를 끌어줍니다.

“어... , 엄, 마! 아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입에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방문을 나가려던 엄마와 소파에 앉아있던 아빠가 쿵쿵쿵 달려와 나를 꼭 껴안습니다. 내 방문을 왈각 열고 말이에요.

- 드르륵! -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품에 안기자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왈각 쏟아

졌어요. 아주 많이 말이에요.

“울지 마, 재한아!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도 처음 부모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고, 많이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혼자 두고, 바쁘다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리고, ….”

“엄마, 아빠 마음 다 알아. 다 아는데, 원래 다 알았는데, 못되게 굴고 속상하게 하고 ….”

“우리 마음도 알아주고, 우리 아들 다 컸네, 다 컸어. 고맙다, 고마워.”

엄마, 아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펄펄 쏟아졌어요.

갑자기 온몸의 힘이 쪽 빠지면서 내 입이, 내 얼굴이, 내 손이, 내 발이 순해집니다. 이제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주려나 봐요. 내가 엄마, 아빠를 꼭 끌어안는 동안 그렇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도!

- 드르륵! -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름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이름을 찾아주지 않을까요?



양주 칠봉초등학교
윤상인



수상소감

학교에서 고운 말을 듣고 자란 양파와 나쁜 말을 듣고 자란 양파가 어떻게 크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해야 하는 양파 앞에서 한참 서성이던 반 아이의 얼굴이 제 기억 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왜 기억에 남을까 생각해보니 동화 속 지수의 표정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공모전을 알게 되고 수상을 하게 된 것도 동화 속 이야기 같네요.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사랑으로 교육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나는 학생들 덕분에 "못난이 양파"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옆을 지켜주고 있는 사랑하는 유태미와 멋진 도훈이, 예쁜 재인이, 늘 고마우신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못난이 양파

지수는 오늘도 일찍 학교에 갑니다. 등교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이르지만 학교에 누구보다 빨리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못난이 양파 때문입니다.

못난이 양파는 담임선생님이 과학 실험 때문에 사온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양파로 실험을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양파 매워서 못 먹어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양파를 먹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쓰는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볼 거예요. 여기 키도 모양도 똑같은 양파가 두 개 있지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해주는지 나쁜 말을 해주는지에 따라 예쁜이 양파가 될 수도 있고 못난이 양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있는 예쁜이 양파한테 여러분이 듣고 싶은 행복한 말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 좋을까요?”

“오늘은 하루 종일 게임해도 좋아!”

“우리 아들 용돈 줄게!”

아이들은 신이 나서 한마디씩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못난이 양파한테는 듣기 싫은 말을 해주세요. 나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실혐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그 날부터 친구들은 예쁜이 양파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넌 참 예쁘구나.”

“예쁜이 양파는 커서 훌륭한 양파가 될 거야!”

“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겠는걸.”

“너랑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못난이 양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못났냐?”

“그리고도 물이 목에 넘어가니?”

“너랑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너랑 함께 있는 게 부끄러워.”

지수는 못난이 양파가 친구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지수는 어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다정했지만 아침 일찍 일하러 가서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혼자 학교를 가야했기 때문에 아침밥을 못 먹고, 씻지도 않고 학교에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싫어했습니다.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해 선생님께 야단을 맞는 일도 많았습니다.

“선생님 지수한테 이상한 냄새나요. 같이 못 앉겠어요.”

“너는 왜 맨날 내 준비물만 빌려 써? 너랑 있으면 내가 항상 손해 보는 것 같아.”

친구들은 지수를 멀리했습니다. 작은 잘못에도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아졌고, 친구들은 지수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못난이 양파를 보면 지수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못난이 양파에게 하는 친구들의 나쁜 말들이 마치 지수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가고, 지수 혼자 텅 빈 교실에 남았습니다. 지수는 창틀에 있는 못난이 양파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넌 정말 왜 그렇게 사냐?”

당연히 양파는 말이 없습니다.

“저기 저 예쁜 양파는 매일 칭찬받고 좋은 소리만 들으며 살잖아. 말 좀 해봐. 한심한 놈…”

화분에 그렇그렇 맺힌 물방울이 못난이 양파의 눈물 같아 보였습니다.

지수는 괜히 화가 나서 교실 문을 박차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애면글면한 못난이 양파의 모습이 눈에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못난이 양파를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좀 심하게 굴었나….’

해 질 녘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학원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로 가득합니다. 지수는 지름길을 피해 마을을 빙 돌아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날이 검기울어도 지수의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혼자입니다.

집 앞에서 고민하던 지수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실골목을 나와 학교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여김다리를 지난 지수는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지름길인 아파트 건물

사이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학교 교문까지 왔을 때 지수는 뛰고 있었습니다. 4층 교실까지 숨을 참으며 계단을 단박에 뛰어 올라 갔습니다.

선생님이 퇴근했는지 교실 문이 잠겨있습니다. 문을 힘차게 흔들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괜히 다급해진 지수는 교실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못난이 양파야 미안해. 미안해…”

교실 문을 사이에 두고 내 목소리가 들릴까 걱정을 잠시 한 뒤, 양파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나도 실은 너 마음 알아. 못난이 양파인건 너가 못나서가 아니잖아. 너도 사랑받고 싶지? 내가 이제부터 응원해줄게.”

“…”

교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지수는 얼굴을 문에 바짝 붙였습니다.

“… 고마워. 지수야. 우리 함께 힘내자.”

맙소사! 못난이 양파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못난이 양파를 보지 못했지만 지수의 발걸음은 왠지 힘이 납니다. 정말 못난이 양파가 말을 한 걸까 궁금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지수는 모처럼 힘차게 불 꺼진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부터 지수는 아무도 없는 학교에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못난이 양파야 안녕? 나 왔어. 어제도 힘들었지?”

“예쁜이 양파 녀석 어제 물을 세 번이나 마셨다. 저렇게 매일 물을 먹다간 돼지처럼 똥똥해 질지도 몰라.”

“오늘 친구들이 나한테 냄새가 난다고 놀렸어. 그저께부터 씻지를 못했거든. 하지만 저녁에 집에 가서 꼭 씻을 거야.”

지수는 못난이 양파한테 말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난이 양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못난이 양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명철이가 들었습니다.

“못난이 양파야, 오늘도 친구들이 하는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알았지?”

“야! 너 지금 못난이 양파랑 대화 하나? 못난이끼리 사귀냐? 하하하”
명철이가 못난이 양파를 손으로 잡아채고 지수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철이는 지수가 친구에게 놀림 받을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앞장서서 놀리는 아이입니다. 덩치도 크고 돈도 많이 가지고 다녀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닙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양파한테 말을 했다고 해! 우리 아빠가 살아 있는 건 모두 소중하다고 했던 말야! 그 양파 내려놔!”

“웃기네. 내가 분명히 들었어! 선생님한테 다 이를 거야!”
지수는 선생님한테 야단맞는 건 상관없지만 못난이 양파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은 못난이 양파 불쌍하잖아. 맨날 친구들한테 듣기 싫은 말만 듣잖아! 너도 하루 종일 양파처럼 꾸중만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선생님 말 어기고 양파한테 칭찬을 해줬다고? 양파가 알긴 뭘 알아? 웃기지마!”

지나가던 선생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교실로 달려왔습니다.

“너희들 뭐하는 거니! 누가 이렇게 교실에서 소리치고 싸워! 둘 다 당장 이리 와!”

지수와 명철이는 연구실로 끌려가 혼이 났습니다. 반성문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못난이 양파가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교실에 다녀올 테니까 반성문 쓰고 있어. 둘이 또 싸우면 부모님한테 연락할거니까 더 말썽피우지 말고. 알았지?”

연구실에는 지수와 명철이 둘만 남았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반성문 적는 연필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명철아…” 어렵게 지수가 말을 건넸습니다.

“왜.”

명철이는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녀석입니다.

“아까 선생님한테 혼날 때 못난이 양파 이야기 왜 안했어?”

“알게 뭐야. 말 걸지 마. 짜증나. 너 때문에 반성문 쓰고 이게 뭐야.”

괜히 말을 걸었다 싶었습니다. 다시 연구실은 사각사각 연필소리만 남았습니다.

반성문을 다 쓰고 학교를 나서자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아무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자 지수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그 때 명철이가 뒤에서 지수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지수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못 본 척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 나도 속상해서 그랬어.”

지수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철아 나한테 이야기 한 거야?”

“응.”

명철이가 지수 옆으로 가까이 붙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때릴 것 같진 않지만 무엇 때문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야기 듣고 나니까 못난이 양파한테 미안하더라. 나도 집에 가면 듣기 싫은 말만 계속 듣거든.”

지수는 명철이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 아빤 일하느라 매일 늦게 들어와.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아빠도 늦게 들어오셔.”

“매일 컴퓨터하지 마라, 텔레비전 보지 마라, 넌 대체 누굴 닮아 이 모양이냐, 꾸중만 하거든. 갑자기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못난이 양파 처럼 느껴졌어.”

“응. 어른들이 늘 그렇지 뭐.”

명철이는 지수 옆에 바짝 붙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불평을 했습니다. 지수는 매일 혼이 나더라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둘이 다툰 다음날부터 지수가 못난이 양파에게 말을 걸고 있으면

명철이가 어디선가 슬쩍 나타나 친한 척을 했습니다. 지수는 명철이가 신출귀몰 홍길동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명철이의 친한 친구인 기택이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못난이 양파에게 나쁜 말을 하는 친구에게 명철이가 “너 나한테 나쁜 말 들으면 기분 좋겠냐? 응? 이 양파가 너한테 잘못된 거 있어?”라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명철이 때문인지 못난이 양파에게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못난이 양파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실은 나도 못난이 양파에게 나쁜 말을 하면서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밑게 군 것 사과할게. 실험 때문이었으니까 용서해 줄 거지?”

“그동안 나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셔서 나쁜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정말 미안해. 이제 너한테 나쁜 말 하지 않을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지수를 놀리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햇살이 강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옷도 반팔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양파실험을 계획한 두 달도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양파들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학급 친구들 중에 못난이 양파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싱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란 양파들을 아리송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원래 나쁜 말을 들은 양파는 시들어야 하는데…”

선생님은 못난이 양파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예쁜이 양파처럼 예쁘게 자랐구나. 아니, 못난이 양파가 더 건강해 보

이네? 이번 시험은 망했나 보다.”

선생님이 못난이 양파를 들고 멧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험은 꼭 성공할 수 있는 시험으로 준비할게.”

어리둥절한 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선생님만 모르는 이 행복한 비밀 때문에 지수와 명철이, 친구들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구교육청
김 칠 구



수상소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집에서 볼 수 있는 책은 교과서가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고전읽기'라는 특별활동을 하면서 이솝이야기, 전래동화 등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웠던 거 같습니다. 밤이면 언제나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꾸라 하지만 어쩌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앗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것이 편리해지고 빨라 졌지만 그 때문에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동화로 옮긴 것을 다행히 좋게 보아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블랙홀에 빠진 핸드폰

“엄마! 나 핸드폰”

“안 돼!”

“제발!”

“그러게 누가 잃어버리래?”

엄마와 강산이의 실랑이가 길어졌다. 강산이의 최신형 핸드폰이 낯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없어졌다. 강산이는 잔디 누나가 의심스럽다. 누나의 핸드폰은 3년도 넘은 이름도 없는 회사의 구형 모델이다. 그래서 그런지 강산이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기만 하면 어느 틈엔가 잔디 누나의 손에 들려 있었다. 비밀 패턴을 정해 놓았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서 쓰고 있었다.

강산이의 생일은 늘 어린이날과 생일이 겹쳤다. 그래서 늘 손해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어쩐 일인지 아빠가 강산이가 원하는 팔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최신 핸드폰을 선물로 사줬다. 대신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붙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의 인기를 끌 수 있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갑자기 없어졌다.

“아빠 핸드폰 좀 줘봐요”

“안된다니까”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돼요? 혹시 전화를 해 보면 벨소리가 들릴지도 모르잖아요.”

강산이는 울먹거리면서 아빠를 쳐다보았다.

“일주일이 넘어서 벌써 배터리가 다 닳았겠다.”

“그래도 한 번 만요.”

아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강산이에게 주었다. 묵직한 폴더폰이었다.

“삐리릭 삐리릭”

“어? 아빠 신호가 가요”

강산이가 전화기에 귀를 대고 소리를 쳤다.

“벨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지 들어봐 줘요. 빨리요”

강산이는 방안 구석 이리저리 귀를 기울였다. 그때 어디서 강산이가 좋아하는 새소리로 만든 벨소리가 어디선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갔다. 침대 아래였다.

“아빠. 침대 밑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진짜예요!”

“잘못 들은 거겠지”

아빠는 커다란 몸을 구부려 침대 밑에 귀를 갖다 댔다. 그러나 어디에도 핸드폰의 벨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다.

“강산이 핸드폰 벨소리가 새소리 같은 거였지?”

“맞아 아빠. 아빠도 들었지? 분명히 소리가 났지?”

“아니 아빠는 못 들었는데. 밖에서 난 새소리겠지.”

“아냐 분명히 들었던 말이야. 침대 좀 저쪽으로 밀어서 치워줘요. 제발

아빠”

아빠는 강산이가 조르는 바람에 침대를 창가 쪽으로 밀었다. 침대를 밀어내자 방바닥이 드러났다. 거기에 핸드폰은 없었다. 침대를 옮긴 자리에 하얀 먼지만 소복하게 쌓여있었다. 다만 가운데에 강산이 머리 크기보다 조금 더 큰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먼지가 쌓여있지 않았다.

“아빠. 저건 뭐야?”

“저거 뭐?”

“저기 저 가운데에 동그라미, 저기만 왜 깨끗해?”

아빠는 동그라미를 한 참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대답했다.

“아 그건 침대 가운데 기둥이 있던 자리야. 침대 가운데 기둥이 가장 크거든”

강산이는 아빠의 말이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 사이 아빠는 벌써 진공청소기로 먼지가 만든 동그라미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강산이의 핸드폰도 마치 저 먼지들과 같이 진공청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없는 시간에는 따로 할 것이 없었다. 특히 주말은 더 그랬다. 텔레비전은 엄마 아빠 방에만 있었다. 엄마는 유독 주말드라마를 좋아했다. 마트에 장을 보러가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그 시간은 피해서 했다. 강산이가 불러도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산이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누나는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두 군데의 학원을 더 다녀서 강산이와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어졌다.

아파트 베란다 건너 산책로 쪽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새소리는 마치 강

산이의 핸드폰 벨소리 같았다. 강산이는 혼자서 집 뒤로 난 산책로로 갔다. 새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뚜루룩 뚜뚜뚜, 뚜루룩 뚜뚜뚜”

강산이는 새가 소리를 내는 쪽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강산이가 다 따라왔다고 생각될 때 쯤 새는 다시 저만큼 달아났다. 강산이는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진 것 같아서 무서워졌다. 뒤를 돌아보니 강산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손바닥만큼 작게 보였다. 그때였다. 다시 새소리가 들렸다.

“뚜루룩 뚜뚜뚜, 뚜루룩 뚜뚜뚜”

새소리는 아까보다는 희미했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강산이는 계속 따라갈까 하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소리를 치고 말았다.

“어맛... 으악!”

“어... 강산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였다. 강산은 아빠의 얼굴을 보자 말자 그 자리에 폴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 아빠, 새소리 듣고 따라왔어. 그런데 아빠는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아빠가 매일 운동하는 길이잖아. 왜 강산이도 같이 아빠랑 운동할래?”

강산은 아빠의 눈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혹시 아빠를 따라 숲속으로 더 들어가면 혹시 아까 들었던 새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아빠, 그 새소리가 내 핸드폰 벨소리와 같았어. 저번에 침대 아래서 났던 소리가 바로 조금 전에 내가 만난 새소리인 것 같아”

“그래? 아빠랑 내일 다시 와서 그 새를 한 번 찾아보자”

아빠가 강산이의 손을 꼭 잡았다. 강산이는 아빠의 손을 잡으며 아빠의 손이 참 크고 튼튼하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빠와 간 숲에는 새들이 참 많았다. 비둘기는 도시에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산에도 산비둘기가 살았다. 도시에서 사는 비둘기와는 달리 겁이 많았다. 제일 신기했던 새는 노란 깃이 머리위로 불쑥 솟아 있는 새였다. 꼬리도 길고 화려했다. 아빠는 그 새 이름이 ‘후투티’ 라고 말해줬다. 마치 인디언 추장처럼 머리에 깃을 꼽은 것 같았다. 강산이는 그 날 밤 조류학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아빠가 물려준 커다란 카메라를 손에 들고 큰 가방을 메고 숲으로 들어가는 꿈이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핸드폰이 없으니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할 게 줄어들었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꼭 찾고 싶었다.

“땡 땡 땡”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괘종시계가 거실에서 울렸다. 오후 세시다.

“뚜루룩 뚜뚜뚜, 뚜루룩 뚜뚜뚜”

다시 새소리가 들렸다. 강산이는 자기도 모르게 새소리를 따라했다.

“뚜루룩 뚜뚜뚜, 뚜루룩 뚜뚜뚜”

그때였다. 침대 아래에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것이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 바람소리 사이에서 새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려왔다. 익숙한 소리였다. 강산이가 잃어버린 핸드폰 벨소리였다. 강산이는 재빨리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침대 아래 가운데에서 검은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었다. 과학 잡지에서 보던 블랙홀 같았다. 귀를 가까이 대자 새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 엄마! 누나!”

강산이는 집이 다 떠나가도록 소리를 쳤다.

“야! 강산이. 너 왜 그래?”

“어! 잔디누나”

“여기 침대 밑에 블랙홀이 있어. 내 핸드폰을 잡아먹었다고.”

“뭐? 블랙홀! 하하”

잔디 누나는 머리띠를 풀어서 강산이에게로 던졌다.

“이 머리띠도 블랙홀로 보내버려!”

강산이는 얼떨결에 누나의 머리띠를 받아서 침대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침대 밑에 난 구멍의 회오리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이거 봐. 진짜라구”

“야! 장난 그만해! 어서 내 머리띠 내놔!”

누나는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 날 저녁이었다. 가족 모두가 모였다.

“강산아 어떻게 된 거니?”

엄마가 드라마를 보다 말고 강산이에게 누나의 머리띠의 행방을 물었다. 잔디 누나는 그 머리띠가 가장 친한 친구가 생일선물로 사준 것인데 강산이가 가져가서 주지 않는다고 아까부터 볼멘소리를 하고 있었다. 강산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도 강산이를 믿어주지 않았다. 침대 아래를 다시 들여다봤다. 침대 아래는 청소를 한 탓인지 동그란 표시도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머리띠가 저 아래로 사라졌다고? 네 핸드폰도?”

잔디 누나가 강산을 노려보며 물었다.

“정말이라니까! 왜 안 믿어줘”

강산은 울상이 되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 눈을 마주친 채 고개를 흔들었다.

“핸드폰 다시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 대신 최신 걸로는 안 돼. 그건 너무 비싸!”

엄마는 강산이와 눈이 마주치자 타협할 때가 되었다는 투로 말을 꺼냈다.

“핸드폰 필요 없어! 다 나가줘 제발!”

강산은 이제는 ping ping 소리 내어 울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방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

“ping ping ping”

거실에 있는 괄중시계가 울린다.

“뚜루룩 뚜뚜뚜, 뚜루룩 뚜뚜뚜”

강산이는 다시 새소리를 따라가고 있다. 새는 얼마 전 아빠와 보았던 후투티다. 후투티가 벨소리를 내고 있었다.

“뚜루룩 뚜뚜뚜, 뚜루룩 뚜뚜뚜”

눈을 떴다. 꿈이었다.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침대가 놓였던 자리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꿈에 들리던 괄중시계 소리와 새소리가 자꾸만 생각이 났다. 학교에 가서도 자꾸만 그 소리가 들려서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괄중시계, 새소리, 핸드폰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수요일이라 학교가 일찍 끝이 났다. 집에 돌아와 다시 침대가 놓였던 자리 가운데를 들여다봤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방바닥에 귀를 대어 보아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산이는 며칠 전 새로 산 색연필을 꺼내서 일요일 보았던 검은 회오리바람이 불던 방바닥에 동그라미를 그

렸다. 그리고 검은 회오리바람도 그려 넣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다시 바람이 불 것 같았다. 며칠 전 엄마가 장롱에 넣어 둔 빨간 실타래가 생각났다. 실타래를 동그란 원 안에 넣고 실을 풀어서 곰인형의 발에 묶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검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땡 땡 땡”

마침 오후 세시를 알리는 괘종시계가 울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잔디 누나였다. 누나는 다시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하얀색이 아니라 까만색이었다.

“어? 강산이 너 뭐하고 있어?”

“잔디 누나! 아... 그냥 누나 왜 벌써 왔어?”

“시험기간이잖아”

“아... 시험”

강산이는 중간고사 생각이 다시 나서 우울해졌다.

“누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블랙홀을 열 수가 있어?”

“야! 블랙홀은 우주 저 멀리에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무슨 수로 열어. 그리고 그건 원래 열려있어. 누가 여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도 있잖아”

“물론 그렇지. 반대편에 화이트홀이 있어. 그런데 너 아직도 그 얘기야?”

“진짜 봤다니까. 제발 믿어줘. 검은 회오리바람이 바로 저기서 불었다니까.”

“그럼 열려라 참깨라고 해 보던가”

강산이는 침대 가운데였던 방바닥에 그려놓은 동그라미를 가리켰다. 동그라미 안에는 빨간 실타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이구 진짜. 정신 차려. 내 동생 제발!”

“진짜라고 금잔디!”

“뭐? 너 누나 별명 부르지 말랬지, 으이구 나 독서실 간다.”

잔디 누나는 다시 독서실로 가버렸다. 강산은 다시 방바닥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화이트홀? 그건 또 뭐지?’

강산은 아빠의 컴퓨터는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니 관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비밀번호는 강산이의 생일이었다. 아빠가 강산이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인터넷에서 화이트홀을 검색했다. 찾아봤지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강산에게 중요한 말은 ‘블랙홀에 흡입된 물질은 화이트홀에서 방출된다.’라는 말이었다. 그 말대로라면 화이트홀만 찾으면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강산이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전에는 친구가 올려놓은 아케이드 게임의 점수를 더 높이려고 몇 시간씩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숙제를 모르면 친구에게 문자로 물어 보곤 했었다. 약속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전화를 하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이 좀 바뀌었다. 좀 불편하긴 했다. 엄마가 다른 핸드폰을 사준다고 했을 때 그냥 못이기는 척 하고 받을 걸 하고 후회할 때도 있었다. 게임을 하는 대신에 매달 집으로 배달되는 과학잡지를 봤다. 강산이가 방바닥에서 본 적이 있는 것과 비슷한 블랙홀도 그 반대편에 있을지 모른다는 화이트홀도 그 책속에 나와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이유도 염색체 하나의 모양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도 알았다. 하늘의 많은 별들이 떠있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많은 별들.

이름 짓지 못한 별이 많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날 밤은 천문학자가 되는 꿈을 꿨다. 꿈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후투티별’이라고 이름 지었다. 꿈에서 본 우주는 책에서 본 우주보다 더 아름다웠다. 매일 게임에 나오는 괴물에게 쫓기는 꿈만 꿔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별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다. 숙제는 종례시간에 일찌감치 알림장에다 적어서 왔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집으로 전화해서 묻기도 했다. 시간이 생기자 전일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그림 선생님은 강산이가 그려 놓은 그림을 보고 블랙홀 속에 있는 핸드폰이 누구 거냐고 물었다. 친구와 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미리 시간을 정했다. 그래서 학교 숙제도 다 하기 전에 문자를 보고 뛰어 나가는 일은 없어졌다. 핸드폰이 없으니 엄마 심부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종이와 플라스틱, 유리, 철로 구분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렇게 핸드폰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다. 다만, 가끔 꿈에서 후투티가 우는 소리와 ‘땡땡땡’하고 오후 세시를 알리는 괘종시계소리가 들릴 때에는 잃어버린 휴대폰이 생각났다.

조금 후면 오후 세시다. 거실 벽에 붙어있는 괘종시계가 또 ‘땡땡땡’ 울릴 시간이다.

“땡땡땡”

“뚜루룩 뚜뚜뚜, 뚜루룩 뚜뚜뚜”

괘종시계소리를 듣자마자 저절로 새소리가 강산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시계 종소리가 세 번 울리면 꼭 새소리가 들려야 할 거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방바닥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방 가운데를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방 가운데에 검고 움푹한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산이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빨간 실타래가 구멍 속으로 빨려 들

어갔다. 실타래 끝에 묶인 곰돌이 푸우는 부들부들 떨며 구멍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푸우의 눈이 강산의 눈과 마주쳤다. 강산이는 재빨리 푸우의 발에 묶인 실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실은 매듭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럴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졌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졌다. 강산이도 캄캄한 구멍 속으로 푸우와 같이 빨려 들어갔다.

“강산아 괜찮아?”

“누… 누구세요?”

강산이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강산이를 불렀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산아! 나 푸우야. 조금 전에 네가 실타래를 내 발에 묶었잖아”

곰돌이 푸우였다. 강산이가 다섯 살이 되면서부터 푸우는 갑자기 말을 하지 않았었다. 유치원에서 친구 서언이가 “곰인형이 어떻게 말을 해? 애들아 강산이 집에 있는 곰인형은 말을 한데” 하며 놀리던 기억이 났다. 그 날 집에 돌아와서부터 강산이는 푸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푸우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강산이의 세 번째 생일날 선물로 주셨다. 빨간 스카프를 두른 푸우는 엄마아빠가 가끔 강산이를 방에 혼자 둘 때나 엄마가 자고 있을 때 강산이를 돌봐 주었다.

이제 강산이는 캄캄한 하늘을 푸우와 날고 있었다.

“아… 푸우야! 어어엉엉”

강산이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울지 마 강산아! 괜찮을 거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자 내 등을 꼭 잡아. 떨어지더라도 내 등은 꼭신하니까”

강산이는 푸우를 잡으려고 소리 나는 곳으로 손을 뻗었다. 손을 뻗자 막대기 같은 것이 손에 잡혔다. 그 순간 번쩍 하더니 사방이 밝아졌다. 손전등이었다. 작년 생일에 아빠가 사준 캠핑용 손전등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았는데 침대 밑으로 떨어졌던 모양이었다. 강산이는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쳤다. 강산이만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동안 강산이가 잃어버린 물건들이 함께 하늘을 날고 있었다. 누나의 머리띠도 보였다. 인디언 인형처럼 생긴 지우개도 보였다. 반대편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거기에 푸우가 있었다. 노란색 부드러운 솜털들을 바람에 날리며 새처럼 하늘을 날고 있었다. 강산이는 새처럼 팔을 저어서 푸우에게로 헤엄쳐갔다. 푸우가 팔을 벌려 강산이를 안았다. 너무 포근했다.

빨간색 실타래는 저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실타래를 따라가면 어쩌면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산이는 실타래를 붙잡았다. 빨간 실은 전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져 있었다. 푸우의 몸도 자꾸만 길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통통하고 폭신한 푸우가 아니라 길쭉한 키다리 푸우가 되었다. 푸우 뿐만 아니라 강산이의 몸도 해가 가장 서쪽에 있을 때의 그림자의 길이처럼 길어졌다. 강산이는 길어진 덕에 뭐든지 손으로 잡을 수 있었다. 멀리 보이던 누나의 머리띠도 손을 쪽 뻗어서 잡을 수 있었다. 강산은 누나의 머리띠를 주머니에 넣었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저쪽 하늘의 끝에 하얀 점이 보였다.

‘혹시 저게 화이트홀이 아닐까?’

강산은 며칠 전 책에서 본 화이트홀이 생각났다. 만약 저게 화이트홀이라면 강산이와 푸우는 이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는 실타래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얍!”

강산은 힘껏 손을 뻗었다. 그러자 실타래가 손에 잡혔다.

“푸우! 이 실타래를 저 하얀 점으로 힘껏 던져줘!”

강산은 푸우에게 실타래를 내밀었다. 나머지 실타래의 끝은 강산이 꼭 잡고 있었다.

푸우는 마치 야구선수 같은 폼으로 팔을 돌리더니 하얀 점을 향해 실타래를 던졌다. 실타래는 로켓처럼 푸우의 손을 떠나 하얀 점을 향해 날아갔다.

“푸우야! 꼭잡아”

강산은 한손에는 실타래를 잡고 다른 손으로 푸우를 꼭 잡았다. 강산과 푸우도 실타래의 뒤를 따라 하얀 점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침대아래 숨겨두었던 만화책과 장난감들이 휘휘 거리며 지나갔다. 하얀 점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 구멍사이로 하얗고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산과 푸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강산아 너에게 해 줄 말이 있어. 여길 나가면 난 다시 말을 할 수 없으니깐 지금 꼭 해야 돼”

“무슨 말?”

푸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너무 밝은 빛에 눈이 먼 것 같았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얻어맞은 듯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니 쿵하고 떨어졌다.

다시 방이었다. 유리창으로 저녁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다행히 포근한 푸우의 가슴이 강산을 받쳐주었다.

“푸우야!”

강산이 푸우를 흔들었으나 푸우는 말이 없었다. 푸우는 다시 곰인형이 되어버렸다. 강산은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어디에서 익숙하고도 선명한

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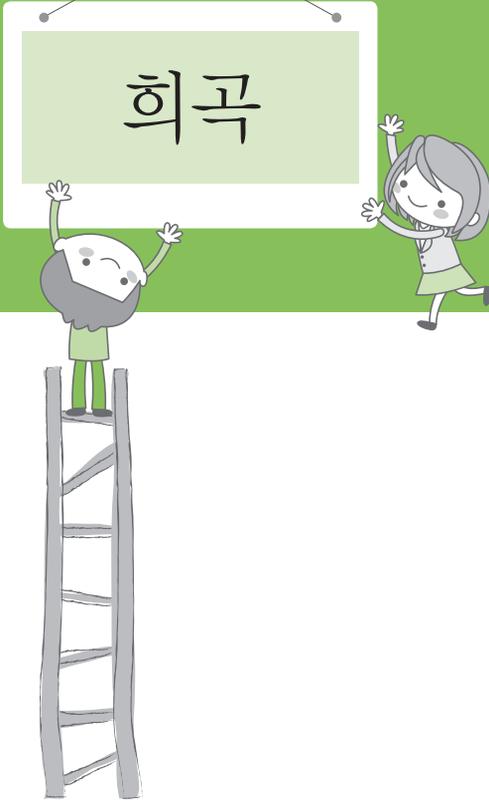
“뚜루룩 뚜뚜뚜, 뚜루룩 뚜뚜뚜”

강산은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푸우의 손에는 잃어버렸던 핸드폰이 잡혀 있었다.

“와! 내 핸드폰이다. 엄마! 엄마!”

강산은 핸드폰을 들고 폴짝폴짝 뛰며 거실로 뛰어갔다.





심사평

『파김치』『이제는 떠날 때』『당신이 남겨두고 간 딸』 3편이 최종심에서 거루게 되었다.

『당신이 남겨두고 간 딸』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구성 역시 치밀하다.

모녀-모자-자매간이나 주인공과 직장 동료간에 티격태격하는 갈등 속에서도 화롯불처럼 깊은 정을 숨겨 놓았다. 극의 진행도 발단-전개-반전-결말 등 희곡의 문법을 제대로 구현해냈다. 주인공(미숙)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농밀한 감성과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풀어낸 수작이다.

상투적인 소재를 이토록 감동적으로 그려낸 건 작가의 오랜 내공의 힘이라 여겨져 금상으로 올린다.

심사위원: 윤조병, 장일홍



금상 ● 당신이 남겨두고 간 딸
밀양시 보건소 김현희

은상 ● 파김치
의정부 민락중학교 김영완





밀양시 보건소
김현희



수상소감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문예대전 관계자분들과 우울하고 자신감 없던 저에게 할 수 있다 용기를 준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밀양은 연극의 도시입니다. 밀양연극촌에서 연극공연을 접하고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희곡에 관심을 가지고 써보고 싶다는 동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도 글쓰기를 배워본적이 없어서 다소 글이 부자연스럽고, 읽는분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까 걱정이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도춘자 엄마. 같이 기뻐하고 계시죠? 엄마 보고 싶어요.

당신이 남겨두고 간 딸

등장인물

아버지

어머니

미숙 (39세, 간호사)

훈 (미숙의 남동생, 36세, 자영업)

미정 (미숙의 여동생, 35세, 교사)

직원1,2,3 (미숙 병원 동료)

직원4

때

2016년 2월. 미숙 아버지 제사 2일전 저녁.

무대

미숙이네 집 안 주방과 거실. 객석에서 볼 때 무대 왼쪽엔 주방이고, 오른쪽은 거실이다. 주방에는 2단 서랍장 위에 2구 가스레인지가 올려져있다. 그 옆으로 성인 어깨 높이만한 옛날식 냉장고 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프라이팬 하나씩 올려져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두고 거실 방향으로 4인용 식탁이 있다. 거실 오른쪽 끝으로 3인용 소

파가 있다. 소파 오른쪽 편으로는 바깥과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주방과 거실 뒤편에는 집안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장식장과 TV가 놓여있는 실제 같은 그림판이 배경으로 서 있다.

소파 뒤편으로 가족사진 걸려있다. 가족사진은 30년 전 모습이다. 젊은 부모님이 중앙에서 아이들 키높이에 맞추어서 무릎을 반쯤 꿇고 한쪽 팔로 남동생, 여동생을 끌어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미숙은 부모님 손길을 벗어나서 오른쪽 옆에 혼자 붙어 서 있다. 가족사진 이라고는 하나 뭔가 어울리지 않는 미숙의 모습.

#1. 미숙이네 집안

무대 밝아오면 집 안 주방과 거실이다. 어머니,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선다. 양 손에 무게가 있음직한 비닐봉지 하나씩 들려져있다. 힘들고 지친 모습이다.

어머니 (상체만 뒤돌아서서 짜증난 목소리로) 숙아! 뭐하노! 펄떡 안 오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가스나. 와저리 히말가리가 없노.

어머니, 장 봐온 봉지를 식탁위에 소리 나게 내려놓고, 외투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건다. 땀이 나는 듯 상의 목 부분을 들어 올려 손으로 부채질을 연신 해댄다.

미숙, 자기 덩치 반만한 짐을 등에 지고서 킁킁거리며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려한다. 출입문을 쉽게 통과하지 못해서 왼쪽, 오른쪽 여러 방향으로 시도해보다 얼떨결에 빠져나온다. 몸이 기우뚱해지다 짐과 함께 앞으로 쓰러진다.

- 어머니 야 야. 개안나? (미숙 쪽으로 허둥지둥 온다)
- 미숙 어. 개안타(짐을 바로 세우고, 일어나려고 한다) 다친데 엄따.
- 어머니 (미숙 쪽으로 가는 듯하다가 물건 쪽으로 간다. 달걀을 꺼내들며) 달걀 안 깨졌나?
- 미숙 (머쓱하다) 아... 안 깨졌을텐데.
- 어머니 (살펴보다 고개를 휙 돌려 꺾려본다) 가스나
- 미숙 (눈총 피해 탄 짓하며) ...와?
- 어머니 (미숙 등을 찰싹 하고 때린다)
- 미숙 (맞은 등을 손으로 가린 채 펄쩍 뛰다.) 와?
- 어머니 내가 매사에 단디 좀 해라 안 카드나.
- 미숙 내가 뭐! (생각해보니 억울하다) ... 계란 그게 뭐라꼬? 와 때리노
- 어머니 (다시 등을 손찌검하면서) 가스나 어대.엄마한테. 대드노? 눈을 동그랗게 뜨가
- 미숙 (등짝 맞다 갑자기 정색하며) 엄마
- 어머니 (미숙의 반응에 살짝 놀란 모습이다)
- 미숙 나도 내일이면 마흔이다. 나이 물 만큼 문 사람한테 와 그라노. 좋게 좋게 말로 해라.
- 어머니 (어이없어 코웃음이 나온다) 하~ 나이 마이 문게 자랑이다. 자랑. 그래 나이도 물 만큼 문 가스나가 시집은 와 못 가서 이래 사노. (타이트트) 숙아. 니 옛날 같았으면 손자 볼 나이다. 평생 처녀귀신으로 늙어죽을끼가.
- 미숙 (기가 죽는다)
- 어머니 (한풀 꺾인 모습에 목소리 높여진다) 다른 집 가스나들은 연애질 해가 잘만 시집간다카드라. 니는 사지육신 멀쩡한기. 남들 두 번

도 간다는 그 닳아 빠진 시집을 왜 한번도 못가까 이래사노. 어이.

미숙 (조용하게 짐을 주방 쪽으로 옮긴다)

어머니 (뒷모습 향해) 니 생리 끊기기 전에 아 한번 낳아봐야 될꺼 아이가.

미숙 (뒤돌아서 서운한 얼굴 짓는듯 하다 실실 웃으며) 나 시집 안 가고 엄마랑 살 낀데.

어머니 얼 빠진 년. (미숙 밀치고 주방으로 간다) 송신타. 고마 절루 가라.

미숙 절? 비구니 되라꼬? (말장난한다)

어머니 (짜려보다 장 봐온 물건들 정리한다) 바보 춘피가? 사내 놈들 그 뭐시라고. 얼뽕한놈 하나 꼬셔 오는게 그리 어렵나. 나이 더 무 보라. 여자라고 치주지도 않는다. 찬밥 더운밥 가리지말고 아무나 함 만나봐봐라. 세상에 별 남자 읊다. 다 그 놈이 그 놈이지.

미숙 나는 누누이 말하지만 결혼을 못하는게 아니고 (한 자 한 자 또박 또박하게) 안. 하. 는. 거. 야.

어머니 (가만히 듣고 있다 봉지에서 무언가 찾는다. 긴 대파를 꺼내 위아래 훑어 보고는 이거다 싶다. 냅다 미숙 입을 때린다) 주디만 살 아갓고..., 그게 말이가? 막걸 리가?

미숙 (대파를 낚아채 식탁에 내동댕이친다) 와 자꾸 때리노. 나 음식 안할 끼다. 찌찌고 볶고 엄마 혼자 다 해라. 고마 난 모르겠다.

어머니 그럼 이걸 누가 할 낀데?

미숙 왜 내한테만 그라는데? 미정에도 있고. 올케도 있잖아.

어머니 느그 올케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거 모르나.

미숙 애는 뭐 지만 키우나? 입덧한다고 못 와? 아 어리다고 못 와? 언제 한번 제대로 일 해본적이나 있나? 내 친구는 한 놈 들쳐 업고, 한 놈은 젓 물려가면서 시댁서 음식 했다카드라.

어머니 그래. 니 말 한번 잘했다. 느그 친구 결혼해가 애 낳고 젓 먹이는 동안 니는 그 나이 묵도록 뭐 했노.

미숙 또. 또. 말만 하면 그 소리... (포기한 듯) 마 됐다.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니, 허둥지둥 벨소리를 따라 전화기를 찾는다. 미숙, 도와줄까말까 고민하다 식탁 의자에 걸린 외투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한번에 찾아서 어머니에게 건넨다.

어머니, 미숙을 향해 미안한 듯 쳐다보다 이내 전화기 화면을 보고는 180도 표정이 바뀌어 밝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 어. 훈이가?... 장 보고 다 했다. 뭐가? 걱정할거 없다. 숙이 있다 아이가.

미숙 (불만 가득 입이 튀어나온다)

어머니 (못본척한다) 그래, 그래, 알았다. 나도 손목이 안 좋아가 옛날만 큼 일 모한다... 안다. 묵을 사람도 없고, 이제 조금밖에 안할 끼다. 다 내빼리기만하는데 뭐... 그래, 느그는? 맞다. 맞다. 아 키우는게 그제 보통일이가. 지금 손도 많이 갈 때 아이가...

미숙 (입을 씹룩거리며 어머니 말 소리 없이 흉내 낸다. 가스레인지 살 펴보다 서랍장에서 행주 꺼내서 가스레인지 닦고 주변 정리한다. 툼툼이 엄마를 쳐다본다. 아들이 저렇게 좋을까 싶다)

어머니 (깔깔 웃으며) 그런 말도 하나? 아이고. 다 키웠네 다 키웠어. 그래. 사는게 뭐 별거 있나. 그러면서 사는기다... 니는 장사 좀 되나? 그래 요즘 다 어렵다카드라. 우리 여도 간판집이나 장사될까. 하루 건너 망하고 하루 건너 개업하고. 막 그라드라... 아이

고. 가게세가 그래 올랐나? 내 못 보태주가 우야노. 아이다. 고기 장사는 단골장사라서 주인이 가게 비우면 매출이 금방 떨어진다 카드라... 그래. 아버지도 다 이해하실끼다... 사... 삼포세대? 마 그런것도 있나? 어.느그 누나? (미숙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몰라. 머리 굽어지면 어디 부모 말 듣나... 그건 나중에 함 물어보꾸마... 어 어 알았다.(전화 끊는다)

미숙 모자지간에 할 말이 그래 없나.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킨데 옆에서 감놔라 배놔라 좀 카지마라. 다들 내 시집 안 가는데 뭐 보태 준거 있나.

어머니 니... 혹시 삼포세대가?

미숙 삼포? (떠올려본다) 만두 말하나?

현관문을 열고 미정이 어깨가 축 늘어진채 들어온다. 세련된 복장에 서류가방을 들고 있다. 어머니, 미숙은 대화하느라 미정이 들어온걸 눈치채지 못한다. 미정, 두 사람의 대화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서 있다.

어머니 삼포세대도 모르나? (손가락 하나씩 펼치며) 연애질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거 3개 포기한 인간들말이다. 뉴스에 나왔다면서? 혹시... 니도 포기했나? 니 볼적마다 엄마가 속 터져 죽겠다.

미숙 내가 뭐 우쭐했는데? 결혼 안한건 사람도 아이가? 왜 뻑하면 그 애 킨데.

미정 (미숙의 모습을 한심해하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또, 또. 노처녀 히스테리 시작됐네.

- 미숙 (엄마에게 시선이 벗어나 미정을 째려보며) 뭐?
- 어머니 미정이 니 언제 왔노?
- 미정 (담담하게) 왜 이렇게 짜증이야? 그러니깐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을 듣지.
- 미숙 야! 니 진짜
- 미정 억울해? 그럼 시집가! 결혼 안하고 있음 사람들이 언니를 어떻게 보는줄 알아? (두 사람 표정 살핀뒤)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남한테 배려도 없고, 지 주제도 모르고 태도 안되게 남자 고르는 눈만 높은 그런 한심한 인간으로 알아.
- 미숙 그래. 서울가스나. 니 잘났다. 니 똥 굶다.
- 미정 유치해.
- 미숙 하긴 말빨 하나로 먹고 사는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노. 하여튼... 뻘질뻘질하이 해가지고... 집안일 하는 꼴을 못 본다.
- 미정 언니가 나보다 시간 많잖아.
- 미숙 (헛웃음 나온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거실쪽으로 걸어간다)
- 어머니 어데가노?
- 미숙 (쳐다보지 않고 걸어가며 투명스런 목소리로) 병원
- 어머니 아직 출근 시간 아이다아이가
- 미숙 집 보다 직장이 더 속 편하다. (출입문 열고) 간다. (문 닫고 나간다.)
- 어머니 (미숙의 나가는 뒷모습에 눈을 떼지 못한다) 관촬했나?
- 미정 (호기심에 장본 물건만 뒤적거린다) 뭐가?
- 어머니 하루종일 돌아댁기가 지금 배고플किन데... 지혼자 빼기가 출근하는갑다.

- 미정 냅뒀. 언니가 어디 굶을 사람이야. 알아서 먹겠지뒀.
- 어머니 (미정을 야속하게 쳐다보며) 가스나. 즈그 언니한테 말하는 뿐대
좀봐라. 기껏 비싼 돈 들이거 서울서 공부시켜놨드만은.
- 미정 누가 공부를 시켜줘? 엄마... 나 혼자 공부했어. 언니는 재수한다
고 돈대줬지. 오빠는 3년 내내 과외 받았지. 난 학원 한번 못 다
니고... 나 혼자 공부했어... 나 혼자 장학금 받아 대학간거라고.
(손 툸다) 나 씻으러 갈래.
- 어머니 이거는? 전하고 미리 꾸벼놔야 될꺼 아이가.
- 미정 언니 오면 하라고해. 나 피곤해.
- 어머니 느그 언니 밤근무 하고 내일 아침에나 온다아이가. 퇴근하믄 파
김치되거 저녁까지 잘 낀데.
- 미정 엄마! 나 곧 있음 시집가. 시집가면 죽어라고 해야돼. 벌써부터
이런거 시키고 싶어? 시댁 없이 사는 속 편한 언니보고 하라고
해. 아~ 잘됐네. 억울하면 자기도 시집가든가 (혼자 키득키득 웃
으며 무대 왼쪽으로 나간다)
- 어머니 (미정의 뒷모습을 본다) 가스나... 지 혼자 태어난것처럼 말하네.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주방에만 조명 들어온다. 어머니, 한숨 길게 내쉬고
장봐온 것 둘러본다. 식탁 의자에 앉아 봉지에서 콩나물을 꺼낸다. 가
스렌지 아래 서랍장에서 신문지와 양푼이를 꺼낸다. 신문지는 식탁위에
펼치고 양푼이는 그 옆에 가지런히 둔다. 콩나물을 신문지 위에 반쯤 꺼
내놓는다. 콩나물 꼬리만 떼서 양푼이에 옮겨 담는다.

어머니 우리아들. 콩나물 국 좋아하는데... 술 먹고나믄 다음날 꼭~ (남자

목소리를 내며) “엄마. 해장국 좀 끓이도”(떠올리며 웃는다) 이래 갖고 콩나물국으로 속풀고 하드만. 결혼해가 지 마누라한테는 제대로 언어묵나 모르겠다. 예나 콩나물 대가리에 안 맞으면 다행이지. 에그~. 가가 즈그 아버지 닳아가. 친구 좋아하제. 술 좋아하제 (하던일 멈추고 짧은 생각에 빠진다) 맞다. 저번에 건강검진 받는다 카드만 우째 됐는지 아까 전화왔을 때 물어볼꾸로 (옷에다 손 닦고 전화기 들고서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 기다렸다가) 여보세요

오른쪽으로 출입문 옆에서 전화 받고 서 있는 남동생만 조명 비춘다. 어둠속에 어머니와 훈 만이 조명을 받고 있다. 훈은 광고용 소주 그림이 그려진 앞치마를 두른채 스텐석쇠를 한 손에 쥐고 서 있다.

훈 어. 엄마

어머니 저녁 문나?

훈 어. 진작에 무따.

어머니 음... (고개를 끄덕인다)

훈 와?

어머니 아. 맞다. 니 저번에 병원가서 검사받은거... 그거 괜찮드나?

훈 혈압이 쪼금 높게 나왔드라.

어머니 아이고 니 나이가 몇 인데

훈 (주머니에서 담배갑 꺼내 보고 만지작거리며) 안 그래도 담배 끊을라칸다.

어머니 끊을라칸다가 아이고 이참에 확 끊으뿌라

훈 (담배갑 집어 넣는다) 함만에 끊어지나. 서서히 끊어야지.

어머니 아이다. 자고로 빛보증이랑 담배는 처음부터 확 끊으뿌라켰다.
 느그 아버지 기관지 안 좋아가 고생하는거 봤다 아이가.

훈 (웃으며) 알았다.

어머니 간은? 간은 개안타 카드나?

훈 술 마시고 하이 쪼매 올랐다카드라.

어머니 (깜짝 놀라며) 우짜꼬

훈 개안타. 약 먹으면 된다 카드라.

어머니 훈아.

훈 와?

어머니 느그 아버지 우째 돌아가셨는지 알제?

훈 안다. 안다.

어머니 (웃소매로 눈 짙어낸다) 니는 혼자 몸이 아이다. 토끼같은 자식새
 끼 있다 아이가. 그라고 우리 집에 남자라고는 이제 니뿌이없고.

훈 아이고 엄마도 참. 내 아직 건강하다... 앞으로 조심하께.

어머니 엄마가 결명자 사 놓으꾸마. 이번에 오믄 가져가라. 그게 간에도
 좋고 혈압도 낮춘다 카드라. 물 마시듯이 계속 마시라. 내가 비싼
 보약은 못 지주고 우짜겠노.

훈 밥이 보약이라매? 맨날 보약 3끼 해줏다이가.

어머니 (웃는다)

훈 아차 엄마. 누나는?

어머니 느그 누나 삼포 카는거는 아인갑드라... 근데... 시집가라 몇 마디
 했더니 꼴이 나가 밥도 안 묵고 출근했다.

훈 엄마...

- 어머니 ... 와?
- 훈 누나 요즘도 약 먹나?
- 어머니 지방 서랍에는 없더라.
- 훈 기일만 되면 누나한테 와 그라노? 제일 속상한게 누날끼데...
- 어머니 또 죽고 싶니 어찌니 엉뚱한 소리할까봐 내가 더 그라는 기다.
지도 마음 잡아가 가정 갖고 부모가 되고 하든 좀 안 낫겠나싶어서 안그라나.
- 훈 ... 기다리 주라.
- 어머니 느그 누나 서른 아홉이다. 널 모레면 마흔이고. 여자 나이 마흔이라 캐봐라. 옳은 충각이 어디 지 하고 할라 하나?
- 훈 선 안 들어오나?
- 어머니 와 한번씩 들어오제. 근데 영식이 엄마 있제. 마흔 여덟에다 애 둘 딸린 놈 데꼬와가 우리 숙이한테 중신선다 하길래 내 대판 했다. (생각할수록 화 난다)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앉아있으이 저 가 스나한테 승질 안나고 배기나. 우리 아는 그래도 처년데. 어디 갖다 붙이노. 갖다붙이길.
- 훈 엄마... (분위기 눈치채고 기분 좋게 이야기 전환하려고 한다) 엄마! 겨울연가 최지우 있제?
- 어머니 배용주이 여자친구?
- 훈 그래. 겨울 연가 최지우. 그 사람 마흔 둘이다. 그라고 글래머라 카는 김혜수 있제? 그 사람은 마흔 일곱이다. 엄정화는 여덟.
- 어머니 (입이 벌어진다) 엄마야~ 진짜가?
- 훈 우리 누나는 많은것도 아이다. 그라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직업 3개가 뭘줄 아나?

엄마 뭐꼬?

훈 3등이 미용사! 2등이 선생님! 1등이 간호사다! 알겠나?

엄마 (그제야 싱긋이 웃는다) 맞나?

훈 그래. 우리 누나 착하제. 직업 좋제. 지금이라도 마음만 무면 결
혼할 남자가 썩고 썩다. 엄마는 참 걱정도 팔자다.

엄마 (고개 끄덕인다) 그라믄 다행이제.

훈 (뒤돌아 보고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나 손님왔다. 끊는대이.

전화 끊어지는 소리. 훈이 쪽으로 조명 꺼진다.

엄마 후... 훈아 (이미 전화 끊어졌다. 소리 확인하고는 화면 확인한다.
생각에 잠긴다) 가스나. 밥은 묵었나. (전화 할까말까 고민하다
버튼누른다)

암전

#2. 여직원 휴게실

무대 왼쪽 벽에는 창문이 열려져 있고 그 옆으로 정수기가 세워져있다.
#1의 식탁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오른쪽으로는 전신거울 한 개와 2
단짜리 사물함이 5개 세워져있다. 출입문은 #1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위
에 비상구 표시만 붙인다.

미숙은 의자에 앉아서 컵라면을 앞에 두고 뜨거운지 젓가락으로 라면
을 집어올려 후후 분다.

전화벨소리.

미숙, 주머니에서 전화기 꺼내 화면 확인하고는 못 이긴척 전화를 받는다.

미숙 어

엄마목소리 출근했나?

미숙 어

엄마목소리 밥 먹었나?

미숙 먹고 있다

엄마목소리 뭐 묵노?

미숙 라면

엄마목소리 그거 무가 밤새 일할수 있겠나?

미숙 와 전화 했는데?

엄마목소리 가스나... 일찍 와서 음식하라꼬 전화했다. 됐다.

미숙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짜려보다 다시 귀에 댄다) 됐다.

엄마목소리 수고해라. 끊는다.

전화끊는소리

직원 1,2 깔깔거리며 출입문 열고 휴게실 안으로 들어온다. 사물함 쪽으로 가서 근무복 갈아입으려다 미숙을 발견한다. 직원1, 턱짓으로 직원2에게 미숙쪽으로 가보자고 권유한다. 직원2, 고개 끄덕이며 같이 미숙쪽으로 향한다. 미숙의 모습을 보면서 비어있는 의자에 각 각 앉는다.

미숙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들어 본다)

직원1 김쌤. 뭐해?

미숙 (머쓱해하다 컵라면쪽으로 시선돌린다)

직원2 저녁인가.

미숙 (젓가락을 컵라면 가운데 꽂고서 고개든다. 억지웃음을 보이며)
같이 먹을래?

직원 (말하려고 한다)

미숙 안 먹을꺼지? (고개 숙여 라면 한젓가락 들어 먹는다)

직원 (하러던 말 참고 약 올리듯) 나는 집에가서 신랑이랑 먹어야지.

직원2 김쌤. (미숙의 표정 살피며) 설날때 저 대신 근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숙 (고민하는 모습이다)

직원 별것도 아닌걸 고민하노. 스케줄 함 바껴주라. 결혼하면 여자들
명절에 음식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근무선다고 병원
간다 캐봐라. 시댁에서 돌 맞는다.

미숙 나도 그 날 음식하는데….

직원 야! 느그 올케 있잖아. 그리고 명절에 넌 집에 있고 싶나? 보는 사
람들마다 “올해 나이는 몇 이고?” “시집안갈끼가?” 뭐 그런것만
 물어볼텐데…. 앓싸리 병원 나와서 잔소리 안 듣고 속 편하게 일
하는게 안 낫나?

미숙 (고개 끄덕인다)

직원 (직원2 보며) 봐라. 내가 미숙이한테 말하면 직방이라 카드라이가.

미숙 뭐가?

직원2 아~~ 선배님이 미숙쌤이 제일 할 일 없다고 미숙쌤한테 말하라고

직원 (직원2 옆구리 친다)

미숙 (직원1 보고서 이 악물고) 야!

- 직원2 (입 틀어막고) 죄송해요.
- 미숙 (직원1,2 번갈아 본다. 알밋다는듯) 막내 박간호사 있잖아.
- 직원2 박간호사 남자친구 있대요. 예비 시댁이라고 지도 인사 가야된다
고….
- 직원1 미숙아. 마 니가 근무 서 주라. 선배 좋다카는게 뭐꼬.
- 미숙 (라면 먹던거 멈추고 쓰레기통에 넣는다. 손으로 냄새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손으로 허공을 휘휘 젓는다. 창문을 닫는다.)
- 직원2 (눈치보며 어쩔줄 몰라 한다)
- 직원1 (직원2에게 계속 미숙에게 말해보라고 눈짓, 손짓을 보낸다.)
- 미숙 (갑자기 직원1 썰러본다.)
- 직원1 (미숙과 마주치고 판곳 보다 여전히 자기에게 멈춰있는 시선 느끼고는) 미숙아. 마음을 곱게 쓰라. 어차피 니 잔소리 안 듣고, 후배들은 시어머니한테 욕 안 얻어먹고, 서로 윈윈 아이가.
- 미숙 설날 하루면 되나?
- 직원2 아… 네… 네
- 직원1 그냥 인심쓰는김에 팍팍 좀 쓰라. 최소한 2일은 해주야될꺼아이가. 추석때도 해줄까?
- 직원2 (아니라고 손사레를 친다)
- 미숙 (직원1향해) 아!
- 직원1 (깔깔 웃으며) 알았다. 눈에서 불 나오겠다.
- 직원2 미숙쌤. 감사합니다.
- 직원1 (직원2 어깨를 두드리며 의기양양하다)
- 미숙 명절때만 되든 맨날 내 보고 근무서란다. (궁시렁거린다)

미숙. 사물함 앞으로 걸어간다. 직원1,2 웃으며 뒤따라간다. 각자 사물함 앞에 선다. 근무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상의 하나씩 벗는다. 미숙은 4번째 사물함을 열고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는다. 상체에 브래지어만 입고 있다. 미숙의 배 중심 세로로 20cm가량의 빨간 흉터가 보인다. 직원2, 그 모습 보고 입을 벌린채 깜짝 놀란다.

직원2 (손으로 가리키며 눈이 동그래져서는) 미... 미... 미숙쌤

미숙 뭐가?

직원2 배... 배...

직원1 (직원2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본다. 직원 2보다 훨씬 더 호들갑을 떠다)

엄마야. 야! 그게 뭐꼬

미숙 (그제서야 자신의 배를 보고는 서둘러 사물함에 걸려있는 근무복을 꺼내 배를 가린다)

직원2 맹장? 아니 c/sec(뜻:제왕절개 수술) ?

직원1 (직원1 향해) 야!

미숙 (배 감추고 등지고 선다) 느그도 얼른 옷이나 입어라

직원1 (손으로 20cm 가량의 수술 자국 표시하며 놀란다) 어머 어머.

미숙 아~ 진짜 (쏟살같이 근무복을 걸치고 단추를 잠근다. 생각보다 빨리 단추가 잠기지 않는다.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비껴나가는 단추들)

직원1,2 (단추 사이사이 미숙의 상처를 유심히 본다)

미숙 와... 와 그라는데?

직원2 나중에 남편되실분이 놀라겠다.

직원3, 출입문 열고 들어온다. 미숙, 직원1,2 깜짝 놀라서 직원 3에게 90도로 인사한다. 직원3 피곤한 듯 눈이 반쯤 감긴채 손으로 인사에 답하고는 왼쪽 식탁위에 쓰러지듯 엎드린다.

미숙, 서둘러 근무복으로 전체 갈아입고는 이름표를 달고 출입문 열고 나간다.

직원2 (직원1에게) 보셨죠?

직원1 (고개 강하게 끄덕인다)

직원2 뭐예요?

직원1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채 고개 젓는다)

직원2 저번에 ER(뜻:응급실) 로 조직폭력배들 실려왔었잖아요.

직원1 (정신차리고 직원2 쳐다본다)

직원2 수술하고 퇴원할 때 보니까 딱 저렇더라구요.

직원1 뭐 소리고?

직원2 시집도 안 간 여자분이 저런 흉터가 있음... (혀를 찬다)

직원3 (엎드려 있다 벌떡 일어난다) 수술이 뭐?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가?

직원2 (아니라고 세차게 손을 내젓는다) 아... 아니요.

직원3 (점점 언성 높여진다) 우리 수술실 간호사들이 뭐. 할 말 있으면
똑바로 얘기해라. 뒤에서 호박씨까지 말고. 조직폭력배들 수술
그게 뭐 어쨌는데. 사람가리가면서 환자 받아야되나.

직원1 그게 아니고

직원2 미숙쌤 이야기였어요. OR(뜻:수술실) 방 쌤들 얘기한게 아니고.

직원3 미숙이가 뭐? 수술실이 뭐?

- 직원1 (고민하다) 미숙이 배에 surgical scars (뜻:수술 자국) 있길래….
- 직원3 미숙이 배에?
- 직원1 (강하게 고개 끄덕인다) 예. 예. (흉터 길이 대략 손으로 표시한다)
- 직원3 (생각하다 떠오른 듯) 아~~ 그거. 오래됐을긴데. 박정민샘이 서울병원 인턴때 OP(수술 약어) 했었다니깐… 한 십년 넘었겠다.
- 직원2 미숙샘이 서울병원서 OP 했어요?
- 직원3 그 때 hepatectomy(뜻:간절제술) 했다
- 직원1,2 (서로 얼굴 마주보며 놀라 입을 벌린다.)
- 직원1 간이 안 좋습니까?
- 직원3 (회상하며) 그 때 가가 고생을 으수로 했다 카드라. 아마 NP과(뜻 :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그랬을긴데.

직원1,2 어느새 직원3 옆 의자에 가서 앉는다. 남의 이야기지만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모습이다. 직원3, 두 사람의 의도를 알아챈다.

- 직원3 고마 일하러 드가라.
- 직원1 그래서요? 수술 왜 했대요?
- 직원2 지금도 약 먹어요?
- 직원3 (벌떡 일어나)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선배가 말하는 데… 퍼뜩 안 들어가나
- 직원1,2 예… 예(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전히 궁금한 모습이다. 직원 3 눈치보며 사물함 열고 옷 갈아입는다. 직원 3, 스스로 자기 입을 두 대 때린다.)

암전

#3. 집안. 미숙 아버지 제사 하루전 저녁.

주방 바닥에는 신문지가 아무렇게나 펼쳐져있다. 먼지 묻은 제사그릇 세트들이 바닥에 쌓여있다. 어머니는 식탁의자에 앉아 일회용 장갑 끼고서 양푼이에 시금치 무친다. 시금치 하나 집어서 맛을 보고 참기름 붓고 다시 무쳐서 맛을 낸다. 미숙은 등을 지고 서서 가스렌지 위에서 전 굽는다.

냄새가 많이 나는지 허공에 손을 휘휘 저어가며 눈이 매운지 눈을 깜빡인다. 가끔 허리를 두들기며 하체를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한다. 두 사람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어머니 숙아. 다 돼가나?

미숙 (연기에 기침해댄다)

어머니 아. 맞다. 숙아. 청소 좀 해라. 미정이 남자친구 데코 온다 카드라.

미숙 뭐?

어머니 퍼뜩 가서 거실에 걸레질 좀 해라.

미숙 뭐하러 오는데?

어머니 뭐하러 오기는?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온다 안 하나.

미숙 (엉덩이 뛰로 빼고 거실로 걸어간다)

어머니 젊은 아가 생각이 안 기특나.

미숙 (소파 옆에서 걸레 꺼내들고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바닥을 훑친다.)

어머니 야! 힘 두따 뭐할래? 뽀뽀 좀 닦아라

미숙 엄마는 사위될 사람 온다 했으면 미리 미리 청소 좀 해놓지. 아이다. 미정이 가스나가 더 문제다. 즈그 애인 온다 했으면 집 좀 치워놓고 나가지. 이 꼴로 사람 데꼬온다 카는거 보면 부끄럽지도 않은갑다.

어머니 아직 어리가 철이 없다 아이가.

미숙 엄마! 서른 다섯이면 지도 어지간히 물 만큼 무따. 사회 잔밥이 몇 년인데. 그만한 눈치도 없나. 우리 병동서 저래봐라. 주 터졌다.

어머니 야! 니는 입으로 청소하나. 퍼뜩해라.

미숙 엄마는 내만 보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아이고. 내가 전생애 신데렐라였는 갑다. 맨날 이 집서 청소하고 밥하고 죽어라 일만 하고. 어데가서 호박이랑 생쥐 좀 데꼬 오든지 해야지 안되겠다.

어머니 꼴에 왕자 만나가 팔자 고치고 싶은가 보네.

미숙 아이다... 요정이 나타나믄 마차타고... 아빠 있는데 데리고 가달라 칼끼다. 내가 대신 남아있고 아빠는 집으로 오고...

어머니, 미숙 일제히 행동 멈춘다.

미숙 아빠 오늘도 잘 찾아오시겠제? 나는 못 가니깐... 아빠가 오셔야지.

어머니 ... 수... 숙아. 내 잠깐 슈퍼 갔다오꾸마. (출입문 밖으로 나간다)

미숙 하이고. 우리 엄마도 아부지 생각나는갑다.

미정, 출입문 열고 들어온다. 미숙, 미정 눈 마주치고 미정 그대로 지나간다.

- 미숙 (걸레 내동댕이친다) 야!
- 미정 왜?
- 미숙 내 뭐하는지 안 보이냐?
- 미정 보여.
- 미숙 그럼 와서 니가 해라.
- 미정 왜?
- 미숙 왜에? 니 애인 온다고 언니가 걸레질 하는거 안 보이냐? 느그 애
인한테 창피 당하기 싫으면 니가 와서 닦아라.
- 미정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없어. 개네 집 잘 사는것도 아니고 우리집이
랑 별 차이 없어. 남자라고 집 해오는것도 아니고 똑같이 돈 내서
전세금 얻을껀데. 내가 잘 보일게 뭐 있어?
- 미숙 그럼 집 있는 놈이랑 살지 뭐하러 만났는데? 그 사람 택했으면 마
뎌소리하지말고 똑바로 해라. 남의집 귀한 아들이 니한테 꿀릴것
도 없다. 니가 뭐 그리 잘났는데?
- 미정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 미숙 왜 몰라? 니 싸가지 없는건 안다.
- 미정 치. 그러는 언니는?
- 미숙 나? 눈치 코치 염치도 있다 와?
- 미정 웃기시고 있네.
- 미숙 이게 진짜
- 미정 염치? 재수한답시고 다단계 빠져서 돈 홀라당 다 날려먹고서는
뭐 염치?
- 미숙 니.니. 지금…. 니 지금 뭐하자는건데?
- 미정 내가 뭐 틀린말 했어? 언니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얼굴을 들고 다

너? 아버지 술 땀에 돌아가신줄 알지? 돈 다 까먹고 언니땀에 혈압 올라서 그렇게 된거야. 정신적인 스트레스. 알어?

미숙 그래... 맞다. ... 내가... 장녀 노릇 똑바로 못하고... 눈 뒤집히기 아버지 퇴직금 날려먹고... 내 아버지 가슴에 못 박았다. 근데

미정 시끄러. 듣기싫어

미숙 근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게 아이다이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미정 나중에 뭐? 뭘 했는데? 간? 간 한번 떼준거?

미숙 야! 니 그래 밖에 말 못하나? 그게 뭐 땀다 붙였다 그리 쉬운건줄 아나

미정 그래. 나 못때쳐먹어서 그렇게 밖에 말 못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6천만원 그대로 병원 갖다 주고. 아버지가 살아났음 이렇게는 말 안해.

미숙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나? 나도 그랬음 안했을끼다. 미쳤다고 내 몸에 칼뎠잖나.

미정 언니 때문이야. 다 언니 때문이라고.

미숙 안다.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이래 살고 있다아이가. 아빠 생각하면 나도 속상해 미치겠다. 근데... 나도 아팠다. 식구들 다 아버지 그러는데 나도 환자였고 나도 아팠다. 아나?

미정 그래서? 뭐 어찌라고? 아버지는 죽고 없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 생색내는거야? 그래. 누가 안 아팠대? 생 배를 찢었으니깐 아팠겠지. 그럼 아버지는?

미숙 고마해라... 아빠 얘기 그만하자.

미정 너나 그만해.

미숙 뭐? 너?

미정 엄마가 요즘 맨날 네 걱정하는거 알아? 엄마까지 병나게 할꺼야?
엄마도 죽는꼐 보고싶냐고.

미숙 (주먹으로 미정 머리 때린다) ... 나쁜년.

미정 (헝클어진 머리 바로하며) 언니가 뭘 잘했다고 날 때려?

어머니, 출입문 열고 흥분된 모습으로 들어온다. 미정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미정 왜... 왜 이래?

어머니 버르장머리 없는 년. 마 입 다물고 나오나.

미정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

어머니 (주먹으로 미정 머리 때린다) 가스나. 할 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지. 나오나. 당장.

어머니, 미정 밖으로 끌고 나간다.

조명 어두워지고 굳어있는 미숙만 비춘다.

미숙 그래... 살리낼수만 있으면 열 번도 더 살리지... 그래. 내 우짜꼬... 내 우짜면 되겠는데... 아빠! 집에 오시거든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이소.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수 있는지... (가족사진 쳐다본다) 아빠 ... (사진앞으로 걸어간다) 아빠...

조명은 소파 앞에 선 미숙과 가족사진을 비춘다. 음악 깔린다.

미숙 사진 차암 촌스럽네… 혼자 바보같이 서 있는거봐라… “미숙아 너는 누나 아이가?” “너는 언니 아이가?”… 근데 그날 나도… 아빠 엄마… 무릎에 앉고 싶었다. 어리광도 부리고, 울고도 싶고, 실수도 하고 싶고… “첫째가 잘되야 동생들이 잘된다카드라” 캐가 늘 1등만 해야되는 줄 알았다. 참아야되고, 양보해야되고, 잘해야되고… 근데…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되야 우야겠노 (소파에 새우처럼 쪼그리고 눕는다) 미안하다. 훈아… 미정아… 느그 앞길을 내고 막고 있어서 우야노. 미안타. 아빠. 엄마… 다 못난 제 탓입니다. 다 제가 잘못했스예. 죄 많은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아빠… (흐느끼며 울다 잠이 든다)

꿈이다. 하얀 연기와 함께 무대 왼쪽편에서 어머니, 미정, 훈 침대가 밀면서 무대로 들어와서 침대카 세우고 선다. 환자복을 입은채 아버지 침상에 누워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운다. 미정, 아버지 얼굴을 매만지며 운다. 침상 끝으로 직원 4 무표정한 모습으로 차트를 들고 서 있다. 오른쪽 소파에 누워있는 미숙이 서서히 몸부림치며 가쁜 호흡을 내신다. 상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치듯 흔들린다. 시선과 팔은 아버지쪽을 향해있다. 아버지쪽으로 가고 싶지만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다.

훈 (관객석을 향해)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아입니까. 일부러 서울까지와가 수술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 죽습니까. 말

좀 해보이소. 수술 잘됐다 컸다아입니까.

직원4 (관객석 바라보며) 보호자분. 여기서 이리시면 곤란합니다. 아까 주치의 선생님께 설명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훈 면역억제제 부작용이라면서요? 괜찮을꺼라 했다아입니까?

직원목소리 괜찮다가 아니라 두고보자고 했습니다.

훈 두고 보긴 뭘 두고 봅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직원목소리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되서

훈 돌팔이들. 우리 아버지 살려내이소. 돈은 돈대로 받아 쳐묵고... 간 이식하면 좋아질꺼라 해가 누나까지 배 짜고 드러눕었는데... 이게 뭐하는짓입니까 대체... 아버지... (침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부여잡고 운다. 주저 앉아 어머니를 안는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운다.)

미숙 아... 아... 아버지... (짧고 잦은 호흡에 마른 기침을 한다)

직원4, 미숙을 향해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주사기를 들고 팔에 주사를 준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싹싹거리는 숨소리 점점 커진다.

직원4 (침상 옆으로 가서) 중환자실 면회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훈, 미정, 양쪽으로 어머니 팔 붙잡고 부축해서 무대 왼쪽으로 나간다. 침상쪽을 돌아보고 다시 걷다 오열한다.

직원4 (미숙쪽 쳐다보며) 같은 식구라면서 한 방에 있는 딸은 보지도 않네. 아버지 살리려다 딸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박셈! 이미숙 환

자 pulmonary edema(뜻 : 폐부종) 알지? 혈관확장제랑 이뇨제 주고, SaO₂(뜻 : 동맥혈산소포화도) 계속 체크해주세요. 바이탈(뜻 :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의미) 잘 보고

직원4, 무대 밖으로 나간다. 꿈의 연속이다. 짧고 거친 호흡소리.

침상에서 천천히 아버지 일어난다. 미숙쪽을 향해 걸어간다. 소파에 누운 미숙 옆에 무릎 굽히고 옆에 앉는다.

아버지 숙아

미숙 (입은 움직이나 말이 안 나온다)

아버지 아이고 우리 숙이. 입술이 다 트뻐네... 물 한모금도 못 마시가
우야노.

미숙, 천천히 손을 뺐어 아버지 얼굴을 만지려고 한다. 아버지가 미숙의 내민 손을 잡아 그대로 자기 얼굴에 갖다댄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 여기 있다. 우리 딸도 얼굴 함 보자. (미숙, 얼굴에 산소마스크 벗긴다)

미숙 아... 아... 아빠 (일어나려하고 아버지 부축해서 앉혀준다)

아버지 숙아. 좀 괜찮나?

미숙 (울다가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고개 함 들어봐라. 마지막에 니 얼굴 못 보고 가가 내 마음이 쓰이드라.

미숙 아빠...

- 아버지 우리 딸. 여전히 이쁘네. 애기 때도, 지금도,...
- 미숙 괜찮나?
- 아버지 아버지 괜찮다. 얼굴만 좀 노랑제? 살아생전에 니 말 잘 들으꾸로. 내 니말 안 듣고 있다 이래 술병이 나뻐는갑다. 그래도 매번 니 덕분에 1년마다 따뜻한 밥 잘 얻어먹고 간다.
- 미숙 아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 아버지 뭐가... 부모자식간에 그런말이 어디있노. 니는 큰일을 한그다. 내가 니한테 빚을 지고, 갚지는 못하고 하늘나라 가뿌가... 그제 미안타... 결혼도 안한 우리 이쁜 딸래미 배에다 시뻘궤게 칼자국만 내고. 내땀에 우리 식구들 아무도 니 신경 안 써주고... 지 혼자 얼마나 속상했을까. 지도 숨이 넘어가는데... 내 다 안다. 혼자 싸우느라 고생많았다.
- 미숙 (고개를 짓는다)
- 아버지 숙아. 아버지한테 니꺼 선물해주가 고맙다. 아버지는 니가 준 소중한 선물 써보지도 못하고 가뿌가 미안코.
- 미숙 더 많이 떼줄걸...
- 아버지 뭐리카노. 그러면 니는 죽는다.
- 미숙 잘됐지뭐. 아빠도 안 심심하고... 나 아빠 따라갈란다. 내 데꼬 가라.
-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어데 그런말을 하노. 여가 어데라고... 아버지 대 신해가 니가 엄마 잘 보살펴드려야제.
- 미숙 아빠... 내 용서해도.
- 아버지 숙아. 용서가 다 뭐꼬. 잘못된게 있어야 용서를 하지. 니 잘못한 거 하나도 업따. 네 탓이 아이다... 숙아 (손을 잡는다) 이제 그만

털어버리라.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를 살겠노. 내가 니 볼때마다 마음이 아파 죽겠다. 니가 진짜 아버지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리뿌라. 아버지는 우리 숙이 닮은 손주 함 보고싶은데... 이제 니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함 살아봐야지안겠나... 아버지가 우리 숙이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 함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딸. 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미숙이를 안아준다)

미숙 나도 사랑해 아빠.

아버지 (포옹에서 풀고 미숙 얼굴 바라보며) 대신 아버지 같이 술 좋아하는 놈 만나지 마래이.

미숙 (웃는다)

아버지 그래. 웃으라. 우리 큰딸 웃는 모습 참 보기 좋네. 니가 울면 아버지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항상 지켜보고 있으꾸마. 다음에 올때는 우리 큰 사위 얼굴도 함 봤음 싶다.

미숙 (고개 끄덕인다) 알았다. 보여주께.

아버지 진짜가? 와~ 우리 숙이 덕분에 아버지 국수 얻어먹게생겼네.

미숙 큰 딸 국수 먼저 먹게해주께. 아빠... 오늘 와 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 식당 들어갈때 손 못 잡아주가 우야노... 숙아! 잘 살으래이.(미숙과 손을 부여잡다 천천히 놓는다. 연기는 계속 나온다. 무대 왼쪽으로 시뻘시뻘 걸어 나간다)

암전

전체적으로 조명이 환하게 밝아지며 경쾌한 음악 나온다. 미숙 자리에

서 일어나 콧노래를 부르며 바닥에 걸레질을 한다. 출입문을 열고 어머니, 미정 들어온다.

미정 엄마! 나 올해 말에 날 잡을까?

미숙 잠깐!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언니가 먼저 할끼다.

미정 뭐?

어머니 아이고야.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나? 니 진짜가? 그 때 선뵈던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났었나?

미정 세상에 별 남자 있다. 다 거기서 거기지. 집은 없어도 내랑 마음은 잘 맞는 남자다.

어머니 오래 살고 불일이네. 니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오고.

미정 내가 먼저야. 언니는 내년에 해.

미숙 미정아. 나 이제 시간이 없거든. 니한테 양보 안할끼다.

미정 뭐 잘못 먹었어?

미숙 봐라. 조만간 국수 먹게 해주께. (관객석 향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중에 국수 먹으러 오이소. 아빠. 이번엔 국수 잡수러 오이소.

경쾌한 음악소리 점점 커지며 압전.



의정부 민락중학교
김영완



수상소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제 희곡을 읽어주시고, 거기에 상까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연극과 뮤지컬의 맛을 알고 맘껏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다가 쓰게 됐고 쓰다가 상까지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 계속 연극과 뮤지컬을 즐기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파김치

등장인물

아버지(59세)

상두(첫째 아들, 26세)

상현(둘째 아들, 23세)

영순 할머니(치매를 살짝 앓는 동네 할머니, 어머니 역을 같이 연기한다)

때

현재

장소

지방 소도시 변두리 마을 어귀의 작은 슈퍼마켓

무대

무대 왼쪽 편에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작은 슈퍼마켓이 있다. 낡은 구멍 가게처럼 보이기도 한다. 슬레이트 지붕위에 ‘엄마손 슈퍼마켓’이라고 써진 낡은 간판이 서 있다. 슈퍼마켓 입구에는 삐걱거리는 미닫이문이 나 있다. 슈퍼마켓 앞 가판대에는 각종 과자며, 휴지며, 세제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슈퍼마켓 옆, 즉 무대 한가운데에는 평상이 하나 놓여 있다.

1.

아버지, 평상에 앉아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며 돈 통에 든 천 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세고 있다.

아버지 이만 삼천 원, 이만 삼천 오백 원, 이만 사천 오백 원, 이만 사천 팔백 원. (한숨을 내쉬며) 삼만 원 또 못 넘겼네. 하루 종일 지키고 앉아서 팔아도 몇 달째야 이게. 망할 놈의 해피마트. 가서 확 불 질러 버리던가 해야지.

아버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들이킨다. 할머니, 슈퍼마켓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할머니 저녁밥 해놨으니까 따뜻할 때 먹어. 표고버섯 넣고 된장국 끓여놨어.

아버지 네 고마워요, 할머니. (사이) 참, 이번 주 수고비 드릴 때 됐구나. (쥐고 있던 지폐를 건네며) 여기요, 할머니. 장사는 안 돼 죽겠는데 일주일엔 쏠살같이 지나가네요.

할머니 (지폐를 받아 쥐고 좋아서) 이제 폐물 돼 쓸모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늙은이가 돈도 벌고. 요즘엔 아주 살맛나 죽겠어.

아버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뭐. 할머니, 근데 살림 수고비, 주급 말고 월급으로 한 달에 한번 드리면 안 될까? 요즘 들어오는 돈도 없고 매주 드리는 게 좀 번거로워서.

할머니 안 돼!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가 월급은 무슨... 됐어!

아버지 오늘 내일은 무슨. 보니까 아직 한창 기운이 넘치시구만. 새시집 가서도 되겠어요.

할머니 예라이, 농을 쳐도. 그나저나 나 죽으면 이집 살림은 누구하나? 더 늦기 전에 자네야말로 새장이 생각도 좀 해봐.

아버지 쥐뿔도 없는 놈한테 누가 재가를 와요.

할머니 그래도 슈퍼 사장 아니야. 밥 굶을 걱정은 없잖아.

아버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요즘엔 정말로 밥 굶을까 걱정이예요. (사이) 근데, 할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할머니 무슨 약?

아버지 그... 할머니 아프시잖아. 약 빠뜨리지 말고 드셔야죠. 치매약.

할머니 아 참, 오늘 그거 안 먹었네. 깜빡깜빡 한다니까.

아버지 얼른 가 약 드세요. 빠뜨리시면 안 돼요.

할머니 알았어. (사이) 근데 나, 그거 하나 마셔도 돼?

아버지 아... 드세요. 하루 하나씩은 말씀 안하고 드셔도 된다니까요.

할머니,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박카스 한 병을 들고 나와 뚜껑을 따 마신다.

할머니 크, 좋다. 이거 하나 마시면 온 몸에 피가 팔팔 도는 것 같다니까.

아버지 그것도 너무 자주 드시면 중독 돼요.

할머니 살 날 얼마 안 남은 늙은이 걱정 말고, 상두 아비 술이나 좀 줄여. 그렇게 마셔 대면 나 보다 먼저 가겠어.

상현, 가방을 매고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걸어온다.

할머니 (상현을 보고) 상현이 왔네. 상현아 얼른 들어가 밥 먹어라, 뜨뜻할 때. 표고버섯 넣고 된장국 끓여 놔다.

할머니, 박카스를 들이키며 퇴장한다.

아버지 (상현에게) 너 요즘에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나?

상현 시내 중앙로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왜요?

아버지 뒷집 아줌마가 해피마트에서 일하는 거 봤다고 하던데?

상현 해피마트에서도 두 시간씩 일해요. 알바 하나 갖고는 등록금은커녕 용돈 벌어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너, 어제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게 총 매출이 얼마 줄 알아? 이만 사천 팔백 원이야, 이만 사천 팔백 원. 그게 다 해피마트가 손님 뺏어 가서 그런 건데, 니가 거기 가서 일을 해줘? 지금 제 정신이야?

상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해피마트에서 일 안하면 대신 우리 가게 매출이 올라가기라도 한대요? 그거랑 매출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 그래도 사람 사는 마음이 그게 아니지. 니가 거기서 일을 해주면 내 속이 어떻겠냐?

상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슈퍼 문 닫자고 제가 매일 말하잖아요. 업종을 다른 걸로 바꾸던가요. 요즘 동네 작은 가게들 사정 다 마찬가지예요. (평상 위의 소주를 보고) 술 좀 그만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좀 보고 사세요.

아버지 (버럭 화를 내며)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상현 오늘 들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년 초에 해피마트 길 건너에 S마트도 생겼네요.

상현, 슈퍼마켓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긴 사이.

아버지 S마트? 이 조그만 구석에 해피마트도 모자라 S마트 까지 들어와? 아흔 아홉 개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 거 뺏는다더니. 이제 정말 슈퍼 문을 닫을 때가 됐구나. 아이고 상두 엄마, 당신 간 뒤로 어찌 사는 게 하루하루 더 힘들어진다. 왜 그렇게 가버렸어. (사이, 손으로 배를 쓸더니) 아이, 속 쓰려. 된장국 끓여 놔다 그랬지? 들어가 나도 한술 떠야겠다.

아버지, 평상에서 일어나 슈퍼마켓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2.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며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상두. 평상으로 걸어와 그 위에 앉는다.

상두 (통화) 몇 명 모았어? 에이 씨,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내가 말했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니 밑으로 딱 스무 명. 그럼 한 달에 삼백은 보장된다니까. 뭐? 삼백 밖에 안 되냐고? 이게, 약을 팔라 그랬더니 어디서 약을 주워 먹었나? 임마, 주제를 알아야지. 너나 나 같은 놈이 어디 가서 매달 삼백을 벌어? 요즘 등록금 처

발라서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된다고 난리인데.

슈퍼마켓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 본의 아니게 상두 뒤에서 통화를 엿듣게 된다.

상두 (계속 통화) 나? 집에 좀 내려왔어. 내일이 어머니 제사라서. 모레 바로 올라 갈 거니까 그때까지 최소 다섯 명은 확보해 놔라. 입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만 해도 천 명은 넘겠다. 그 중 다섯 명 못 건지냐? 졸업 앨범 뒤져서 무조건 찾아가.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새끼야. 긴 말 말고 모레 보자. 끊어.

통화를 마친 상두, 뒤에서 사람 기척이 느껴지는지 뒤돌아본다. 누군가 서 있어서 놀란다.

상두 (놀라며) 깜짝이야.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거기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요.

아버지 너 아직도 그 피라미드가 다단계가 하고 다니냐?

상두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번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단계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쁜 게 아니긴. 아는 사람 등쳐먹는 건데 그게 왜 나쁜 게 아니야?

상두 등쳐먹긴 누가 누구를 등쳐먹어요? 제대로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요. 알고 보면 서로 서로 도와주는 거지 절대 등쳐

먹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서로 서로 도와줘? 참나, 서로 서로 등골을 빼먹는 거지 그게 도와주는 거냐?

상현 아니라니까 정말 왜 그래요. (사이) 그래요. 아버지 말대로 서로 등골 빼먹는 거라 쳐요. 그래도 이 일은 적어도 처자식 등골 빼먹는 일은 아니에요. 노름해서 처자식 고생시키고 등골 빼먹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라구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잖아요.

아버지, 상두의 버릇없는 말에 화가 나지만 딱히 할 말이 없다.

아버지 (사이) 언제 갈 거냐? 오랜만에 왔으니 며칠 쉬었다 가라.

상두 엄마 제사만 지내고 바로 갈 거예요.

상현, 슈퍼마켓 문을 열고 나온다.

상현 (상두를 보더니) 형 왔어? 내일이 엄마 제사라서 왔구나. 오랜만에 왔는데 폭 쉬다 가.

상두 자식, 맘에 없는 소린 여전히 잘하네. 졸업은 언제 하나? 졸업 할 때 되지 않았냐?

상현 아직 두 학기나 남았어. 알바해서 등록금 버느라 요즘 공부할 시간도 없다.

상두 내가 잘 나가면 등록금이라도 좀 보태줄 텐데. 요즘 하는 일이 좀 그렇다. 그러게 쥐뿔도 없는 집에서 대학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

니지.

아버지 (상두에게) 저녁 안 먹었으면 들어와 먹어라.

상두 (아버지 말에 대답 않고 상현에게) 살림은 아직도 영순 할머니가 해주시냐?

상현 응. 근데 영순 할머니 요즘 치매 증상이 좀 있으신 거 같아. 오락가락 하셔.

아버지, 혼자 문을 열고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간다.

상두 그럼... 영순 할머니 이제 나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상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아직은 나랑 아버지도 잘 알아 보셔.

상두 그나저나 너도 이제 곧 졸업할 텐데, 졸업하면 뭐할래? 학사 모자 쓰고 사진 찍으면 폼은 그래도 나겠다, 야. 그 다음이 문제지.

상현 모르겠어. 요즘 취업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

상두 그렇다니까. 대한민국에서 등록금 쳐 발라서 4년제 대학 졸업해 봤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상현 나 앞에 두고 말이 좀 심하다, 형.

상두 에이, 내가 너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빠치긴. 야, 너 나랑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해볼 생각 없냐? 우리 팀에도 대학 졸업한 애들 꽤 있어. 어떤 팀에는 대학원까지 나온 애들도 간혹 있더라.

상현 형, 이제 나까지 다단계로 끌어들이려는 거야?

상두 (짜증내며) 다단계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니까, 정말.

상현 그게 그거지. 어떻게 가족까지 다단계로 끌어들이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완전 막장 인생으로 가는 거야?

상두 막장 인생?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말 막하네. 나 니 형이야 새끼야. 하긴 대학도 장학금 받고 가고, 뭘 봐도 나보다 잘나신 니가 언제 나 같은 놈 형 취급 해줬나?

상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형을 그렇게 대했다 그래? 형, 엄마 돌아가시고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 알아? 아니지, 그 전에도 이상하긴 했어. 내가 엄마 때문에 꼭 참고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상두 이 자식이. 이제 엄마 없다고 대놓고 사람 무시하네. 그동안 엄마 때문에 형 같지 않은 놈 형 취급하느라 힘들었다 이거지?

상현 쓸데없이 비약 좀 하지 마. 그런 뜻 아니야.

상두 아니긴... 그래, 니 말도 맞긴 맞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나 좀 이상해졌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안 이상해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난 멀쩡한 니가 더 이상하다. 어떻게 계속 아버지 얼굴 보면서 사냐? 난 한 밥상에서 밥도 못 먹겠던데.

상현 또 그 소리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게 아버지 때문이 아니잖아. 그건 사고였잖아, 사고. 엄마 돌아가신지 이제 1년이야. (화를 내며) 제발 그만 좀 해, 이제.

상두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니 책임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러냐?

상현 형 책임은 없는 거 같아?

상두 (발끈하며) 이 새끼가. 난... 나는 아니야.

상현 형이 아버지하고 나한테 이러는 거, 하늘에 있는 엄마가 알면 좋아하실 거 같아?

상두 이 자식이. 내가 뭐 어쩔다고! 자꾸 너 사람 성질 살살 굽을래?

상두, 다가가 상현의 먹살을 움켜잡는다. 무대 서서히 어두워진다.

3.

담백한 통기타 연주 음악(좀 쓸쓸한 느낌이라면 좋겠다) 들려오며 무대 서서히 밝아진다. 어머니 생전의 모습이다. 슈퍼마켓 미닫이문 우리가 깨져 있고, 과자, 음료수, 세제, 우유팩 등 가게 물건들이 문 앞에 흩어져 난장판이 되어 있다. 평상에 앉아 있는 어머니는 말없이 허리를 숙인 채 소쿠리 속 쪽파를 다듬고 있다.

어머니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아이고, 허리아. 가뜩이나 고장 나 말 안 듣는 허리인데, 그놈들 말리느라 또 빼끗했나? 나쁜 놈들. 행패부리면 없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해? 아이고, 허리가 꼭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 같네. 병원에를 좀 가봐야 되나.

아버지,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평상으로 걸어온다.

아버지 (쪽파를 다듬는 어머니를 보고) 파김치 하려고? 크, 좋지. 오늘은 파김치에 반주 한잔 해야겠네. (슈퍼마켓이 난장판이 된 걸 보고) 뭐야, 이거? 그놈들 또 왔다갔어?

어머니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와요? 가게 좀 지키지.

아버지 내가 다음 달까지 갚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 다음 달까지 무슨 돈으로 갚아요. 내년까지 조금씩 갚는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회에 당신 노름 놀이하는 거 확실히 끊고.

- 아버지 내넨까지 깊으면 그게 이자가 얼마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 어머니 상두 아빠, 고춧가루가 다 떨어져서 없는데 뒷집 가서 좀만 얻어
다줘요.
- 아버지 내가? 당신이 가. 애들 시키던가. 난 가게 정리해야지.
- 어머니 내가 허리를 빼끗해서 뒷집 언덕길을 못 오를 거 같아서 그래.
- 아버지 그러니까 좀 있다 애들 시키라고.
- 어머니 애들 언제 올지 모르잖아. 좀 해줘요. 지금 담가야 저녁상에 파김
치 놓지.
- 아버지 (짜증 부리며) 에이, 몰라. 빗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짜증나
게 하고 있어. 얼어 죽을 고춧가루는...

아버지, 그냥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어머니 다시 허리를 숙인
채 쪽파를 다듬는다. 상현,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평상으로 다가온다.

- 어머니 (상현을 보고) 오늘은 일찍 오네? 저녁 집에서 먹을 거지?
- 상현 일찍 오긴. 알바 가야지. 유니폼 두고 가서 가지러 온 거야. (슈퍼
마켓이 난장판이 된 걸 보고) 뭐야? 그 자식들 또 온 거야?
- 어머니 어, 그게... 넌 신경 쓰지 마, 상현아.
- 상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집이 이 꼴인데.
- 어머니 상현아, 온 김에 좀 일러도 밥 먹고 나가. 거기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매일 빵하고 라면만 먹고 어떻게 일해?
- 상현 됐어. 알바 늦어.
- 어머니 상현아, 밥 차릴 동안 잠깐 뒷집 가서 고춧가루 좀 얻어다 줄래?
파김치 하는데 고춧가루가 다 떨어져서 없네.

상현 밥 안 먹는다니까.

어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럼 고춧가루는 엄마가 줘 있다 얻어올 테니까, 지금 얼른 들어가 밥 한술 뜨고 가.

상현 (짜증내며) 에이, 시간 없다니까 정말. 누가 집에서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어? 그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그리고 집안 꼴이 이런데 무슨 밥을 먹고 싶겠어. 나도 학교 수업 끝나면 여유 있게 집에 와서 레포트 쓰고 저녁 먹고 쉬고 싶다고. 누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해?

상현, 할 말이 더 있는데 참는 모습이다. 그러다 슈퍼마켓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어머니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 뒤 쪽파를 다듬으며) 공부하랴 일하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겠어. 부모라고 있는 사람이 자식 공부한다는데 등록금도 못 대주고. 집안은 또 빚 때문에 이 꼴이고.

패스트푸드점 유니폼을 든 상현, 슈퍼마켓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어머니 (상현에게) 우유라도 하나 마시고 가.

상현 우유가 어디 있어. (바닥을 보며) 그 자식들이 다 터트려서 없잖아.

상현, 무대 오른쪽으로 가 퇴장한다. 어머니는 계속 쪽파를 다듬는다. 잠시 후, 상두가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평상으로 걸어온다.

어머니 (상두를 보고) 왔냐? 오늘은 일찍 퇴근 했네. 기름 넣는 차들 많았니?

상두 씨발 놈들. 주유소에서 총 쏜다고 사람 무시하네. 이 일도 이제 못해 먹겠어.

어머니 왜 또 그래? 주유소에서 무슨 일 있었니?

상두 (난장판이 된 슈퍼마켓을 보고) 가게는 왜 그래? 그놈들 또 왔어? 나 있을 때나 좀 와 보지 개새끼들. 아버지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게 만들 거래?

어머니 상두야, 주유소는 왜? 무슨 일 있어?

상두 아니, 벤츠 몰고 온 놈이, 딱 봐도 나보다 어린놈인데 계속 짹짹 반말하잖아. 주둥이를 확 꺾어버리려다가 참았네.

어머니 손님인데 그래도 참아야지 상두야. 이번 주유소도 나오면 이제 어디 가려고? 지난 번처럼 가구나 물건 만드는 공장은 절대 싫다며?

상두 공돌이는 죽어도 안 해. 나랑 안 맞아. 주유소 말고 뭐 괜찮은 일 없냐?

어머니 그냥 다니자 상두야.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나중에 엄마 아버지 늙어서 일 못하게 되면 그때 이 수퍼 니가 물려받아서 하고.

상두 수퍼? 나보고 수퍼를 물려받아서 하라고? 싫어, 차라리 주유소를 계속 다니지. 저 조그만 구석에 앉아서 맨날 잔돈이나 받아 세고, 지루해서 못해. 주유소에서 총 쏘는 게 차라리 낫다.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좀 참고 다녀 봐.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고 손님 대하는 법도 생기고 할 거야. (사이) 참, 상두야. 뒷집 가서 고춧가루 좀 얻어다 줄래? 파김치 묻혀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다 떨어졌네.

상두 나 바로 나가야 돼. 시내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기름 냄새 때문에 쪽팔려서 옷 갈아입으러 온 거야.

어머니 잠깐 고춧가루 좀 갖다 주고 가면...

상두, 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슈퍼마켓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잠시 후, 깔끔한 자켓을 걸치고 밖으로 나오는 상두.

상두 아버지 가게에 있잖아. 아버지한테 갖다 달라 그래. 내가 얘기해? (슈퍼마켓 문을 열고 안을 향해) 아버지, 엄마 고춧가루 좀 얻어다 줘요. 나, 지금 나가 봐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가만히 티비만 보지 말고 좀 해줘요. 나, 가요.

상두, 빠른 걸음으로 무대 오른쪽으로 가 퇴장한다. 어머니, 한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머니 아이구, 허리야. 할 수 없지. 내가 가야겠네.

어머니, 허리에 손을 댄 채 조심스럽게 평상 아래로 내려온다. 통기타 음악 소리와 함께 무대 서서히 어두워진다.

4.

무대 밝아지면, 장바구니를 든 아버지가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평상으로 다가온다. 평상 위에는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한 버너와 프라이팬 등의 주방 기구가 놓여 있다. 장바구니를 평상에 올려놓고 그 옆에 걸터

앉는 아버지.

아버지 제기랄 놈의 해피마트. 그렇게 없는 물건 없이 다 파니까 시장까지 나가기 싫어 지지. 나도 이런데 사람들은 오죽 하겠어. 세상 참 편해졌어. (장바구니 속을 보며) 다른 건 다 제대로 샀고. (장바구니 속에서 쪽파 한 단을 꺼내보며) 파김치 만들 재료도 제대로 사왔는지 모르겠네. 제사 상 차리는 것 좀 도와 달라고 영순 할머니 좀 불러야겠다.

아버지, 평상에서 일어나 무대 오른쪽으로 가 퇴장한다. 잠시 후, 할머니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평상으로 다가온다. 평상에 앉아서 쪽파를 다듬는 할머니. 얼마 뒤, 아버지가 다시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평상으로 다가온다.

아버지 (헐떡이며) 할머니 여기 계셨네? 아이고, 숨 차라. 할머니 찾느라고 동네 한 바퀴 돌았잖아. 할머니, 내일이 상두 어미 제사예요. 제사 음식 좀 도와줘요. 수고비 따로 더 드릴게. 그리고 파김치도 좀 해줘요. 상두 엄마 좋아하던 거니까 제사상에 파김치도 좀 올려 보려고요.

할머니 (아버지 얼굴을 잠시 뺨히 쳐다보며) 민철 아버지, 어머니 제사상에 갑자기 무슨 파김치를 올려요?

아버지 (깜짝 놀라며) 네? 민철 아버지... ? 아이구, 왜 이러신데 갑자기. 또 치매 오셨나? 할머니 정신 차려요. 저 상두 아버지잖아요. 여기 슈퍼마켓 하는 상두 아버지요.

할머니 민철이 아버지, 민철이가 올해 어머니 제사 때는 집에 올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서울서 트럭 운전 일하느라 워낙 바쁘잖아.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불쌍한 내 새끼.

아버지 이거 어떡하지? 제사상 차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이) 에라, 모르겠다. 음... 민철이 엄마... 민철이 온다고 했으니까 걱정말고... 제사상이나 잘 차리자고... 알았지? 민철이 엄마...

할머니 정말 민철이가 집에 내려 온대요?

아버지 그... 그렇다니까...

할머니 그럼 민철이 좋아하는 양념게장 좀 담가놔야겠네. 민철이 아버지, 얼른 시장가서꽃게 좀 사와요. 싱싱하게 살아 있는 걸로요.

아버지 응... 알았어...

할머니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요.

아버지 응... 알았어... 알았다니까... 자네도 빨리 제사 음식 준비하자고...

아버지, 주저하다가 무대 오른쪽으로 걸어가 퇴장한다. 할머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등 제사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잠시 후, 상두가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평상으로 다가온다.

할머니 (상현을 보고) 민철아! 왔구나, 내 새끼. 서울서 올라오느라 힘들었지? 트럭 몰고 왔어?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상두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저예요, 상두. 내일이 엄마 제사여서 내려 왔어요.

할머니 밥 안 먹고 왔지, 민철아? 너 좋아하는 양념게장 하려고 니 아버

지가 시장에 꽃게 사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얼굴이 훌쩍해졌네, 내 새끼. 밥 제때 먹고 다녀야 돼.

상두 (당황하며) 할머니… 왜 이러시지? 정말로 치매이신가보네?

이때, 아버지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평상으로 다가온다.

할머니 (아버지를 보고) 니 아버지 벌써 시장 다녀왔나 보다. 꽃게 싱싱한 걸로 사왔어요?

아버지 그… 그럼… 민철이가 좋아하겠네… 임자, 아니 여보… 좀 있으면 민철이 도착하겠다… 그 전에 빨리 제사 음식 먼저 해 놓자고…

상두 (아버지를 보고 황당해 하며) 왜… 왜 그러세요?

할머니 무슨 소리야 이 양반이. (상두를 가리키며) 벌써 민철이 와 있는데.

아버지 (상황을 파악하고) 음… 그래… 민철이가… 왔구나…

상두 왜 그래요? 뭐하세요, 지금?

아버지, 상두를 데리고 무대 오른쪽 가장자리로 간다.

아버지 민철아.

상두 (황당해하며) 네?

아버지 아니, 상두야. 내일 엄마 제사 지내려면 할머니가 음식 만들어야 하니까, 니가 잠시 동안만 민철이 해라. 잠시면 돼. 할머니 금방 원상태로 아올 거야.

상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모시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계... 할 수 없어. 안 그러면 내일 엄마 제사 못 지내. 제사 음식 누가 만들어? 니가 만들래?

상두 그래도... 이진 좀...

아버지 그러니까 잠시만... 할머니가 니 엄마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아버지와 상두, 다시 할머니가 있는 평상으로 온다.

아버지 (할머니에게) 잘 돼가?

할머니 (상두에게) 민철아, 이거 한번 먹어 봐라. 방금 한 거라 따뜻하니 맛 난다.

할머니, 부침개 하나를 상두 입에 넣어 준다. 순순히 입을 벌려 받아먹는 상두. 아버지, 이번에는 자기 차례인 줄 알고 살짝 입을 벌려 보는데 할머니가 주지 않는다.

할머니 (평상 위의 파를 보고) 가만 있어봐. 파전을 아직 안 했네.

아버지 잠깐. 파전이 아니라 파김치 담가야지 그건.

할머니 어머니 제사상에 웬 파김치요?

아버지 그계... 올해부터 어머니 제사상에 파김치 올리기로 했잖아. 아까 말 했는데.

할머니 그래요? 왜요?

아버지 그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어... 2015년부터 내 제사상에는 파김치를 꼭 올려라,
하고...

할머니 네? 정말로요? (고개를 가우뚱하며) 민철아, 할머니가 그런 유언
을 하셨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상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낸다. 이때 상현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해 다가오다 멈춰 서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상황을 지켜
본다.

상두 네... 맞아요. 그러셨어요... 2015년부터는 내 제사상에 파김치를
올려라, 하고요...

할머니 어머니가 별의별 유언을 다 하셨네. 2015년부터 파김치라... (평
상 위를 훑어보다가) 근데 고춧가루가 없네? 파김치 담그려면 누
가 옆 집에라도 가서 고춧가루 좀 얻어다 와야겠네.

할머니 말에 아버지와 상두 그 자리에 멈춰 굳어 버린다. 지난 일이 떠
오르는지 서로의 얼굴을 그저 말없이 뻗히 쳐다보는 아버지와 상두.

아버지 (상두에게) 내가 갈게.

상두 제가 갈게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갈게.

상두 아니에요. 내가 갈게요.

아버지 내가 갈거라고.

상두 아니라고. 내가 갈거라고요.

사이.

상두 그때 갔었어야죠. 지금 가면 뭐해요.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가달라고 했었잖아요. 아버지가 갔으면, 엄마가 언덕길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아버지 그 길도 못 오를 정도로 니 엄마 허리가 안 좋은지 난 몰랐다.

상두 핑계대지 마요.

상현 (상두와 아버지에게 다가오며) 그건 우리도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도 모른 거예요. 형, 나, 아버지 우리 다 엄마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사이) 그러니까 문제는 고춧가루를 빌리러 갔느냐 안 갔느냐가 아니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예요. 알잖아요.

상두 (상현에게 큰 소리로) 아니야. 넌 나서지 마. 문제는 고춧가루야. 아버지가 고춧가루를 빌리러 가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아버지가 갔으면 엄마는 돌아가시지도 않았어. 쓸데없는 헛소리하지 마, 너.

아버지 싸우지들 마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결국 그렇게 가버린 거고. 상두 말대로 내가 엄마 대신 고춧가루를 빌리러 갔다면, 엄마가 그렇게 사고로 떠나지는 않았을 거야. 그건 상두 말이 맞아. 나도 수백 번 생각해 봤는데 상두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

상두 (박수를 치며) 내가 집에 내려오기를 잘한 거 같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드디어 장본인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걸 보게 됐어.

아버지 근데 말이야. 난 항상 그랬단 말이지. 네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항상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 엄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는 사람

처럼 그렇게 말이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엄마한테?
요즘엔 자꾸 이 생각만 들어.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상현 그건 형이나 나도 마찬가지로요.

상두 (상현을 쳐다보다) ...

아버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느새 아버지 옆에 다가 와 있던 할머니가 부침개 하나를 아버지 입에 넣어준다. 슬픈 눈으로 말없이 부침개를 씹는 아버지. 따뜻하게 웃으며 아버지 뺨을 어루만지는 할머니. 무대 서서히 어두워진다.

5.

무대 밝아지면, 평상 위에 차려진 어머니의 제사상이 보인다.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한가운데 있고, 그 앞에 수북하게 접시에 담긴 파김치도 보인다. 그 외 제사 음식들도 단정하게 놓여 있다. 평상에 혼자 앉아 있는 아버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고) 상두 엄마. 파김치 좀 먹어봤어? 이거 영순 할머니가 한 거야. 내년에는 나도 좀 배워서 해볼게. 근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이) 오늘 파김치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 당신이 나, 상두, 상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항상 파김치 돼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이제야 그런 생각 드네. 당신 가 버리고 없는데 이제야. (사이) 상두야, 상현아 옷 갈아입었으면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 엄마 제삿밥 같이 먹어야지.

상현 (목소리) 네, 잠깐만요. 편한 옷으로 좀 갈아 입구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고) 애들이 당신 기일이라고 양복까지 세탁소에
서 빌려와 입고 절하더라. 당신도 기분 좋았지?

상두와 상현, 편한 옷차림을 한 모습으로 슈퍼마켓 문을 열고 나온다.

아버지 어서 와라. 식기 전에 밥 먹자.

상두와 상현, 평상 위로 올라가 제사상 앞에 앉는다. 아버지가 흰밥이 든 공기를 둘 앞에 놓아주고, 수저를 건넨다. 밥을 먹기 시작하는 세 사람, 동시에 파김치로 첫 젓가락질을 한다. 서로 젓가락이 부딪혀 잠시 멈칫하는 세 사람. 하지만 곧 파김치를 각자의 밥 위에 얹어와 맛있게 먹기 시작한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슈퍼마켓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평상위로 올라가 밥을 먹고 있는 세 사람 사이에 앉는 어머니. 조용히 세 사람의 밥 위에 파김치와 반찬을 올려주며 식구들을 챙긴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듯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맛있게 밥을 먹는 세 사람. 어머니는 물을 컵에 따라 건네기도 하고 반찬 접시를 가까이 끌어다주기도 하며 세 사람의 식사를 계속 챙겨준다. 세 사람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듯 그저 계속 밥을 맛있게 먹는다. 잔잔한 음악 소리 들린다. 무대 서서히 어두워진다.

부문별
심사평



● 심사위원

- 시 | 문효치, 신달자, 이길원
- 소설 | 김지연, 김호운, 우한용
- 수필 | 유혜자, 류인혜, 박양근
- 시조 | 유재영, 민병도
- 동시 | 김종상, 정두리
- 동화 | 박성배, 이규원
- 희곡 | 윤조병, 장일홍



시

심사위원: 문효치, 신달자, 이길원

시를 쓴다는 것은 도자기를 빚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언어라는 재료로 예쁜 도자기를 만들어 표현하고자 하는 속뜻을 담아 읽는 사람에게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보기 좋은 도자기를 빚었더라도 내용물이 없으면 그냥 도자기일 뿐 시가 아니다. 빚어 놓은 도자기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시가 좋은 시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시인가 판가름된다. 술을 담든지 향수를 담든지 시인의 역량이고 능력이다. 아무리 문장이 아름답더라도 읽는 사람에게 느낌이 없다면 좋은 시라고 볼 수 없다.

시는 말장난이 아니다. 또한 보이는 자연 현상이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재를 곧 이곧대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물이나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나 매력 또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은유 또는 비유를 통해 감칠맛 나게 서술해 읽는 사람에게 느낌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시는 은유로 시작해서 은유로 끝난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줄줄이 서술한다면 이는 논문이고 교과서이다.

투고한 2,108편의 시 중 상당 부분이 그랬다. 마치 성경 구절을 읽듯 교조적인가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행만 가른 채 서술한 것도 상당히 많았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시로서는 매력이 없었다. 또는 어떤 현상에 스스로 감동한 나머지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읽는 사람에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진지하게 늘어놓은 작품도 많았다.

감추어야 할 말과 드러낼 말이 서로 엉켜 산만한 작품 또한 많았다. 보이는 자연 현상을 아름다운 말로 기술하기는 했으나 느낌이나 메시지가 없는 작품도 많았다.

그런 중에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작품이 있었다. 바로 『소금꽃』이다. 염전에서 수차를 돌리며 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강한 메타포로 표현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읽게 하는 작품이었다.

〈땡별을 한 줍씩 퍼 올리는 여자/ 거친 숨소리가 바닥을 메워 나간다〉로 첫줄을 연 시에서 〈태양을 등에 업고 자벌레처럼 움직여/ 소금 한 뒷박 긁어모았던 그

녀/ 소금을 녹여내던 땀 별이/ 몸속으로 들어왔던 것일까/땀샘에서 흘러지던 물 방울이/ 마른 소금으로 터져 나왔다)라는 표현은 읽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수채화라도 그리듯 <바닷물에 반쯤 걸린 여자는/ 제 몸을 녹여 천일염을 고아내고 있다>하며, 불벌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한 여인의 숨 막히는 노동 현장을 감정을 절제한 채 담담히 표현한다. 시적 기법 또한 뛰어났다. 구조적으로도 잘 짜인 작품이었다. 이 정도의 작품이면 대상으로도 손색이 없는 좋은 작품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은 공감했다.

그 외에 『고드름』 『옥자』 『광대』 『몽돌』 등 시 공부를 열심히 한 수준급의 작품들도 볼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소금꽃』을 시 부문 금상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소설

심사위원: 김지연, 김호은, 우한용

.....

문학을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은 삶의 감각을 청신하게 하고, 삶의 과정에 드러나는 문제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결국 창조적 삶을 이루어내는 일이 문학을 하는 목적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항용 공무원은 창조적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이번에 응모된 작품을 검토한 결과 그런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가꾸는 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작품을 낸 분들이 추구하는 삶이 규범과 창조를 아우를 수 있는 화해로운 삶으로 가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심사위원들이 첫 번째로 공감한 점은 작품이 수적으로 풍부하다는 점이다. 그리

고 작품의 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점 또한 공감하는 항목이었다. 풍부하고 우수한 작품을 앞에 놓고 수상작을 골라내기 위해 우리 심사위원들은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작품을 검토했다. 문학적 참신성이 있는가, 소설적 구성은 긴장미가 있는가, 문장은 안정되어 있는가, 주제를 구현하는 형식은 상합하는가 하는 것 등이 심사기준이었다.

금상으로 결정한 작품 『마태 수난곡』은 단연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이미 문단에 등단한 작가도 이런 수준의 작품을 쓰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버지의 죽음을 바흐의 ‘마태 수난곡’과 연관지어 묘사한 작품인데, 그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놔두고 독일로 향한다. 인간의 죽음이 현실적 생애의 끝장이 아니라 우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마태 수난곡’이라는 예술작품과 연관지어 형상화한 솜씨가 돋보인다.

은상으로 결정한 『이너 차일드』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내 안의 아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다룬 작품이다. 결혼 한 지 4년 만에 얻은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교사가 주인공인데, 어릴 적 화상채팅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발각되어 매를 맞은 치욕스런 경험이 내면에 파리를 틀고 있다. 학생지도에서 빛어지는 오해,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일 등이 심리적 트라우마로 그려진다. 작품 제목과 심리가 맞물린 구조가 탄탄하다.

동상으로 결정한 『지극히 사적인 통화방식』, 『타인의 거리』, 『목성으로 간 여자』와 입선작 『장학퀴즈』도 구성과 스토리를 전개하는 문장력이 돋보였지만, 몇 군데 다듬어지지 않은 흠결이 있어 아쉬웠다.

수필

심사위원: 유혜자, 류인혜, 박양근

제19회공무원문예대전 수필부문 심사는 교원과 비교원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세 명의 심사위원이 1차로 해당부문의 작품을 주제성, 소재성, 체험성, 문장력으로 구분하여 교원은 10편, 비교원은 20편으로 선정한 다음 2차 심사로 등급을 매긴 후 토론을 통하여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였다.

응모작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소재면에서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연에 대한 감상, 사회적 문제이었으며, 주제면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성취욕, 생애에 대한 성실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점에서 전문수필가와 달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안목과 진지한 직업의식이 돋보였다.

수필은 설명이 아니라 사유를 근간으로 하는 점에서 수기와 구별된다. 지나친 수식이나 현학적 철학성은 인생에 대한 성찰력을 손상시키며 개인사를 지나치게 드러내면 수필의 공감성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응모자의 직업관과 인간본연의 가치가 어떻게 문학적 구성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원 부문에서는 『어머님의 전기장판』, 『몽당연필』, 『새 가슴에 든 멍은 오래도 간다』, 『안일함』이 선정되었다. 비교원 부문에서는 『도꼬마리』, 『경찰관이 사는 집』, 『아버지의 유언』, 『멈춤의 미학』, 『다산초당에서』, 『작은 공유 큰 기쁨』, 『유년의 장소, 나의 유토피아』, 『보이지 않던 삶의 모습들』, 『아버지의 손』이 선정되었다. 이들 작품들은 모두 탄탄한 문장력을 유지하며 주제에 대한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서사구조가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필부문 금상으로 선정한 『도꼬마리』는 직업적 체험성, 문학적 비유, 삶의 치열한 성찰에서 단연 돋보여서 심사위원들 전원이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생리를 지닌 도꼬마리처럼 임기제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노력과 자기존재에 성찰을 그치지 않는 줄거리를 지닌다. 응모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백한 문체와 치밀한 구성으로 엮어내고 있다. 도꼬마리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병행시킨 기법은 서사의 리얼리티를 높여준다. “또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진다”는 서두는 독자의 시선을 끄는 단초 역할을 하며 결미의 “청운의 보따리를 품고 모질고 단단하게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도꼬마리의 습성을 인격화한 완결미를 지녔다. “도꼬마리도 꽃을 피운다”는 자연 현상을 자신의 생의 아이콘으로 삼은 은유 또한 탁월하다. 『도꼬마리』는 문예대전의 취지를 만족시키면서 인생론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점에

서 금상으로 손색이 없다.

공무원문예대전은 응모자격과 주제성이 분명하다. 이것이 일반수필공모전과 차이라 하겠다. 당선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아쉽게 탈락한 응모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 기회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시조

심사위원: 유재영, 민병도

시조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시라는 점에서 형식의 중요성은 작품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 시조냐 시조가 아니냐는 바로 정형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형은 상상력의 규제가 아니라 우리말의 음보에 맞춘 아름다운 시의 형식이다. 일본에는 하이쿠가 있고 프랑스에는 소네트가 있으며 중국에는 한시가 있다. 일본의 하이쿠는 이미 300년 전 유럽에 알려져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만큼 세계화에 성공했다. 시조는 이제 시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시조전문 계간지는 12개나 되고 2,000여 명의 시조시인들이 있다.

지난 해 보다 응모자 수가 늘어나고 편수가 많아졌다.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연시조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시조가 고시조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이 많았다. 소재가 그렇고 표현 방법 또한 그랬다. 그러나 금상 수상자로 결정 된 『새』의 경우 표현이 신선하고 섬세했다. 붓으로 그린 한 편의 묵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이는 현대 시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했다. 현대시조는 바로 현대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정진한다면 오늘의 입상이 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은상 수상작 『먹』역시 비슷한 소재이긴 하나 금상 수상작에 비해 수사력과 시의 구성력이 약한 것이 흠이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조로서의 균형감을 잃지

않고 네 수까지 끌고 가는 능력을 평가했다. 동상 수상작 『바래길을 읽다』는 신인 작품에서 보기 드문 능숙한 표현과 활달한 언어를 주목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리라 믿음이 갔다. 또 다른 동상 수상작 『승부역에서』는 나물랄 데 없을 만큼 구성, 형식 모든 면에서 잘 짜여 있었으나 사유의 깊이가 약한 것이 결점이 되었다. 셋째 수 종장 처리를 높이 샀다. 정진한다면 좋은 시인이 될 것이다. 『징검다리』는 시조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만큼 율격과 시적 성숙도가 높았다. 좀 더 주제에 집중하는 힘을 기른다면 앞으로 좋은 작품 쓰리라 기대된다. 입상은 안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작품은 『운필물운』과 『굴의 설법』이었다. 그 나름 시적 재능을 보여주었지만 『운필물운』은 시조로서 형식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제외되었고 『굴의 설법』은 너무 주관적으로 흐른 것이 흠이 되었다. 또 몇몇 작품은 이미 등단한 시인들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논외로 했다.

거듭 말하지만 시조는 시적 재능도 중요하지만 율격을 얼마큼 존중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성패가 좌우된다. 시조는 일정한 형식이 지배하는 정형시이기 때문이다.

동시

심사위원: 김종상, 정두리

아동문학 동시부문은 지난해보다 응모 편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첫 눈에 확 다가오는 작품은 드물었다. 눈에 띄는 작품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수준을 대변하는 말이 되겠다. 특히 비교원은 교원보다 응모편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응모작과의 수준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요즈음의 어린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이와의 눈높이를 가늠하지 못한 작품이 대부분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 작품들의 일반된 결점은 언어 선택이 생활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학적인 용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상에 뽑힌 『화각』은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 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지만, 화각을 다루는 장인의 정성과 전통공예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어린이들에게

는 다소 어렵다는 점이 금상 작품과 비교대상이 되었다. 금상에 뽑힌 『자전거 바퀴』는 쉽고 흔한 소재이고 그래서 많은 시인이 다른 소재이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어린이 독자들이 가능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앞 뒤 바퀴가 이루는 위계질서에 대해 시사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표현이 주는 동시다운 발상에 심사위원의 점수를 받았다. 함께 응모한 다섯 편의 동시들도 대체로 무난했고, 그 중에서 『자전거 바퀴』를 금상으로 뽑았다. 앞으로 정진을 기대한다.

동화

심사위원: 박성배, 이규원

동화 응모작품은 모두 136편이었다. 동화를 쓸 때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어떤 제재를 가지고 쓸 것인가이다. 아무리 문장력이 뛰어나더라도 제재 즉 이야깃감이 진부하면 스토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 하나하나한 이야기 등은 아무리 그럴 듯하게 썼더라도 독자들의 관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이야기, 왕따 관련 이야기, 개나 고양이 관련 이야기, 반장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 등은 이미 많은 사람이 다룬 이야기라서 정말 특별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이야기야?’ 하고 독자들이 다 읽지도 않고 돌아서고 말 것이다. 동화를 창작할 때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동화의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동화 형식의 진수는 판타지 동화이다. 이 밖에 의인화 동화, 우의적인 동화, 생활동화 등이 있다. 그런데 생활동화는 어린이들의 주변 이야기를 스케치하는 생활문 형식의 글이 되어 ‘동화’라고 하기 곤란한 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응모작 중에서 진부한 이야기, 생활문 비슷한 이야기 등을 제하고 보니 15편으로 압축되었다. 이를 두 심사위원이 정독하여 10편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작품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6편을 뽑아 순위를 정하였다.

판타지동화나 의인화동화 중에서 금상을 뽑고 싶었으나 그런 동화가 몇 편 되지

도 않았고, 이야기 구성상 허점이 많아 응모작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문 중에서 뽑을 수밖에 없었다.

입선한 『못난이 양파』는 실험을 하기 위해 듣기 싫은 말을 해 주기로 한 양파의 처지가 자기 처지 같아서 남모르게 듣기 좋은 말을 해 준다는 발상이, 그리고 『블랙홀에 빠진 핸드폰』은 조금은 미숙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침대 밑에서 블랙홀로 들어가는 판타지 동화 시도가 앞으로 동화를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동상을 차지한 『느루네 집』은 생쥐 느루와 할아버지 덕에 와 살게 된 엄마 잃은 아이가 서로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솜씨가 뛰어났으며, 『내 이름은 ◻▲○』은 스토리 구성이 약한 약점이 있으나 '이름'의 의미를 끈질기게 탐구하는 흐름이 호감을 주었다.

두 심사위원이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한 작품이 『똥똥지』와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였다. 『똥똥지』는 똥똥지 같은 행동을 해서 '똥똥지'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는 웅철이가 바보가 아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웅철이를 놀리던 아이들이 똥똥지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의 앞뒤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이야기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나타낸 점도 좋았다.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소녀의 심리와 밖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무리 없이 그려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찡한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친다면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를 꼽을 수 있겠으나 소설적인 표현 때문에, 단순명쾌하게 '똥똥지'의 의미를 재해석한 『똥똥지』를 금상, 『나를 지키는 영웅, 우리 아빠』를 은상으로 결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동화는 그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쓴 글들이 많긴 했지만, '동화문학'을 바로 알고 의욕적으로 도전한 작품들도 많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희곡

심사위원: 윤조병, 장일홍

희곡은 연극이란 집을 짓는 설계도이다. 집을 지어 본 사람들은 안다. 설계가 좋아야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걸. 범용한 건축 설계사는 집장사가 짓는 집을 설계할 뿐이지만 탁월한 설계사는 하나의 건축물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희곡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가가 겪은 경험적 현실이나 상상세계(소재)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주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려내느냐(형상화)가 희곡 창작의 관건이다. 즉 소재+주제의식+형상화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뼈대인데, 응모작 대부분이 경험(혹은 상상)을 이야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는 서툴고 더욱이 이를 훌륭하게 그려내는 방법에는 난망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런 소재주의의 함정, 주제의식의 빈곤, 형상화의 미흡에서 벗어난 작품이 몇 편 눈에 띄었다. 『파김치』 『제가 대신 출근해도 될까요』 『이제는 떠날 때』 『회사원』 『인간말종 길들이기』 『상상벽』 『당신이 남겨두고 간 딸』 『그들의 권리』 등 8편이었다.

이들 8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파김치』 『이제는 떠날 때』 『당신이 남겨두고 간 딸』 3편이 최종심에서 겨루게 되었다. 『당신이 남겨두고 간 딸』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구성 역시 치밀하다. 모녀-모자-자매간이나 주인공과 직장 동료간에 티격태격하는 갈등 속에서도 화롯불처럼 깊은 정을 숨겨 놓았다. 극의 진행도 발단-전개-반전-결말 등 희곡의 문법을 제대로 구현해냈다. 주인공(미숙)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농밀한 감성과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풀어낸 수작이다. 상투적인 소재를 이토록 감동적으로 그려낸 건 작가의 오랜 내공의 힘이라 여겨져 금상으로 올린다.

『이제는 떠날 때』는 세월호의 비극을 매우 강한 주제의식으로 드러낸다. 이 극의 시간적 배경을 '2044년 봄'으로 정한 작가의 의도는 두 가지로 읽히는데, 하나는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사고는 3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제는 불행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떠나자는 것이다. 그

런데 그 미래지행이 로봇과 역사적 인물(장보고, 허균, 이순신, 세종대왕 등)의 등장으로 만화적 상황을 만들면서 묵직한 주제를 희화화한 측면이 있다.

『파김치』의 줄거리는 이렇다. 평소에 아내와 어머니를 흠대했던 3부자(三父子)가 아내(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제사상에 파김치를 올린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영정 사진을 보면서 3부자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항상 파김치가 돼 살았던 아내를 떠올린다. 만시지탄이지만 아내(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3부자는 뼈저린 후회와 자책을 한다.

이 희곡에서 먹는 파김치가 기표(記標)라면 파김치처럼 간난신고에 절여져 살았던 아내(어머니)의 인생은 기의(記意)라고 할 수 있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상관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절묘하게 묘파한 작품이다. 은상으로 추천한다.